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논문

북한 공동주거의 형성요인과 변화과정

- 모더니즘, 사회주의, 통치의 도시계획의 균형과 균열 -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과대학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전공

최 봄 이

북한 공동주거의 형성요인과 변화과정

- 모더니즘, 사회주의, 통치의 도시계획의 균형과 균열 -

지도교수 박 인 권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전공

최 봄 이

최봄이의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2월

위 원 장 조 경 진 (인)

부위원장 박 인 권 (인)

위 원 정 현 주 (인)

위 원 김 세 훈 (인)

위 원 장 경 석 (인)

국문초록

북한은 우리와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심리적으로는 가장 먼 국가임이 확인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심적 거리감을 좁혀보고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남한과의 유사성을 토대로 북한의 보편적 주거로 자리 잡은 공동주거를 통하여 낯선 국가의 도시를 이해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북한 사람들도 남한 사람들과 같이 대다수가 공동주거에 살고 있다. 특히, 평양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열명 중 아홉명이 공동주택에, 열명 중 여섯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는 서울보다도 더 높은 수치이다.

이에 북한 공동주거가 연구의 대상으로 조명되기에 충분하나 관련 연구는 부족하기만 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이론에만 근거하여 분석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북한 공동주거의 형성과 변화를 해석함에 있어 이론적 틀이 사회주의적 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장 보편적인 측면에서 '모더니즘 도시계획', 우리에겐 다소 특수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 측면에서 '사회주의 도시계획', 그리고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통치의 도시계획'의 성격이 결합된 모형을 통하여 북한의 공동주거를 들여다보았다. 각 이론의 구성요소들의 구조화된 관계를 통하여 세 가지 축의 힘이 균형을 이루거나 불균형 및 균열을 겪으며 북한 공동주거를 형성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관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전후 북한의 주요 도시들은 1970년대까지 급속한 도시화 현상을 겪었으며, 이는 중공업 우선 정책과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평양시의 경우, 현재까지도 다른 도시들에 비하여 가파른 인구 성장을 보이는데, 이 역시 1970년대 이후부터 추진된 경공업 병행 성장 정책의 결과임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급속한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후 북한은 소련과 동독의 모델을 바탕으로 한 저층 '외랑

식(편복도식)'의 표준주거유형을 구축하여 대량의 주거를 공급하였다. 이후, 1970년대부터 북한의 공동주거는 고층화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공동주거 단지의 블록 길이, 주동의 길이, 중심 가로폭의 측면에서도 수평적인 대형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후 초토화된 도시에서 진행된 복구사업과 산업 진흥으로 인한 인구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고층아파트 위주의 공동주거를 보급한 것은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당연한 귀결이라 평가할 수 있다. 기능 중심의 표준화된 주택을 지향한 르 꼬르뷔제 식의 모더니즘 계획은 이 시대 북한이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합한 해법이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남한에서 급속한 도시화에 대응하여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도 볼 수 있다.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북한 공동주거 계획의 핵심적 특성은 사회주의적 삶의 구현을 위해 일상공간을 집단화한 점이다. 북한 공동주거지는 사회주의 도시계획에서 주민의 집단공동생활을 조직하기 위하여 공간적인 기초단위로 상정한 소구역(마이크로 디스트릭트) 개념을 바탕으로 계획되었다. 이에 1950년대 후반부터 주택+공용시설(봉사시설)의 구조로 정식화되었으며, 공용시설로서 사상·교양시설, 배급시설, 공동 취사시설, 공동 생산시설 등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와 함께 공동생활의 운영을 위해 인민반, 여성동맹 등이 조직되어 공식적 실천 및 관계망을 형성·강화하며 주민들이 갖추어야 할 집단주의적 규범과 가치관을 학습하고 장려해왔다. 따라서 계획경제 하에 북한에서는 공동주거와 봉사시설이라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민반, 여성동맹이라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생활공간과 집단적 실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재)생산된 관계망이 형성과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통치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북한의 3대 체제는 당면한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편으로 대규모 공동주거 건설을 활용하여 통치합리성을 강화하였다. 김일성 체제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초토화된 도시 기능의 복구를 위하여 방대한 공동주거의 건설을 기치로 내걸었다. 설계의 표준화

및 규격화, 건설 방법의 조립화를 통하여 대량의 공동주거를 신속하게 공급하였던 점은 인민들의 주택수요에 대응하여 신생 김일성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다. 김정일 체제는 이전 시기의 양적 요구로 인한 단조롭고 획일화된 공동주거와 차별되는 독창성과 다양성을 부각하는 전략이 필요하였다. 특색있고 새로운 여러 가지의 형식의 공동주거를 만들어내고 시각적으로 부각한 점은 인민에게 후계자로서 본인을 각인시키고 통치자로서의 자질을 드러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고난의 행군을 겪은 인민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문명을 건설하고 이를 향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사회주의 문명국'을 표명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사회주의 조국을 문명국으로 이룩하겠다는 지도자의 비전은 도심의 경관을 전변시킬 수 있는 대규모 공동주거 건설의 효과에 힘입어 과시적이면서 화려한 상징경관을 연출하며 통치적 가독성을 높이고 있다.

종합하면, 계획경제 체제하에 북한의 공동주거는 지속적으로 마주한 도시화 문제에 대량공급으로 맞선 모더니즘 도시계획, 인민의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지도자의 자질을 부각하여 체제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준 통치의 도시계획, 그리고 사회주의적 삶을 구현하기 위하여 집단공동생활의 주거유형을 적극적으로 이식한 사회주의 도시계획 등 세 가지 도시계획 이념이 균형을 이루어 형성되고 발전돼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90년대 경제난은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힘을 현저히 약화시키며 균열을 촉발하였다. 이에 공동주거는 실천적, 관계망적, 물리적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배급제의 와해는 국가로부터의 공식적 실천과 관계망을 약화시켰고 이를 담아내던 공용시설들을 축소시키는 변화를 가져왔다. 반면 시장기제의 동력은 크게 증가하였다. 계획경제 체제하에 철저히 통제되었던 사유적 실천이 자생하여 시장의 운영을 공식화하는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사유적 관계망은 공동체적 관계망을 포섭하며 공식적 관계망을 압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 체제가 계획경제를 대체하여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로서 역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시장거래가 보다 자유화할 경우 관계망의 매개공간으로서 시장

공간의 역할은 증대될 것을 시사한다. 또한 국가의 주택 공급 의무는 여력이 감소한 상황에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소한 주택 공급력을 시장을 통해 메우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변화는 주택 공급의 주체를 다양화시키며 민간의 시장경제 체제로 힘의 중심이 나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평양시는 수도로서, 또 이를 넘어서는 상징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인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 체제의 '사회주의 문명국'의 기치 아래 고층화한 대규모의 공동주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할 것이다. 더욱이 사회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같은 층 세대수가 적은 타워형 공동주거는 사유적 실천을 보호해주는 역할로서 선호되어 이와 같은 초고층 공동주거 정책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사회주의의 약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모더니즘, 통치의 도시계획과 시장경제의 도시계획이 새로운 균형점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해 본다.

주요어 : 북한 공동주거, 모더니즘, 사회주의, 통치합리성, 시장화
학 번 : 2016-30274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4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용어의 사용 ····· 6

1. 연구의 범위 ····· 6

2. 연구의 방법 ····· 7

3. 용어의 사용 ····· 9

제 3 절 연구의 구성 ····· 11

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분석틀 ····· 14

제 1 절 모더니즘 도시계획 ····· 14

1. 산업화에 따른 도시문제와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태동 ····· 14

2. 주택의 표준화 및 합리화 ····· 15

3. 대량생산을 위한 집합주택의 제안 ····· 17

4. 프리캐스트콘크리트 패널 시스템의 도입 ····· 19

제 2 절 사회주의 도시계획 ····· 20

1. 사회주의 혁명과 도시공간의 재편 ····· 20

2. 사회주의 주택계획: 일상공간의 개조 ····· 23

3. 사회주의 도시계획 ····· 27

4.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와 실천 및 관계망의 변화 ····· 31

제 3 절 통치의 도시계획 ····· 34

1. 통치성 ····· 34

2. 공동주거 공급술 ····· 37

3. 공동주거 생활술 ····· 40

4. 공동주거 경관술 ····· 43
제 4 절 연구의 차별성과 분석의 틀 ····· 46
1. 선행연구의 검토 ····· 46
2. 연구의 차별성 ····· 52
3. 분석의 틀 ····· 53

제 3 장 모더니즘: 전후 도시화와 산업화의 지원 ···56
제 1 절 북한의 도시화 현상 ····· 56
1. 한국전쟁과 도시의 파괴 ····· 56
2. 전후 급속한 도시화 현상 ····· 58
3. 평양으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 ····· 60
제 2 절 북한의 산업정책 ····· 65
1. 전후 중공업 우선 정책 추진 ····· 65
2. 1970년대 이후 경공업 병행 성장 추진 ····· 66
3. 평양공업지구: 북한 최대의 공업지구 ····· 68
제 3 절 공동주거의 신속한 공급 ····· 72
1. 1970년대까지의 급속한 도시화에 대한 대응 ····· 72
2. 1980년대 평양의 지속적인 인구집중에 대한 대응 ····· 78
제 4 절 소결 ····· 86

제 4 장 사회주의: 집단적 공동생활의 조직화 ··· 89
제 1 절 북한 주택소구역 및 공용시설 ····· 89
1. 북한 주택소구역의 사회주의적 도시 공간적 특성 ····· 90
2. 주택소구역계획이 적용된 사례 ····· 96
3. 주택소구역의 최근 사례 ····· 99
제 2 절 사회주의 공동생활의 조직, 구조 및 역할 ···· 103
1. 북한의 생애주기적 집단·조직생활 ····· 103
2. 인민반과 여성동맹의 구조 및 역할 ····· 105

제 3 절 계획경제 하 공동생활의 공간적 실천 ····· 109
1.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자료의 구성 ····· 109
2. 봉사시설에서의 공간적 실천 ····· 112
제 4 절 소결 ····· 122

제 5 장 통치: 권위주의 체제의 통치합리성 강화 ··· 125
제 1 절 자료의 구성 ····· 125
1. 분석의 대상 ····· 125
2. 정권별 공동주거 관련 기사의 빈도 ····· 128
제 2 절 김일성 체제: 전후 신속한 주거공급을 통한 통치합리성의 강화 ····· 129
1. 김일성 시기 공동주거를 통한 지향점 ····· 129
2. 김일성 시기 로동신문 공동주거 관련 기사의 분석 ····· 130
3. 공동주거의 대량공급과 통치정당성의 확보 ····· 135
제 3 절 김정일 체제: 다양화한 상징경관을 통한 통치합리성의 강화 ····· 138
1. 김정일 시기 공동주거를 통한 지향점 ····· 138
2. 김정일 시기 로동신문 공동주거 관련 기사의 분석 ····· 141
3. 독창적이고 다양화한 공동주거 경관을 통한 통치정당성의 확보 ····· 146
제 4 절 김정은 체제: 사회주의 문명국의 상징경관을 통한 통치합리성의 강화 ····· 153
1. 김정은 시기 공동주거를 통한 지향점 ····· 153
2. 김정은 시기 로동신문 공동주거 관련 기사의 분석 ····· 156
3. 사회주의 문명국, 과학기술 중시 사상이 물질화된 공동주거를 통한 통치정당성의 확보 ····· 163
제 5 절 소결 ····· 170

제 6 장 도시계획 이념 간 균형의 약화와 균열 ···· 174
제 1 절 경제난 이후 공간적 실천 및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 174
1. 제도의 변화 ····· 174
2. 공식적 실천 및 관계망의 약화 ····· 178
3. 비공식적 실천 및 관계망의 강화 ····· 182
제 2 절 공동주거 공동체성의 변화 ····· 189
1. 공동주거 이웃의 정의 ····· 189
2. 공동체 정의의 변화 ····· 191
제 3 절 공동주거를 통한 통치 생활술의 강화 ····· 193
1. 집합적 생활양식: 친밀과 감시의 공존 ····· 193
2. '반동사항문화' 행위에 관한 통제의 강화 ····· 195
제 4 절 소결 ····· 200

제 7 장 결론 ····· 202
제 1 절 연구의 주요 발견 ····· 203
1. 모더니즘적 속성의 지속: 도시화와 공동주거의 공급 ·· 203
2. 사회주의 도시공간적 특성의 약화: 공식적 실천과 사유적 실천의 대립 ····· 203
3. 공동주거를 통한 통치합리성의 강화: '공급'에서 '경관'으로 ····· 204
4. 통치합리성 강화를 위한 모더니즘과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합주 ····· 205
제 2 절 연구의 함의 ····· 207
1. 모더니즘, 사회주의, 통치의 도시계획의 균형 ····· 208
2. 모더니즘, 사회주의, 통치의 도시계획의 균열 ····· 208

참고문헌 ····· 211
Abstract ····· 228

표 목 차

[표 1-1] 용어의 정의 ····· 9

[표 2-1] 사회주의 국영주택 임대료와 소득비율 ····· 21
[표 2-2] 스트로이콤의 표준 주호 ····· 24
[표 2-3]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일반적 원칙 ····· 27
[표 2-4] 단계식 문화생활 서비스 체계 ····· 29
[표 2-5] 계층별 주택 배정 기준과 구조 ····· 39
[표 2-6] 북한의 사회주의적 공식 규범 및 가치관 ····· 41
[표 2-7] 북한 공동주거 관련 연구 ····· 47
[표 2-8] 북한 도시계획 관련 연구 ····· 49
[표 2-9] 공동주거 및 주거양식의 의미 관련 연구 ····· 51

[표 3-1] 한국전쟁기간 평양시 중심지역의 건물파괴 현황 ···· 57
[표 3-2] 북한 행정구역상의 도시 ····· 58
[표 3-3] 북한의 인구 및 북한과 남한의 도시인구비율 ··· 59
[표 3-4] 북한 행정구역별 인구 및 평양 수도권의 인구 집중 ···· 61
[표 3-5] 북한 주요 도시의 인구 변화 ····· 62
[표 3-6] 북한 주요 도시의 인구 규모 및 밀도 ····· 63
[표 3-7] 남북한의 종주도시화 지수 변화 ····· 64
[표 3-8] 북한의 경제개발계획 ····· 65
[표 3-9] 북한의 공업투자 추이(1956년~1976년) ····· 67
[표 3-10] 북한 공업지구의 특화공업 ····· 68
[표 3-11] 북한의 산업·기업 관련 자료에서 언급된 기업체 수 ···· 69
[표 3-12] 평양에 위치한 주요 기업체(88개 업체) ····· 70
[표 3-13] 평양에 위치한 주요 기업체의 조업시작 현황 ····· 71

[표 3-14] 북한 도시의 재건과 동구 공산국의 지원 ····· 72
[표 3-15] 1952년 북한의 주택 표준설계 현상 모집요강 ····· 74
[표 3-16] 세대당 건설비용 비교 ····· 75
[표 3-17] 세대당 구조도식 비교 ····· 76
[표 3-18] 조립식 건설의 비중(%) ····· 77
[표 3-19] 대상별 부재 종류 수 ····· 77
[표 3-20] 남·북한의 시기별 아파트 층수 비교 ····· 80
[표 3-21] 청년거리와 광복거리 살림집 단지의 규모 비교 ····· 83
[표 3-22] 청년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 살림집 단지의 규모 ····· 84
[표 3-23] 통일거리 살림집의 평면 ····· 85

[표 4-1] 주요도시 내 소구역의 평균 규모 ····· 91
[표 4-2] 소구역의 생활단위 체계 ····· 92
[표 4-3] 단위세대 내 부엌 면적의 비율 변화 ····· 94
[표 4-4] 평양 대타령 제87호 소구역의 용지구성 ····· 97
[표 4-5] 인민반의 역할 및 주요업무 ····· 106
[표 4-6] 설문조사 참여자의 인적사항 ····· 109
[표 4-7] 설문조사 참여자의 북한 살림집의 일반적 사항 ····· 110
[표 4-8] 심층면담 참여자의 인적사항 ····· 111

[표 5-1] 정권별 연간 공동주거 기사 수 ····· 128
[표 5-2] 김일성 시기 공동주거 관련기사의 추출 주제와 단어 ····· 132
[표 5-3] 시기별 주택 건설계획 및 실적 ····· 135
[표 5-4] 건축예술론의 구성 ····· 140
[표 5-5] 김정일 시기 공동주거 관련기사의 추출 주제와 단어 ····· 145
[표 5-6] 광복거리 살림집의 평면 ····· 149
[표 5-7] 공동주거 현지지도 기사의 빈도 ····· 156

[표 5-8] 김정은 시기 공동주거 관련기사의 추출 주제와 단어 ···· 162

[표 6-1]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관한 북한 형법의 변화 ····· 177
[표 6-2] 배급시설의 존재 여부 ····· 179
[표 6-3] 사상·교양시설의 존재 여부 ····· 180
[표 6-4] 공식적 실천의 출석률 및 강제성의 정도 ····· 180
[표 6-5] 이웃의 범위 ····· 189
[표 6-6] 설문조사에서 각 관계에 해당하는 가구의 수에 관한 질문 ····· 190
[표 6-7]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 195
[표 6-8] 공동주거 주민들의 인식 변화 ····· 198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 6
[그림 1-2] 북한의 주택 유형 및 혜산 출신 탈북민이 그린 하모니카집의 모습 ····· 10
[그림 1-3] 연구의 구성 및 흐름 ····· 13

[그림 2-1] 르 꼬르뷔제의 돔-이노 시스템 및 마르세이유 유니테 다비따시옹 ····· 16
[그림 2-2] 300만을 위한 도시의 배치도 및 도심 전경 ····· 18
[그림 2-3] 300만을 위한 도시의 집합주택 ····· 18
[그림 2-4] 콘크리트 패널 생산 현장 및 콘크리트 패널로 시공한 뉴욕의 공동주택 ····· 19
[그림 2-5] 상트페테부르크의 코뮤날카 평면 ····· 22
[그림 2-6] A(좌) 및 E(우)유형이 적용된 공동주택 ····· 25
[그림 2-7] 모이세이 긴즈부르크(좌)와 르 꼬르뷔제(우) ··· 26
[그림 2-8] 모스크바의 주거지 계획 ····· 28
[그림 2-9] 1920년대 전형적인 공장식 부엌 ····· 30
[그림 2-10] 사회주의 도시 주거의 사회적 관계망 ····· 33
[그림 2-11] 통치의 도시계획 개념도 ····· 36
[그림 2-12] 세 가지 축의 개념도 ····· 53
[그림 2-13] 구성요소의 구조화 ····· 55

[그림 3-1] 한국전쟁에 출격한 미공군기 및 파괴된 평양시 중심거리 ····· 57
[그림 3-2] 북한 주요 도시의 인구 변화 ····· 62

[그림 3-3] 평양직할시의 행정구역 개편 ····· 64
[그림 3-4] 북한의 공업지구 ····· 68
[그림 3-5] 평양시 재건종합계획도 ····· 73
[그림 3-6] DAH에서 제시한 주택 계획안 ····· 75
[그림 3-7] 1958년과 1962년의 표준 살림집 평면 ····· 76
[그림 3-8] 평양 인구밀도의 변화 ····· 78
[그림 3-9] 북한의 주택 공급 현황 ····· 79
[그림 3-10] 광복거리 및 려명거리의 전경 ····· 80
[그림 3-11] 1980년대 북한의 대표적 살림집 지구 ····· 81
[그림 3-12] 광복거리와 통일거리 ····· 82
[그림 3-13] 통일거리 공동주거의 주동 형태 ····· 85

[그림 4-1] 도시 생활단위 체계도 및 주택구역 구성 ····· 90
[그림 4-2] 동평양 제17호, 18호 살림집 구획 ····· 96
[그림 4-3] 평양 대타령 제87호 소구역의 배치도 ····· 98
[그림 4-4] 남신의주 8호 구획의 생활단위 조직도 및 구획계획도 ···· 99
[그림 4-5] 남신의주 16호 구획의 생활단위 조직도 및 구획계획도 ·· 100
[그림 4-6] 상원 2호 구획계획도 ····· 101
[그림 4-7] 북한의 생애주기적 집단·조직생활 ····· 104
[그림 4-8] 인민반 및 여성동맹의 구조 ····· 106

[그림 5-1] 로동신문 2019년 12월 31일자, 1-6면 ····· 126
[그림 5-2] 내용에서 해외 또는 농촌임이 확인되는 기사들 ····· 127
[그림 5-3] 정권별 주요 거리를 제목에 포함한 로동신문
기사의 리스트 ····· 127
[그림 5-4] 김일성 시기 공동주거 기사 제목 단어의
빈도와 단어구름 ····· 130

[그림 5-5] 토픽 모델링 주제 개수의 선정 ····· 131
[그림 5-6] 김일성 시기 공동주거 관련기사의 추출 주제1
및 단어 ····· 133
[그림 5-7] 김일성 시기 공동주거 관련기사의 추출 주제2
및 단어 ····· 134
[그림 5-8] 김일성 시기의 공동주거 기사 ····· 136
[그림 5-9] 김일성 시기의 공동주거의 경관 ····· 137
[그림 5-10] 창광거리의 모형사판을 김일성에게 설명하는
김정일 ····· 138
[그림 5-11] 김정일 시기 공동주거 기사 제목 단어의
빈도 및 단어구름 ····· 141
[그림 5-12] 김정일 시기 공동주거 관련기사의 추출 주제1
및 단어 ····· 142
[그림 5-13] 김정일 시기 공동주거 관련기사의 추출 주제6
및 단어 ····· 143
[그림 5-14] 김정일 시기 공동주거 관련기사의 추출 주제3
및 단어 ····· 144
[그림 5-15] 김정일 시기의 경흥거리(좌) 및 문수거리의
공동주거 평면 ····· 146
[그림 5-16] 광복거리의 공동주거의 주동 형태 ····· 148
[그림 5-17] 김정일 시기의 주요 거리의 주동 배치 ····· 150
[그림 5-18] 창광거리의 모습 ····· 151
[그림 5-19] 광복거리의 전경 ····· 152
[그림 5-20] 김정은 집권시기 공동주거 현지지도의 기사들 ···· 156
[그림 5-21] 김정은 시기 공동주거 기사 제목 단어의
빈도와 단어구름 ····· 158
[그림 5-22] 김정일 시기 공동주거 관련기사의 추출 주제1

및 단어 ····· 159
[그림 5-23] 김정일 시기 공동주거 관련기사의 추출 주제2
및 단어 ····· 160
[그림 5-24] 김정일 시기 공동주거 관련기사의 추출 주제3
및 단어 ····· 161
[그림 5-25] 미래과학자거리의 전경 ····· 164
[그림 5-26] 미래과학자거리 건축물들 ····· 165
[그림 5-27] 미래과학자거리의 석경 ····· 165
[그림 5-28] 려명거리의 전경 ····· 166
[그림 5-29] 려명거리의 초고층 건축물군 ····· 167
[그림 5-30] 려명거리의 '록색'건축물들 ····· 168
[그림 5-31] 공화국의 70년사와 더불어 빛나는 려명거리 ····· 169

[그림 6-1] 중국 창바이현을 마주하고 있는 혜산시(좌) 및
혜산시장 ····· 185
[그림 6-2] 공동체적 관계망의 비공식적 성격 강화 ····· 201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남한과 북한은 분단 이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평양은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공동주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사하다. 북한의 도시지역의 경우,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82.0%(아파트 32.5%, 연립주택 49.5%)로 높게 나타나며, 특히 평양의 도시지역의 경우,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92.7%로서, 이중 아파트의 비율은 61.7%에 달한다(연립주택 31.0%, 북한중앙통계국, 2009: 230-236). 서울의 주택 유형 가운데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63.4%이며, 이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42.2%이니(연립주택 2.8%, 다세대 18.4%,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2021), 평양 도시지역에서 아파트의 비율이 얼마만큼 압도적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남한이 그래왔던 것처럼 북한 역시 한국전쟁 후 주택정책에서 공히 아파트 건설에 비중을 두어오고 있기에, 통일이 되더라도 아파트 공화국이 될 것 같다는 견해의 기사가 눈길을 끈다(송영승, 1993).

평양시의 경우, 전후복구시기부터 현재까지 주요 거리를 따라 아파트 지구가 들어섰다. 김일성 정권의 청년거리(1958), 천리마거리(1971), 락원거리(1975), 김정일 정권의 창광거리(2단계, 1985), 광복거리(1989), 통일거리(1993),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은하과학자거리(2013), 미래과학자거리(2015), 려명거리(2017) 등 우리에게도 귀에 익은 대표적 거리들의 주택지구 건설과 함께 평양의 주거유형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었고, 대량의 주택은 신속하게 공급되었다. 아파트, 즉 고층 집합주거를 등장시켰던 모더니즘 도시계획 본래의 목표를 따른 것이다.

한편,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초기였던 1950년대 후반의 공동주택의 경우, 다층화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구역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리화선, 1989: 113-114). 주택소구역 계획이라고 일컫는 이 시기 주거지 계획에서는 사회주의 원리, 즉 주민의 일상생활을 개조하고 사회주의 공동체적 삶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대안을 제시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사회 단위에서 지역 주민을 하나로 묶는 집합적 생활양식의 정착 방안으로 공동주택이라는 주거양식은 적극적으로 도입되었고(장세훈, 2005; 113-114), 이때부터 주거지 내에는 본격적으로 사상·교양시설, 공동 취사시설, 공동 생산시설 등의 공용시설이 계획되어 주민들 사이에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공적 관계망)이 장려되고 학습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계획경제 체제 아래 안정된 배급제를 기반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생산활동 참여, 식량, 생활필수품의 배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공부문이 장악하여 공적 관계망은 보다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사회적 관계망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의 상황은 어떠할까? 식량난·에너지난·원자재난·외화난 등 4대 경제난에 직면했던 북한은 주민 대상 식량 및 생활 필수품의 공급을 정상화 할 수 없었다(정은찬, 2021: 112). 공적 관계망의 전제가 되었던 배급제가 와해되었던 것이다. 주민들은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자립적 생존의 장인 장마당으로 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 관계망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공동주거의 주택+공용시설의 구조에 변화가 있지는 않은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의 특히, 려명거리 건설을 들여다보면, 북한 정권이 이토록 지속적으로 아파트 건설을 고집하는 이유에는 단지 도시 주택난의 해소나 사회주의적 원리만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려명거리는 2016년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가 본격화하던 2016년 3월 18일에 착공하여 1년여 만인 2017년 4월 13일에 완공하며 그 화려한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태양절을 앞두고(김일성 105돌 생일) 대거 초청한 외신 기자들에게 준공식 장면 취재를 허용하면서 대북제재의 무용성을 대외적으로 선전하며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한계레,

2019). 당 기관지에서는 “사회주의 문명이 응축되고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경제적 잠재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일떠선 려명거리의 웅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열화와도 같은 사랑이야말로 태양조선의 강대성의 근본원천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명명백백히 선언하고 있다.”고 선전한다(로동신문, 2017). 김정은 체제가 통치적인 목적에서 대규모 공동주거의 건설을 활용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의 북한 공동주거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북한 공동주거의 형성과 변화를 해석함에 있어 이론적 틀이 사회주의적 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장 보편적인 측면에서 ‘모더니즘 도시계획’, 우리에겐 다소 특수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 측면에서 ‘사회주의 도시계획’, 그리고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통치의 도시계획’의 성격이 결합된 모형을 통해 북한의 공동주거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북한에서 공동주거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무슨 이유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전후 북한의 주거공간은 국가와 당을 중심으로 하는 강한 공식적 관계망 아래 주택+공용시설의 구조화된 공동주거의 형태를 보였다. 그런데 1990년대 경제난 이후 국가의 공식적 동력이 약해지면서 고층화한 주택은 유지되고 있으나 공용시설은 축소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요인을 역사,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모더니즘, 사회주의, 통치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의 축의 힘이 때로는 균형을 이루고, 때로는 서로 대립하거나 불균형을 일으키면서 공동주거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북한의 도시화 현상은 산업정책과 연관을 보이는가'를 질문한다. 전후 북한 주요 도시의 도시화 양상을 살펴보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급속한 도시화 현상은 산업정책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한다. 특히, 1970년대 이후, 평양으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의 양상을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그 성장세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 평양공업지구 주요 기업들의 조업시작 현황을 통하여 산업정책과의 연관성을 규명한다. 다음으로 '대량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어떠한 표준 주거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표준 공동주거의 구조적 형태는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를 질문한다. 전후 주택의 표준 주거 모형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영향이 있었는지를 살펴본 후, 특히, 1970년대 이후 평양의 도시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직적, 수평적 대형화한 변화의 양상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표준화한 평면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사회주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공동주거의 공용시설은 어떠

한 것들이 계획되었나'를 질문한다.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초기에 주민들의 집단공동생활을 조직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주거지 계획, 즉 소구역(마이크로 디스트릭트, micro-district)의 일반적 원리들을 어떻게 북한 현지화하였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어떠한 공용시설들이 계획되었는지, 그 안에서 어떠한 공간적 실천들이 벌어지는지, 이를 통하여 어떠한 사회적 관계망(지역공동체성)이 형성되는지를 깊이 있게 조사·분석한다. 다음으로 '1990년대 경제난은 공용시설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질문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 공식적 관계망의 전제가 되었던 배급제라는 특수한 경제시스템이 와해하면서 주민들이 자립적 생존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공동주거의 공용시설 이용과 공간적 실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라 예상한다. 이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도 함께 분석해 보고자 한다.

셋째, 통치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는 '북한 정권은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동주거의 건설을 활용하였는가'를 질문한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은 통치의 합리성 즉,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거리를 따라 들어선 대규모의 공동주거 건설을 통하여 상징적 경관을 형성하였는지를 파악한다. 또한 김정일, 김정은 체제는 김일성 체제와 비교하여 이러한 통치적인 측면이 심화하였는지를 분석한다. 각 체제별 주요 거리의 공동주거 건설에서 당 기관지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지, 핵심 개념을 추출하여 강조되는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변화가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용어의 사용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북한 정권에 의해 주택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있다. 이는 전후 북한 공동주거의 형성에 작용된 요인들과 구조적 형태, 그리고 경제난의 영향이 미친 공동주거 물리적 구조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에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 공동주거의 최근 변화에 주목하여, 고난의 행군 전과 후, 즉 1970년대 후반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양상에 관한 분석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1)]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모더니즘 및 통치의 도시계획의 경우, 평양시로 한정하였다. 이는 북한의 도시계획 및 주택 구역, 소구역, 구획 계획에 대한 자료가 대도시, 특히 평양시를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음에 따른다.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배급제의 유지 여부에 따른 공동생활의 양상에서 평양시와 그 외 도시에서 큰 차이를 보이므로, 평양시 및 주요 도시(청진, 혜산, 함흥 등)로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1) 고난의 행군은 1990년대 북한의 체제 위기 상황을 말하며, 1994년부터 2002년까지로 파악됨(통일부 북한정보포털, 2022). 고난의 행군 전과 후는 김정일과 김정은 체제 기간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김정일 체제는 1974년 2월,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평양의 주거단지 계획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기에 1970년대 후반부터로 상정하였음.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문헌조사,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심층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문헌조사의 방법으로, 북한의 도시화, 산업화, 특히 둘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북한의 기업」, 「북한의 산업」, 「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 「조선향토대백과」, 「로동신문」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평양공업지구 주요 기업체의 조업시작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주택 구역, 소구역, 구획의 계획 원리, 체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선건축사」, 「주택 소구역 계획」 등의 북한 단행본과 주거지 계획의 최근 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년 4~6회 발행되는 북한 간행물「조선건축[2)]」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또한 관련 논문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참여한 아래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의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반구조화 심층면담 자료*를 활용하여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심층적인 해석을 하였다. 면담 자료는 설문 문항의 구조를 따라 개인적 특성, 거주하였던 북한 공동주거의 봉사시설 및 관련 활동, 이웃과의 상호작용의 흐름으로 조사·분석을 진행하였다.

> * 박인권, 최봄이, 최고운정(2022) 「통일을 대비한 북한의 주거환경 및 지역공동체 조사」의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자료(IRB No. 2108/001-014 접수번호 SNU 21-07-041)
>
> - 설문조사의 경우, 평양, 혜산, 청진, 함흥 등 주요 도시의 도시지역(구역)의 아파트나 하모니카집(단층 연립주택)에 거주했으며, 2000년 1월 1일 이후에 북한을 이탈한(당시 만 18세 이상) 100명을 대상으로 1:1 대면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3)]

2) 북한 간행지 조선건축은 1990년에 발간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 자료까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회도서관에서 열람이 가능함.

- 심층면담의 대상자는 설문조사 참여자 중 선정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다양한 연령대 및 지역의 대상자 7명(파일럿 3명 포함, 총 10명)을 선정 후 진행하였다.

또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하여 북한 당기관지 「로동신문」의 1953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거와 관련한 기사[4]의 출력물을 수집하였으며, 고해상도 스캔 및 구글 드라이브의 문자인식 기능을 통하여 데이터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계열적, 양적 분석을 통해 정권별 기사빈도와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각 정권별 주요 거리 관련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 출현한 단어를 추출하여 토픽 모델링을 통해 정권별 강조되는 주제를 추정하였다.

---

3) 설문조사 참여자는 먼저 서울 및 인천지역 하나센터에 공문을 통해 소수의 북한이탈주민을 소개받은 후, 이들 중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시작으로, 눈덩이 표집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였음. 또한 북한 이탈주민 온라인 커뮤니티 '우리온'(https://www.woorion.net/)에 모집문건을 게시하여, 총 100명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음.

4) 「로동신문」은 1945년 11월 1일에 창간한 일간지로서, 국내에선 2019년 12월 31일자까지의 자료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하여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함.

3. 용어의 사용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북한 용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본문에는 한국어 사용을 기본으로 하였다. 북한의 원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와 녹취록에는 북한어를 사용하였다. 본문에서도 4, 6장과 같이 심층면담의 자료를 인용하여 서술하는 경우에는 문장의 흐름에 적합하게 북한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북한어의 「조선말대사전」에 따른 정의는 <표 1-1>과 같다.

〈표 1-1〉 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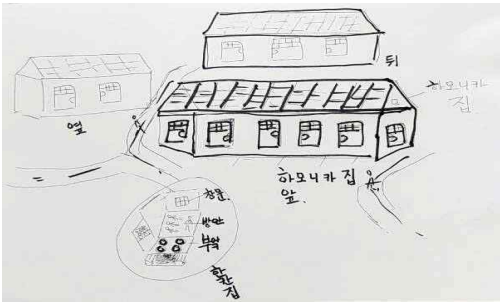
용어	내용
구역	큰 도시를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눈 《시》아래에 조직된 행정구역단위 또는 그 기관. 만경대~, ~인민위원회.
구획	거리길, 차길 등으로 경계를 이룬 도시와 마을의 일정한 부분. 사명에 따라 살림집구획, 공공건물구획, 공장구획 등으로 나눈다.
고난의 행군	20세기 90년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미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과 경제봉쇄, 혹심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조성되었던 엄혹한 경제적 난관을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맞받아 뚫고나간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을 이르는 말.
동맹	일정한 사회적 연합 또는 그 조직체. 청년~, 여성~, 농민~
봉사망	널려져있는 봉사기관과 봉사시설들의 연관체계
봉사망체계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위하여 봉사시설들이 통일적인 연관을 이루도록 한 것. 생활단위체계와 봉사시설의 특성, 봉사구역 주민수, 이용주기, 봉사반경, 건설 및 경영의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한다.
봉사반경	주민들이 봉사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정하는 거리.
봉사시설	봉사활동에 쓰이는 건물과 구조물. 봉사특성에 따라 상업봉사, 운수봉사, 체신봉사, 의료봉사, 편의봉사 등의 시설로 나눈다.
비사회주의	사회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것. 비사회주의가 조장되면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할 수 없으며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다.
선전실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하는 교양장소의 하나.
살림집	가정을 단위로 하여 사람들이 살림을 하는 집.
살림집구역	도시의 거주구역에서 몇 개의 살림집소구역과 공공건물지대, 거리, 광장, 공공이용녹지, 경공업공장 등으로 꾸려진 생활단위체계의 부분.

용어	내용
소학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체계에 속하는 5년 동안의 초등교육을 주는 학교. 소학교는 유치원 단계에서 학령 전 1년 동안의 의무교육을 마친 6살의 어린이들을 받아들인다.
아빠트(아파트)	apartment. 한 채 안에 여러 살림집들이 들 수 있게 지은 여러 층으로 된 큰 건물.
연구실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사상과 이론, 혁명활동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실.
인민	나라를 이루고 사회와 역사를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주체로 되는 사람들. 혁명의 대상을 제외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괄된다.
인민군	《조선인민군》의 준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규군을 이르는 말.
인민반	당과 국가의 정책을 관철하며 국가사회사업을 집행하고 생활을 알뜰히 꾸리기 위하여 일정한 수의 세대들을 묶어 조직한 국가, 사회생활의 기층조직의 하나. 모든 주민은 다 인민반에 망라되어 생활한다.
장마당	고정적으로 장이 서는 곳. (=장터)
태양절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 명절.
하모니카집	하모니카처럼 한 처마 밑에 여러 세대가 길게 나란히 늘어져 사는 집.
호상비판	동지들 사이에 서로 결함을 고쳐주기 위해 하는 비판.

자료: 사회과학출판사, 2017.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그림 1-2>와 같이, 하모니카집은 부엌 하나에 방 1~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이며, 많게는 30세대까지 한 동을 이루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2〉 북한의 주택 유형 및 혜산 출신 탈북민이 그린 하모니카집의 모습



자료: 김덕우, 2018. 「남북 탐구 생활 2: 여행과 문화」; 노정민, 2020.08.06. "북 극빈층 밀집 '하모니카 주택' 어떻길래?", 자유아시아방송.

제 3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과 흐름은 <그림 1-3>과 같다.

1장에서는 북한의 도시지역에서 공동주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평양시에서는 남한과 같이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아파트가 자리 잡았으나,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북한 공동주거의 형성요인과 변화과정을 해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구축하며,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가 학문적 논의에서 어느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먼저 1절에서는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이론을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도시문제의 대응으로서, 새로운 주거와 도시를 만드는 논의로 시작한다. 이후 근대 도시계획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주택의 단기간 대량생산을 위한 표준화 및 집합화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2절에서는 사회주의 도시계획에서 '사회주의적 삶'의 구현을 위한 주거지계획으로서 소구역(마이크로 디스트릭트, micro-district)의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고, 사회주의 공동생활과 사회적 관계망의 관계로 논의의 범위를 확장한다. 3절에서는 통치의 도시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푸코의 '통치성(Governmentality)'을 고찰하여 통치, 통치합리성, 통치술의 개념을 논의한다. 이후 통치합리성의 강화를 위한 공동주거의 공급술, 생활술, 경관술의 개념을 정립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고 3, 4, 5장을 위한 분석의 틀을 구축한다.

3장에서는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도시화 현상과 대량주택의 신속한 공급 과정을 분석한다. 우선 한국전쟁과 평양시의 파괴 현황을 살펴본다. 이후 북한 주요 도시들의 급속한 도시화 및 현재까지 평양으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산업정책과 연관하여 살펴본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평양 인구의 성장 요인으로 평양공업지구의 주요기업체 및 조업시작 현황을

살펴 둘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다음으로 전후 주택의 대량공급을 위하여 표준 주거모델을 구축한 과정과 이후 공동주거의 고층화 및 대형화한 특성을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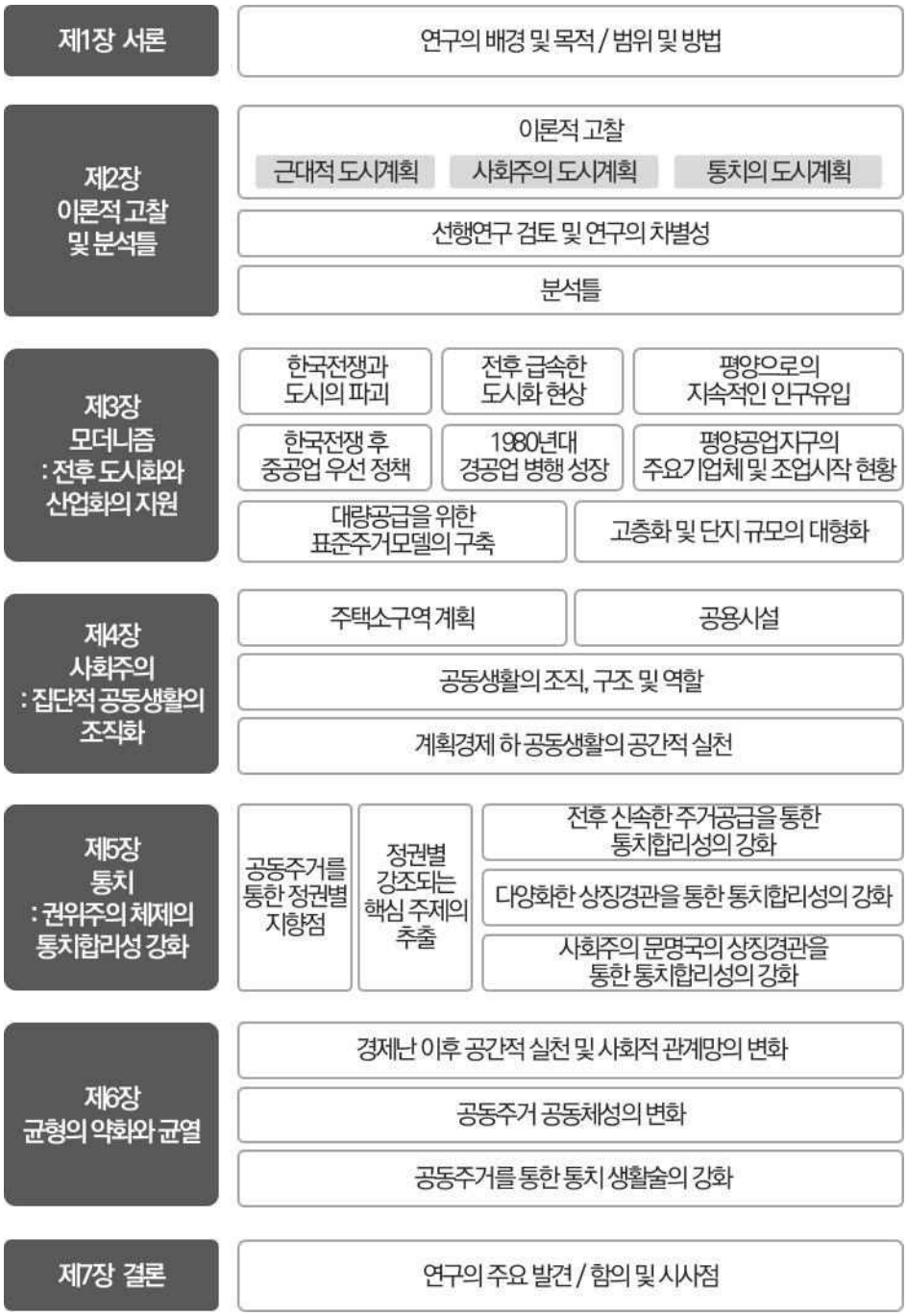
4장에서는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북한 공동주거의 공간적 실천 및 사회적 관계망을 분석한다. 우선 북한 주거지 계획의 특성을 사회주의적 삶의 구현을 위한 공용시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공동생활의 운영을 위해 주거지를 단위로 조직된 공식적 집단의 구조 및 역할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의 자료의 양적 및 질적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여, 계획경제 체제 아래 공용시설의 현황, 그 안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공간적 실천 및 사회적 관계망에 관하여 심도 있게 분석한다.

5장에서는 통치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공동주거를 통한 각 정권의 통치합리성의 강화 과정을 분석한다. 우선 각 정권별로 평양시 공동주거를 통해 지향하는 바를 주요 담론을 통해 살펴본다. 이후 「로동신문」의 공동주거 관련 기사들의 제목에 출현한 단어의 빈도분석 및 제목과 내용에 출현한 단어들의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하여 정권별로 강조되는 핵심 주제를 앞서 분석한 지향점과 연계하여 살펴보고 이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세 정권의 지향하는 바의 차이가 공동주거의 계획요소에 반영되어 평양시 공동주거의 경관에 변화를 가져온 점을 밝힌다.

6장에서는 균형의 약화와 균열의 관점에서, 경제난 이후, 북한 공동주거의 공간적 실천 및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를 분석한다. 앞서 기술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자료의 양적 및 질적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로부터 주민들의 적응, 대응, 전유 과정에 주목하여 공동의 실천 및 관계망의 변화에 관하여 심도있게 분석한다. 이후 공동주거의 공동체성에 관하여 논의를 확장한다. 시장 공식화의 변화에 따른 비·반사회주의적 행위 통제의 물리적 공간으로서 공동주거의 역할 또한 주목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발견을 종합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서술한다.

〈그림 1-3〉 연구의 구성 및 흐름



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분석틀

제 1 절 모더니즘 도시계획

1. 산업화에 따른 도시문제와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태동

18세기의 산업혁명은 도시의 급격한 인구증가 현상을 초래하였다. 런던 등의 공업도시 내 노동자들의 비위생적인 주거상태는 엥겔스의 초기 저작인 「영국노동계급의 상황(F. Engels,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 1845)」에 잘 드러나는데, 고밀도의 비좁고 오물 처리마저 어려운 주거지와 주택과 공장이 뒤섞인 도시의 모습에서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도시 주거에 관한 서구의 논의는 산업화로 인한 도시로의 인구 밀집, 그러나 이를 수용할 주택의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도시 주거 환경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주거와 도시를 만드는 논의로 발전하였다.

공업도시의 해악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는 양단의 형태를 띠었다. 전자는 도시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결함을 치유해간다는 접근으로서, 이는 근대 법제의 실질적인 토대가 되었다. 후자는 도시계획을 시작점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이 하자는 접근으로서 이론적 근거에 따라 도출된 커뮤니티의 형태가 기존의 도시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대 도시계획의 태동을 가져오게 된다(권용찬, 2013: 19; 송영섭, 1999: 9-19; Benevolo, 1996: 12).

후자의 움직임은 도시 위생개선 등과 같은 기술적 측면과 사회 불평등 제거와 같은 사회·정치적 목표의 구현을 동시에 꿈꾸었지만, 19세기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사회·정치적 목표는 배제된 체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며 발전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근대 도시계획은 기술적 측면이 강조된 새

로운 물리적 측면의 도시 형태를 찾아 나서게 되었으며, 이는 19세기 후반의 '파리대개조계획'과 20세기 초반 르 꼬르뷔제(Le Corbusier)의 도시계획 등으로 이어졌다(권태정, 2013: 285; 송영섭, 1999).

2. 주택의 표준화 및 합리화

근대 도시계획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급격한 도시화의 따른 주거의 양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표준화 및 단위화를 통한 산업화, 즉 대량생산과 연결되어야 했다(이준표, 2013: 47). 이를 위하여 19세기 말 유럽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단위 주거를 활용한 표준화의 개념이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논의되었다.

첫째는 도시 주거환경의 위생 개선을 위하여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단위 주거에 관한 논의였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점은 환기조건과 설비시설이었다. 한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공기의 용적을 산출하여 단위 주거 규모의 산정에 반영하였으며, 상하수도 및 난방 설비를 공용화하여 경제성을 획득하면서도 청결한 주호환경을 만드는 방법이 연구되었다(Plunz, Richard, 1990: 32-33). 이는 1894년 영국의 런던 건축법(London Building Act), 1901년 미국 뉴욕의 임대주택법(Tenement House Law)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Rowe, Peter G, 1993: 56).

둘째는 주택의 저비용 대량생산을 위한 논의였다. 1937년 파리회의에서는 근대운동의 산업화에 대한 취지가 잘 나타나는데, "새로운 주거의 건설이야말로 근대 사회문명의 특징을 결정적으로 규정하며, 근대 산업 그 자체의 프로그램으로 된다"고 표명하였다. 예컨대 1928년 프랑스 루셰르법(Loucher's Law)은 당시 노동성 장관의 이름을 따 제정되었으며, 저비용 주택을 대량생산하여 공급하는 계획을 위해 입법된 것이었다(르 꼬르뷔제, 2004: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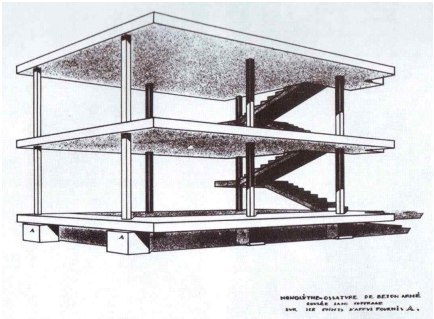
르 꼬르뷔제와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 등 당대 건축가들은 주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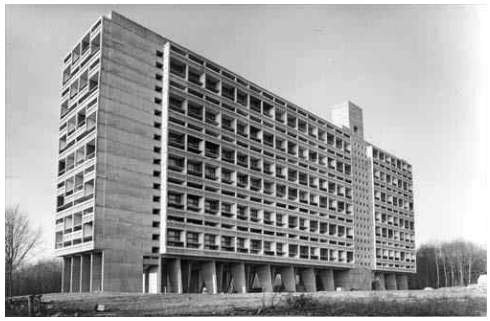
새롭게 발전해나갈 방향, 즉 근대건축의 발전 방향에 관하여 효율성을 위한 표준화(standardization) 및 합리화(rationalization)로 의견을 수렴하였다(Boudon, 1972: 29-30; Gropius, 1965: 25-29).

르 꼬르뷔제는 효율성에 관하여 프랑스어로 'taylorisation'을 사용하며 영국의 경영학자 테일러(Frederick W. Taylor)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의 원칙에 따른 테일러화(化)'를 바탕으로 노동 과정에서 시간 및 노력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일 것을 강조하였는데, 르 꼬르뷔제 역시 근대건축이 전근대건축에 비하여 비용, 면적, 공간의 측면에서 효율이 높아져야 함을 주장하였다(권용찬, 2013: 31; 르 꼬르뷔제, 2004: 153).

이에 르 꼬르뷔제는 <그림 2-1>과 같이, 대량생산이 가능한 표준화된 단위로서의 주택, 돔 이노(Dom-ino)시스템을 고안하게 된다. 이는 Domus(주택)와 Industry(산업)의 합성어로서 '산업화 시대의 집'이라 불리였는데, 기본 구조체, 내·외부 벽체, 설비를 규격화하여 공장을 통한 대량생산 및 현장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 개념이다(Christensen, Peter, 2008: 52; 이준표, 2013: 48-49).

〈그림 2-1〉 르 꼬르뷔제의 돔-이노 시스템 및 마르세이유 유니테 다비따시옹





자료: Christensen, Peter.,「MAISON DOM-INO」, Home Delivery: Fabricating the Modern Dwelling, 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2008, p.52(좌); Le Corbusier, 2012.「Oeuvre Complète」, Vol. 5, MGHBOOKS, p.196.(우).

이는 1928년 루셰르 주택단지(Maisons Loucheur: 노동성 루셰르장관의 '저비용주택법령모델'에 따른 계획안)를 거쳐, 고층아파트의 효시라고 평가되는 마르세이유 유니테 다비따시옹(Unité d'Habitation de Marseille)으로 현실화 되었다(이길임, 2015; 59).

3. 대량생산을 위한 집합주택의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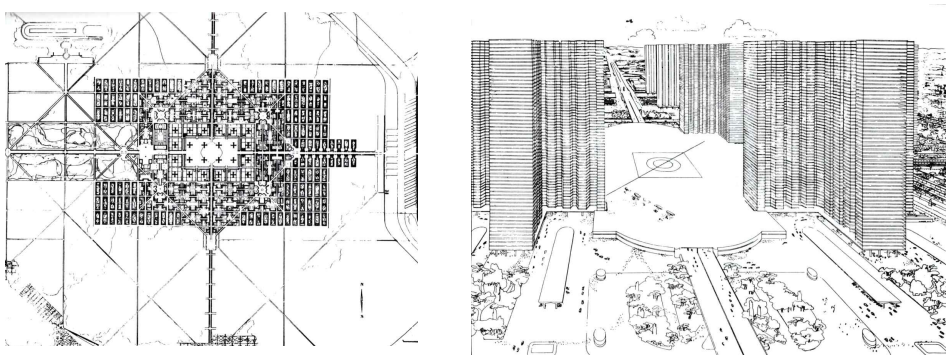
로버트 오웬(Robert Owen), 샤를르 푸리에(Charles Fourier), 쟝 밥띠스뜨 고뎅(Jean Baptiste Godin), 르 꼬르뷔제(Le-Corbusier) 등 19세기 서구의 지식인들은 도시 생활의 개선을 위하여 표준화된 '집합주택'이라는 공통적인 접근을 보여준다.

특히, 르 꼬르뷔제는 1차 대전 후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준화된 주택의 대량생산을 주장하였으며 근대 자본주의 도시의 과밀과 혼잡을 해소하고 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하는 현대사회에 적합한 도시계획을 제안하였다. 300만을 위한 도시(Contemporary City, 1922), 브와생 플랜(Plan Voisin, 1925), 빛나는 도시(Radiant city, 1933) 등의 고층 집합주택의 도시계획이 대표적이다.

<그림 2-2>와 같이, 그가 300만을 위한 도시에서 제시한 "녹지위의 고층주거(tower in the park)" 개념은 도시의 고층화를 통해 밀도를 높여 도심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의 소통을 향상시키며 녹지를 늘리면서 기능적으로 명백하게 분리된 공간구조를 갖는 이상적인 근대도시 형태였다(Fishman, 1982: 188-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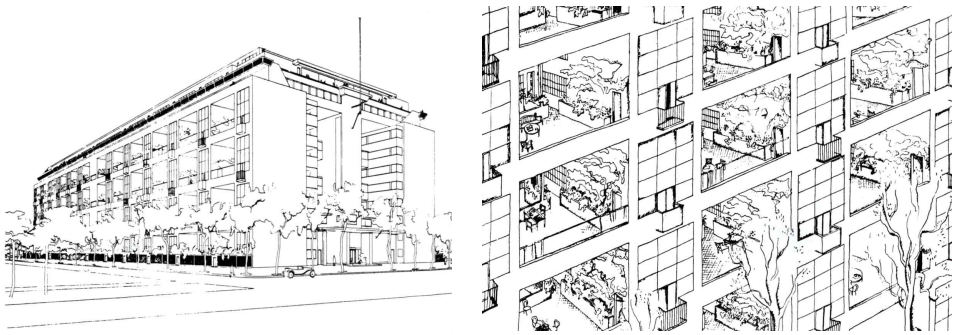
<그림 2-3>과 같이, 이 계획안에서 허니콤(honeycomb) 혹은 셀룰러(cellular)로 불린 블록형 집합주택은 5층 높이에 660세대, 약 3~4천 명의 거주자를 수용하는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단위 주거는 표준화된 셀(Cell)로서 연속된 블록 속에 적층되는 구조였다. 이와 같은 고층 집합주거의 모델은 반복을 통한 대량생산이라는 해법을 제시하며 당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모범답안이 되었다(Benevolo, 1996: 86).

〈그림 2-2〉 300만을 위한 도시의 배치도 및 도심 전경



자료: Fishman, Robert., 1982. *Urban Utopias in the Twentieth Century,* p.114-115.

〈그림 2-3〉 300만을 위한 도시의 집합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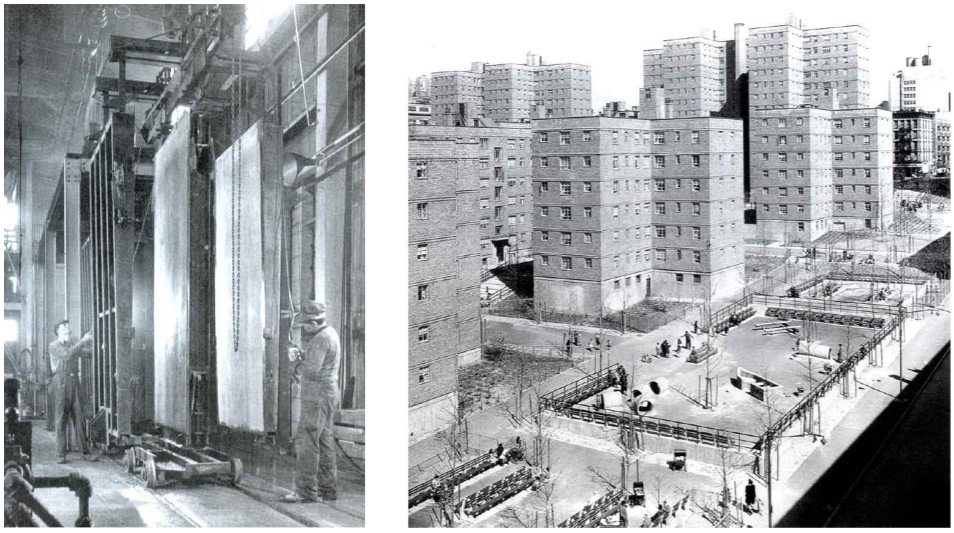
자료: Fishman, Robert., 1982. op. cit. p.114-115.

4. 프리캐스트콘크리트 패널 시스템(precast concrete panel system)의 도입

영국의 고드윈(George Godwin)은 새로운 건설 재료로서 콘크리트에 주목하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대한 연구의 초석을 다졌다. 이후 라셀레스(W. H. Lascelles)는 이를 통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애터베리(Grosvenor Atterbury)는 중공(中空, hollow) 콘크리트 패널 시스템을 고안하여 콘크리트 블록의 활용을 증가시켰다.

이 방식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량을 전제로, 콘크리트 블록을 공장에서 생산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대표적 예로 뉴욕 아파트먼트의 생산단가를 절감하여 서민층을 수용한 것을 들 수 있다(Pennoyer · Walker, 2009: 252-259).

〈그림 2-4〉 콘크리트 패널 생산 현장 및 콘크리트 패널로 시공한 뉴욕의 공동주택



자료: Pennoyer, Peter., Walker, Anne., 2009. 「The Architecture of Grosvenor Atterbury」, p.256, 258.

제 2 절 사회주의 도시계획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혁명에 기인한 과밀 도시주거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근대적 개념의 법적 규제 및 새로운 도시계획 이론이 다수 등장하였다. 당시 진보적 사상가와 사회개혁가들은 표준화된 집합주택이라는 공통적인 접근으로 막 태동하고 있던 자본주의 사회 및 도시의 해악을 바로 잡고자 하였다.

같은 시기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직후, 1917년 2월 혁명과 함께 수립된 소비에트 임시정부는 자본주의의 이해관계에 따른 만성적 주택부족, 인구밀집, 난개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자본주의 도시와 근본적으로 다른 도시 및 주택정책을 요구받게 된다. 사회주의 도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념 위에 세워졌지만, 대부분의 저술은 자본주의의 작동원리를 비판적으로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사회주의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은 온전히 러시아 혁명기를 살아갔던 당지도자와 이데올로그, 인텔리겐챠들의 몫이었다고 할 수 있다(김흥순, 2007: 27-28).

1. 사회주의 혁명과 도시공간의 재편

1)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른 소유체계와 생산 및 배분 정책

혁명 후 레닌이 가장 먼저 개혁을 단행한 부분은 주택의 열악성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 첫 단계로서 1917년 10월 28일 포고령으로 모든 토지를 국유화시키고, 같은 해 11월 6일에는 주택을 국유화시켰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은 중앙 집중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국가가 건설, 소유하고 무상으로 배분하는 것을 지향하였다(Matthews, 1981: 4-5)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유권은 '점유, 이용, 이윤추구, 상속'할 수 있는 권리인 것과 비교해 사회주의적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공동체에 있

으며 다만 이용할 권한은 개인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되기도 한다(Marcuse, 1996).

배분에 있어서, 수립 초기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주택의 차별화를 없애기 위해 위생적 기준을 토대로 인당 주거면적을 결정하여 주택을 재배정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를 통해 지역이나 계층에 따른 주택 차등이나 구분을 없애고 모든 주민에게 공평한 주택을 배분하고자 하였다. 1919년 7월 17일 포고령에 의해 소련은 지방정부에게 최저한의 바람직한 인당 주거면적 기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기준이 결정됨으로써 소련 정부가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킨다든가, 빈집에 강제 입주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김원, 1998: 101-107).

생산에 있어서는, 특정 시기에 국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산업부문, 즉 노동력이 많이 투여되어야 할 산업부문에 대해서 주택을 더 많이 할당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러시아의 경우 국영주택 중에서 국영기업이 배분하는 주택(Enterprise Housing)이 전체 주택 재고의 42%를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배분하는 주택(Municipal Housing: 전체 재고의 25%)보다 많다(Struyk, 1996: 195-196). 국영주택의 임대료는 생산원가의 원리가 아니라 지불가능한 수준에 따라 결정되었다. 대체로 월수입의 5% 내외에 머물렀는데, <표 2-1>과 같이 사회주의 붕괴 이전에 소비에트 국가들의 국영주택 임대료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찍부터 주택시장이 형성된 불가리아를 제외하고는 3% 이하에 그치고 있다(Sillince, 1990: 40-44).

〈표 2-1〉 사회주의 국영주택 임대료와 소득비율

국가명	연도	임대료와 소득 비율(RIR, %)	국가명	연도	임대료와 소득 비율(RIR, %)
러시아	1989	1.0	폴란드	1986	2.0
불가리아	1988	7.6	루마니아	1989	3.0
헝가리	1987	1.6	유고슬라비아	1988	2.8

자료: Renaud, B., "The Real Estate Economy and the Design of Russian Housing Reform", Urban Studies, Vol. 32, Nos. 8-9,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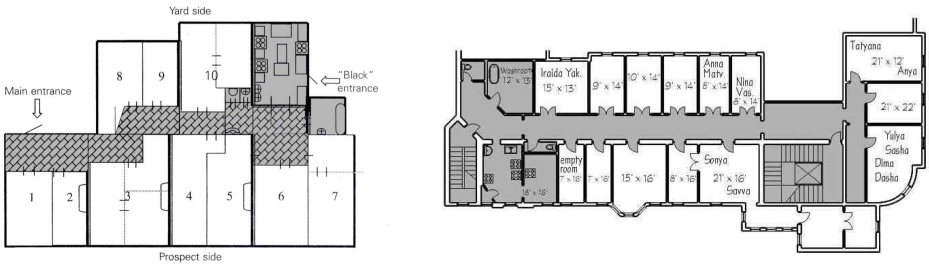
2) 주택의 재배정: 코뮤날카(Kommunalka)

소비에트 수립 초기, 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에 뒤이은 내전으로 사실상 주택부문에 여유를 돌릴 수 없었다. 때문에 비프롤레타리아 계층의 주택을 분할하여 노동자들에게 보급하는 방식으로 심각한 주택난을 완화하였다(김수현, 1997: 113-134).

1918년 봄에 레닌은 '가난한 사람들의 결핍 완화를 위한 부자 주택 몰수'의 계획안에서 "어떤 집이든지 간에, 방의 숫자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한 거주자의 머리 수와 같거나 초과하면 부자의 집이라 여겨진다. 주택의 부족은 유한계급의 호화 주택의 일부를 즉시 수취하여, 남은 부분을 강제입주라는 방법에 의해 완화할 수 있다."고 하며 공공선의 실현이라는 이념 아래 주택의 소유, 할당, 관리의 전체 시스템을 급격하게 재조직하였다(기계형, 2013: 472-473).

이러한 주택의 형태는 코뮤날카(Kommunalka)라 불리었는데, 이는 정부가 구체제 하의 귀족이나 부르주아의 저택을 몰수하여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세대원들에게 재분배한 주택으로, 당시 인민보건부의 주택면적 위생기준에 따라 일정면적을 부여하였다. 1919년에 당이 규정한 1인당 주거면적은 18평방 아르쉰(9㎡)이었다(Katerina, 2002: 211-214).

〈그림 2-5〉 상트페테부르크의 코뮤날카 평면



자료: Katerina Gerasimova, Public Privacy in the Soviet Communal Apartment, Oxford; Berg, 2002, p.213.

그림 <2-5>과 같이, 하나의 코뮤날카에는 보통 2~7세대가 함께 거주하였다. 그 내부는 사적 공간과 공용공간으로 나뉘었는데, 사적 공간은 한 세대가 이용하는 한 개의 개별실로 거실이나 침실로 쓰였고, 공용공간(그림에서 어두운 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부엌, 욕실, 화장실, 복도, 전화실 등이 있었다(Adele · Bruce, 2010: 615).

1930년대 초에 이르러 코뮤날카는 거주 방법에 대한 운영규칙과 위계적 권력시스템을 지닌 사회제도로 정착되며, 일반적 주거 유형으로 자리잡게 된다(기계형, 2011: 274).

2. 사회주의 주택계획: 일상공간의 개조

1) 사회적 응축기(Social Condenser)

신생 소비에트 사회에서 시급한 과제는 새롭게 구축된 사회주의에 적합하게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문제였다. 특히, 인간의 사적 공간인 주택을 사회주의 이념에 맞게 개조하는 문제가 정부 및 계획가들의 주요 담론이 되었다. '일상생활' 담론을 촉발한 레온 트로츠키(Leon Trotsky)는 사회주의로의 전환은 단지 국가가 위로부터 새롭고 사회적으로 계몽된 사고방식을 부과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일상생활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Leon, 1973).

1920~30년대 초에 제기되었던 다양한 사회주의적 주거 형태의 실험들 가운데, 구성주의 건축가들은 새로운 거주공간이 '일상생활'을 개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구성주의의 수장이었던 긴즈부르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사회적 응축기(Social Condenser)'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공간의 조직을 통해 사회 변혁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혁명을 완성한다는 개념으로 긴즈부르크가 1928년 발표한 「현대건축의 목표들(Aims in Contemporary Achitecture)」이라는 글에 최초로 등장하였다. 이 개념에 맞추어 지은 개별 건물들은 사회주의 사회의 진화를 나타내는 지표로도 쓰였다(기계형, 2013: 478; 지강

일·우동선, 2011: 236).

2) 사회적 응축기의 현실화: 돔 코뮤나(Dom-Kommu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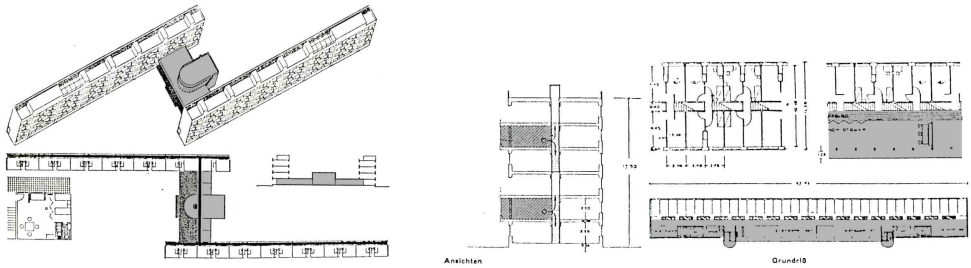
1927년 모스크바 현대건축전시회에는 사회주의적 생활방식에 적합한 주거 형태를 제안하는 8개의 아파트 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계획안들은 공통적으로 단위 주거에서 개인과 가족의 활동에 소요되는 공간을 줄이고, 당시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공동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나, 개별적인 주방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식사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공동주방, 식당을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적인 가족단위의 생활과 집단생활을 긴밀하게 연결함으로써 집단적 형식의 새로운 주거유형을 제시하였다(Anatole, 1993: 92-94).

이어 스탈린 집권 하인 1928년, 소비에트 정부는 소비에트 연방 건물위원회(Stroikom)를 설립하고 주거유형 연구분과를 구성하여 긴즈부르크를 포함한 구성주의 건축가들로 하여금 새로운 공동주택의 계획과 연구를 진행시켰다. 건축가들은 모스크바 현대건축전시회에서 제시된 주거 개념을 바탕으로 <표 2-2>와 같이, '집단적 삶의 건설'을 목표로 개인시설을 최소화하고 공동시설을 배치한 표준 주호 모델(A, E, F, K 등)의 계획안을 내놓았다.

〈표 2-2〉 스트로이콤의 표준주호

유형	내용
A	마주보는 2개의 주거동(각 4층)과 사이의 공동시설동(2층)으로 구성되며, 장방향의 내부 가로로 전체 시설이 연결됨. 2개의 개인실이 하나의 계단을 이용함. 총 규모는 112개실임.
E	주거기능과 공동시설을 포함한 1개의 장방향 복합동(6층)으로 구성됨. 3개 층의 거주자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과 내부 가로가 1개 층의 측면에 위치함. 2개의 개인실이 공동시설 층을 통과하는 하나의 계단을 이용함.
F	1개의 주거동과 공동시설동으로 구성되며, 내부 가로로 전체 시설이 연결됨. 듀플렉스 형식으로 10개의 개인실이 하나의 계단을 이용함. 구 부르주아지의 사회주의화를 목적으로 함.
K	구 부르주아지 계급의 점진적인 사회주의화를 목적으로 계획함. 4㎡의 부엌과 실내 칸막이로 최소한의 개인영역을 제공하는 것이 다른 유형들과 구별되는 특징임.

〈그림 2-6〉 A(좌) 및 E(우) 유형이 적용된 공동주택



자료: El Lissitizky, Eric Dluchosch trans., Russia: An Architecture for World Revolution, Cambridge; The MIT Press, 1984. p.38-39.

각 주호 모델은 대지의 특성과 규모에 맞추어 집합되었고 건물군으로 건설이 가능했다. 건물군에는 공통적으로 공동시설이 개별 동이나 건물 안에 계획되었으며(<그림 2-6>에서 어두운 색으로 표현한 부분), 식당, 화장실, 어린이 보육시설, 집회실, 여가실, 독서실 등의 기능을 두었다(El Lissitizky, 1984: 35-42).

3) 긴즈부르크(Moisei Ginzburg)와 르 꼬르뷔제(Le Corbusier)의 접점

긴즈부르크는 밀라노 예술아카데미에서 건축학 학위(1914)와 모스크바 리가 공예전문대학에서 공학학위(1917)를 받은 후, 1921년부터 모스크바 기술대학에 이어 러시아 국립기술대학에 재직하게 된다. 그러던 중 1925년 12월, 구성주의 건축가들로 구성된 '현대건축가동맹(OCA)'을 창설하여 새로운 사회주의적 삶의 방식과 일상생활을 구체화하는 건축계획에 몰두하게 되었다(기계형, 2013: 198).

소비에트 체제의 10주년이 되는 1927년은 현대건축사에서 매우 경이로운 해에 속한다. 제네바에서는 국제연맹본부 신축을 위한 경쟁부문 설계대회(League of Nations Competition in Geneva)가 열렸고, 독일 스투트가르트에서는 예술가, 건축가, 설계사, 산업가 등의 기구인 독일장인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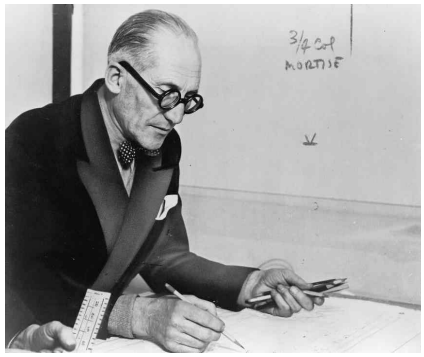
(The Deutscher Werkbund)의 비센도르프 전시회(Wissendorf Siedlung Exibition in Stuttgart)가 개최되어 '근대건축'에 대한 열기가 강하게 타올랐던 해였다(http://en.wikipedia.org/wiki/Congr%C3%A8s_ International _d'Architecture_Moderne).

모스크바에서도 러시아혁명 10주년에 맞추어 대규모 국제전시회가 열렸다. 이를 긴즈부르크가 이끄는 현대건축가동맹이 준비하여, 1927년 6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긴즈부르크가 재직하는 러시아 국립기술대학에서 개최하였다. 이 전시회에는 르 꼬르뷔제를 포함해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 등 수많은 유럽 건축가들이 참가하였다(K. Paul Zygas, 1992: 104-105).

전시회 이후, 구성주의 건축가들이 제출한 주거계획에서는 사회적 원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기 시작하였으며(기계형, 2013: 208), 긴즈부르크는 르 꼬르뷔제의 개념을 원용하여 주택 또는 주거지가 생활방식을 변형시키는 '기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Framptpon, 2002).

제2차대전 후, 르 꼬르뷔제의 설계에 의해 프랑스 마르세이유에 세워진 유니떼다비따시옹(Unite d'Habitation) 역시 사회주의 도시 원리에 기반한 것이며, 러시아 도시주의자들과 르 꼬르뷔제는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Hall, 1988).

〈그림 2-7〉 모이세이 긴즈부르크(좌)와 르 꼬르뷔제(우)



자료: www.ancnews.kr(좌), m.post.naver.com(우).

3. 사회주의 도시계획

1)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이념과 원리

소비에트 도시계획의 이념은 1935년과 1971년 두 차례에 걸친 모스크바 종합계획(Central Plan of Moscow)과 1944년의 도시계획법(Code of Basic Principles in City Planning)에 잘 나타나 있다.

도시계획의 3대 목표는 도시규모의 성장억제, 자족적이고 균형있는 커뮤니티의 형성, 도농간 격차 해소로 요약할 수 있다(Paul, 1980: 216-217). 도농간 격차 해소는 1848년 공산당선언에 명시된 이후로 가장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계획목표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이념인 사회적 계급구조의 타파를 통한 동질적인 노동자 사회의 건설이라는 명제가 공간적으로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시규모의 성장억제는 다른 두 가지 계획목표, 즉, 자족적이고 균형있는 커뮤니티의 형성, 도농간 격차해소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주의혁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대도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있어서 부적합하며 기반시설 조성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도시의 규모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Gary, 1984: 243).

〈표 2-3〉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일반적 원칙

James H. Bater(1980)	주종원 · 김현수(1993)
1. 도시규모의 제한 2. 정부의 주택통제 3. 계획적 주거지 개발 4. 집단소비서비스시설의 공간적 균등배치 5. 직주근접 6. 엄격한 토지이용계획 7. 합리적인 교통처리 8. 충분한 녹지확보 9. 중심지의 도시 상징성 10. 전국계획과의 통합유지	1. 상이한 토지이용 간의 분리: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공업과 주거의 철저한 분리 2. 도시공간의 계층구조: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의 기초단위로 소구역(마이크로 디스트릭트, micro-district) 설정 3. 직주근접의 원칙과 공간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시설의 균등배치 4. 도심부는 이념적 학습의 장소로서 상업, 업무시설 대신 공공시설과 기념광장 등으로 구성

자료: James H. Bater, 1980. The Soviet City, Sage, Beverly Hills. p. 27-30; 주종원 · 김현수, 1993. "북한의 주거지 계획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28(3): 17-31.

1935년 모스크바 계획에 기초하여, James(1980), 주종원 외(1993)의 연구에서는 <표 2-3>과 같이,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일반적 원칙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주요 원칙들은 사회주의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쳐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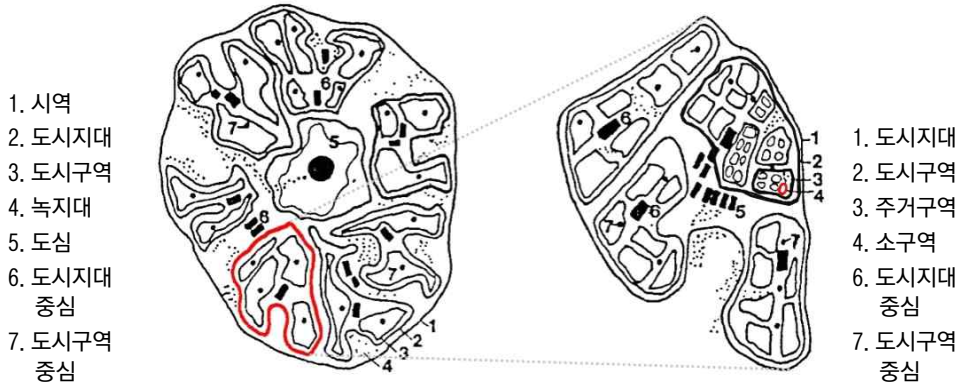
2) 사회주의 도시의 주거지 계획: 소구역(마이크로 디스트릭트, micro-district)의 일반적 원칙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공동생활을 사회생활의 기본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민의 집단공동생활(communal life)을 조직하기 위한 공간적인 기초단위로 상정한 것이 소구역의 개념이다(최병선, 1989: 13).

(1) 도시 공간의 계층구조 형성

소구역의 규모는 30~50ha로서 10,000~12,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서비스시설의 반경은 약 150~200m이다.

〈그림 2-8〉 모스크바의 주거지 계획



자료: 주종원 · 김현수, 1993. "북한의 주거지 계획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28(3), p.17-31.

소구역이 기초단위가 되어, 몇 개가 모여 주거구역(residential district,

인구 30,000～50,000명, 1,000～1,200m의 서비스반경), 도시구역(urban district, 인구 100,000～300,000명의 규모), 도시지대(urban zone, 인구 800,000～1,000,000명)를 이루는 계층구조를 형성한다(최병선, 1989: 13).

(2) 집단 소비·서비스시설의 공간적 균등배치

소구역 내 서비스시설은 어떠한 차별 없이 모두 일정한 접근성을 갖게 하여 동등한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단계식 문화생활 서비스 체계'라고 불리며 용도 및 방문 빈도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N. V. Baranov, 1969: 214).

〈표 2-4〉 단계식 문화생활 서비스 체계

구분	내용
1단계	- 탁아소, 유치원, 학교, 소운동장, 생필품 가게, 식당 등 매일 이용하는 시설 - 각 주택들과 최대한 가깝게 배치되어 도보로 이용 가능하게 계획함. - 소구역 내부에 위치시켜서 300~400m정도의 이용 반경 안에서 인구 6,000~12,000명 정도가 같은 시설을 이용하도록 했음.
2단계	- 영화관, 종합진료소, 문화회관 등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 - 주택지의 중심지로서 도보로 접근 가능한 곳에 위치시키며 1,000~1,200m 정도의 좀 더 넓은 이용 반경을 갖도록 계획함. - 기본 단위인 소구역이 여러 개 모였을 때 생기는 레지덴셜 디스트릭트가 수용하는 인구인 25,000~45,000명 정도가 이것을 이용함.
3단계	- 행정청사 대형극장, 박물관, 쇼핑센터 등 - 전체 도시인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들은 도시 중심에 위치시켰으며 대중교통에 의해 접근하도록 함.
4단계	- 도시 전체 인구를 위한 여가시설들은 도시 주변부에 위치시킴.

자료: N. V. Baranov, 1969. *Planning of Metropolitan Areas and New Towns*, United Nations, p.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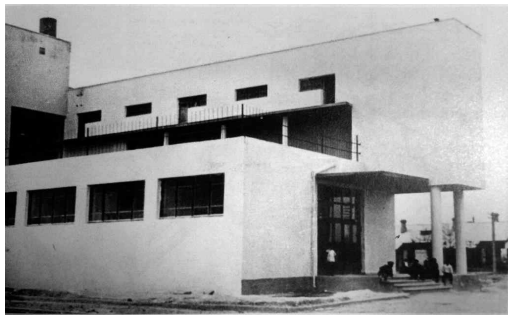
(3) 일상공간의 공용화를 통한 '사회주의적 삶'의 구현

소비에트 혁명세력들은 '사회주의적 삶의 방식'을 정의하는데 '소시민적인 삶'이라고 불리우는 생활을 비판하는 입장에 기초하였다. 소시민적 삶이란 편협하고 개인주의적이며 자신의 일 이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삶을 칭하였다.

반면에 혁명세력들이 제시한 '사회주의적 삶'은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기초한 사회였다. 개방된 사회 속에서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국가경영에 참여하고 생산은 노동자들에 의해 운영되며, 전통적인 가족을 소멸시키고 공동체에 바탕을 둔 새로운 가족관계가 창출된 사회였다.

주목할 점은 새로운 가족관계는 사회주의 주택계획에 있어 '일상생활' 담론과 함께 중요하게 논의되었다는 점이다. 주거는 새로운 가족관계를 위한 건조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전통적인 가족의 일상생활의 일부분이었던 몇몇 기능들을 집단화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Anatole, 1993: 53).

대표적으로 취사 및 식사기능의 집단화는, 예를 들어 취사는 순번에 따라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진 팀에 의하여 준비되며, 식사는 모두 함께하게 하였다. 이는 단지 편의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고 영향을 주고받게 하려는, 즉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을 구현하려는 기본 목적이 바탕에 있었다. 이런 이유로 몇몇 공동체에서는 항상 같은 식탁에 앉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공장식 부엌(<그림 2-9>)은 이러한 목적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작업장으로 배달하거나, 부엌과 결합된 구내 공공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Anatole, 1993: 58, 135).



〈그림 2-9〉 1920년대 전형적인 공장식 부엌
자료: Anatole Kopp저, 1993. 「소비에트건축: 1923-1937」, 건축운동연구회 역, p.135.

4.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와 실천 및 관계망의 변화

1990년대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해체, 김일성 사망, 자연재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내외적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을 맞는다. 이는 계획경제의 파탄과 식량 배급제의 와해에 따른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노정하였다(최봉대·구갑우, 2005: 72). 계획경제 하에 배급제는 사회 구성원들의 식량 및 생활필수품 등의 공급과 배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공부문이 장악하여 국가가 개인에게 공적 실천과 관계망을 강제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장세훈, 2005:.109).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 위기 상황에서 배급제의 와해는 국가, 즉, 위로부터의 공적 실천과 관계망이 약화하는 결과를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 실천 및 관계망의 반대편에 있는 비공식적 실천 및 관계망, 즉, 아래로부터 주민들 스스로의 적응, 대응, 전유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생활공간의 공간적 실천

최병두(2002)는 기든스(Giddens, 1981)와 하버마스(Habermas, 1984)의 논의를 바탕으로 생활공간과 실천적 공간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생활공간(life-space)은 일상적 생활이 영위되는 사회·문화적 공간으로, 언어와 생활규범에 의해 매개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재)생산되는 공간을 말한다. 실천적 공간(practical space)은 (상호)행위 차원의 공간으로, 사람들 간의 대면적 관계와 상호행위 과정에서 형성되는 공간을 지칭한다(최병두, 2002: 259-260).

도시공간 분석의 필요성을 이론적, 실천적 차원으로서 끌어올린 연구자로서 프랑스의 사회학자이며 철학자인 앙리 르페브르(Henri Lefébvre)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홍준기, 2011: 164). 르페브르는 「일상생활 비판」(1961)에서 사회적 공간은 "주관적으로는 집단과 개인이 존재하며 살아가는 환경을 의미하고, 객관적으로는 관계망과 줄기로 이루어진 하나의 외피로 구성된다(Lefebvre, 1961: 233)."고 표현하고 있다.「공간의 생산」(1974)에서는 "(사회적)공간은 (사회적)생산물이다(Lefévbre, 1988. 71)."

라는 명제을 통하여 공간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였다. 또한 공간과 실천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공간을 생산”한다는 것은 “교육, 행정, 정치, 군사 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 보편적인 사회적 실천을 형성하는 것(Lefévbre, 1988: 314-315).”으로 정의하여 공간적 실천은 공간을 생산하는 사회적 과정의 총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2)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근대화 과정에서 공동체의 해체와 근대적 시민사회의 형성에 관한 고전사회학자들의 논의에서 그 원류를 찾아볼 수 있다. 퇴니스(Tönnies, 1955), 뒤르켐(Durkheim, 1977), 맥키버(McIver, 1917) 등의 고전사회학자들은 지역사회를 단위로 일상생활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양식(지역공동체, local community)이 근대화 과정에서 해체되면서, 공동체 중심의 전근대적 관계망이 개인주의적인 근대적 관계망으로 대체되었다고 진단하였다(장세훈, 2005: 105).

고전사회학에서의 사회적 관계망은 국가, (시민)사회, 지역사회를 일체로 파악하고, 이와 개인 간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근대 국민국가의 등장 이래, 국가는 개인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역사회 단위로 새로운 관계망을 복원하거나 해체하기를 가속하기도 하였으며, 시민들도 이에 대응하여 지역 차원의 공동체적 관계망을 재구성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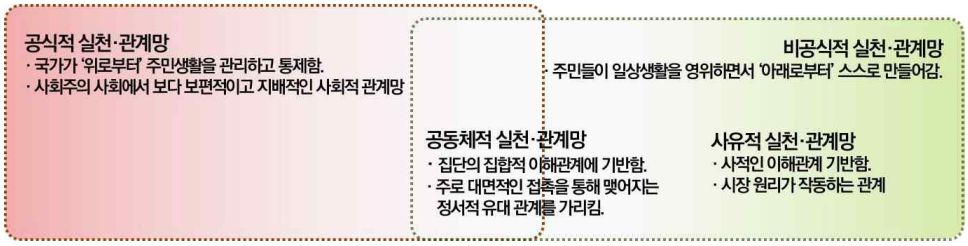
이러한 점에서 국가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위로부터’ 주민의 생활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드는 ‘공식적 관계망’과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아래로부터’ 스스로 만들어가는 ‘비공식적 관계망’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사회주의적 삶’의 구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일상생활 및 가족관계의 개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인위적으로 공식적 관계망의 건설에 힘을 실어 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전사회학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논의의 아쉬운 점은, 고전사회학에서는 근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개인

의 사익을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구성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관계망 형성 과정에 주목한 나머지, 사회주의 사회가 전체 사회의 공익을 앞세워 개인의 사익을 억누르며 당·국가 기구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틀 지우는 과정에 무관심했다는 것이다(장세훈, 2005: 106).

사회주의 국가의 관계망을 논의하기 위하여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체제의 위기 상황에서 공식적·비공식적 관계망의 변화이다. 박현선(2003: 41-64)은 사회주의 위기 과정에서의 사회적 관계망을 분석하여 공적, 사적 관계망으로 유형화하였다. 장세훈(2005: 106)은 사적 관계망에 전근대적 형태와 근대적 형태가 착종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공동체적, 사적, 공적 관계망으로 유형화하여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림 <2-10>과 같이, 북한 공동주거의 사회적 실천 및 관계망을 공식적, 비공식적(공동체적, 사유적) 실천 및 관계망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먼저 공식적 관계망은 국가가 위로부터 주민생활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조직한 것으로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보다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관계망이 된다. 이의 반대편에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아래로부터 스스로 만들어가는 비공식적 관계망이 대치한다. 공동체적 관계망은 공식적/비공식적 관계망이 중첩되는 부분에 위치한다. 이는 집단의 집합적 이해관계에 기반해서 주로 대면적인 접촉을 통해 맺어지는 정서적 유대 관계를 가리킨다. 사회주의 위기 상황에서 태생한 사유적 관계망은 사적인 이해관계에 기반하며,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그림 2-10〉 사회주의 도시 주거의 사회적 관계망



제 3 절 통치의 도시계획

프랑스 후기구조주의 철학자 푸코는 파리의 콜레주드프랑스에서의 1978년 강의 「안전, 영토, 인구」와 1979년 강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통해 '권력의 기술' 및 '정치적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서양 통치성의 계보사를 그려 내고 있다. 특히 '통치'라는 테마는 푸코의 후기 철학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한다(고든 외, 2014: 13-15).

푸코는 통치성에 대해 근대국가의 탄생과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18세기에 들어 전체 인구(국민)의 부와 수명, 건강 등이 중요한 통치의 대상이 되었고, 근대국가가 통치의 주체로 등장해 정치경제학의 지식과 정교한 통계와 행정, 내치(police), 외교·군사 체계 등을 통치술로 활용하면서 통치성이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푸코, 2011: 18-19).

1. 통치성

1) 푸코의 '통치성(Governmentality)'

'통치성'은 모든 통치행위의 이면에 작동하고 있는 합리성과 국가 운영에 관련한 지식을 포괄하는 푸코의 신조어이다(신충식, 2010: 2). 푸코가 말하는 권력은 사물(thing)이나 실체라기보다 관계적-절차적인 성격을 갖는다. 권력은 어떤 역할, 기능, 주제를 갖는 메커니즘과 절차의 총체로서, 모든 관계들에 내재한다(푸코, 2011: 18-19).

통치성에 대한 푸코의 학문적 관심은 '권력'으로부터 '통치'로 이행하게 된다. 즉 '규율'이라는 이름으로 개별적인 인간의 실천문제에 행사되는 '미시적권력'으로부터 전 '인구(population)'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통치행위인 '생명권력'으로 이어진 것이다.

2) '통치'의 의미

푸코는 '통치'라는 용어를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이해했다.[5)]

넓은 의미의 통치는 푸코가 준용하고 있는 동사 'conduire(conduct)'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품행의 인도(conduire des conduites)'라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즉 통치는 사람들 일부나 전체의 품행을 형성·지도하거나 그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활동의 형태이다(고든 외, 2014: 15; 신충식, 2010: 151). 이 개념은 통치자가 실제로 지배하는 특정한 방식을 넘어서, "아이들, 영혼, 공동체, 가족, 병자들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정치적인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영역에서 행위의 방식을 인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Foucault, 1982: 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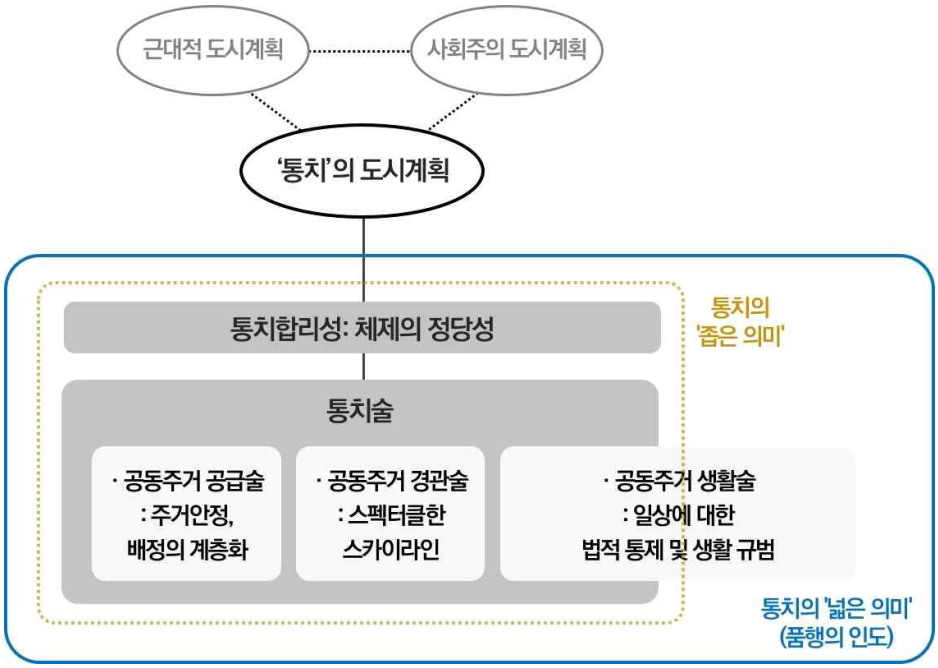
좁은 의미의 통치는 '통치합리성'과 '통치술'로 구성된다(고든 외, 2014: 16; 푸코, 2011: 131-191). '통치합리성'은 "통치실천의 성질에 관한 사유방식 혹은 사유체계"를 의미하는데, 이는 통치자와 피통치자 양쪽 모두가 인식할 수 있으며, (피)통치를 (실천)실행할 수 있는 활동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푸코는 특별히 통치합리성에 관한 강의들에서 정치 영역에서의 통치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 개념을 통해 서유럽 비롯한 근대국가들의 자유주의(liberalism)의 합리성을 기술하고자 하였다(신충식, 2010: 151).

'통치술'에 대해 푸코는 "통치라는 실천의 개념화가 시도된 방식", "숙고된 최선의 통치방식"으로 설명하였다. 즉 통치술은 통치활동을 구성하는 그 실행의 방법 또는 방식을 의미한다(푸코, 2012: 19-51; 고든 외, 2014: 16). 푸코는 서구의 역사에서 국가의 통치화라는 근본적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중세 기독교적 사목제도, 근대초기의 외교-군사적 기술, 17-18세기의 내치(Police, 국정관리)라는 통치술에 의해서였음을 언급하였다(푸코, 2011: 165).

---

5) 이러한 통치 개념의 구분은 푸코의 논의를 기초로 한 고든(2014), Huxley(2007), 신충식(2010)에 의거함.

〈그림 2-11〉 통치의 도시계획 개념도



통치의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를 통하여 '통치의 도시계획'의 개념을 도식화하면 <그림 2-11>과 같다. 체제의 정당성이라는 통지합리성 아래 통치술로서 공동주거의 공급술, 경관술, 생활술로 구성을 해볼 수 있다. 공동주거의 공급술은 주거안정, 주거배정의 계층화를 통한 통치합리성 강화로서 설명된다. 경관술은 웅장하고 화려한 상징경관의 조성을 통한 통치합리성의 강화 양상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생활술의 경우, 안쪽의 좁은 의미의 통치에 해당하는 것이 법적통제와 같은 공식적 재제를 의미하며, 바깥쪽의 넓은 의미의 통치에 해당하는 것이 '품행의 인도', 즉 생활규범을 의미한다.

2. 공동주거 공급술

1) 공동주거 공급술과 '주택 정치'

'통치술'에 대해 푸코는 "통치라는 실천의 개념화가 시도된 방식", "숙고된 최선의 통치방식"으로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통치술은 통치활동의 구체적인 실행의 방법 또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치술은 "사회적 자원의 권위적 배분(the 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for a society"이라고 정의내린 이스톤(D. Easton)의 정치(Polotics)의 의미와 맥을 같이한다(Easton, 1953). 사회적 자원은 물질적 자원으로서 부, 재화, 자연자원 등이 해당되며, 주거 역시 사회적 자원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회적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그 배분 결정에 모든 사람들이 구속된다는 의미가 된다(이병화, 1995).

국가의 주요 정치집단인 정당이나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주택문제는 중요한 정치적 이슈일 수밖에 없다. '주택정치(housing politics)란 국가의 중요한 통치권자들이 해당 국가의 주택문제 해결을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쟁점 현상으로 이해하고 대안모색과 논의과정을 거쳐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현상을 말한다(하성규·배문호, 2004: 99).

따라서 공동주거 공급술은 주택이라는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구체적인 실행방법 또는 방식으로서, 그 과정에서 통치권자가 주택부족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권위적인 결정에 의해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2) 공동주거 공급에 있어 정부의 개입

일반적으로 주택정책의 역사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주거가 공급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저소득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택문제로 사회적 불안 요소에 대한 대응의 필요, 둘째, 1, 2차 세계대전 후 주택의 절대부족과 취약한 민간주택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 셋째, 도심지의 불량주택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수

단으로서, 넷째, 주거복지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와 진보성향 정당의 집권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Oxley and Smith, 1996).

하성규(2003), 할로우(Harloe, 1995), 에스핑-엔드슨(Esping-Anderson, 1990) 등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택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역할)의 정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첫째 자유주의 모형(liberal model)은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주택의 자가 소유를 확대한다. 대표적 국가로서 미국은 자유 시장경제 원리를 핵심으로 하여 자가(自) 주택 위주의 주택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빈민층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개입이 이루어진다. 둘째, 보수적 조합주의 모형(conservative-corporatist model)은 정부가 중도적으로 개입하며 다양한 주택의 공급주체를 활성화한다. 이 모델은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따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택의 공급을 통해 제도적 보장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사회민주주의 모형(social-democratic model)에서는 주거권이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되며, 주거권의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 국가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의 국유화 및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공공임대주택 형태의 사회주택의 공급을 촉진한다.

북한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토지와 주택을 국유화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은 중앙집중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국가가 건설, 소유하고 무상으로 배분하는 것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Matthews, 1981: 4-5), 그 출발점에서는 사회민주주의 모형과 유사하였지만, 계층화의 효과를 가장 덜 내는 사회민주주의 모형의 특성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3) 계층화한 공동주거의 공급술

북한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 제2장 경제 제20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택은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살림집법 제1장 제3조, 국가부담에 의한 살림집 보장 원칙에 따르면, “인

민들의 살림집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원만히 해결해주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현대적인 도시살림집과 농촌살림집을 국가부담으로 지어 인민들에게 보장하여 준다"고 명시하고 있다(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https://www.unilaw.go.kr/).

그런데 살림집의 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살림집법 제4장의 제30조(살림집 배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에서는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영웅, 전쟁 로병,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로력혁신자 같은 대상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표 2-5>와 같이, 실제로 평양 도시지역 소재 주택의 배정 기준에 따르면, 주택을 특호, 4호, 3호, 2호, 1호로 구분하고, 배정 대상자를 계층별로 차등화하여 당과 군의 고위간부, 대학 교수, 기업소 책임자 등에게 고급, 신형 주택을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와 같이, 주택이라는 사회 필수적 자원을 배분하는 실행방식으로서, 그 과정에서 통치권자가 권위적인 결정에 의해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여 통치합리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통치술로서 공동주거의 공급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2-5〉 계층별 주택 배정 기준과 구조(평양 도시지역 소재 주택 기준)

구분	주택형식	가옥구조	배정 대상자
특호	고급 독립주택	· 독립식 단층 또는 2층 주택 · 정원, 수세식 변소 · 냉난방시설 구비	· 중앙당 부부장급이상 · 정무원 부부장급이상 · 인민군 소장급이상
4호	신형 고층아파트	· 방 2개 이상 · 목욕탕, 수세식 변소, 베란다 · 냉난방시설 구비	· 중앙당 과장급 이상 · 정무원 국장급 이상, 대학교수 · 인민군 대좌, 문예단체간부 · 기업소 책임자
3호	중급 단독주택 및 신형아파트	· 방 2개 · 부엌, 창고	· 중앙기관 지도원 · 도단위부부장급, 기업소 부장
2호	일반아파트	· 방 1~2개 · 마루방 1개, 부엌 1개	·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교장 · 일반 노동자, 사무원
1호	집단공영주택	· 방 1~2개, 부엌 1개	· 말단 노동자 및 사무원

자료: 통일부, 2002.「북한수첩」, p.78; 통일원, 1991.,「북한개요」, p.251.

3. 공동주거 생활술

1) 통치와 '사회통제'의 연계

공동주거의 생활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푸코의 '통치'의 의미를 '사회 통제'의 개념과 연관하여 구체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고찰하였듯이, 푸코는 넓은 의미의 통치를 '품행의 인도(conduire des conduites)'로서 사람들 일부나 전체의 품행을 형성·지도하거나 그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활동의 형태로, 좁은 의미의 통치에서 통치술은 통치 활동의 구체적인 실행의 방법 또는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사회통제 개념은 사회구성원의 일탈행위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제재를 의미한다(이우영, 1999: 4). 여기서 비공식적 제재란 생활규범 및 공동의 가치관이라는 넓은 범위에서 사회구성원 상호간 이루어지는 비난·처벌 등의 사회통제를 말하며, 공식적 제재란 범죄라고 규정된 일탈행위를 한 사회구성원에 대해 국가적 통제기구를 활용한 통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우영·안경모, 2018: 47; 이우영, 1999: 5-6).

따라서, 푸코가 정의한 넓은 의미의 통치는 비공식적 제재와 유사하며, 좁은 의미의 통치에서 통치술은 구체적으로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법적인 실행방식이기에 공식적 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통제와 공동주거 생활술

북한은 해방 후,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사회구성원이 사회주의적 규범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사상교양사업에 주력해 왔다(안장원, 1990). 이를 정리하면 <표 2-6>과 같다.

착취제도에 반대하는 공산주의 교양사업,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반대하는 집단주의 교양사업, 노동을 신성한 의무로 강조하며 공동노동의 성실한 참여를 독려하는 공산주의적 노동교양사업, 조국사랑 및 체제를 수호

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사업 등과 각급 근로단체생활을 강조하는 총화사업 강화 교양, 집단주의와 공동의 재산을 애호하는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교양, 가정 혁명화 교양 등이 이에 해당한다(최대석 외, 2010: 17).

〈표 2-6〉 북한의 사회주의적 공식 규범 및 가치관

	사상교양 내용	공식규범 및 가치관	비사회주의적 규범 및 가치관
사상 교양 사업	공산주의 교양	착취제도 반대	사적 소유
	집단주의 교양	집단주의 정신	개인주의, 이기주의
	공산주의적 노동 교양	노동의무, 공동노동 참여	노력동원 불성실 참여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조국 사랑, 체제 수호	정권, 제도 및 정책 비판
	혁명전통 교양	항일혁명의 절대화	수령 및 지도부 비판
조직 사업	총화사업 강화 교양	각급 근로단체생활 강조	조직생활 불성실 참여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교양	집단주의, 공동재산 애호	자본주의 생활양식(옷차림, 머리모양), 사적 소유의식
	가정 혁명화 교양	가정과 이웃의 학교화	불성실한 인민반 활동

자료: 최대석 외,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 실태 및 북한주민 의식변화」, p. 17, 황의정, 2017. "북한의 주민 일상에 대한 법적 통제: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범죄구정화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21(1), p.119에서 재인용.

공식규범과 가치관은 주거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양되고 장려되며, 이에 어긋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는 금기로 여겨진다. 조선말대사전2(2007)에서는 '비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편, 2007: 425). 즉,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제시한 공식규범과 가치관의 기준에서 벗어난 행위가 곧 비사회주의적 행위인 것이다(황의정, 2017: 119).

공동주거의 밀집한 구조는 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용이하게 한다. 북한에서 공동주거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지역 주민을 하나로 묶는 집합주의적 생활양식의 정착 방안으로서 도입이 되었기에(장세훈, 2005: 113), 공동주거에서는 집합주의적 생활을 바탕으로 사회주의적 공

식규범과 가치관이 교양되고 장려되어왔음을 예상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성은 공동주거의 폐쇄성과 구획성의 측면에 맞아들어(임봉길, 1992: 120), 흔히 폐쇄적인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이 뿌리내리는 주거양식으로 기능해 왔다(천현숙, 2002; 손세관, 2000), 반면, 사회주의 사회, 특히 북한에서는 일상적으로 현관문을 열어 놓고 생활하여 이웃간에 손쉽게 들고나며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된다. 북한에서 공동주거는 오히려 공동체적인 근린관계가 다져지는 개방적인 주거양식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를 매개통로로 하여 국가의 관료제적 통제가 침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박현선, 2003: 265; 장세훈, 2005: 114).

이와 같이, 공동주거 생활술은 법적통제와 같은 좁은 의미의 통치술을 넘어, 사회주의적 생활 규범과 가치관이라는 목표 아래 주민들의 품행을 인도하려는 넓은 의미의 통치 개념을 포함한다. 이에, 공동주거의 밀집한 구조 안에서 사회구성원 상호간 이루어지는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하여 통치의 합리성을 강화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공동주거 경관술

1) '경관'개념의 기원과 변화

오늘날 경관을 의미하는 영어의 'landscape', 독일어 'landshaft', 프랑스어 'paysage'등은 '내부의 경작 행위와 형질 변화와 가치 증진에 의해서 비로소 그 범위가 뚜렷이 한정된 일단의 토지'라는 라틴어 landscipe에서 유래한 말이다. 지역(region), 환경(environment), 장소(place)와 유사한 개념이었음을 알 수 있다(황기원, 1989: 58; 한지은, 2013: 127; 박근현·배정한, 2013: 119).

경관의 개념에 시각적 속성이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말 네덜란드에서 풍경을 주제로 하는 'landschap'라는 그림 양식이 유럽 전체로 확산하면서부터 이다. 이후 17세기에 이르러 이 단어의 철자가 'landscape'로 정착하였고, 기존의 landscipe가 의미하던 '경제·사회적 토지 단위'에서 시각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이상적 경치(scenery)'로 개념상의 큰 변화가 있었다(박근현·배정한, 2013: 119).

학문적 영역 내에서 '시각으로서의 경관'으로의 개념적 전환은 1970년대 말 이후 문화지리학의 핵심적 흐름이었던 '신문화지리학(new cultural geography)'의 등장으로 전개되었다. 지리학에서는 경관을 장소의 형상과 구조를 나타내는 형태학(morphology)을 통해 이해해 왔으며, 19세기 독일에서 발달한 '경관학(Landschaftkunde)'의 영향으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현상으로의 경관이 지리학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정립되었다. 이와 비교해 주로 도시의 경관을 다룬 신문화지리학은 경관의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측면에 주목하여 문화지리학의 경관 개념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황기원, 1989: 127; 한지은, 2013: 128-130).

2) 신문화지리학의 정치·사회적 해석으로서의 경관

코스그로브(Denis E. Cosgrove), 대니얼스(Stephen Daniels), 던컨(James Stuart Duncan) 등의 신문화지리학자들은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의 '의미체계(signification system)로서의 문화'라는 관점으로 경관을 해석하였다.

윌리엄스(1982)는 문화를 고정된 실체로 파악하던 이전의 해석과 달리, 문화를 의미체계로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집단적 사회경험이 변화하면 문화를 정의하는 의미체계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시기의 사회집단이 가지는 지배적인 의미와 상징들은 변화와 연속성을 동시에 드러낸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문화를 집단적 경험에 의해 (재)생산되는 의미체계로서 파악하는 것은 상징의 중요성뿐 아니라 의미체계로서의 문화와 정치적, 사회적 법칙들이 결합되어 있음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신문화지리학자들은 경관은 물리적인 실체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체계를 통해 소통·재생산·경험되는 일종의 의미체계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경관에는 그것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특정한 사회집단에 의해 상징적 의미와 이데올로기가 담기는데, 이는 특히 권력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였다(한지은, 2013: 130). 신문화지리학자들의 경관에 대한 접근방식은 크게 경관을 이미지로 파악하는 관점과 텍스트로 이해하는 관점으로 구분되지만(한지은, 2013: 131),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측면에 주목하여 경관이 "물질화된 담론(materialized discourse, Schein, 1997: 660-680)"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공유된 의미이자 이데올로기이며, 일련의 획득된 '상식'(Duncan, 1990)"을 의미하는 '담론'이 경관의 물리적 형태를 통해 스스로의 의도와 이데올로기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개념으로서, 경관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담론을 재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설명한다.

대표적 신문화지리학자인 코스그로브와 대니얼스(Cosgrove and Daniels, 1988)는 경관을 "문화적 이미지, 외부세계를 재현하고 상징하는 시각적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경관이란 '보는 방식(a way of seeing)'이며, 이는 외부세계를 시각적 통일체인 장면(scene)으로 구성하고 조화시키는 방법임을 의미한다. 또한 코스그로브는 본래 종교와 회화 이미지에

적용되었던 예술이론인 '도상학(Iconography)'을 도입하여 경관에 내재된 상징성과 의미·가치관·권력 등을 해석하는 경관 연구방법을 '경관의 도상학(Iconography of Landscape)'이라고 정의하였다(Cosgrove, 2000: 366). 다니엘스는 문화적 경관과 회화에서의 경관을 분석하여 경관이 권력과 갈등 등 정치적 작용들을 용해하는 이데올로기적 관념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Daniels, 1989: 196-220).

텍스트로서의 경관의 개념을 도입한 대표적 학자는 던컨(James Duncan)으로 그는 사회적 구성 안에서 권력관계는 특정 담론을 매개로 소통·저항·도전·협상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문화영역은 제도를 초점으로 하는 '담론장(discursive field)'이라 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Duncan, 1990). 또한 한지은은 경관에서 담론장은 주로 상징경관의 건설에서 발견되며 상징적 장소로서 경관은 사회의 주도적 믿음과 가치를 정당화하기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 때문에 담론장의 분석을 통해 경관의 상징적 의미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조작되는 방식, 나아가 권력관계의 반영으로서 경관을 파악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한지은, 2013: 139).

제 4 절 연구의 차별성과 분석의 틀

1. 선행연구의 검토

북한의 도시 및 주거와 관련한 학술 연구는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이후, 햇볕정책의 노선을 취한 김대중 정부와 이어진 노무현 정부 시기에 맹아(萌芽)를 틔웠다. 민간차원에서 남북이 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학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기에 2018년 4월, 5월, 9월 등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6]의 고조된 분위기 속에 관련 연구가 본격화하여 도시계획의 원리, 도시구성의 과정, 주거지계획의 원리, 주택계획의 동향 등 주제가 다각화하였다.

1) 북한 공동주거와 관련한 연구

북한 공동주거에 관하여 소구역계획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김민아(2018)의 연구는 김일성 시기 계획된 북한 주택 소구역들을 규모, 배치 방식, 도로 체계, 생활편의시설, 주택계획 등 5가지 요소로 분류하고 변화과정 및 작동 방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유발한 사회 제도적 요인들을 규명하여, 주거 공간에 대한 물리적 요소의 파악뿐 아니라, 그 이면에 작동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택 소구역이 전후 북한의 도시 재건 과정에서 도시 조직을 구성하는 물리적 기초단위로 사용되어,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근린이라는 근대적 공간개념을 도입하는 기제가 되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최상희(2017)의 연구는 북한 당국이 발간한 건축 관련 전문매체를 통하여 주택(살림집)의 형태적 변화과정과 계획특성을 분석하였다. 1950년대

6)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6년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열렸음. 이후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회담이 이루어졌으며, 2018년 4월, 5월, 9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이 성사되었음. https://ko.wikipedia.org/

부터 2000년대까지 장기간의 평면 자료를 소개하고 구조의 변화를 서술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Shin G. S. and Jung I. H.(2016)의 연구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 도시주택의 변화와 연속성에 주목하여, 북한 사회주의 도시주택의 본질적 구성요소와 현지화 과정에 대한 설계의 매커니즘과 원리를 분석하였다. 전후 북한 도시주택의 출현에 관하여 사회주의적 삶의 방식의 수용이라는 기본틀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도시화에 따른 대량생산의 측면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위와 같이, 북한 공동주거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연구의 범위를 김일성 시기로 한정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이에 따라 김정일, 김정은 시기의 주거 공간에 대한 논의로 전개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거의 물리적 측면에만 집중하였기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실천 및 생활에 대한 분석을 연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경제난 이후 주거공간의 변화와 이에 따른 공동생활의 양상에 대한 분석이 절실하다.

〈표 2-7〉 북한 공동주거 관련 연구

연구자(연도)	제목	연구의 목적
김민아(2018)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북한의 주택 소구역계획에 관한 연구 : 1955-1967년 단지계획을 중심으로	김일성 시기 도시계획과 주거단지 설계에서 계획가의 의도, 당시 사회제도 등의 배경을 고려해서 북한의 주택 소구역계획을 파악하였음.
최상희(2017) 「LHI 저널」, 8(4): 223-232.	북한 건축 전문매체 분석을 통한 살림집 계획 동향	북한 당국이 발간한 건축 관련 전문매체를 통해 주택(살림집)의 형태적 변화과정과 계획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Shin G. S. and Jung I. H.(2016) The Journal of Architecture, 21(2): 159-180.	Appropriating the socialist way of life: the emergence of mass housing in post-war North Korea	한국전쟁 이후 북한 도시주택의 변화와 연속성에 주목하여, 북한 사회주의 도시주택의 본질적 구성요소와 현지화 과정에 대한 설계의 매커니즘과 원리를 살펴봄.

2) 북한 도시계획과 관련한 연구

북한의 도시계획을 이해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 연구로서 김현수(1994)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김현수는 북한 도시계획에 접근하기 위한 틀을 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북한 도시계획과 비교함으로써 사회주의 이념이 북한의 도시계획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임동우(2013)의 연구는 사회주의 도시개발이론이 도시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안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이를 바탕으로 도시를 복구하기 시작한 평양에는 오늘날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에서 논의되는 부분들의 공유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평양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통하여 앞으로의 전략과 발전 방향을 살펴보았다.

김민아·정인하(2019)의 연구는 김정일이 개입한 이후 평양 주거단지의 계획 방식이 전환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중요한 점은 거주민의 편의나 경제성이 아닌 도시를 특정한 시점에서 지각하는 장면 구성인 점에 착안하여, 김정일의 미학체계를 토대로 북한의 주거 단지계획에 미친 영향을 광복거리를 사례로 살펴보았다.

홍민(2017)의 연구는 김정은 시기의 대규모 아파트 및 거리 조성에 주목하여, 이것이 통치의 '시각적 경관화[7]' 차원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김정은이 내세우는 '사회주의 문명국'이란 용어가 건설 부문의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됨을 지적하고, 각종 대규모 건설사업의 실적을 김정은의 사회주의 강국, 문명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살림집 건설 과정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도시의 '경관화' 과정에서 지도자를 항상 건설 이미지의 중심에 놓으며 통치를 위한 위계적이고 기념비적인 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7) '통치의 시각적 경관화'는 영토내 도시 공간을 특정한 형태와 다이어그램(diagram), 표상과 이미지로 시각화(visualization)하고 경관화(landscaping)함으로써 통치의 가독성(legibility)과 상징성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함. 제임스 C. 스콧 지음, 전상인 옮김, 2010.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서울: 에코리브르, p.97-111.

이종겸·정현주(2022)의 연구는 김정일과 김정은 시기의 도시미화 담론의 비교를 통하여, 현재 평양시 도시미화 담론과 경관의 생산이 북한식의 통치와 국가권력 생산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시기의 도시미화 담론과 경관의 변화를 통해 현재 평양시의 경관에 관한 맥락적 설명과 해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이, 초기의 연구들은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이론을 토대로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이해의 틀을 구축하였다. 이와 비교해 최근의 연구들은 통치와 국가의 권력생산을 위한 '시각적 경관화' 측면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변화를 보였다. 다만 최근의 연구들에서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지 않거나, 또는 구조화된 분석의 틀을 제시하지 않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북한의 도시를 이해함에 있어 가장 일반적 속성인 도시화에 대한 대응의 측면에서 해석을 시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표 2-8〉 북한 도시계획 관련 연구

연구자(연도)	제목	연구의 목적
김현수(1994)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북한 도시계획과 비교함으로써 사회주의 이념이 북한의 도시계획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자 함.
임동우(2013) 「환경논총」, 52: 52-57	평양의 도시계획	지속가능한도시 모델이라는 관점으로 평양의 사회주의 도시개발 이론을 분석하고, 평양 및 북한의 도시들의 전략과 발전 방향을 살펴봄.
홍민(2017) 통일연구원.	김정은 정권의 통치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김정은의 통치 행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대규모 아파트 및 거리 조성에 주목하여, 이것이 통치의 '시각적 경관화' 차원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함.
김민아 · 정인하(2019) 「계획계」 35(10): 91-102.	평양 광복거리 신도시의 단지계획에 관한 연구 : 주택 소구역 계획에서 거리 형성계획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북한 주거단지계획에 결정적이었던 김정일의 미학체계를 살펴보고, 북한의 주거 단지계획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자 함.
이종겸 · 정현주(2022)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5(2): 33-51.	평양시 도시미화 담론과 상징경관 연구	김정일과 김정은 시기의 도시미화 담론 비교를 통해, 현재 평양 도시미화 담론 및 경관의 변화와 함의를 고찰하고자 함.

3) 공동주거 및 주거양식의 의미와 관련한 연구

이현호(1997)의 연구는 공동주거가 제1차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보급되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주요한 주거양식으로서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공동주거의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을 유추하기 위하여 그 발달의 과정과 배경을 총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전후의 사회적 경제적 성숙에 따른 문화적 요구에 맞추어 발달한 공동주거의 단계를 구분하여[8], 전후 대량공급형 주거형식으로 단위주거의 횡적·종적인 집적형태의 도입과 이에 대한 반발로서 '공동의 삶(communal life)'을 받아들여 공동체 생활과 개별 주호의 개성을 병행 추구하게 된 특성을 설명하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권용찬(1997)의 연구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기에 걸쳐 산업화, 도시화 및 양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서구 사회가 겪었던 도시 주거환경의 문제는 동일한 시기의 한반도의 도시들에서도 유사하게 존재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도시 주거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구의 논의들인 주택의 대량생산 계획과 도시 집합주택의 공용화 계획의 관점에서, 1905년 이후 관 주도로 한반도에 대량으로 건설된 집합주택의 변천을 고찰하였다.

지강일·우동선(2011)의 연구는 산업혁명 이후 제기된 사회문제들에 대하여 주거공간이 도시민을 근대화된 사회로 편입시키는 주된 사회적 장치로 쓰였음에 착안하였다. 이에 신생 소비에트 사회에서 '사회주의적 삶'을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계획한 공동주거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주거공간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지강일·우동선(2011)의 연구에서도 주요 문헌으로 참조하고 있는 카타리

---

8) 이현호(1997)는 공동주거를 제1, 2, 3세대형으로 구분하였음. 제1세대형은 한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형태로서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공동주거를 말함. 제2세대형은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대량으로 단기간에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양산체제하에 일단의 대지에 개개의 주호를 효과적으로 집적하는데 주력한 형태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단지개념의 도입과 함께 도시의 확산을 촉진하며 국제적인 주거양식으로 발전하였음. 제3세대형은 제2세대형의 인간소외, 비인간적 스케일, 자연과의 격리 등에 대한 반발로, '공동의 삶(communal life)'과 각 주호의 개성을 살려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형태로 구분하였음.

나 제라시모바(Katerina Gerasimova, 2002)의 연구는 상트페테르부르크(구 레닌그라드)의 공동주거(코뮤날카)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1996년에서 1999년 사이에 수행된 인터뷰 및 참여관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거주자들은 공동성에 대해 생활의 공유의 측면과 함께 감시 및 통제의 측면을 부각하였으며, 삶의 집단화를 목표로 설치된 다양한 공동시설들이 거주자들의 변용, 사유화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이 약화되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위와 같이, 공동주거 및 주거양식의 의미와 관련한 연구들은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론적 자원으로서, 도시화 문제에 대안으로서 대량공급의 층위, 집합주택의 '공동의 삶(communal life)'의 층위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이해의 틀을 구축하는데 참조가 된다. 특히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적 삶'을 구현하려는 목적에서 위로부터 계획되어 부과된 공용공간과, 아래로부터의 실천, 즉 주민들이 전유하는 양상과의 관계를 심도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표 2-9〉 공동주거 및 주거양식의 의미 관련 연구

연구자(연도)	제목	연구의 목적
이현호(1997)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공동주거의 역사적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 유럽, 일본, 한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동주거의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을 유추하기 위하여 아파트 발달의 과정과 그 배경을 총체적으로 고찰하였음.
지강일 · 우동선(2011) 「계획계」 27(12): 235-244.	1930년대 소비에트 공동주택을 통해서 본 건축의 사회적 역할	신생 소비에트 사회에서 '사회주의적 삶'을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계획한 공동주거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주거공간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고찰하였음.
권용찬(2013)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대량생산과 공용화로 본 한국 근대 집합주택의 전개	주택 대량생산 계획 및 도시 집합주택 계획의 관점에서 한국 근대 공영주택의 근대화 과정을 고찰하여 그 일반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함.
카타리나 제라시모바 (Katerina Gerasimova, 2002)	Public Privacy in the Soviet Communal Apartment	소비에트 연방의 공동주거(코뮤날카) 양식을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관점에서 사적(privacy)개념에 부합하는 범주로서 재구성 및 분석하고자 함.

2. 연구의 차별성

북한의 공동주거, 도시계획, 공동주거 및 주거양식의 의미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주장하고 싶은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도시의 가장 일반적 속성인 모더니즘적 층위를 포함하여 북한 도시의 공동주거를 이해한다. 북한의 공동주거 및 도시계획과 관련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이론적 근거를 사회주의 도시계획에서 가져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통치적 측면의 자원을 활용하는 연구들이 시도되었지만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분석의 틀을 제시하지 않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를 이해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 속성인 도시화에 대한 대응의 측면(모더니즘 도시계획)과 사회주의 도시계획 및 통치의 도시계획을 결합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북한 도시 공동주거를 해석하고자 한다.

둘째, 북한 공동주거 및 주거지계획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경우,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김일성 시기로 한정하여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 김정일 시기와 김정은 시기의 공동주거로 논의를 전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간적 범위를 한국전쟁 이후(1953년)부터 현재까지로 확장하여 전후 북한 공동주거의 형성에 작용된 요인들과 구조적 형태, 그리고 특히 1990년대 중반 경제난의 영향이 미친 공동주거 물리적 구조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셋째, 도시계획 분야 연구의 경우, 북한 공동주거의 물리적 측면에만 집중하였을 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생활적 측면을 조명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공동주거의 공용시설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공간적 실천을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계획경제 하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공식적 공간 및 실천과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의 관점에서 아래로부터 전유되는 비공식적 공간 및 실천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통해 관계망의 변화 및 공동체성의 의미에 관하여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3. 분석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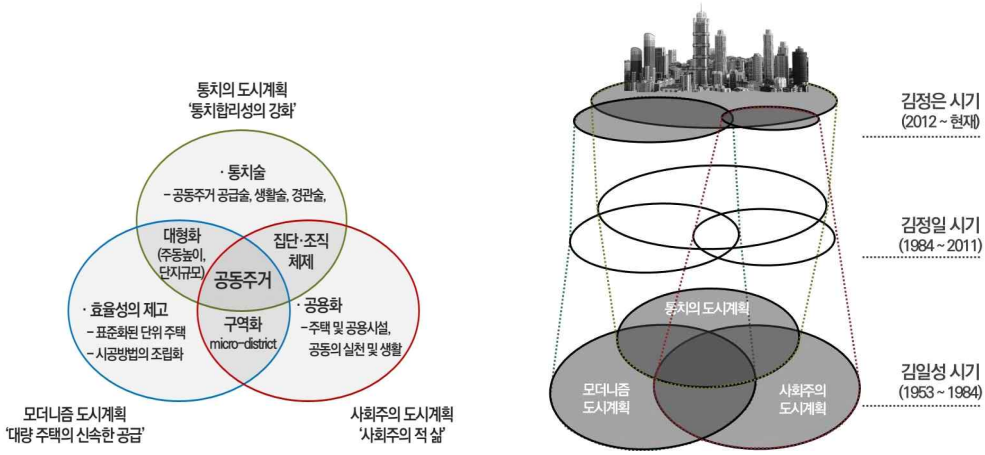
1) 세 가지 축, 힘의 균형 및 불균형

본 연구는 가장 보편적 측면에서 '모더니즘 도시계획', (우리에겐 다소 특수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 측면에서 '사회주의 도시계획', 그리고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통치의 도시계획'의 세 가지 성격이 결합된 모형을 토대로 북한 공동주거의 형성요인과 변화 과정을 해석하고자 한다.

모더니즘, 사회주의, 통치의 도시계획의 유사한 특성들을 연계하여 엮어 보면 <그림 2-12>와 같은 분석틀을 설계할 수 있다. 효율성의 제고, 단지 규모의 대형화는 주거 안정을 위한 공동주거의 '통치 공급술'과 구역화(micro- district), 공용화, 집단·조직 체계의 구축은 정서적 친밀감과 통제 및 감시체제라는 공동주거의 '통치 생활술'과 고층화한 주택은 스펙터클을 위한 '통치 경관술'과 연계할 수 있다.

세 가지 축의 힘이 균형 및 불균형, 파열을 겪으면서 북한 공동주거의 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시계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림 2-12>의 오른쪽과 같이 3차원 분석틀을 설계할 수 있다.

〈그림 2-12〉 세 가지 축의 개념도



2) 세 가지 축, 구성요소들의 구조화

본 연구를 설명하는 세 가지 축의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구조화, 정식화하여 <그림 2-13>과 같은 분석의 틀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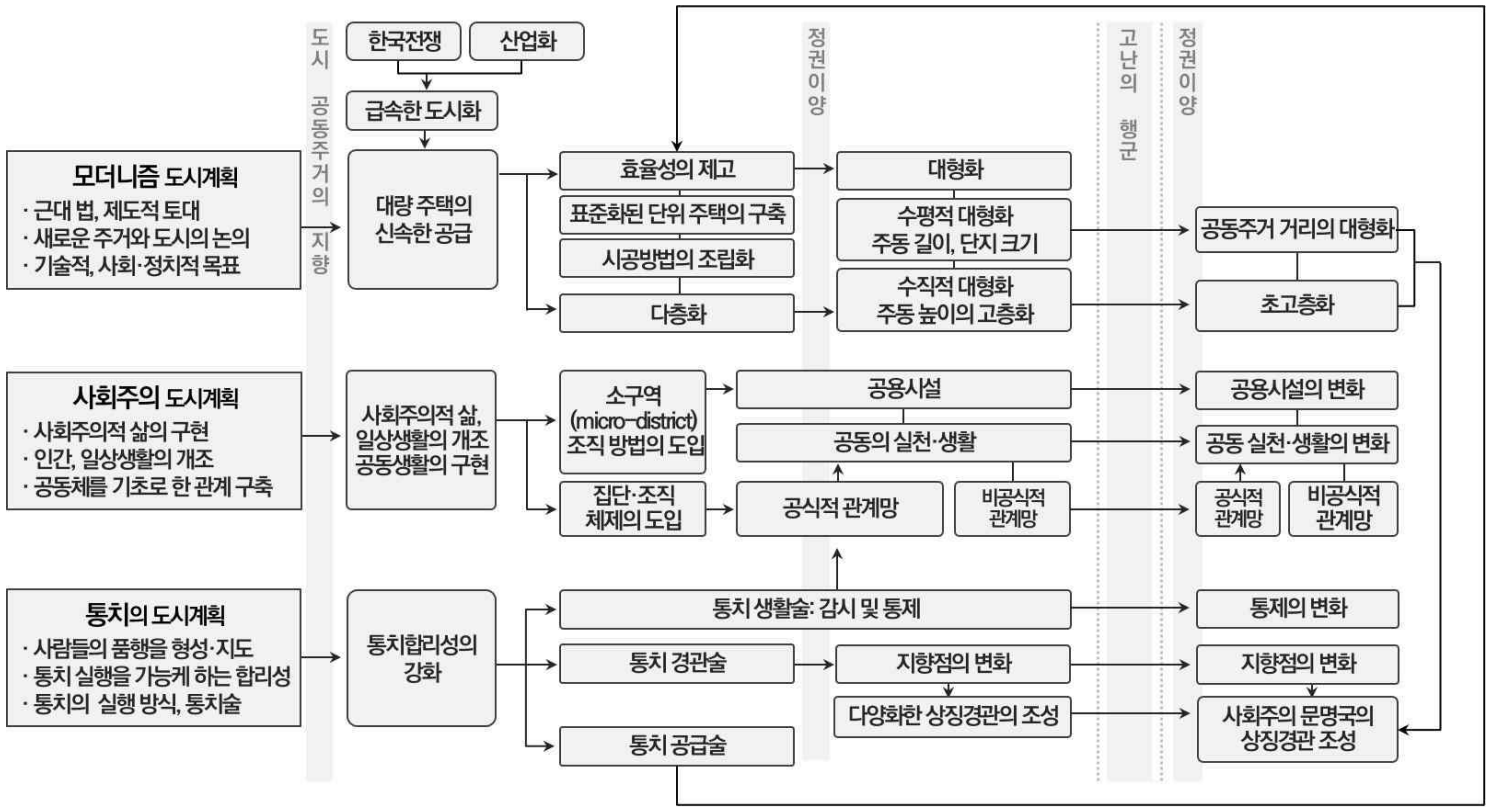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전후 북한은 국가와 당을 중심으로 하는 강한 공식적 관계망 아래, 공동주거가 주택+공용시설(공식적 실천)의 구조를 보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국가의 공식적 동력이 약해지면서 고층화한 주택은 유지되어 상징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공용시설은 축소되어 비공식적 시설이 이를 대체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설명한다.

첫째, 모더니즘의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요소들의 관계를 보면,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도시화 양상은 어떠하며, 산업정책과 연관을 보이는지. 특히, 197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평양으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은 산업정책의 영향인지를 설명한다. 또한 주택의 단기간 대량생산,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어떠한 표준 단위 주거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수평적, 수직적으로 대형화한 양상을 설명한다.

둘째,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측면에서는 사회주의적 삶을 구현하고자 일상공간인 주거공간에서의 시도를 사회적·물리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먼저 물리적 측면에서 공동생활을 위한 공용시설은 어떠한 것들이 계획되었으며, 그 안에서 어떠한 공동의 실천들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본 후,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주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주거지를 단위로 조직된 집단체제의 구조와 역할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주민들 관계망과 연계하여 분석한다. 특히, 경제난 이후, 배급제의 와해는 공용시설, 공간적 실천, 관계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통치의 도시계획의 측면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시 공동주거를 통하여 지향하였던 바는 무엇이며, 이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지향점의 변화는 정권별로 평양시 공동주거의 계획적 요소에 반영되어 경관의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설명한다. 김정일과 김정은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 공동주거를 활용하여 상징경관을 조성했는지를 규명한다.

〈그림 2-13〉 구성요소의 구조화



제 3 장 모더니즘: 전후 도시화와 산업화의 지원

3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도시화 현상과 대량 주택의 신속한 공급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우선 1절에서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도시의 파괴 현황과 전후 급속한 도시화 현상, 특히 현재까지 평양으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의 양상을 파악한다. 이후 2절에서는 전후 중공업 중심의 육성정책 및 1980년대 경공업 병행 성장정책을 살펴본 후, 평양공업지구의 주요기업체 및 조업시작 현황을 분석하여 평양으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3절에서는 전후 주택의 대량공급을 위하여 공동주거의 표준 주거모델을 구축한 과정과 이후 고층화 및 대형화한 특성을 분석한다.

제 1 절 북한의 도시화 현상

1. 한국전쟁과 도시의 파괴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북한의 도시들은 극심한 피해를 입는다. 한국전쟁에서 남·북한은 총력전을 벌였고, 국제전으로 확대되어 전선이 전 국토를 오르내리며 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남과 북의 도시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평양의 경우,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미극동군은 1950년 6월 29일, 제공권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북한지역에서 평양비행장을 최초 목표물로 타격하였다(김태우, 2013: 120). 이후, 1951년 5월 21일까지 330여일 동안에 북한에 출격한 미군 비행기의 수는 200,180대에 달하였다(조선전사, 27권: 171). 1952년 8월 5일 미극동군사령관 마크 클라크는 북한의

78개 도시를 지도 위에서 완전히 없애겠다는 타격계획을 발표하였고, 평양에만 1,431회의 폭격을 감행하여 428,748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국립출판사, 1957: 498).

<표 3-1>을 통해 당시 평양 중심지역의 파괴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평양시의 중앙기관을 비롯한 모든 공공건물들이 파괴되었고, 1951년에만 8만동의 살림집 가운데 6만 4천여동이 파괴되었다(로동신문, 1952년 4월 19일자). 당시 상황을 묘사한 북한 자료에 따르면, 평양시의 거리에서 원래 있던 2층 건물은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이 <그림 3-1>과 같이, 평지화되었으며, 파괴 정도는 실제 100%에 달한다고 전하였다(국립출판사, 1957: 479). 따라서 거의 백지화된 평양시에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전후복구건설이 요구되었다.

〈표 3-1〉 한국전쟁기간 평양시 중심지역의 건물파괴 현황

구분		파괴 수	구분	파괴 수
공장	총	328개	문화기관	29개
	국영기업소	55개	보건기관	94개
	협동단체기업소	66개	상업기관	194개
	개인기업소	207개	(상점)	(1,777동)
각급학교		99개	살림집	63,684호

자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평양건설전사 2」, p.149.

〈그림 3-1〉 한국전쟁에 출격한 미공군기 및 파괴된 평양시 중심거리

자료: 조선건축 2018년 제5호, "공화국의 70년사와 더불어 빛나는 주체건축의 대화원", p.12(좌); 외국문종합출판사, 1995. 「영광의 50년」, p.80.

2. 전후 급속한 도시화 현상

북한의 행정구역은 2021년 기준, 1개의 직할시(평양), 3개의 특별시(남포, 라선, 개성), 9개의 도(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자강도, 량강도), 25개의 시, 146개의 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의 도시는 특별시, 직할시, 일반시로 구성되며 주요 도시의 현황은 <표 3-2>와 같다.

〈표 3-2〉 북한 행정구역상의 도시

행정단위		도시
직할시		평양
특별시		남포, 라선, 개성(특별시내 개성시 소재)
도	평안남도	평성, 개천, 덕천, 순천, 안주
	평안북도	신의주, 구성, 정주
	함경남도	함흥, 단천, 신포
	함경북도	청진, 김책, 회령
	황해남도	해주
	황해북도	사리원, 송림
	강원도	원산, 문천
	자강도	강계, 만포, 희천
	량강도	혜산, 삼지연

자료: 통계청, 2021. 「2021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p.26.

한국전쟁 이후, 남한과 북한은 이전의 농업위주의 사회에서, 인구의 대다수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회로 급속히 전환된다. 특히, 전후 북한의 도시화 속도는 남한보다도 앞섰는데, 이러한 상황은 197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표 3-3>과 같이, 해방 직전인 1944년 북한의 도시인구비율은 10.6%로 남한의 12.3%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며, 1953년에도 17.7%에 불과하던 북한의 도시인구 비율이 1960년에는 40.6%, 1970년에는 54.2%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면에 남한에서 도시화의 속도는 1960년대 중반에 이르

기까지 상대적으로 완만하였다.

〈표 3-3〉 북한의 인구 및 북한과 남한의 도시인구비율[9)]

연도	북한의 인구(천명)			도시인구비율(%, %p)		
	도시	농촌	전체	북한	남한	남북 차이
1935	-	-	-	4.9	6.0	-1.1
1944	-	-	-	10.6	12.3	-1.7
1949	-	-	-	-	17.1	-
1953	1,503	6,988	8,491	17.7	-	-
1956	2,174	6,645	9,359	29.0	24.5 (1955)	4.5
1960	4,380	6,409	10,789	40.6	28.0	12.6
1965	5,894	6,514	12,408	47.5	33.5 (1966)	14.0
1970	7,924	6,695	14,619	54.2	41.1	13.1
1975	9,064	6,922	15,986	56.7	48.4	8.3
1980	9,843	7,455	17,298	56.9	57.3	-0.4
1982	10,362	7,412	17,774	58.3	-	-
1985	11,087	7,705	18,792	59.0	65.4	-6.4
1986	11,265	7,795	19,060	59.1	70.3	-11.2
1987	11,530	7,816	19,346	59.6	71.3	-11.7
1988	-	-	-	-	72.2	-
1989	-	-	-	-	73.1	-
1990	-	-	-	-	74.4	-
1993	-	-	-	60.9	78.2 (1995)	-
2008	-	-	-	60.6	82.9 (2010)	-

자료: 통일원. 1991. 「남북한 사회·문화지표」, p.28; Eberstadt, N. and Banister, J., 1992.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21, 28; 권태환·김두섭, 1990.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p.243; 북한통계포털 https://kosis.kr/bukhan/,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9) 북한의 자료를 보면 행정구역으로서의 시와 사회·경제 단위로서의 도시가 상호 구분되어 있으며 농민은 도시인구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이 행정구역상의 시에 거주할 경우 그 시의 행정적인 인구에는 포함되지만 통계 목적상의 도시인구에는 포함되지 않음. (고성호, 1996: 141-142).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북한에서는 도시화의 속도가 매우 완만해진 것에 비하여, 남한에서는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도시화가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져 도시인구 비율이 1960년에는 28.0%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에는 74.4%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956년 4.5%p의 차이를 보이던 남북 간 도시화율은 1970년까지 그 차이가 점차 확대되었으며, 이후 차이가 감소하다 1980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였고, 이후 남한의 도시화율이 북한을 점차 넘어서 현재는 20.0%p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10)]

3. 평양으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

1) 평양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

북한의 인구에 관한 가장 최근 자료는 2008년 북한 중앙통계국이 유엔인구기금(UNFPA)의 지원을 받아 발간한 보고서로서, 1993년 처음으로 실시한 센서스 이후 두 번째로 펴낸 공식적인 통계조사 보고서이다.

「2008 북한 인구조사 보고서」 상의 북한 인구는 24,052,231명으로, 이 중 집체인구 702,372명을 제외한 23,349,859명의 인구가 행정구역별, 도시·농촌지역별로 집계되어 있다.[11)]

아래 <표 3-4>의 인구밀도를 보면, 평양시의 인구밀도가 1,238명/㎢으로 가장 조밀하며, 이어 남포시 321명/㎢, 평안남도 319명/㎢, 황해남도 273명/㎢, 황해북도 223명/㎢ 순을 나타낸다. 평양 수도권을 남한과 유사하게 평양직할시와 남포특별시, 평안남도, 황해북도로 상정하면, 평양 수도권의 인구는 9,787,471명으로 집체인구를 제외한 북한 인구의 41.92%를 차지하여 북한 역시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10) 남북한의 도시화 추이에서 2010년 한국과 북한의 도시화율은 각각 82.9%, 60.2%로 22.7%p의 차이를 보임(조남훈, 2013: 44).

11) 집체인구는 군대, 교도소, 기숙사, 요양원 등 집체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인구를 의미함.

〈표 3-4〉 북한 행정구역 별 인구 및 평양 수도권의 인구 집중

구분	면적 (㎢)	인구 (명)	인구밀도 (명/㎢)
평양직할시	2,629	3,255,288	1,238
남포특별시	1142	366815	321
라선특별시	945	196954	208
평안남도	12,720	4,051,696	319
평안북도	12,680	2,728,662	215
황해남도	8,450	2,310,485	273
황해북도	9,463	2,113,672	223
함경남도	18,535	3,066,013	165
함경북도	15,980	2,327,362	146
강원도	11,091	1,477,582	133
자강도	16,765	1,299,830	78
량강도	13,880	719,269	52
전국	123,138	23,349,859	190

자료: 행정구역 면적은 통계청, 200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남포의 면적은 Rainer Dormels, 2014, 행정구역별 인구는 북한중앙통계국, 2009. 「2008 북한 인구조사 보고서」, 그림출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자료실, http://www. nknet.org

2) 주요 도시의 인구 변화

북한 주요 도시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표 3-5>와 같이, 평양을 비롯하여 함흥, 청진, 남포, 원산, 신의주, 사리원 등의 전통적인 대도시에서 꾸준한 인구증가가 관찰된다.

특히, <그림 3-2>와 같이, 평양의 인구증가가 눈에 띄는데, 평양의 인구는 1940년 약 28만명에서 2008년 인구조사 당시에는 약 326만명으로 증가하여 북한에서 유일한 인구 백만 명 이상의 도시로 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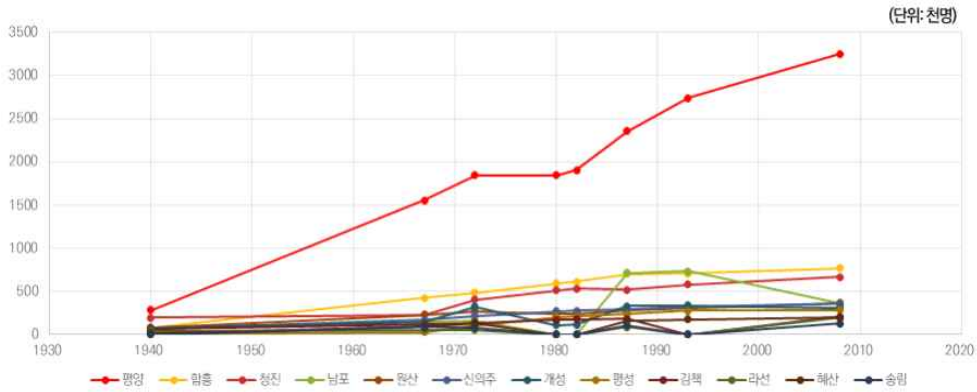
〈표 3-5〉 북한 주요 도시의 인구 변화

(단위: 천명)

구분	1940	1967	1972	1980	1982	1987	1993	2008
평양	286	1,555	1,847	1,842	1,907	2,355	2,741	3,255
함흥	75	424	486	594	613	701	710	769
청진	198	226	407	509	531	520	582	668
남포	69	141	163	–	–	715	731	367
원산	79	226	272	233	242	274	300	363
신의주	61	170	217	271	276	289	326	359
단천	–	–	–	–	259	284	–	346
개천	–	–	–	–	–	–	–	320
개성	72	141	326	107	112	331	334	308
사리원	35	85	85	174	187	221	254	308
순천	–	–	–	–	–	356	–	297
평성	9	28	109	199	212	239	273	284
해주	63	113	163	182	184	195	229	273
강계	26	170	163	194	198	211	223	252
김책	62	113	136	168	172	179	–	207
라선	38	57	54	–	–	89	–	197
구성	–	28	109	–	–	177	–	197
혜산	16	85	136	–	–	164	178	193
희천	–	28	27	–	–	163	–	168
신포	–	28	81	–	–	158	–	153
송림	–	85	81	–	–	108	–	129

자료: 1996; 1980, 1982, 1987년은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1992; 1993년은 통계청, 북한 인구일제조사 자료(http://www.korstat.go.kr), 2008년은 북한중앙통계국, 2009. 「2008 북한 인구조사 보고서」; 그 외 데이터는 조남훈, 2013. "북한의 도시화 추이와 특징",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5월호, p.39-60.

〈그림 3-2〉 북한 주요 도시의 인구 변화



3) 평양의 종주도시화

「2008 북한 인구조사 보고서」상의 북한 주요도시의 인구 규모를 살펴보면, 29개 도시 가운데 평양직할시의 인구 규모가 가장 크고 이어 함흥시, 청진시, 남포특별시 순으로 확인된다. 특히 평양의 인구는 3,255,288명으로 제2의 도시인 함흥의 인구 768,551명의 약 4.24배에 이르며, 함흥, 청진, 남포, 원산, 신의주, 단천, 개천 등 제2위부터 제8위까지의 도시들의 인구를 모두 합한 것보다도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3-6〉 북한 주요 도시의 인구 규모 및 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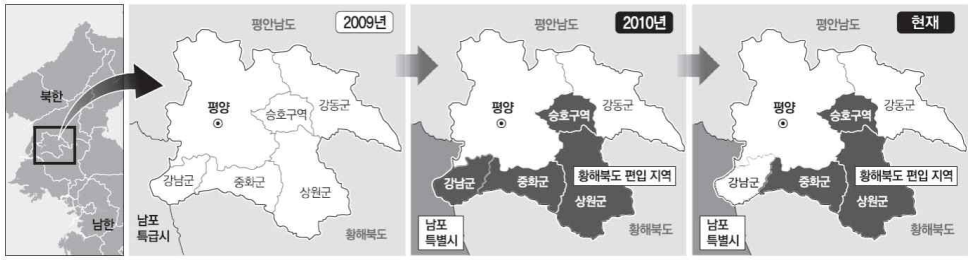
구분	면적 (㎢)	인구 (명)	인구밀도 (명/㎢)	구분	면적 (㎢)	인구 (명)	인구밀도 (명/㎢)
평양직할시 (08년 행정구역 기준)	2,629	3,255,288	1,238	안주시	433	240,117	555
평양직할시 (현재 행정구역 기준)	1,747	2,999,466	1,717	덕천시	692	237,133	343
함흥시	556	768,551	1,382	김책시	854	207,299	243
청진시	1,591	667,929	420	라선특별시	945	196,954	208
남포특별시	1,142	366,815	321	구성시	653	196,515	301
원산시	314	363,127	1,156	혜산시	277	192,680	696
신의주시	190	359,341	1,891	정주시	480	189,742	395
단천시	2,172	345,875	159	희천시	984	168,180	171
개천시	665	319,554	481	회령시	1,750	153,532	88
개성시	766	308,440	403	신포시	218	152,759	701
사리원시	188	307,764	1,637	송림시	65	128,831	1,982
순천시	368	297,317	808	문천시	278	122,934	442
평성시	381	284,386	746	만포시	672	116,760	174
해주시	207	273,300	1,320	도시평균	731	387,892	712
강계시	264	251,971	956				

자료: 평양(2008)과 라선특별시의 면적은 통계청, 200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현재 평양의 면적과 그 외 도시의 면적은 Rainer Dormels, 2014, 행정구역별 인구는 북한중앙통계국, 2009. 「2008 북한 인구조사 보고서」

북한은 <그림 3-3>의 흰색 부분과 같이 2010년 평양시의 행정구역을 대폭 축소하였는데, 2022년 현재 평양시 행정구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인

구밀도는 1,747명/㎢ 수준으로서, 북한 도시들의 인구밀도의 평균에 2.41배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다.

〈그림 3-3〉 평양직할시의 행정구역 개편



자료: 김영식, 주성하, 2011.02.15. "北, 수도 평양 면적 절반 줄였다",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구성.

<표 3-7>과 같이 남·북한의 종주도시화 추이를 비교하면, 남한의 종주도시화 지수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북한의 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1940년에 남한의 절반에도 못 미치던 북한의 종주도시화 정도가 2008년에는 한국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평양의 성장 속도가 서울에 비하여 매우 빠름을 보여준다(조남훈, 2013: 51).

〈표 3-7〉 남북한의 종주도시화 지수 변화

(단위: %)

구분		1940	1967	1972	1982	1987	1993	2008
북한	P_1/P_2	1.44	3.67	3.78	3.10	3.29	3.75	4.23
	$P_1/(P_2+P_3+P_4)$	0.81	1.78	1.51	1.31	1.21	1.35	1.80
남한	P_1/P_2	3.47	2.71	3.02	2.67	2.73	2.82	2.91
	$P_1/(P_2+P_3+P_4)$	1.44	1.38	1.57	1.39	1.36	1.31	1.18

주: Pi는 한국 및 북한에서 i번째로 큰 도시의 인구수, P_1은 각각 서울 및 평양의 인구수임.

제 2 절 북한의 산업정책

북한에서는 직장 배정과 혼인 등 국가가 인정하는 사유에 의해서만 거주지 이전이 허가된다. 즉, 개인의 거주지 이전이 자유롭지 않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도시화의 방향이나 속도 또한 국가에 의해 기획되고 통제되기 때문에, 분단 이후 1970년대까지 북한에서 도시화가 매우 급속히 진행된 점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급속한 도시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산업정책과 연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표 3-8>과 같이 해방 이후 현재까지 총 9회의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여왔다. 표의 왼편에 해당하는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는 중공업 우선 정책을, 오른편에 해당하는 1970년대 이후에는 경공업 병행 성장 정책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표 3-8〉 북한의 경제개발계획

년도	계획	년도	계획
1947, 1948	제1, 2차 1개년계획	1971~1977 (1년 완충기)	제1차 6개년계획
1949~1950	제1차 2개년계획	1978~1984	제2차 7개년계획
1954~1956	제1차 3개년계획	1985~1986	조정기 경제계획
1957~1960 (1년 조기 완수)	제1차 5개년계획	1987~1993	제3차 7개년계획
1961~1970 (3년 연장)	제1차 7개년계획	1994~2002	고난의 행군

자료: 대한무역진흥공사, 1995. 「북한의 산업」, p.4-11의 내용으로 구성.

1. 전후 중공업 우선 정책 추진

북한이 1970년대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한 경제정책은 '중공업우선정책'이었다. 기본적으로 생산수단 또는 생산재를 산출하는 중공업 부문을 발전

시킴으로써 생산력을 제고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과 경공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농업과 경공업 또한 균등 발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나, 실제 정책집행 과정에서는 우선순위인 군사력 증강정책으로 인하여 중공업 우선 정책이 추진되었다.

중공업 우선 정책은 194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공업총생산은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1956년) 기간 중 2.8배, 제1차 5개년계획(1957~1960년) 기간에는 3.5배 증가하는 등 상당한 추진실적을 나타낸다. 그 결과 북한의 경제구조는 급속히 공업 위주로 전환되는데, 북한의 국가총생산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6년에는 23.2%에 불과하였으나, 1949년에는 35.6%로 증가하였고, 1964년에는 62.3%로 확대되었다(정갑영, 1990: 29-55; 황의각, 1992: 131-149; 민족통일연구원, 1993: 182).

전후 이와 같은 공업화정책의 영향으로 도시화가 급속히 촉진되어 북한의 도시인구는 1953년 약 150만명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1960년대에는 438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도시인구비율도 1953년 17.7에서 1960년에는 40.6%로 높아지게 된 것이다.

2. 1970년대 이후 경공업 병행 성장 추진(평양으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

<표 3-9>와 같이 1954년부터 1976년간에 공업투자 추이를 보면, 경공업에 대한 투자는 중공업 투자와 비교하여 상당히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농업과 경공업 부문의 낙후가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심각한 산업구조의 불균형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식량 및 소비재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 증대를 야기하게 된다(대한무역진흥공사, 1995: 1-2).

〈표 3-9〉 북한의 공업투자 추이(1956년~1976년)

계획기간	총투자액 (북한원)	공업투자비중 (%)	공업투자 중	
			중공업(%)	경공업(%)
3개년계획(1954-1956)	8.1	49.6	81	19
5개년계획(1957-1960)	11.7	55.0	83	17
7개년계획(1961-1970)	107.2	56.1	79	21
6개년계획(1971-1977)	166.1	18.7	83	17

자료: 대한무역진흥공사, 1995. 「북한의 산업」, p.167.

북한당국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경공업의 발전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은 제1차 6개년계획(1971～1976년)부터이다. 이후 1980년대 들어와 경공업의 부진이 산업 전반에 있어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자 본격적으로 1984년부터는 '경공업 혁명'을 추진하며 '8.3 인민소비품 증산운동'을 전개하였고, 1989년을 '경공업의 해'로 지정하였으며, 1989년부터 1991년까지 '경공업개발 3개년계획(1989-1991)'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일용소비품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74년부터 주민생활용품의 생산 및 공급을 지방행정기관에 일임하는 '지방예산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중앙이 직접 경영하는 대기업과 별도로 생필품 생산은 주로 지방공업(해당지역의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기업체)을 이용하게 되었다.

평양공업지구의 경우 당시 '대동강 종합개발계획' 추진으로 경공업의 발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대동강 종합개발계획은 수운을 통해 대동강 상류지역의 순천·북항·덕천에서 생산되는 석탄, 광물자원, 시멘트 등을 평양 및 근교의 공업지대 및 남포항으로 수송하여 용수, 수운, 전력 개발을 통한 평양 수도권(평남·황남·황북지역)의 경제발전 촉진에 목적을 둔 계획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2). 이를 통하여 지방공장(지역공장)을 다수 유치하면서 평양지역에 경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대한무역진흥공사, 1995: 26-28).

3. 평양공업지구: 북한최대의 공업지구

1) 중공업과 경공업의 병행 발달

북한에는 <그림 3-4>와 같이, 5개의 대공업지구(평양·남포, 신의주, 함흥, 청진, 강계)와 4개의 소공업지구(해주, 안주, 원산, 김책 또는 단천)가 존재한다. 이 중 평양공업지구는 북한 최대의 공업지구로서 대규모 주요 기업이 집중되어 있다(한국정책금융공사, 2010: 17).

〈그림 3-4〉 북한의 공업지구

자료: 한국정책금융공사, 2010.「북한의 산업」, p.18.

〈표 3-10〉 북한 공업지구의 특화공업

공업지구		중심도시	특화공업
대 공업 지구	평양 · 남포	평양, 남포, 대안, 송림, 사리원	전기 · 전자, 정밀기계, 철강, 조선, 판유리,방직, 식료
	신의주	신의주, 용암포	화학섬유, 제지, 방직, 기계, 조선
	함흥	함흥	각종 화학공업, 비료, 제련, 기계
	청진	청진, 나진, 선봉, 은덕, 라남	제철, 제강, 기계, 조선, 화학, 시멘트
	강계	강계, 만포, 희천, 진천	공작기계, 정밀기계, 군수품
소 공업 지구	해주	해주	시멘트, 제련, 인비료
	안주	안주, 개천, 박천, 북창, 순천	정유, 석유 계열, 제지
	원산	원천, 문천	기계, 조선, 제련, 시멘트
	김책	김책, 단천, 길주	제강, 화학, 제련, 조선, 내화물, 펄프, 제지, 합판

자료: 이옥희 · 이봉희, 1992, "북한의 도시 및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 「' 92 북한 · 통일연구논문집(3)」, 통일원, 1992, p.440.

평양공업지구는 <표 3-10>과 같이 전기·전자, 기계, 철강, 조선, 의류, 시멘트, 판유리, 방직, 식료, 신발 등의 생산에 특화되어, 중공업과 경공업이 함께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공업지구와의 차이점이다.

2) 평양공업지구의 기업체 현황

평양공업지구에 경공업이 발달한 특성은 그곳에 위치한 기업체의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공업지구에 관한 5개의 자료를 분석한 Rainer Dormels(2014)에 따르면, <표 3-11>과 같이 북한의 기업체 중 평양공업지구에 위치한 기업체는 18.8%~30.5%로 나타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경공업체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통일부(2012)의 「북한 주요기관 · 단체 인명록」에서 언급한 평양의 기업체의 수는 북한 전체 기업체의 1/4에 가까운 수준으로서, 이는 평양에 경공업체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표 3-11〉 북한의 산업 · 기업 관련 자료에서 언급된 기업체 수

구분	한국산업연구원 (1996) 「북한의 기업」	한국정책금융공사 (2010) 「북한의 산업」	통일부(2012) 「북한 주요기관 · 단체 인명록」	평화문제연구소 · 과학백과사전 출판사(2003) 「조선향토대백과」	조선중앙통신사 www.kcna.co.jp (1998-2001)
총기업체 (공장) 수	2480업체	812업체	1311업체	2401업체	668업체
평양공업지구 기업체(공장) 수	398업체 (16%)	153업체 (18.8%)	309업체 (23.6%)	115업체 (19.9%)	204업체 (30.5%)
도시내 기업의 비율	52.7%	61.7%	61.9%	23.9%	69.5%
도시내 경공업 기업의 비율	41.2%	25.3%	62.6%	48.7%	50.0%
도시내 중화학공업 기업의 비율	49.1%	59.1%	26.5%	37.2%	35.1%

자료: Rainer Dormels, 2014. “북한의 공업지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건축」, 제58권 제8호, p.34-42의 내용을 표로 구성.

Rainer Dormels(2014)에 따르면, 평양에 위치한 주요기업체는 총 88개[12]로서, 이를 산업별로 분류하면 <표 3-12>와 같이 나타난다.

주요 기업체 88개 중 경공업 업체는 48개, 중공업 업체는 40개로서 평양공업지구는 중공업과 경공업이 함께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섬유, 의복, 신발, 식·음료, 가구, 일용품 등의 경공업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표 3-12〉 평양에 위치한 주요 기업체(88개 업체)

구분	산업	기업체명
경공업 (48개)	섬유, 의복, 신발	(김정숙)평양(종합)방직공장,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양)애국(물)편직공장, 평양어린이편직공장, 선교편직공장, 평양창광옷공장, 동대원피복공장, 모란봉합영회사(의류), 애국모란피복공장, 평양피복공장, 애국최종피복공장, 평양가죽이김공장, 평양어린이옷공장, (평양)남새가공공장, 평양신발형타공장, 평양신발공장, 보통강신발공장, 평양구두공장, 류원신발(수출품)공장, 평양편직바늘공장, 평양고무공장
	식 · 음료	평양기초식품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평양곡산공장, 평양맛내기공장, 룡성고기가공공장, 평양밀가루종합가공공장, 평양정미공장, 평양맥주공장, 경련애국사이다공장, 대동강맥주공장, 마람배합사료공장, 평양식료품포장재공장
	가구, 일용품	대흥은정목재가공공장, 평양일용품(종합)공장, 평천일용필수품공장,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만경대영예군인만년필공장,만경대애국 늄창공장, 락랑종이공장
	전자, 정밀기계	모란봉자동화기구공장, 평양조명기구종합공장, 10월5일자동화기구공장, 평양정밀기계공장, 만경대렌트겐공장(의료기구)
	화장품, 제약	평양제약공장, 애국예방약생산공장, 평양화장품공장
중공업 (40개)	금속, 건축자재	평양강철공장, 평양수지건재공장, 평양기포부재공장, 대성요업공장, 7월28일요업공장, 평양금속건재공장, 평양건재공장, 평양화학건재공장, 미림블로크공장
	기계, 장비	만경대공작기계공장, 평양탄광기계공장(3월30일공장), 동평양기계공장, 평양건설기계공장, 평양방직기계공장, 평양승강기공장, 평양통신기계공장, 서포철도기계공장, 평양영화기계공장, 평양베어링공장, 서평양베어링공장, 동평양금속건구공장, 9월18일(룡성베어링공장), 대동강텔리비죤수상기공장
	철도, 자동차	김종태전기기관차종합기업소, 평양무궤도전차공장(구 평양화물자동차 수리공장), 평양차량수리공장
	전력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 덕산탄광, 강동탄광, 흑령탄광, 미림갑문발전소,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동평양화력발전소, 남강발전소, 새날전기공장, 보통강전기공장, 평양전구공장, 3월26일공장(평양전선공장), 평양집적회로공장, 대동강축전지공장

자료: Rainer Dormels, 2014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구성.

12) <표3-11>의 5개의 자료 중, 3개 이상의 자료에서 언급하였거나 최소 1개의 자료에서 주요기업으로 언급한 기업체임.

3) 평양공업지구 주요 기업체의 조업시작 현황

197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평양의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산업정책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2010), 평화문제연구소·과학백과사전출판사(2003), 한국산업연구원(1996), 「로동신문」을 통해 평양공업지구 88개 주요 기업체의 조업시작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73개 기업체의 설립, 완공, 조업시작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3-13>과 같이, 북한 당국에서 경공업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제1차 6개년계획(1971년-1976년) 시기에 평양에서 조업을 시작한 주요 기업체의 수[13]가 크게 증가하여, '경공업의 해(1989년)' 지정 및 '경공업개발 3개년계획(1989년-1991년)'을 추진한 1990년대 초까지 많은 수의 주요 기업체가 조업을 시작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표 3-13〉 평양에 위치한 주요 기업체의 조업시작 현황

시기	기업체명
일제강점기	평양곡산공장,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양기초식품공장, 평양조명기구종합공장, 김종태전기기관차종합기업소
1,2차 1개년계획, 2개년계획 (1947, 1948, 1949-1950)	(김정숙)평양(종합)방직공장, 평양제약공장, 평양일용품(종합)공장
한국전쟁 중, 3개년계획 (1950-1953,1954-1956)	대성요업공장, 평양탄광기계공장(3월30일공장), 평양방직기계공장, 미림블로크공장
5개년계획 (1957-1960, 1년 조기완수)	평양화장품공장, 평양어린이편직공장, 평양신발형타공장, 락랑종이공장, 룡성고기가공공장, 만경대공작기계공장
1차 7개년계획 (1961-1970, 3년 연장)	마람배합사료공장, 선교편직공장, 평양신발공장, 평양구두공장,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경련애국사이다공장, 3월25일(평양정밀기계 공장), 평양화학건재공장, 3월26일공장(평양전선공장),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6개년계획 (1971-1977, 1년 완충기)	평양맛내기공장, (평양)애국(물)편직공장, 평양피복공장, 보통강신발공장(구 평양염화비닐신발공장), 평양가죽이김공장, 평양밀가루종합가공공장, 평양어린이옷공장, 평양수지건재공장, 평양강철공장, 평양승강기공장, 평양금속건재공장, 대동강축전지공장, 서포철도기계공장
2차 7개년계획 (1978-1984, 2년 조정기)	평양창광옷공장, 평양식료품포장재공장, 모란봉자동화기구공장, 만경대렌트겐공장(의료기구), 만경대애국늄창공장, 평양정미공장, 10월5일자동화기구공장, 7월28일요업공장, 평양베어링공장, 9월18일(룡성베어링공장), 새날전기공장, 대동강텔리비죤수상기공장, 미림갑문발전소
3차 7개년계획 (1987-1993)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모란봉합영회사(의류), 애국모란피복공장, 만경대영예군인만년필공장, 애국최종락피복공장, 애국예방약생산공장, 동평양화력발전소, 남강발전소, 평양집적회로공장

13) 산업종사자수 관련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음.

제 3 절 공동주거의 신속한 공급

앞서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북한의 도시들은 극심한 피해를 입는다. 평양의 경우는 특히나 심각하였는데, 평양의 시가지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대부분의 살림집은 소각되고 파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의 진흥으로 인하여 1953년에 17.7%에 불과하던 북한의 도시인구 비율이 1970년에는 54.2%로 급격히 증가하여 주요 도시들에서는 심각한 주택난이 야기되었다.

한국전쟁 후 북한은 영세한 경제 상태와 전문인력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재건은 소련 및 동구 공산 위성국가들의 기술 및 자재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표 3-14>와 같이 당시 소련의 지휘하에 각 도시별 지원국가가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14〉 북한 도시의 재건과 동구 공산국의 지원

도시	지원국	연도	도시	지원국	연도
평양	헝가리, 불가리아	1954-1957	원산	폴란드	1954-1966
함흥	동독	1955-1964	덕천	체코슬로바키아	1954-1956
순천	루마니아	1958-	북한 전체의 경제재건	소련	-

자료: 김원, 1998. 「사회주의 도시계획」, 서울: 보성각, p. 243-244.

1. 1970년대까지의 급속한 도시화에 대한 대응

1) 복구건설계획과 건축가 김정희

초토화된 도시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급격한 도시화는 기존의 맥락에 구애받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대규모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다. 평양의 복구건설 총계획은 건축가 김정희가 맡았다. 김정희는 김일성의 배려로 해방 후 북한의 첫 번째 해외유학생에 선발되어 소련 건축 아카데미를 졸업하였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1월, 김정희는 북한에 돌아와 <그

림 3-5>와 같이, 두 차례 평양시 재건종합계획도를 작성하였다. 그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전후 평양 복구계획의 핵심은 대동강 건너의 동평양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었다. 지금의 김일성 광장 건너편에 있는 주체사상탑을 중심으로 신시가지를 개발하여 김일성 광장의 본평양과 함께 강한 도심 축을 형성하는 개념이었다(이왕기, 2000; 35, 127-133). 이러한 평양시 재건의 기본 방향은 동평양 지역의 청년거리, 문수거리, 그리고 통일거리 등 대규모 아파트 지구 건설의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5〉 평양시 재건종합계획도

자료: 이왕기, 2000. 「북한건축 또 하나의 우리모습」, 서울 : 서울포럼, p131-132.

2) 소련과 동독의 주택모델 도입

북한 주요 도시의 주택공급에 있어서는 소련과 동독의 지원이 가장 두드러진다. 북한 정권 수립 후 최초의 주택 현상설계는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5월에 진행되었는데, 이는 소비에트 재건프로젝트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로동신문(1952)에 따르면, 「주택표준설계현상모집요강」에는 <표 3-15>와 같은 도시형 주택의 설계 방향이 제시되었는데, '다층주택', '대량적 속도건설에 적합', '경제적 유리성', '구조, 부자재들과

부분품들을 규격화', '건설작업을 조립기계화'와 같은 키워드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3-15〉 1952년 북한의 주택 표준설계 현상 모집요강

· *재래식 주택의 결함을 퇴치하고 양식상 전통을 살리면서 새로운 민족적 특색을 부여하도록 하며*
· ***다층주택**의 방향으로 안목을 돌리며*
· *각종 주택들이 **대량적 속도건설에 적합**되도록 하며*
· *지방 자재를 용이하게 동원이용하며 **경제적 유리성**이 수반되도록 하며*
· *건축물의 **구조, 부자재들과 부분품들을 규격화**하여 공장생산화하며 **건설작업을 조립기계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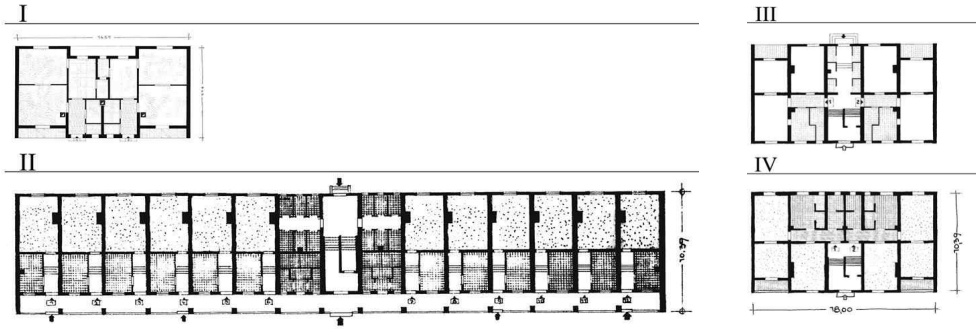
자료: 「로동신문」 1952년 5월 25일자, 3면, "주택 표준 설계 현상 모집 요강 발표"

한국전쟁 이후에도 주택공급에 있어서 소련의 지원은 계속되었다. 북한에 처음 소개된 도시형 살림집은 소련형 계단식인 섹찌아식(sektsiia)이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1954년에 평양노동자 아파트가 소련의 자금 지원으로 섹찌야식으로 설계되어 건설되었다(리화선, 1989: 128-129).

이후, 1954년 11월, 북한은 국가건설위원회 산하에 중앙표준설계연구소를 설립하여 살림집의 표준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살림집의 대량공급을 통하여 건축 및 건설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자 한 것이다(리화선, 1989: 97).

때마침 동독에서는 1955년 함흥의 도시재건을 위하여 'DAH(Deutsche Arbeitsgruppe Hamhung)'이라는 독일 기술자 그룹을 파견하였다(김면, 2005). 이듬해 DAH는 <그림 3-6>과 같이, 몇 가지 형태의 주택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반복적인 베이 시스템(bay system)을 사용하는 편복도형 계획안(<그림 3-6>의 Ⅱ)은 다양한 방식의 단위 평면을 조합하는데 이점이 있어, 추후 북한 설계진의 손을 거쳐 표준단위평면으로 발전하였다. 이 유형은 '외랑식' 또는 '바깥 복도식'으로 불리며 북한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Shin and Jung, 2016: 161; 리화선, 1989: 121-131).

〈그림 3-6〉 DAH(Deutsche Arbeitsgruppe Hamhung)에서 제시한 주택 계획안



자료: Shin G. S. and Jung I. H., 2016. "Appropriating the socialist way of life: the emergence of mass housing in post-war North Korea", The Journal of Architecture, 21(2), p.162.

3) 북한식 표준주택유형의 구축

당시, 북한 중앙표준설계연구소에서 외랑식(편복도식)과 중간복도식의 세대당 건설비용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표 3-16>과 같이 외랑식 복도(온돌)인 경우, 세대당 평균 거주면적이 더 크고 비용면에서도 저렴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16〉 세대당 건설비용 비교

구분	세대당 면적(㎡)	세대당 평균 거주면적(㎡)	단가(원)	비고
국가 계획	48	25	3,500	예비 탐구한 대상만 평균함
외랑식 복도 (온돌)	34.13	18.55	1,681	상점을 포함한 단가는 1,770원
중간 복도 (중앙난방)	34.43	17.7	1,860	상점을 포함한 단가는 1,943원
평균 저하%	29%	27%	49%	상점을 포함한 평균 저하율

자료: 신순경, 1958. "주택건설의 조립화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 「건축과 건설2」, p.7

같은 자료에서 중간 복도형과 외랑식의 표준 주택 설계의 구조 도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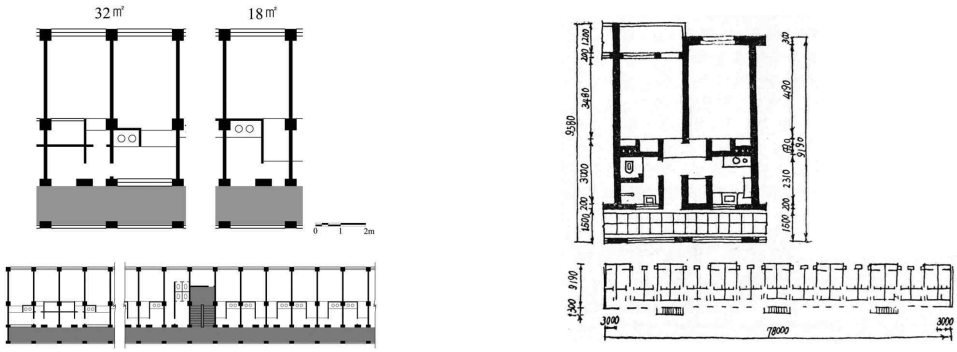
비교한 점을 볼 때, 외랑식의 경우 구조적으로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북한의 기술적, 경제적 여건하에 단기간에 대량공급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외랑식 복도형이 선정되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7〉 세대당 구조도식 비교

"중간 복도형과 외랑식 표준 주택 설계의 구조 도식을 본다면, 중간 복도형에서는 중간 지지벽을 두지 않고 중간 독립주를 쌍줄로 두고 외벽을 지지벽으로 하여 보를 놓고 단경간 층막판을 배치하는 반골조식 구조 도식으로 되었다면, 외랑식 주택에서는 가로 지지벽을 단경간 층막으로 되는 구조 도식으로 해결하였다." *"층고를 종전의 280㎝로부터 중앙난방일 때에는 240㎝, 온돌일 때에는 260㎝로 각각 저하시키면서 4,5층을 6층으로 높이며 불필요한 공간과 부대 면적을 감소시킴으로써 절약한 금액으로 새로 설계된 6층 주택을 외랑식 온돌주택 60%, 중앙난방식 주택40%의 비율로 8,289 세대를 더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자료: 신순경, 1958. op. cit., p.6-7

〈그림 3-7〉 1958년과 1962년의 표준 살림집 평면



자료:「건축과 건설」1958년 9월호의 자료를 Shin G. S. and Jung I. H., 2016., op. cit. p.164에서 재인용(좌); 리화선, 1989. 「조선건축사 2」,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p.213.

이후, 중앙표준설계연구소는 <그림 3-7>과 같이, 시공이 수월하고 경제

적인 외랑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접근성을 위해 섹찌아식(sektsiia: 소련형 계단식)을 조합한 여러 형태의 표준주택평면을 수립하여 보급하였으며, 1970년대에 이르러서 이 유형들은 북한에서 가장 보편적인 편복도형 아파트 개발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리화선, 1989: 211-214).

4) 시공방법의 조립화

전후 방대한 건축 및 건설 사업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설계를 표준화함과 동시에 조립식 방법을 도입하여 건설 속도를 높일 것에 대한 방침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공동주거의 표준 설계에 의한 조립부재의 생산을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부재공장이 1956년에 평양과 함흥을 시작으로 주요 도시의 건설사업소에 건설되었다(리화선, 1989:100). <표 3-18>과 같이 1960년에 이르면 주택의 건설에서 조립식 건설의 비중이 60%에 가까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8〉 조립식 건설의 비중(%)

구분	1957년	1958년	1959년	1960년
조립식 건설의 비중(전체)	18.1	30.5	30.7	42.8
그 중 주택건설	32.4	59.0	58.2	59.2
공공건설	32.2	30.2	30.8	34.2
산업건설	8.2	17.3	22.6	20.8

자료: 리화선, 1989. op. cit., p.102.

〈표 3-19〉 대상별 부재 종류 수

대상명	부재 종류 수
1956년에 건설한 동평양의 첫 조립식 살림집	127
1957년에 건설한 5층 살림집	52
1958년에 건설한 바깥(편) 복도식 살림집	35
1958년에 건설한 중간 복도식 살림집	30

자료: 리화선, 1989. op. cit., p.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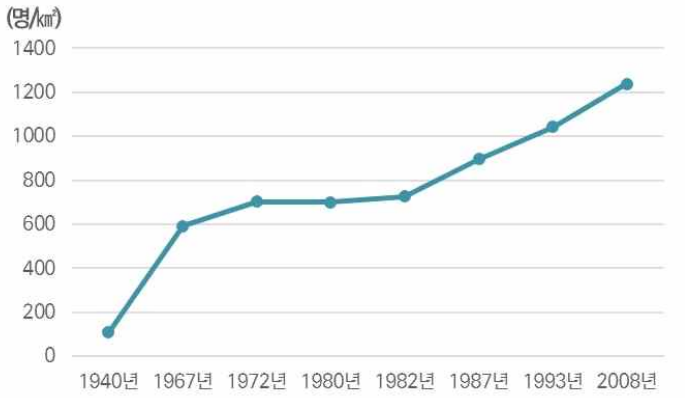
<표 3-19>를 보면, 표준 설계의 적용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부재의 종류가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1956년에 건설한 동평양의 첫 조립식 주택에는 127개의 부재가 사용된 것과 비교하여 1958년에 건설한 중간 복도식 주택에는 30개의 부재만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2. 1980년대 평양의 지속적인 인구집중에 대한 대응

1) 평양의 인구집중과 주택 공급

앞서 3장의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평양으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평양의 인구밀도는 <그림 3-8>과 같이 꾸준히 증가하여다. 2008년 기준, 인구밀도는 1,238명/㎢수준으로서 북한 도시들의 인구밀도 평균에 약 2배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다.

〈그림 3-8〉 평양 인구밀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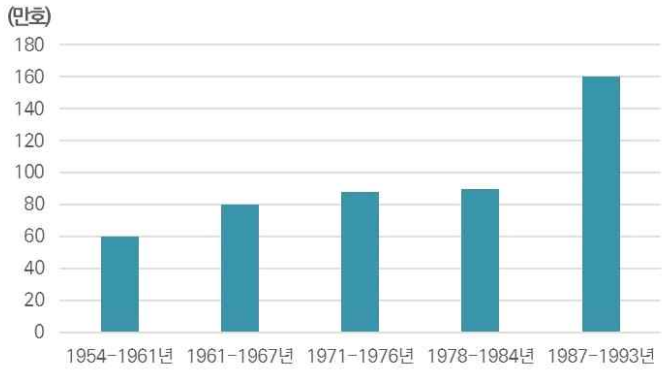


자료: 평양시(2008)의 면적은 통계청, 200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인구는 북한중앙통계국, 2009. 「2008 북한 인구조사 보고서」

북한 주택 공급의 현황을, 당국이 발간한 「조선중앙연감」의 내용을 토대로 파악해보면, <그림 3-9>와 같이, 평양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1980

년대 중·후반에 주택 공급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고난의 행군 이후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북한 주택의 완공실적 118건 중(2000~2014년) 평양이 2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상희, 2015: 60).

〈그림 3-9〉 북한 주택 공급 현황[14)]



자료: 조선중앙연감 각 년호의 내용을 최상희 외, 2015. "북한주택현황 조사 · 분석 연구", LH 토지주택연구원. p.66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구성.

2) 고층화한 공동주거의 공급

1970년대 이후 평양시 살림집 지구 개발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고층화를 얘기할 수 있다. <표 3-20>과 같이, 1960년대까지 평양 살림집의 기본 층수는 6~8층이었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 20층 규모의 살림집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초에는 창광거리에 25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였다. 남한 최초의 초고층 아파트는 1999년에 건설된 46층의 대림아크로빌로서, 초고층 아파트의 건설역사에 있어서는 북한과 남한에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지어진 북한의 고층·초고층 살림집들에는 북한에서 생산하는 승강기가 설치되었다고 전한다(리화선, 1989: 342-351). <그림 3-10>과 같이, 1980년대 후반에 들어 고층화가 더욱 가속되어 광복거리에는 42층, 2017년에 준공한 려명거리에는 70층에

14) 평양의 주택 공급 현황과 관련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음..

달하는 공동주거가 건설되었다.

〈표 3-20〉 남·북한의 시기별 아파트 층수 비교

구분	북한의 살림집 지구 및 층수	남한의 아파트 단지 및 층수
1950년대	평양노동자 아파트 4~6층	행촌아파트 3층, 종암아파트 5층
1960년대	모란봉거리 6~10층	마포아파트 6층, 시민아파트 4~6층
1970년대	천리마거리 15층(1970년대 초), 락원거리 20층(1975년)	반포아파트 6층, 잠실아파트 5~15층
1980년대	창광거리 30층, 경흥거리 40~41층	목동아파트 5~15층, 올림픽선수촌아파트 6~24층
1990년대	광복거리 42층, 통일거리 30층	대림아크로빌 46층(1999년)
2000년대	미래과학자거리 53층, 여명거리 70층	타워팰리스 1차 66층, 타워팰리스 3차 69층

자료: 리화선, 1989. op. cit.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3-10〉 광복거리 및 려명거리의 전경

자료: 광복거리의 전경 https://m.blog.naver.com/(좌), 려명거리의 전경 http://www.tongilnews.com/(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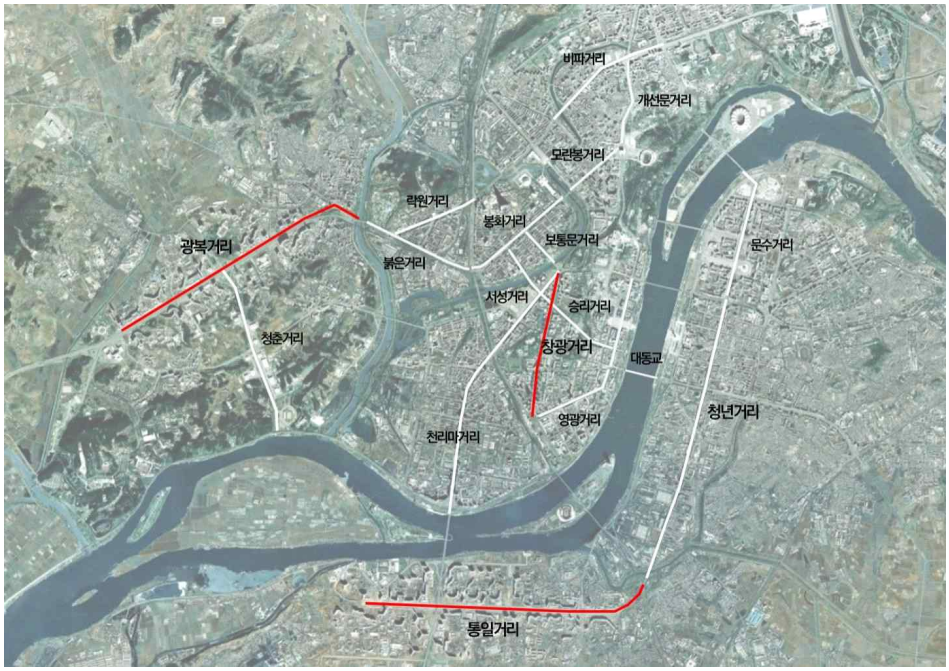
3) 대형화한 공동주거의 공급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건설된 평양의 살림집 지구들은 이전에 비하여 상당히 큰 도시영역을 포괄하면서 형성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86년에 착공하여 1989년에 완공한 광복거리와 1990년에 착공하여 1993년에 완공한 통일거리(1, 2단계)이다(조선중앙연감, 1990; 1993).

<그림 3-12>와 같이, 광복거리는 팔골다리부터 만경대 갈림길에 이르는 5.4㎞ 구간의 거리이며, 통일거리는 충성의 다리에서부터 락랑다리에 이르는 약 5㎞ 구간의 거리이다. 두 곳 모두 5km에 달하게 아파트 지구가 형성되었다.

이를 두고 로동신문에서는 “광복다리와 정임다리를 건너서 만경대 갈림길까지 100m 폭에 15리 길이로 가슴이 탁 트이게 뻗어나간 대도로, 그 량옆에 금강산의 일만 봉우리가 옮겨 앉은 듯한 고층, 초고층의 살림집들”로 광복거리를 묘사하였고, “눈뿌리가 모자라게 시원히 뻗어나간 120메터 폭의 중심도로 좌우에 은백색으로 산 뜻하게 단장하고 즐비하게 들어앉은 덩지 큰 살림집들”로 통일거리를 묘사하고 있다(로동신문, 1990: 1992). 또한 “도시의 옹근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건설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리화선, 1989: 306-321), 이때 이 ‘옹근’은 ‘조금도 축나지 않고 다 있는 것’을 일컫는 북한말이다.

〈그림 3-11〉 1980년대 북한의 대표적 살림집 지구



자료: https://earth.google.com/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12〉 광복거리와 통일거리

자료: http://map.vworld.kr/map/maps.do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21>과 같이, 1950년대에 건설된 청년거리와 1990년대에 건설된 광복거리의 살림집 지구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청년거리의 경우 블록의 길이가 약 250m의 규모인 것과 비교해, 광복거리의 경우 1000m에 달하는 것도 있어 4배 가량 확대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동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 청년거리의 경우 최대 80m 수준이지만, 광복거리의 경우 최대 400m에 달해 약 5배 이상 확장한 점이 파악된다. 이 외에도 중심 가로의 폭, 층수, 세대수의 측면에서 상당히 대형화되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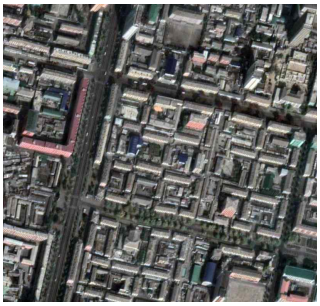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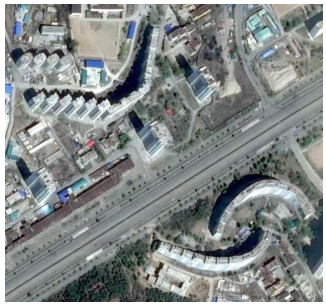
〈표 3-21〉 청년거리와 광복거리 살림집 단지의 규모 비교

청년거리의 살림집 단지 (1950년대)	광복거리의 살림집 단지 (1980년대 후반)
· 블록의 길이 약 250m · 중심 가로폭 약 40m · 주동길이 최대 80m · 4~6층	· 블록의 길이 약 850m~1,000m · 중심 가로폭 약 100m · 주동길이 최대 400m · 12~42층

자료: https://earth.google.com/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22>는 청년거리(1950년대), 광복거리(1980년대 후반), 통일거리(1990년대 초반)의 살림집 지구를 같은 스케일에서 캡쳐한 사진들로서 3개 지구의 규모 비교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광복거리와 통일거리는 청년거리에 조성된 살림집 지구와 비교할 때, 블록의 길이는 2.2~4배, 주동의 길이는 5~6.88배, 층수는 3~7배, 중심 가로의 폭은 2.5배 수준으로 상당히 대형화한 점이 확인된다.

〈표 3-22〉 청년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 살림집 단지의 규모

청년거리(1950년대)	광복거리(1980년대 후반)	통일거리(1990년대 초반)
		
· 블록의 길이 약 250m · 중심 가로폭 약 40m · 주동길이 최대 80m · 4~6층	· 블록의 길이 약 850m~1,000m · 중심 가로폭 약 100m · 주동길이 최대 400m · 12~42층, 약 2만 세대	· 블록의 길이 약 550m~1,000m · 중심 가로폭 약 100m · 주동길이 최대 550m · 최고 30층, 약 2만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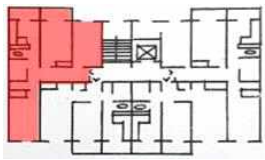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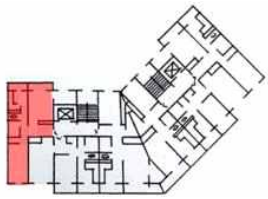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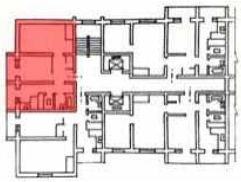
자료: https://earth.google.com/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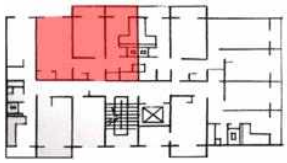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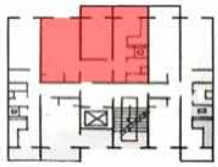
4) 표준화한 평면의 반복적 사용

대량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표준화된 평면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특성은 통일거리에 건설된 살림집 지구에서 두드러진다. 통일거리 1단계는 1,080여 만㎡ 부지에 8개의 구획으로, 14~30층의 아파트 30개동, 약 2만여 세대 규모가 건설되었다. 대규모의 살림집 지구를 단기간에 완공하기 위해 하루평균 200세대, 최고 4.9분에 한 세대씩 조립하는 등 1년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한 것이 특징이다(조선중앙통신사, 1993; 조선건축, 1991).

<표 3-23>과 같이 통일거리 살림집의 평면을 살펴보면, 단조로운 평면을 여러 번 묶어 전개하는 방식으로 건설된 점이 확인된다. 이로 인하여 통일거리의 주동 형태는 <그림 3-13>와 같이, 직선식, 꺽음식, 묶음식 등 수평적으로 연장한 형태를 보인다. 한동이 100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것도 확인된다(로동신문. 1992).

〈표 3-23〉 통일거리 살림집의 평면

2-1호동_1	2-1호동_2	4-1호동
		
· 한층 4세대, 계단식 · 부엌, 방2~3개, 위생실1개	· 한층 6세대, 계단식 · 부엌, 방2개, 위생실1개	· 계단식 · 부엌, 방2~3개, 위생실 1개

6-4호동_1	6-4호동_2
	
· 한층 4세대, 계단식 · 부엌, 방2~3개, 위생실1개	· 한층 3세대, 계단식 · 부엌, 방2~3개, 위생실 1개

자료: 조선건축, 1991년 3호, p.74-75.

〈그림 3-13〉 통일거리 공동주거의 주동 형태

꺾음식	꺾음식

U형 묶음식	M형 묶음식

자료: https://earth.google.com/

제 4 절 소결

본 장에서는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도시화 현상과 공동주거를 중심으로 한 대량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정을 탐색하였다. 북한의 도시화 현상과 이에 배경이 되는 산업정책,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주거의 공급 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먼저 한국전쟁은 남·북한의 총력전의 형태를 띠었고, 국제전으로 확대되어 전선이 전 국토를 훑고 지나갔기 때문에 도시들의 피해는 극심하여 기존 구조물들이 거의 사라졌다. 평양의 경우, 일찍이 제공권을 장악한 미 공군의 공급으로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었다. 중앙기관을 비롯한 모든 공공건물들이 파괴되었고 대부분의 주택이 파괴·소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후 중공업 육성정책의 시행은 급속한 도시화를 수반하여 1953년에 17.7%에 불과하던 도시인구비율을 1960년에는 40.6%까지 급격히 증가시키게 되었다. 이처럼 초토화된 도시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급격한 도시화는 기존의 맥락에 구애받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개발을 대규모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대도시의 급격한 도시화는 북한의 산업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전후 중공업 우선 정책의 시행은 농업과 경공업 부문의 낙후를 가져왔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심각한 산업구조의 불균형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경공업의 부진으로 인한 식량 및 소비재 부족은 주민들의 불만 증대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당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경공업 병행성장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경공업의 해(1989) 지정 및 '경공업개발 3개년계획(1989년-1991년)'을 추진한 1990년대 초까지 다수의 기업체가 평양공업지구에서 조업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인구 유입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초토화와 뒤이은 급속한 도시화 현상으로 평양시 전후 복구의 시급한 과제는 심각한 주택난의 해소가 주요 목표가 되었다.

전후 북한은 영세한 경제상태와 전문인력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재건은 소련 및 동구 공산국가들의 기술, 자재 지원에 따라 이루어졌다. 도시 주택공급에 있어서는 소련과 동독의 지원이 가장 컸는데, 당시 함흥의 도시재건을 위하여 파견된 DAH(Deutsche Arbeitsgruppe Hamhung)'라는 독일 기술자 그룹에서 제안한 주택 모델안의 영향을 받아 편복도식의 표준주택유형이 구축되었다. 당시 북한의 중앙표준설계연구소에서는 반복적인 베이 시스템(bay system)을 사용하여 시공이 수월하고 경제적인 편복도형 계획안을 기본으로 하면서 접근성을 위해 섹찌아식(sektsiia: 소련형 계단식)을 조합한 여러 형태의 표준주택평면을 수립하여 보급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 이 유형들은 북한에서 가장 보편적인 아파트 개발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평양의 인구밀도는 다른 도시들의 인구밀도 평균에 약 2배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주택공급이, 평양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1980년대 중·반에, 평양시를 중심으로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공급된 주택지구의 가장 큰 특징은 고층화한 점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20층 규모의 공동주거가 건설되었으며, 창광거리에는 1980년대 초에 25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고층화 현상이 더욱 가속되어 광복거리에는 42층, 그리고 2017년에 준공한 려명거리에는 70에 달하는 공동주거가 건설되었다.

1980년대 중반의 공동주거 단지에서는 수직적 성장과 함께 수평적으로도 대형화한 특성을 보였다. 1989년과 1993년에 각각 완공한 광복거리와 통일거리는 5km에 달하게 공동주거 단지가 형성되었다. 이를 1950년대에 건설된 청년거리와 비교해본 결과, 블록의 길이는 2.2~4배, 주동의 길이는 5~6.88배, 층수는 3~7배, 중심 가로의 폭은 2.5배 수준으로 상당히 대형화한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통일거리는 단조로운 평면을 여러 번 묶어 전개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직선식, 꺽음식, 묶음식 등 수평적으로 연장한 형태를 보이며, 대량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평면을 반복적 사용한 특성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전후 초토화된 도시에서 진행된 복구사업과 산업 진흥으로 인한 인구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고층아파트 위주의 공동주거를 보급한 것은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당연한 귀결이라 평가할 수 있다. 빅토리아 시대 건축의 장식을 단순화하고 기능 위주의 표준화된 주택을 지향한 르 꼬르뷔제식의 모더니즘 계획은 이 시대 북한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해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남한에서 급속한 도시화에 대응하여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더욱이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바탕으로 한 인간 역사의 진보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던 사회주의 체제는 모더니즘 건축의 흐름과도 일맥상통하여 북한에서 이러한 형태의 양식을 더 쉽게 받아들인 것이다.

제 4 장 사회주의: 집단적 공동생활의 조직화

4장에서는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계획경제 하, 북한 공동주거의 공간적 실천 및 사회적 관계망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1절에서는 주택 소구역을 사회주의 도시 공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탐색한다. 일상공간의 개조를 통한 사회주적 삶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거지 내 공용시설은 어떠한 것들이 계획되었으며, 북한 건축전문매체 「조선건축」을 통하여 최근 계획된 주택 소구역(구획)에서도 공용공간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2절에서는 주거지의 사회주의 공동생활을 교양하기 위한 조직으로 인민반과 여성동맹의 구조 및 역할을 탐색한다. 3절에서는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자료의 양적 및 질적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여 계획경제 하에 공용공간에서 벌어졌던 공식적 실천을 심도 있게 서술한다.

제 1 절 북한 주택소구역 및 공용시설

북한에서 주택소구역 조직방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후반으로서, 다층 살림집 건설로의 이행과 거의 때를 같이한다.

기존 구획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완비된 생활단위를 조직할 수 없으며, 도로와 기술시설물의 연장길이를 증대시킴으로써 건설비와 경영비가 많이든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보다 큰 규모에서 종합적인 생활단위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확대된 구획형태인 살림집 소구역 조직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평양, 함흥, 청진, 원산 등 주요 도시들에서 살림집 지구를 몇 개의 소구역으로 나누어 건설하기 시작하였다(리화선, 1989: 111-112).

주택소구역은 사회주의 도시의 주거지계획에서 주민의 집단공동생활(communal life)을 조직하기 위하여 공간적인 기초단위로 상정한 소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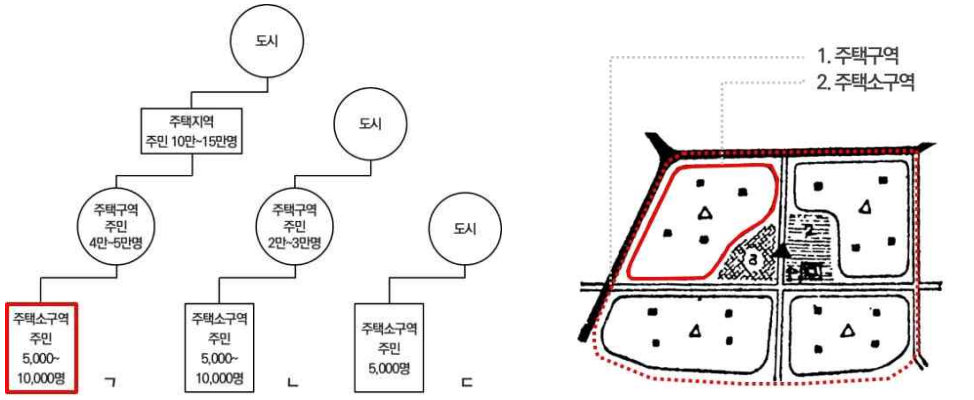
(마이크로 디스트릭트, micro-district) 개념을 북한 현지화한 것으로 사회주의 주거지 계획의 일반적 원칙들이 유사하게 적용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북한 주택소구역의 사회주의 도시 공간적 특성

1) 도시 공간의 계층구조 형성

북한의 주택소구역은 도시에서 거주 지역을 형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주택소구역은 <그림 4-1>의 오른쪽과 같이 하위단위인 몇 개의 주택군으로 구성된다. 주택군은 인구 1,000명~2,500명의 규모이며, 주택군이 4~5개 모여 하나의 소구역을 형성한다.

〈그림 4-1〉 도시 생활단위 체계도 및 주택구역 구성



ㄱ.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
ㄴ. 인구10~20만명 도시　　ㄷ. 소도시

■주택군 △소구역중심 ▲주택구역중심

자료: 리순건, 1963. "주택 소구역 계획", 국립건설출판사, 평양, p.56-58.

예컨대 평양의 경우 〈그림 4-1>과 왼쪽과 같이, 소구역의 규모는 15~20ha로서 5,000~6,000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이것이 기초단위가 되어 몇 개의 소구역이 모여 주택구역(인구 40,000~50,000명)을 구성하며, 이것이

모여 주택지역(100,000～150,000명)을 구성하는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다(리순건, 1963: 34, 56).

1950년대 후반 이후에 계획되거나 건설된 소구역들은 〈표 4-1〉과 같이 대부분 인구 5,000～10,000명 정도의 규모로서, 주요 도시 내 소구역 대지의 크기는 보통 13～23정보(12.89～22.81ha)였다. 함흥시 및 청진시와 같이 새로 거주지역이 확장된 도시들과 개성시와 같이 기존 시설을 보존하여야 하는 도시들은 주택 소구역의 규모를 35ha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택 소구역 내 주민수는 자연 조건과 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설정하였다(리순건, 1963: 35-38).

〈표 4-1〉 주요도시 내 소구역의 평균 규모

도시	소구역의 규모 (ha)	주민수 (명)	도시	소구역의 규모 (ha)	주민수 (명)
평양	15~20	5,000~6,000 *일부 10,000명 규모도 있음.	개성	17~53	6,000~15,000
			강계	15~16	3,800~7,000
함흥	15~35	5,000~10,000	해주	18~28	4,000~9,000
청진	15~18	5,000~6,000	혜산	15~26	4,000~8,000
	*일부 29~35ha	10,000~12,000명 규모도 있음.	송림	12~15	3,000~4,000
원산	평균 20	5,000~9,000	남포	15~25	5,000~8,000
사리원	12~15	3,000~9,000	김책	15~20	4,000~7,000
신의주	12~16	3,000~4,000	신포	16~20	4,000~6,000

자료: 리순건, 1963. op. cit., p.36-37.

2) 집단 소비·서비스시설의 공간적 균등배치

주택소구역의 봉사시설은 근린주구의 상업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과 유사하며, 주택소구역 내에 배치되는 모든 생활편의시설(교육시설, 상업시설, 공동가사시설, 생산시설, 행정시설 등)을 총칭한다.

소비에트의 '단계식 문화생활 서비스 체계'와 같이 소구역 내 거주자들

이 최대한 동질한 주거환경과 생활편의시설을 점유하도록 계획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김민아, 2018: 164; 리화선, 1989: 113, 193). 이에 핵심이 되는 봉사시설은 주민수와 봉사반경을 고려하여 완비된 생활단위체계로 구성함으로써 주민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소비에트의 체계와 비교할 때, 주택소구역 생활단위체계는 보다 작은 반경의 초급 봉사단위(반경 100～150m)를 조직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초급 봉사단위는 인민반 제도와 결합하여 주민 공동 생활·시스템의 기초단위로 작동하게 된다.

〈표 4-2〉 소구역의 생활단위 체계

구분	봉사시설
* 초급 봉사단위	- 봉사반경 100~150m, 주민수 2,000~3,000명 - 밥공장, 가족식당, 부식물매대, 세탁물 취급소, 가내작업반(인민반의 기혼여성들을 모아 조직), 어린이 놀이터, 노인휴식장, 공동녹지, 경영뜰, 구획내 소시장, 고품수매소 등
소구역 봉사단위	- 봉사반경 400~500m, 주민수 6,000~9,000명, 매일 봉사를 위한 시설 - 주택들과 최대한 가깝게 배치함. - 탁아유치원, 7년제학교, 아동도서관, 약방, 종합진료소, 대중식당, 식료품 상점, 두부공장, 생활봉사기관, 이발관, 저금소, 식량공급소, 연료공급소, 종합관리반(도시경영), 소구역 공원, 체육장, 동사무소 등
구역 봉사단위	- 봉사반경 750~1,500m, 주기적 봉사를 위한 시설 - 건설과 경영을 위해 주택구역 중심에 계획함. -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영화관(문화회관, 아동회관 포함), 구역도서관, 구역책방, 구역급 전람관, 구역병원, 위생방역소, 종합약국, 전문식당, 고급식당, 공업품상점, 식료품상점, 수산물상점, 목욕탕, 종합편의수리, 양복점, 리발관, 사진관, 구역건물관리소, 구역경기장, 공원, 지방산업공장, 구역종합청사 등

자료: 리화선, 1989. 「조선건축사 2」,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p.193; 국가건설위원회 중앙설계연구소 도시계획연구실, “도시 계획에서 소구역 설계에 대한 몇 가지 의견”, 「건축과 건설」, 1961년 12월, 평양:공업출판사, p.19-23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구성.

3) '사회주의적 삶'의 구현: 일상공간의 공용화

북한의 주거지 계획에서 보이는 사회주의 도시 공간적 특성 가운데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한 점은 '사회주의적 삶'의 구현을 위해 일상공간을 공용화한 특성이다.

소비에트 혁명세력들이 제시한 '사회주의적 삶'은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기초한 사회로서, 공동체라는 새로운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가족의 일상생활의 일부분이었던 몇몇 기능들이 집단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경우, 주택소구역 조직방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1950년대 후반부터 초급생활단위를 조직하여 초급봉사시설로서 주민들의 사상문화교양을 위한 선전실을 계획하였다. 1967년 이후에는 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신문도서열람실, 아동도서관 등을 살림집 아래층에 설치하였다. 리화선(1989)는 이를 통하여 "살림집 소구역은 처음부터 단순한 생활장소가 아니라 근로자의 문화휴식과 사상문화교양장소로, 사회주의적 생활을 누리는 생활장소로 꾸려지기 시작하였다"고 강조한다(리화선, 1989: 193).

소비에트 혁명세력들이 제시한 취사 및 식사 기능의 집단화는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을 구현하려는 기본 목적과 여성 억압의 구조를 개선하여 여성이 생산현장에 참여하는 노동계급이 되어 경제적 독립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 해방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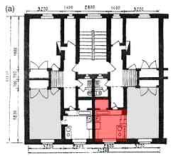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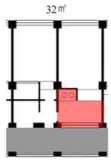
북한의 경우, 정권수립 초기에는 주로 봉건적 가족제도의 개혁 및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후 전후복구과정에서 여성 또한 동원해야 할 노동력으로 포함하는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김민아, 2018: 97). 1958년 7월 19일 내각결정 제84호 "인민경제 각 부분에 녀성들을 더욱 인입시킬데 대하여"를 발표하고 1958년 8월 1일 내각명령 제79호를 통해 그 내용을 강제하면서 북한의 여성 노동자 증대 사업이 체계화하였다(박영자, 2006: 133). 이 때 1961년까지 여성노동자의 비율을 교육, 문화, 보건 부문에서 평균 60%이상, 기타 경제 분야에서 평균 30%이상으로 제고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었다(김동찬, 1958: 30-32).

이에 따라 주택소구역의 봉사시설에는 여성들의 가사노동을 경감할 수

있는 탁아소, 유치원, 식당, 공동세탁소 등의 편의시설을 기존 건물을 이용해 마련하거나 기본 건설 계획을 통해 새롭게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본격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장치들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중 공동 취사시설로서 밥 공장, 반찬 공장, 가족식당의 계획이 체계화하여 1959년 2월에 발표된 대타령 모범주택 소구역 제87호에서 처음으로 실현되었다(안량옥, 1959: 7-11).

흥미로운 점은 소구역 내 공동 취사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개별세대의 부엌기능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표 4-3>과 같이 1956년부터 1967년까지 표준 살림집 평면을 이용하여 단위세대 내 부엌면적의 비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한국전쟁 이후부터 1961년까지 15% 내외를 유지하다 소구역 조직방법이 본격화한 1960년대 초부터 10% 내외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4-3〉 단위세대 내 부엌 면적의 비율 변화

	1956년 (평양 평천구역)	1958년 (평양 62호)	1961년	1962년	1967년
평면도					
면적비율	단위세대 면적 : 57.77㎡ 부엌면적 : 8.07㎡ 비율: 13.97%	단위세대 면적 : 31.27㎡ 부엌면적 : 4.55㎡ 비율: 14.55%	단위세대 면적 : 35.74㎡ 부엌면적 : 5.97㎡ 비율: 16.70%	단위세대 면적 : 39.02㎡ 부엌면적 : 3.90㎡ 비율: 9.99%	단위세대 면적 : 39.31㎡ 부엌면적 : 4.17㎡ 비율: 10.61%
비고	표준살림집 1호 2세대 섹찌아식, 3층, 2방 세대	편복도형, 2방 세대, 공동화장실사용	편복도형, 2방 세대	편복도형, 2방 세대	편복도형, 2방 세대

평면의 출처: 건축과 건설, 1958, 1960, 1962, 1967년 각 년호; 리화선, 1989; Shin G. S. and Jung I. H., 2016. “Appropriating the socialist way of life: the emergence of mass housing in post-war North Korea”, The Journal of Architecture, 21(2): 159-180.

1950년대 후반까지는 가사 일을 경감시키는 시설을 설치하여 여성들의 근로시간을 보장하려 했다면, 1960년대 이후부터는 주택 소구역 안에 여성들을 직접 투입시킬 수 있는 생산시설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소구역 계획방법이 진화하게 된다.

리순건(1962)에 따르면, 유해성의 정도와 요구되는 물의 양에 따라 공장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넓은 대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물 사용량이 적고, 주민들에게 제품을 신속히 공급해서 부패를 막아야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소구역 내에 배치할 것이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주로 식료품과 두부공장, 주방공장, 가내 작업장 등이 주택 소구역의 봉사망 중심에 배치되었다(리순건, 1962: 62-61).

1967년 이후에는 평양, 함흥, 청진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살림집 지구에 경공업 공장들을 건설하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서평양 37호 구획에는 살림집 아래층에 피복분공장, 경메리야스직장 등의 직장과 분공장들을 배치하였으며, 함흥에서는 소구역 안 혹은 변두리에 피복, 완구, 일용품, 학용품, 정밀기계, 식료가공공장들을 배치하였다. 리화선(1989)에 따르면, 이를 통해 “우리의 살림집지구, 살림집 소구역은 인민들이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리는 곳일 뿐 아니라, 사상문화교양장소로 되었으며, 휴식과 소비만 진행되는 곳이 아니라 로동과 생산이 진행되는 곳으로 되었다”고 강조한다(리화선, 1989: 193-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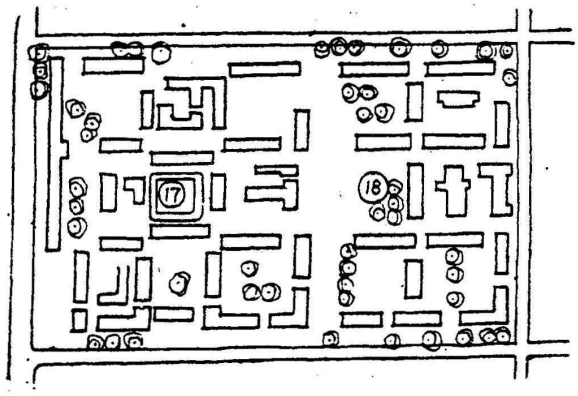
2. 주택소구역계획이 적용된 사례

1) 초기형태: 동평양 17, 18호 구획(1955년 계획)

1950년대 중반까지는 소구역계획의 초기 형태인 구획조직방법을 적용하여 소층(2~3층) 살림집으로 구성하였다. 평양의 청년거리, 보통문거리, 평천리 일대와 사리원, 원산, 강계, 함흥 등의 지방도시들에서 2~3층의 소층살림집으로 된 구획들이 건설되었다. 당시 건설된 살림집 구획의 규모는 보통 6~10정보[15] (약 5.95~9.92ha, 1만8천~3만평)였으며, 구획 내부에는 살림집 3~4동 별로 작은 안뜰을 형성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동평양 제17호, 18호 살림집 구획을 들 수 있는데, 구획 안의 살림집들은 주변식(周邊式: 길을 따라 평행하게 배치)으로 모두 3층으로 건설되었고, 살림집 3~4개 동이 안뜰을 형성하였다. 봉사시설은 비교적 단순하게 구성되었다. 두 구획의 중심에 두 구획이 함께 이용하는 탁아소, 유치원, 목욕탕을 건설하였으며, 청년거리에 면한 살림집의 1층에는 상점, 편의시설들을 배치하였다(리화선, 1989: 111-112).

〈그림 4-2〉 동평양 제17호, 18호 살림집 구획



자료: 리화선, 1989. 「조선건축사 2」,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p.112.

15) 1정보=3,000평, 약 9,917.4㎡

2) 소구역 조직방법의 도입: 평양 대타령 제87호 소구역(1959년 착공)

당시 건설되고 있던 대표적인 소구역으로는 평양 대타령 제 87호 살림집 소구역과 함흥 중앙 제1 살림집 소구역을 들 수 있다. 특히, 평양 대타령 제 87호 살림집 소구역은 1959년에 착공하여 1960년대 초에 완성하였으며, 북한에서 처음으로 실현되어 시범적 의의가 큰 소구역이다.

소구역의 봉사시설은 완비된 생활단위체계를 이루도록 주거동의 하부에 탁아소, 가족식당을 배치하였으며, 짧은 봉사반경 안에 밥공장이 계획되었다. 유치원, 학교, 강당 등의 교육시설은 소구역 내부 중앙에 배치하여 학생들이 길을 건너지 않게 하였으며, 거리에 면한 살림집의 1층에는 식료품상점, 식당 등의 편의시설들을 배치하였다. 또한 소구역 중심부에 1정보(3,000평, 약 9,917.4㎡)의 공공녹지를 조성하여 살림집 안뜰과 잘 연결되게 하였다(리화선, 1989: 113-114).

〈표 4-4〉 평양 대타령 제87호 소구역의 용지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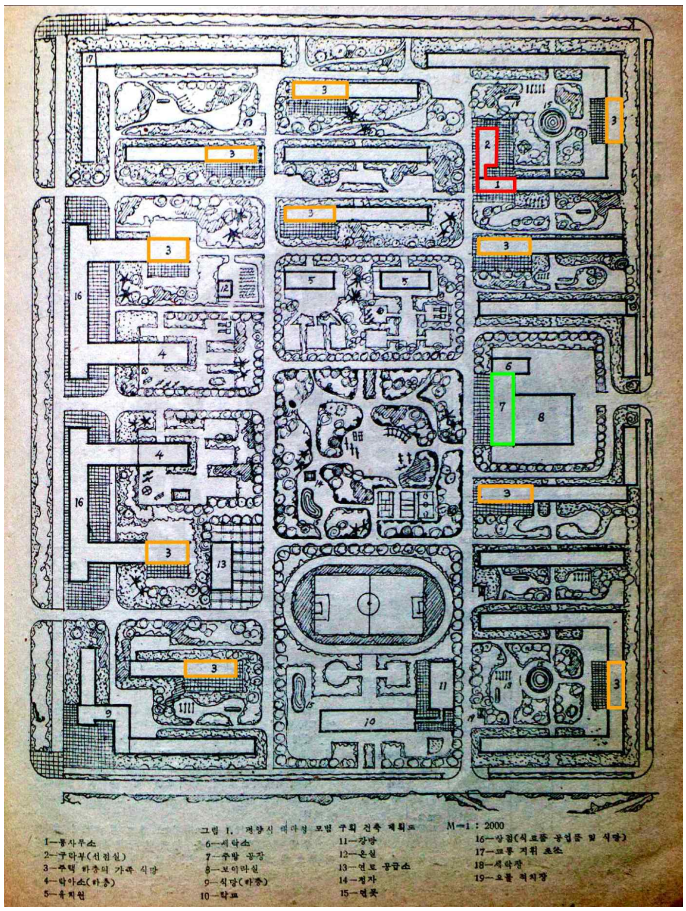
구분		면적	소구역 면적에 대한 비율(%)
살림집 대지	8층 이상	0.13정보(390평)	52.88
	4~5층	12.14정보(36,420평)	
학교대지		1.1정보(3,300평)	4.74
탁아소, 유치원 대지		1.9정보(5,700평)	8.18
봉사기관 대지		1.4정보(4,200평)	6.03
경영뜰		1.23정보(3,690평)	5.30
차도 및 포장 면적		2.3정보(6,900평)	9.91
공공녹지, 체육장		3정보(9,000평)	12.96
계		23.2정보(69,600평)	100

자료: 리순건, 1963. op. cit., 평양, p.36-37.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4-3>과 같이 사상문화교양을 위한 선전실이 동사무소(빨간색으로 표시)와 같이 배치되었다. 특히, 평양 대타령 제 87호 소구역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방공장과 가족식당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주방공장(초록색으로 표시)은 야채나 곡물과 같이 물을 많이 사용하고 손질이 필요한

식료품에 대한 가공을 하고 이를 가족식당에 반제품의 형태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인구 5,000~6,000명의 소구역 1개당 1개씩 설치하고, 각 가족식당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소구역의 중앙에 위치시켰다. 가족식당(노란색으로 표시)은 주방공장에서 배달된 반제품을 요리하여 거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거주민의 50%가 이용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살림집 건물 2동당 1개씩, 살림집의 1층에 설치하였다(안량옥, 1959: 7-11).

〈그림 4-3〉 평양 대타령 제87호 소구역의 배치도



자료: 안량옥, “대타령 모범 주택 구획 조직에 대하여”, 「건축과 건설」, 1959년 2월; 김민아, 2018. “북한의 주택 소구역계획에 관한 연구: 1955-1967년 단지계획을 중심으로”, p. 172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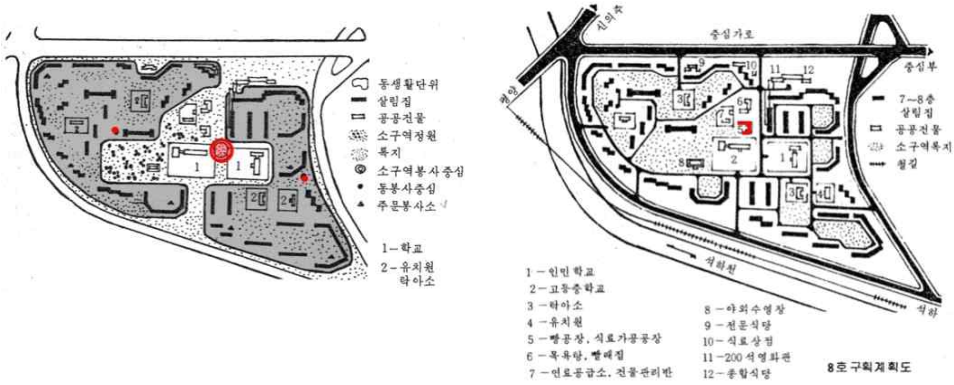
3. 주택소구역의 최근 사례

1990년 1월에 발간을 시작하여 연 4회 발행되는 북한 연속간행물 「조선건축」을 통해 주택소구역의 최근 사례를 살펴보고 주택소구역의 계층구조, 봉사시설로 구성된 생활단위체계, 공동 가사시설, 소구역 내 생산시설을 확인하였다. 조선건축의 1990년 제1호부터 2016년 제6호까지를 검토한 결과, 주택소구역 보다 작은 단위의 '구획'으로 주거지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다.

1) 남신의주 8호 구획(계획년도 1990년)

남신의주 8호 구획의 대지면적은 약 30,000㎡(약 3정보)로서, 앞서 1절에서 살펴본 소구역의 크기 15~20ha(150,000~200,000㎡)의 1/5 수준이다. 구획의 생활단위는 <그림 4-4>와 같이, 인구수를 고려하여 2개의 동 단위(주동군)로 조직되어 있다.

〈그림 4-4〉 남신의주 8호 구획의 생활단위 조직도 및 구획계획도



자료: 김재건, 1990. "남신의주 8호 구획 건축계획에서 얻은 경험 ", 조선건축 제12호(1990년 3월), p.75-76를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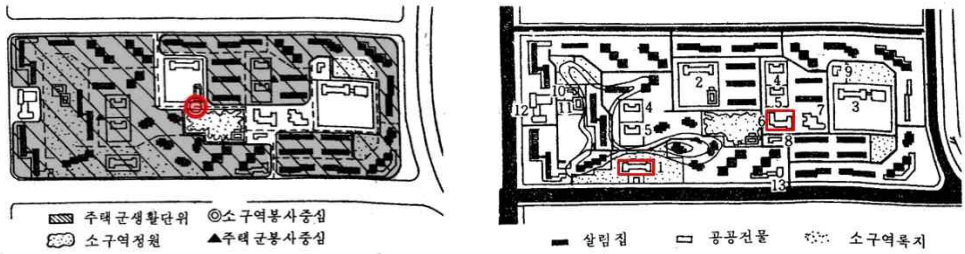
봉사시설은 주문 봉사단위, 동 봉사단위, 소구역 봉사단위로 구성되는 단계적 생활단위체계를 이루고 있다. 주문 봉사단위의 봉사반경은 100~

200m(보행도달거리 300m)로서, 동 단위 내 살림집 중심에 주문 봉사단위의 중심을 설정하고 아침저녁매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빨래, 가정용품 수리주문소를 배치하였다. 동 봉사단위의 봉사반경은 400m(보행도달거리 500~700m)로서 동 중심에 봉사단위의 중심을 설정하고 탁아소, 유치원, 동사무소, 가내작업장, 저금소, 식료상점, 남새과일상점, 물고기상점, 어린이 이발관, 물놀이장, 녹지 등을 배치하였다. 소구역 봉사단위의 봉사중심은 소구역 중심에 설정하고 봉사반경을 600m(보행도달거리 700~800m) 범위로 정하였으며, 이 봉사반경 안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종합진료소, 목욕탕, 빨래집, 빵공장(그림의 5번), 식료가공공장(김치공장), 식량공급소, 연료공급소, 건물 및 시설물관리소, 공업품상점, 식당, 양복점, 이발 및 미용소, 소구역정원, 야외수영장 등을 배치하였다(김재건, 1990: 75-76).

2) 남신의주 16호 구획(계획년도 1992년)

남신의주 16호 구획은 <그림 4-5>와 같이 생활단위를 2개의 주택군으로 조직하였다.

〈그림 4-5〉 남신의주 16호 구획의 생활단위 조직도 및 구획계획도



1.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연구실**
2. 인민학교
3. 고등중학교
4. 탁아소
5. 유치원
6. **식료가공공장, 밥공장**
7. 목욕탕, 빨래집
8. 식량공급소
9. 수매소
10. 솜타는 집
11. 건물관리반
12. 영화관
13. 전문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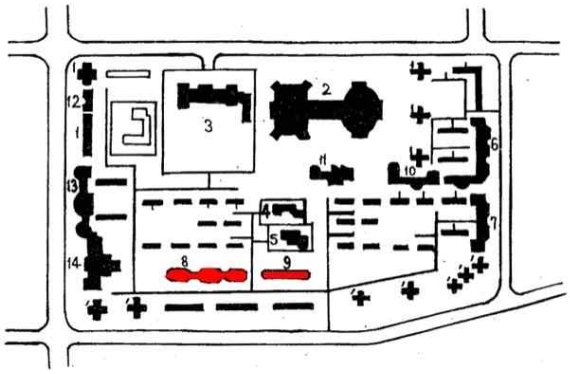
자료: 진경섭, 1992. "남신의주 16호 구획 건축형성에서 얻은 경험 ", 조선건축 제19호(1992년 2호), p.68-69를 토대로 저자 작성.

봉사시설의 경우, 주문 봉사단위, 주택군 봉사단위, 구획 봉사단위로 구성되는 단계적 생활단위체계를 이루고 있다. 주문봉사단위의 봉사반경은 100~200m로서, 몇 개의 살림집 중심에 주문 봉사단위 중심을 설정하고 아침저녁매대와 밥, 부식물, 빨래, 가정용품 수리주문소를 배치하였다. 주택군 봉사단위의 봉사반경은 300m 정도로 하고, 주택군 생활단위 중심에 봉사중심을 설정하고 탁아소, 유치원, 상점, 편의봉사망, 식당들을 배치하였다. 구획 봉사단위의 봉사반경은 700m 정도로 하고,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식량공급소, 밥공장(그림의 6번), 식료가공공장, 목욕탕, 빨래집을 배치하였으며 소구역 정원을 조직하였다. 구역급의 사상교양건물인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연구실(그림의 1번)'을 소구역의 가장 좋은 위치인 높은 둔덕에 배치하여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진경섭, 1992: 68-69).

3) 평양 상원 2호 구획(계획년도 2004년)

「조선건축」에서 확인되는 가장 최근의 주택 구획 계획은 평양 상원 2호 구획으로서 대지면적은 135,000㎡(약 13.61정보)이다. 소구역의 크기 15~20ha(150,000~200,000㎡)와 유사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6〉 상원 2호 구획계획도



1. 살림집
2. 체육 및 건강오락봉사소
3. 소학교
4. 유치원
5. 탁아소
6. 식료, 남새, 잡화상점
7. 공업품상점
8. **세탁소, 밥공장, 식량공급소**
9. **동사무소, 가내반**
10. 도서관, 체신소
11. 청량음료점
12. 식당
13. 종합수리소
14. 은덕원

자료: 신봉숙 · 리지혜(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 2004. "상원 2호 구획 형성계획 ", 조선건축 2004년

3호, p.60을 토대로 저자 작성.

구획을 하나의 완성된 생활단위로 꾸리기 위하여 <그림 4-6>과 같이, 주민생활에 필요한 봉사요소로서 공동 취사시설인 밥공장(그림의 8번)과 식료상점, 남새상점, 잡화상점, 편의수리, 이발, 미용, 식량공급소, 소학교, 유치원, 탁아소, 식당 등을 이용반경을 고려하면서 집중적으로 배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동 생산시설인 가내반(그림의 9번)을 배치하여 여성들의 사회생활에 보다 편리한 조건을 갖추어 주도록 계획하였다(신봉숙·리지혜, 2004: 60).

「조선건축」 외에 로동신문에서 생활단위체계에 관한 가장 최근의 기사로 1992년 3월 26일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평양 통일거리에 대한 기사로서, 통일거리 살림집 구획은 8개로 나뉘어 있는데, 매 구획이 하나의 생활단위로서 모든 편의봉사시설들이 편리하게 갖추어져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고 있는 통일거리 1호 구획에는 2동의 종합편의봉사망이 있는데, 1-1 봉사망에는 밥공장과 식량공급소, 남새, 식료품, 물고기 상점들과 꽃, 금붕어, 조류 전시 및 매장, 도서열람실들 그리고 이발, 미용, 기계직매점이 하나의 건물에 종합적으로 배치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봉사망인 1-2 봉사망에는 식당과 청년, 군인, 일반 양복점들, 그리고 종합수리소(텔레비전, 자전거, 구두), 공업품상점 등이 2층으로 된 한 동의 건물안에 배치되어있는 것이 확인된다. 추가적으로 가스, 석유 공급소들이 한 개 구획에 2~3개씩 배치되어있으며, 김치초소, 석유와 가스 주문초소들이 생활단위에 맞게 배치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2 절 사회주의 공동생활의 조직, 구조 및 역할

1. 북한의 생애주기적 집단·조직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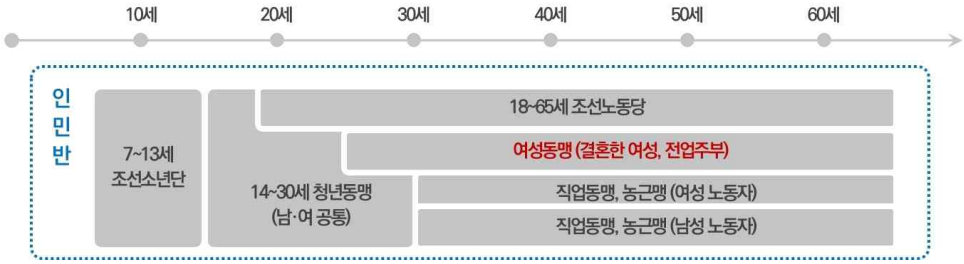
북한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주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구현되는 사회이며 이를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 제63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2조에서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백과사전출판사 편, 2001: 654).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조직생활에 속하게 된다. 정규적인 조직생활은 소학교에 입학과 함께 조선소년단 생활로부터 시작한다. 만 7세부터 13세까지 소학교와 중학교의 학생들은 조직 활동을 통해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한다. 소년 단원은 1주일에 한 번씩 분단모임을 개최하여 생활총화를 하며, 꼬마계획 활동과 영화감상 모임, 소년단 규찰대 활동 등을 전개한다(김봉기 외, 2007: 48-49). 중학교 4학년이 되는 14살부터는 모든 청소년들이 청년동맹(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에 속하여 활동한다. 청년동맹은 경제건설부문에서 '속도전 청년돌격대'를 통해 국가의 중요 건설사업인 도로, 발전소, 공장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8세부터는 조선노동당 당원이 될 수 있는데, 당원을 제외한 30세 이상의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성별, 직업에 따라 직업총동맹(직맹),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등의 근로단체에서 조직생활을 한다. 출산 후 근로단체에 속하지 않은 여성은 여성동맹으로 이맹(移盟)하게 된다(김종수, 2008: 16-20). 이들은 직장 단위로 조직되어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자기비판인 생활총화와 호상비판, 사업총화를 통해 사회적인 통제를 수행한다(정일영, 2006: 54).

위와 같은 생애주기를 전반을 포함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가장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생활공간인 주거지를 단위로 조직된 것이 인민반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모든 조직들은 일정한 공통된 기준(연령, 직업, 성별, 결혼)을 가진 특정 대상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민반은 간부, 당원, 남녀노소, 계층 등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을 포함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인민반은 주민생활과 밀착되어있는 최말단 기층조직이며, 북한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포괄적인 기초사회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배영애, 2018: 196).

〈그림 4-7〉 북한의 생애주기적 집단 · 조직생활



자료: 김종수, 2008. "북한의 '생애주기'적 조직생활 변화와 내구력 평가", 인문사회과학연구, 2008-12, Vol.1 (21), p.17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인민반과 여성동맹의 구조 및 역할

1) 인민반 및 여성동맹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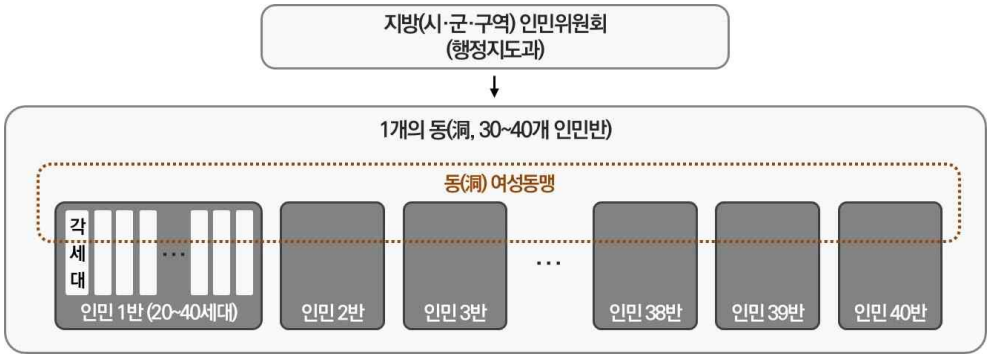
「조선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북한은 인민반에 대해서 “당과 국가의 정책을 관철하며 국가사회사업을 집행하고 생활을 알뜰히 꾸리기 위하여 일정한 수의 ‘가구’를 묶어 조직한 국가 사회생활의 기층조직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백과사전출판사 편, 1995: 294).

인민반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사는 모든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일정한 수의 세대들을 망라하고 리(읍, 로동자구, 동) 밑에 조직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다 인민반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북한에서 거주 등록된 주민들은 지위와 계층,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인민반에 소속된다(백과사전출판사 편, 2001: 654).

인민반의 규모는 지역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는데, 도시 인민반 1개는 보통 20～40세대로 구성된다. 전체 아파트의 세대가 30세대를 넘지 않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아파트의 경우 한 아파트로 인민반이 구성된다. 한 층에 20세대가 들어가는 하모니카형 아파트와 같이 세대가 많은 경우에는 한 층을 인민반으로 구성하기도 한다(김석향, 2004: 262; 알렉사드르 제빈, 1994: 147). 일반적으로 30～40개의 인민반이 최말단 행정조직인 1개의 동(洞)을 구성하는데, 〈그림 4-8>과 같이 인민반 각 세대의 전업주부들이 동(洞)의 여성동맹에 속하게 된다.

동(洞)과 인민반은 지방(시·군·구역) 인민위원회의 산하 조직으로 당정책을 관철한다. 동사무장은 동(洞)의 행정업무를 관리하고 각 인민반의 인민반장이 동사무장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형태이다. 지방(시·군·구역) 인민위원회 행정지도과에서 당의 방침을 동사무장에게 지시하면, 동사무장은 인민반장에게 지방(시·군·구역) 인민위원회의 방침을 하달하고 행정업무를 지시, 관리하는 체계이다(임도빈 외, 2015: 145).

〈그림 4-8〉 인민반 및 여성동맹의 구조



2) 인민반 및 여성동맹의 역할

알렉산드르(1994), 채경희(2017), 배영애(2018)의 연구를 통해 인민반과 여성동맹의 역할에 대하여 <표 4-5>와 같은 주요 활동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4-5〉 인민반의 역할 및 주요업무

배영애(2018)	채경희(2017)	알렉산드르 제빈(1994)
1. 공동주거를 통한 집단주의 구현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2.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과제수행과 사회동원 (마을과 거리 꾸리기, 가내작업반, 국가건설동원 등) 3. 주민들의 일상생활 통제와 감시	1. 집합적 주거를 통한 조직생활 구축 2. 가정 혁명화의 실현 3. 사회주의 사상 완성 및 강화 4. 의료예방시스템 구축 5. 연료, 생필품, 식료품 등의 공급 6.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주민동원	1. 사상 · 교육적 과업 2. 주거지역에 대한 위생 · 보건 업무의 수행 (주택 및 공공 시설의 수리, 청소, 조경) 3. 성원의 사회참여 보장 (국가건설동원, 가내작업반) 4. 가정 경제의 합리적 이용, 석탄, 전력, 용수의 절약적 소비를 위한 투쟁작업 5. '혁명적 규율과 질서' 의 확립과 유지

자료: 알렉사드르 제빈, 1994. "사회체제의 변화된 전통으로서의 북한의 인민반", 「아세아연구」, 제37권 제1호, p.141-159; 채경희, 2017. "북한 인민반의 조직,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7권 제5호, p.809-819; 배영애, 2018.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인민반의 역할과 변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8-12-31, Vol.10 (2), p.193-240.

(1) 선전강화 및 사상학습: 선전실, 김일성 혁명 역사 연구실

인민반과 여성동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령과 당 주위에 주민들을 확고하게 결집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동맹 및 인민반 내에서 수령과 당의 위대함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주체사상에 대한 사상·교육적 과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여성동맹(여맹) 위원장은 주 1회 생활총화를 진행하며, 여맹위원장이나 인민반장은 회의, 강연회, 방송청취 등을 통해 사상학습을 진행한다. 사상교양의 기본 형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들 그리고 이것이 구현된 노동당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학습이다(알렉사드르 제빈, 149).

노동신문(1963)에 따르면, 평양 중구역 경상동 30반 반장 심덕실이 어머니 교양실에서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한 경험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반 내 어머니들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당 정책과 수상 동지의 교시를 인민반 생활과 결부시켜 알기 쉽게 해설해 주었으며, 매주 1회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운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로동신문, 1963).

수령과 당에 '무한히 충성스러운' 미래세대를 교육시키는 것 또한 인민반의 중요한 과업이다. 아동교양사업의 기본 형식은 김일성 일가의 '인민에 대한 배려'와 '고결한 공산주의의 도덕성'을 다룬 노래들과 시들을 암송시키는 것이다(알렉사드르 제빈, 151).

(2) 마을과 거리 꾸리기

인민반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변과 담당 구역 도로의 위생 상태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거리와 마을을 알뜰하게 꾸려나가는 것이다. '마을과 거리 꾸리기'로 불리는 이 활동은, 시기는 매년 3월경, 겨울 동안 얼어있던 오물을 제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4월까지 이 과제가 집중된다. 봄과 가을철에는 거의 매일, 여름에는 이틀에 한 번 이루어질 정도로 빈도가 높다.

특히,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전까지는 얼마나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지가 충성도의 기준이 된다. 평양의 경우,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나 외국 인사들의 초청과 같은 행사가 있으면 '마을과 거리 꾸리기'를 위해 인민반원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중 동원된다(채경희, 2017: 813-815; 배영애, 2018: 209-210).

(3) 국가건설동원 및 농촌지원

인민반장 및 세대주반장을 중심으로 한 인민반원들은 국가건설동원, 농촌지원전투 등의 각종 노력동원사업에 참여한다. 낮 시간의 노력동원은 직장을 가지 않는 가두여성(전업주부)들과 노인들이 수행한다. 직장인들은 보통 출근 전에 1-2시간 노력동원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침식전동원'이라고도 한다(로동신문, 1992).

국가건설동원은 인민반의 세대원들이 지역 인근의 건설현장에 공사자재 및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는 건설작업을 하고 있는 돌격대의 요청으로 돌이나 자갈 등의 공사자재를 수집하여 이를 공사현장에 나르는 역할을 한다. 인민반원들이 탄광지원, 광산지원, 발전소 건설 등에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농촌지원은 인민반의 가두여성들을 중심으로 낮시간에 이루어지며, 지역 인근의 협동농장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계절마다 모내기, 김매기, 추수동원 등이 있다(배영애, 2018: 211-213).

제 3 절 계획경제 하 공동생활의 공간적 실천

1.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자료의 구성

북한 공동주거 공용시설에서의 공간적 실천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1년 8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북한이탈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연령대 및 지역의 대상자 7명(파일럿 3명 포함, 총 10명)을 선정 후, 2021년 10월 5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표 4-6〉 설문조사 참여자의 인적사항

구분		빈도
성별	남	16
	여	84
	합계	100
거주지역	평양	11
	혜산	37
	청진	33
	함흥	7
	기타(남포, 평성, 사리원, 원산 등)	12
	합계	100
연령대	20대	19
	30대	32
	40대	11
	50대	21
	60대 이상	17
	합계	100
탈북시점	~2005	10
	2006~2010	32
	2011~2015	39
	2016~2020	19
	합계	100
북한직업	근로자 (노동자, 사무원, 전문가 등)	54
	학생	13
	장사	20
	가정부인	9
	무직 및 기타	4
	합계	100
인민반장경험	유	15
	무	85
	합계	100

설문조사 참여자의 북한 살림집의 일반적 사항을 보면 <표 4-7>과 같이, 아파트, 하모니카집에 거주했던 사람이 각각 40명, 49명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한 층에 최대 20세대가 거주하였고, 하모니카집의 경우 최대 30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설문조사 참여자의 북한 살림집의 일반적 사항

구분		빈도	비고
살림집 형태	아파트	40	· 최고층수 25층 · 하모니카집의 경우, 모두 단층으로 응답함.
	하모니카집(연립주택)	49	
	독집	11	
	합계	100	
한 층 살림집 수	1~5	70	· 하모니카집의 경우, 2~30세대로 응답함. · 아파트의 경우, 2~20세대로 응답함.
	6~10	21	
	11~15	2	
	16~20	6	
	20~	1	
	합계	100	
거주기간	5년 이하	17	· 최소 1년 7개월, 최대 49년 거주하였음.
	6~10년	21	
	11~15년	17	
	16~20년	16	
	21~25년	9	
	26~30년	15	
	31년 이상	5	
	합계	100	
장만방법	국가에서 배정	41	· 기타: 친적집에 동거 등
	매매(부모님 매매 포함)	47	
	부모님 집에 동거	5	
	기타	7	
	합계	100	
규모	10평 이하	11	· 최소 4평, 최대 65평으로 응답함. · 방의 개수의 경우, 최소 1개(부엌, 거실 겸), 최대 5개(부엌, 거실 별도, 화장실 2개)로 응답함.
	11~20평	39	
	21~30평	27	
	31~40평	13	
	41~50평	5	
	51평 이상	5	
	합계	100	
가족 수	2명	17	· 최소 2명, 최대 8명으로 응답함. · 평균 3.80명
	3명	22	
	4명	39	
	5명	14	
	6명 이상	8	
	합계	100	

<표 4-8>과 같이, 다양한 연령대 및 다양한 지역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으로 심층면담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혜산1의 경우 인민반장의 경험이, 혜산2의 경우 암거래, 밀수의 경험이, 혜산3과 청진1의 경우, 가내반의 경험이 있었다.

〈표 4-8〉 심층면담 참여자의 인적사항

구분		성별	거주 지역	연령대 (출생 연도)	탈북 시점	북한 직업	가족 구성	살림집 형태	비고
1	평양1	여성	평양시 선교 구역	30대 (1987년)	2013년 3월	편직공장 노동자	3인 부모+본인	하모니카집	
2	혜산1	여성	혜산시	40대 (1973년)	2019년 5월	주부, 장사	2인 본인+자녀1	아파트, 하모니카집	인민반장 경험
3	평양2	남성	평양시 모란봉 구역	20대 (1992년)	2020년 1월	군인	4인 모+누나 +본인+조카	아파트	
4	혜산2	여성	혜산시 연두동	50대 (1971년)	2009년 8월	장사	3인 모+본인 +자녀1	아파트	암거래, 밀수경험
5	혜산3	여성	혜산시 해강동	50대 (1966년)	2009년 9월	주부, 장사	5인 배우자+본인 +자녀3	아파트, 하모니카집	가내반 경험
6	평양3	여성	평양시 모란봉 구역	50대 (1965년)	2004년 9월	사무원	4인 배우자+본인 +자녀2	아파트	
7	청진1	여성	청진시 포항 구역	70대 (1951년)	2010년 5월	교원, 장사	5인 배우자+본인 +자녀3	아파트	가내반 경험
참고1	경성1	남성	경성군	20대 (1992년)	2008년 10월	학생	3인 부모+본인	독집	파일럿
참고2	청진2	여성	청진시	60대 (1962년)	2001년 11월	농민	8인, 부모 +본인가족 +오빠가족 +동생가족	독집	파일럿
참고3	혜산4	여성	혜산시	30대 (1991년)	2017년 8월	장사	4인 부모+오빠 +본인	하모니카집	파일럿

2. 봉사시설에서의 공간적 실천

1) 사상·교양시설

(1) 선전실(동사무소)

북한에서 선전실은 각 동사무소, 학교, 공장, 기관, 기업소 마다 운영이 되며, 각자가 속한 여성동맹, 소년단, 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등의 조직에서 선전실을 매개로 사상·교양활동을 전개한다.

각 동(洞)의 선전실에서는 여성동맹원들과 동소속의 당원, 노인, 제대군인들이 생활총화 및 '호상비판'을 벌인다. 생활총화란 북한의 모든 조직의 최소단위에서 구성원들이 주기적으로 참가하여 일상생활을 반성하는 의례(儀禮: ritual)로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제8조 제5항[16]과 조선로동당 규약 제1장 제4조 제2항[17]에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이우영·황규진, 2008: 122).

평양에서 거주하다 2013년에 탈북한 30대 여성(이후 평양1)과 청진에서 거주하다 2010년에 탈북한 70대 여성(이후 청진1)의 증언에 따르면, 여성동맹의 경우 위원장이 책임자가 되어, 10~15명 단위로, 7일에 1번, 1시간 내외로 생활총화가 이루어진다. 생활총화는 책임자가 김일성의 교시나 김정일의 말씀을 엄숙하게 선포하면서 시작하여, 참가자들이 한 사람씩 일어나 자기 생활의 결함이나 오류에 대해 자기비판을 한다. 자기비판 후에는 다른 동료의 결함이나 오류에 대한 비판을 한다('호상비판').

> "선전실이 동사무소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복지관 가면 경로당이 붙어 있는 거 비슷하게 그렇게. (중략) 당원들이나

---

16)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제8조 제5항 "일 및 주 당 생활총화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척도로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서 검토총화하며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고 사상투쟁을 통하여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끊임없이 개조해 나가야 한다"

17) 조선로동당 규약 제1장 제4조(당원의 임무) 2항 "당원은 당회의와 당학습을 비롯한 당의 조직 및 사상생활에 충분히 참가하고 당조직의 결정과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며 자신의 당생활을 정기적으로 총화하며 비판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자기를 혁명가로 단련시켜야 한다."

여맹원들도 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화라는 거 해요. 이 생활총화를 이쪽(직장에 안 나가는 동 소속의) 사람들은 선전실에서 해요. (참여자_청진1: 13)[18)]"

"생활총화는 매주 한 번씩 하는, 그 주간 동안에 나의 결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말씀을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에 맞는 말씀으로.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청년들이 바른 생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말씀을 했다면, 근데 나는 이 말씀에 어긋나게 옷차림도 불결하게 하고 다녔고, 이렇게 했다 해서, 이 원인은 조금 해이한 관점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시정을 하고 다시는 이런 결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반성을 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꼭 호상비판을 해야 돼요. 같이 하는 초급단체 내에 어느 사람이든 찝어야 되는 거예요. (참여자_평양1: 15)"

생활총화에서 지적된 결함에 대해 책임자가 경고, 권리정지와 같은 가벼운 조치로 마무리를 하지만, 생활총화의 결함은 기록·관리되며, 이에 대해 충분한 실천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될 경우, 무보수노동이나 혁명화조치[19)], 강직, 직위해제, 출당, 지방추방, 법적제재, 국가안전보위부 이관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도 한다(현성일, 1999: 73-75).

이와 같이 북한 주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기적으로 자기 생활을 비판하고 동료로부터 '호상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앙 당에서 모든 주민들의 동향을 일정 주기로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총화는 주민 통제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이우영·황규진, 2008: 124).

---

18) 북한이탈주민 참여자_청진1의 구술 녹취록 중, 13쪽에서 인용한다는 의미임. 녹취록 안의 내용 중 괄호 안의 내용은 연구자의 부연 설명, 중괄호 안의 내용은 연구자의 말이다.

19) 무보수노동과 혁명화조치는 당 간부에 대한 책벌로 무보수노동은 6개월 또는 1년 동안 당사자의 직책과 가족은 유지한 채, 본인만 광산, 제철소 등에서 일하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혁명화조치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직위해제 시키고 가족까지 혁명화 지역으로 이주시켜 노동자로 배치하되 보수는 지급한다(곽인수, 2006: 40).

(2) 김일성 혁명 역사 연구실

김일성 혁명 역사 연구실은 대표적인 사상·교양시설로서 박물관 또는 전시관 성격의 시설이다. 청진1과 혜산에서 거주하다 2009년에 탈북한 50대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김일성 혁명 역사 연구실은 흔히 주민들 사이에서 '연구실'로 불리며 각 동(洞)마다 존재한다. 혁명 역사 연구실의 입구 전면에는 김일성의 사진이나 반신상 등이 위치하여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내부에는 김일성의 업적에 대한 저서, 서적, 그림, 영상 등의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 "박물관 같이, 들어가면 김일성의 사진이 이렇게 전면에 있고, 그리고 김일성 반신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김일성이가 몇 살부터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사람을 선동을 하는 거죠. 그 머리에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가게. (참여자_혜산3: 6)"

혁명 역사 연구실에서는 일주일에 1~2회 사상학습과 강연이 이루어진다. 당에서 임명한 강사의 주도하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노작들과 이것이 구현된 노동당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연구실은 북한에서 김일성을 신과 같이 숭배하기에 남한의 종교시설에 비하여 보다 신성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공간으로 면담 참여자들은 설명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이곳에 갈 때에는 경건한 마음가짐과 깨끗한 옷차림을 하고 김일성 배지를 반드시 달고 가야 한다.

> "혁명 역사 연구실은 동마다 다 있어요. (중략) 연구실 학습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연구실에 갈 때는 되게 경건한 마음으로, ((약간 교회 같은?)) 아우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해요. 양말도 옷차림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하루 종일 농장에서 일한 사람들도 김일성 혁명 력사사 연구실 공부하는 날이다 하면 그저 싹 씻고 와서 앉아서 눈이 똥그래 앉아 있어요. 그게 아주 이렇게 법화된 거예요. (참여자_청진1: 13)"

> "김일성 혁명 력사 연구실은 선전실과는 별도로 따로 있죠. 같이 감히 못 있지 존엄에 대한 문제니까. 연구실은 여기 오니까 교회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성스럽고 하는 게. 김일성이가 신이니까 그쪽은. (참여자_혜산3: 6)"

2) 배급시설

북한의 봉사시설 중에는 배급제라는 특수한 경제 제도를 바탕으로 한 식량공급소, 연료공급소, 식료품상점, 공업품상점 등의 배급시설이 존재한다. 식량공급소에서는 쌀, 옥수수 등의 곡류를 공급하며, 식료품상점에서는 사탕, 과자, 간장, 된장, 콩기름 등의 식료품을 공급하고, 공업품상점에서는 속옷, 치약, 칫솔, 세수비누, 빨래비누, 수건 등의 공업품을 공급한다. 연료공급소에서는 가정에서 겨울철에 사용할 탄과 차량용 연료를 공급한다.

청진1의 증언에 따르면, 식량의 배급은 보통 한 달에 2회, 보름치씩 이루어졌다. 근로자, 부양자, 어린이로 배급량에 차등을 두었는데, 일을 하지 않는 주부의 경우 '부양자'로 등록되어 근로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식량을 받았다.

같은 동네의 주민들은 배급을 받는 날짜가 같은 날인 경우가 많아 시간을 맞춰 배급소에 같이 가곤 하였다. 배급을 타기까지 장시간 줄을 서야 해서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인사와 대화를 나누며 기다렸다. 어느 집에 어떤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있는지에 관한 안부를 시작으로 어느 곳에 어떤 물건이 좋다는 생활정보까지 주고받았다. 따라서 계획경제하에는 배급제를 기반으로 배급시설이 주민들 교류의 매개공간으로 역할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 "아버지가 우리 식구 6명을 부양했어요. 보름치씩 배급을 타오거든요. 일하는 사람은 700g씩, 그리고 엄마랑, 내랑, 오빠랑은 부양이라 300g씩을 줘요. 엄마도 부양이라 300을 주는 거예요. 그 보름치를 요만한 거 쪽지로 타 와요. 그거 가지고 엄마랑 같이 배급소로 갔어요. (참여자_청진1: 7)"

> "배급소에 가자마자 재깍 타는 거 아니에요. 그저 줄을 서 있으니까 거기서 또 환담도 하고 그렇게 모이니까 누구네는 어떤 일이 있고 (중략) 어디로 가니까 뭐가 싸더라 하면서. 그때 배급을 줄 때에는 장마당이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저기 고량(지명)에 가서 무슨 민태를 조금 사 왔단다 해서, 그거 가서 좀 팔아라. 몰래 주고받고 요렇게.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서로 알려면 거기(배급소)가 좋은 거예요. (참여자_청진1: 14)"

3) 공동 가사시설

(1) 밥공장

평양1과 청진1의 증언에 따르면, 밥공장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행정동 별로 1개씩 있으며, 행정동의 이름을 붙여 '○○동 밥공장'으로 명명하였다. 평양의 경우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지만, 청진의 경우 고난의 행군 이후 운영이 중단되었다.

> "그러니까 우리가 남강 1동이 됐으니까 '남강 1동 밥공장' 이렇게 된 거예요. 동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중략) 근데 이게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국가에서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문 닫고 없어졌지요. (참여자_청진1: 6-7)"

밥공장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청진의 경우, 잡곡밥, 국수, 빵 등이었으며, 직장에서 배급한 표(양표)를 제출하여 교환하는 형식이었다. 현재도 운영 중인 평양의 밥공장에서는 주로 옥수수면, 옥수수쌀, 옥수수떡가루, 밀가루, 밀떡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식량난으로 인하여 현재 북한에서 조달이 가능한 원료가 밀가루, 옥수수로 한정적인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곡물을 직접 들고 가서 생산한 가공품과 교환하고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점에서도 고난의 행군 이전의 배급제의 형식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밥이나, 국수, 빵 같은 것 그런 거 해요. 기본이 북한 사람들은 밥하고 국수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잡곡밥을 지어서 조금씩 소분해서 파는 거지 거기서. (중략) 파는 것도 양표로 가져가야 돼. 양표라는 거가 그러니까 배급을 우리 타 먹고 살았잖아요. (참여자_청진1: 7)"

> "생산하는 거는 국수, 옥수수면이라든가, 옥수수쌀, (중략) 그리고 옥수수로 만드는 튀김가루라는 게 있어요. 또 밀이 또 많잖아요, 북한에. 밀도 가지고 가서 밀가루로 바꾸던, 밀떡으로 바꾸던 바꿔오고. (중략) 교환할 옥수수 자루를 둘러매고 새벽부터 가서 앉아 있는 거죠. 이미 생산돼 있는 거를 교환해 주면서 수수료도 조금씩 내고. ((나오시기 전에도 계속 운영이 되었나요?)) 네. 여기는 그래도 계속 돌아갔어요. (참여자_평양1: 4-5)"

(2) 가족식당 및 전문식당

앞서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평양 대타령 제87호 소구역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족식당이 주거동의 1층에 배치되었다. 이에 설문조사와 면담 참여자들에게 구내식당 형태의 가족식당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질문하였으나, 아쉽게도 운영되어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심층면담 참여자들의 경우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이 되었는데, 주거동 1층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족식당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찾기 어려웠다.

> "동네에 이웃들이 같이 모여서 밥 먹을 수 있는 식당은 없죠. 그냥 누구네 집에서 먹던가. 자기 집들에서 먹을 게 생기면 모여서 마당 같은 데서 먹지. 식당 같은 분위기는 없었어요. (참여자_평양1: 6)"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참여자들은 동네에 있는 소규모의 식당을 가족식당으로 이해했으며, '○○○ 전문식당'과 같이 이름에 '전문식당'을 쓰거나 규모가 큰 식당을 전문식당으로 이야기하였다. 평양의 경우, '옥류관', '평양면옥', '대동강면옥', '함흥면옥' 등의 전문식당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며, 이곳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민반이나 직장에서 배급한 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표가 자주 배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표를 모아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뿐, 이웃 함께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북한 사회주의 이념의 정착기에 주민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회주의적 삶을 일궈나가고자 계획하였던 집단적 식사 공간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제 생각에는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 식당을 가족식당으로, 그리고 좀 큰 규모로 하는 거를 전문식당으로 칭했을 것 같아요. (중략) 전문식당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거였거든요. 내가 먹고 싶을 때 가서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라 표를 받아야 먹는 구조예요. 면옥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민반에서 주거나, 아니면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한 장씩 주거나 해서 가서 먹는 거죠. (참여자_평양1: 5-6)"

4) 공동 생산시설

(1) 경공업 공장, 식료품 공장 등 구역 산하 국영공장

1960년대 이후 소구역 내 생산시설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획 방법이 진화하면서 소구역의 봉사망 중심에 밥공장, 빵공장, 김치공장, 두부공장 등의 식료품 공장과 편직공장 등의 경공업 공장이 배치되었다. 이러한 시설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이곳에서는 인근 고등중학교(남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친 개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다수 배정되어 정규 직원으로 일하는 형태이다.

북한에서는 국가 차원의 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 직장이 정해진다. 이러한 직장 배치의 대상자는 고등중학교 졸업생, 대학 졸업생, 군 제대자 등으로 나뉜다. 고등중학교 졸업 예정자의 경우, 졸업 전에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를 통해 직장을 배정받는다(권경복, 2001: 72-73). 이는 평양에서 거주하다 2020년에 북한을 이탈한 20대 남성의 증언을 통해서도 파악되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 남학생들은 대부분 군에 입대를 하고, 군에 입대하지 않은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은 구역 산하의 공장 및 시설사업소에 노동자로 배치된다고 언급하였다. 평양1의 경우 선교구역 편직공장의 노동자로 근무하였는데, 졸업하는 학생들을 지역의 공장에 무리로 배치하기 때문에 같은 나이대의 직원들이 많았다고 증언하였다.

> “식료품공장은 구역마다 있고, 그건 구역 산하로 돼가지고 공공기관이죠. (중략) 식료품 공장 같은 건 딱 직원처럼, 정규직원처럼 일하죠. (중략) 북한은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이 배정이 되는데, 대부분은 남자들은 군대에 입대를 하고, 군대 입대 안 하는 친구들을 구역 산하 공장이라든가, 구역 산하 시설 사업소라든가, 그런데 노동자로 배치를 해주죠. (참여자_평양2: 5-6)”

> “선교 편직공장이라고, 2002년도에 김정일이가 왔다 간, ‘시범’ 공장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편직공장에서 일했어요. (중략) 졸업하는 친구들을 다 막 무리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중략) 한 작업반이 26명 정도 됐는데, 보면 또래들이 네, 다섯명 정도 있는 거죠. (참여자_평양1: 8)”

(2) 가내작업장

‘가내반’으로도 불리는 가내작업반은 소구역 내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가두여성(전업주부)’과 ‘연로보장(연금 수급)’ 노인들이 부업식으로 참여하는 조직이다.

1998년 9월에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 따르면, 노동하는 나이를 16살부터로 규정하고 있어 북한에서 만 16세 이상의 인민들은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16세부터 60세 이하의 남성과 55세 이하의 여성은 원칙적으로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권경복, 2001: 72). 이에 가내작업반은 결혼 후 출산으로 인해 부양자의 자격을 얻어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과 55세 이상의 여성들이 주요 구성원이 된다.

평양1과 혜산에서 거주하다 2009년에 탈북한 50대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가내작업반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두부, 비지와 같이 분쇄나 가공이 필요한 식품이나 신발 깔창, 농민모와 같은 의복류, 그리고 유휴 자재 등을 이용해 생산한 ‘8.3인민소비품’[20] 등이다. 가내반의 구성원들은 작업장이나 집에 모여 같이 만들기도 하고 집에서 각자 만들기도 한다.

> “전기로 하는 분쇄기라고 해야 되죠. 콩을 불려가지고 갈아서 두부를 하든, 순두부를 하든, 비지를 해 먹든 하는데. 그런 거를 집에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내작업장에 가서 한 번 돌려오는 거죠. (중략) 가내반은 직장 일을 하지 않는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부업식으로. (참여자_평양1: 6)”

> “가내작업반은 가내협동관리소라는 게 있어. 신발 깔창이랑, 농민모랑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를 가내사무실에 와서 수매해요. 그러면 사무실은 1, 2전 붙여서 가내상점에다 내다 놓고 팔아요. (중략) 위연 가내반, 연흥 가내반, 이렇게 해가지고, 한 집에서 모여서 만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각기 제 집에서, 집에 재봉틀은 다 거의 다 있으니까. (참여자_혜산2: 9)”

---

20) 북한에서는 ‘8.3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을 장려해 왔는데, 이는 1984년 8월 3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 경공업 제품 전시장’에서 김정일이 부산물과 폐기물을 이용해 생활필수품을 만들 것을 지시함에 따른 것임. 「조선신보」2006년 11월 28일자.

5) 구획(소구역) 내 외부 공유공간: 앞마당, 소구역 가로 및 도로

혜산에서 거주하다 2019년에 탈북한 40대 여성(이후 혜산1)과 2009년에 탈북한 50대 여성(혜산3)의 증언에 따르면, 마을과 거리 꾸리기는 북한 주민들이 이웃과 교류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인민반 활동 중에 하나이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가구마다 한 사람씩 나와서 거주하고 있는 집 주변과 담당구역 도로의 청소, 유지·관리, 조경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 "아침에 눈만 뜨면 도로 닦기를 나가요. 거기는 흙도로였는데, 비만 오면 움푹 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또 자갈을 붓고 위에다가 또 흙을 씌우고. (참여자_혜산3: 11)"

보통 아침 6~7시경, 등교나 출근 전에 수행되는 활동이기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다양한 연령대의 탈북민들이 참여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낮 시간대에 수행되는 농촌지원, 국가건설동원 등의 사회동원이나 주로 세대주 혹은 주부들이 참여하는 인민반회의와 비교하여 고른 연령대에서 마을과 거리꾸리기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혜산1과 혜산3에 따르면, 매일 아침 주민들이 모여 마을을 가꾸는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이웃과 대화와 교류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을 알 수 있다. 새로 이사를 온 세대라 할지라도 한, 두 번 참여하게 되면 말이 통하고 마음이 맞는 이웃을 금세 사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심층면담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공동주택의 적응을 위한 활동으로 마을과 거리꾸리기와 같은 정기적인 주민참여 활동을 제안하였다. 역할 부여를 통해 이 사회의 구성이 되었다는 인식을 주고 소외감과 고립감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여기는 청소부를 따로 두니까. 이웃이 누가 사는지, 2년이 돼가도 몰라요. 더 소외된 것 같고,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참여자_혜산1: 18)"

>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거리 청소하는 거라든지, 오셔서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혼자 있다보면 고립감도 커지고. 어떤 역할을 줘서 '아 내가 일부가 됐네' 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죠. (참여자_경성1: 9)"

6) 구획(소구역) 외 공유공간: 협동농장(농촌지원), 건설현장(사회동원)

평양1, 혜산1, 그리고 혜산3의 증언에 따르면, 국가건설동원과 농촌지원은 마을과 거리 꾸리기와 함께 북한 주민들이 이웃과의 교류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인민반 활동 중에 하나이다.

국가건설동원은 '사회동원'으로도 불리는데, 걸어서 30분에서 1시간 거리의 철길, 건설 현장, 강·하천 등에서의 보수, 지원 활동이 주를 이룬다. 평양1의 경우에는 이웃들과 함께 철길 보수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철길 보수에 필요한 골재에 대해 각 가구에 할당량이 부과되어 자재를 수집하기 위해 이웃들과 대동강 하류에 위치한 모래 채굴장에 다녔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 "사회 동원은 철길 보수를 많이 했는데, 철길을 삽으로 떠서 올리는 작업을 할 때도 있고, 또 철길에 깔 자갈들을 대동강 하류 락랑구역 쪽에 모래 채굴하는 데가 있거든요. (중략) 그거를 한 집에 한 바케스씩 내는 거죠. 들통으로 한 들통씩.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같이 들고 다니기가 좋으니깐요. 그런 사회동원들을 많이 나가죠. 강하천 작업 그런 것도 많이 나갔고. (참여자_평양1: 17)"

혜산 3에 따르면, 농촌지원은 주로 일과시간에 인민반의 전업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거주지 인근 협동농장으로 모내기, 김매기, 추수동원 등의 지원을 나간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거리의 협동농장에 가고 오며 이웃들 사이에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 한번 가게 되면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 경우가 많았고, 때로는 농작물을 가져와 음식을 해서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이웃과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 "농촌 지원을 다 같이 가요. 심을 때도 가고. 김매기 할 때, 가을걷이 할 때, 그럴 때는 꼭 갔어요. (중략) 인민반 사람들 다 같이 가요. 한 30분 걸어서. 가면서 계속 얘기도 하고, 그렇게 가면 하루 종일 일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안 친해질 수가 없어요. (중략) 감자 밭에 가면, "아무개 엄마 저 농장원들이 안 볼 때 감자를 풀숲에다가 좀 숨겨라. 갈 때 가지고 가게." 아줌마들이니까. 그러면 또 아주 하나가 번개같이 동작을 해서 숨겨요. 그러면 올 때 가지고 와서 같이 먹고 그러지. (참여자_혜산3: 18)"

제 4 절 소결

본 장에서는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북한 공동주거의 공용시설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공간적 실천,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을 탐색하였다. 주택소구역의 사회주의 도시 공간적 성격과 사회주의 공동생활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의 구조 및 역할, 그리고 계획경제 하 공동생활의 공간적 실천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째, 주택소구역은 사회주의 도시의 주거지계획에서 주민의 집단공동생활(communal life)을 조직하기 위하여 공간적인 기초단위로 상정한 소구역(마이크로 디스트릭트, micro-district) 개념을 북한 현지화한 것으로 사회주의 주거지 계획의 일반적 원칙들이 유사하게 적용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소구역, 주택구역, 주택지역으로 확장되는 계층구조, 봉사시설 계획에 있어 주민 수와 봉사반경을 고려하여 초급, 소구역, 구역 봉사단위 등 단계별로 구성하여 집단 소비·서비스 시설의 공간적 균등배치를 구현하고자 한 점에서 그 특성이 잘 나타났다.

둘째, 일상공간의 개조를 통한 사회주의적 삶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택소구역 내 공용시설로서 사상·교양시설, 공동 취사시설, 공동 생산시설 등이 계획되었다. 사상·교양시설의 경우, 공용시설 중에 가장 먼저 도입이 되었는데, 주택소구역 조직 방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1950년대 후반부터 주민들의 사상문화교양을 위한 선전실이 계획되었다. 공동 취사시설의 경우,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을 구현하려는 기본 목적과 여성 해방 정책이 맞물려 1958년에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었고, 주택소구역의 봉사시설에 여성들의 가사노동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밥 공장, 반찬 공장, 가족식당 등이 계획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1956년부터 1967년까지 표준 살림집 평면을 이용하여 단위세대 내 부엌면적의 비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소구역 조직방법이 본격화한 1960년대 초부터 개별 세대의 부엌기능이 축소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960년대 이후부터는 주택소구역 안에 여성들을 직접 투입시킬 수 있는 생산시설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소구역

계획방법이 진화하여 주로 식료품(두부, 김치, 밥, 빵) 공장과 가내 작업장 등이 소구역의 봉사망 중심에 배치되었다.

셋째, 주택소구역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로서 평양 대타령 제87호 소구역을 살펴본 결과, 사상문화교양을 위한 선전실, 공동으로 생산하는 주방공장 및 주거동 저층에 위치한 가족식당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 건축전문매체인 「조선건축」을 통하여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계획된 주택 소구역(구획)을 살펴본 결과, 가장 최근의 사례로서 2004년에 계획된 평양 상원 2호 구획이 확인되었는데, 사상교양시설로서 선전실이 동사무소와 함께 배치되었으며, 공동가사시설로서 밥공장과 공동생산시설로서 가내작업장이 배치된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북한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주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구현되는 사회로서, 일상적인 생활공간인 주거지를 단위로 조직된 것이 인민반이다. 인민반은 간부, 당원, 남녀노소, 계층 등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을 포함하는 조직이기에 주민생활과 밀착되어있는 최말단 기층조직이며, 북한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포괄적인 기초사회집단이다. 도시 인민반의 규모는 보통 20~40세대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30~40개의 인민반이 최말단 행정조직인 1개의 동(洞)을 구성한다. 인민반장을 중심으로 한 반원들은 주거지에서 선전강화 및 사상학습, 마을과 거리꾸리기, 국가건설동원 및 농촌지원을 등의 과제를 수행하며 집단주의적 생활규범과 가치관을 학습하고 장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섯째, 계획경제 아래에서는 안정적인 배급제를 기반으로 위로부터의 공식적 실천 및 관계망이 강하게 형성되었다. 사상교양시설로서 선전실에서는 주기적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반성하는 '생활총화'와 다른 동료의 생활 결함을 비판하는 '호상비판'이 이루어졌다. 또 다른 중요한 사상교양시설로서 김일성 혁명 역사 연구실은 김일성의 업적에 대한 자료들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의 성격으로서 이곳에서는 주민들의 사상학습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다. 공동취사시설로서 밥공장은 행정동별로 1개씩 운영되었고, 직장에서 배급한 표를 제출하여 잡곡밥, 국수, 빵 등의 생산

품을 교환하는 형식이었다. 공동 생산시설로서 경공업 공장, 식료품 공장 등은 구역 산하의 국영공장으로서 인근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다수 배정되어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형태였다. 봉사시설 외에서의 실천으로 매일 아침에 세대당 한 사람씩 나와서 거주하고 있는 집 주변과 담당구역 도로의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마을과 거리 꾸리기'와 철길, 건설 현장, 강·하천 등에서의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건설동원', 그리고 인민반의 전업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거주지 인근 협동농장으로 모내기, 김매기, 추수동원 등의 지원을 수행하는 '농촌지원' 등의 공식적 실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계획경제 하에 북한의 공동주거는 주민의 집단공동생활을 조직하고 사회주의적 삶과 집단생활을 구현하도록 설계되어 운영되었다. 실제로 공동주거의 많은 시설은 이러한 목적에 복무하였고, 인민반은 이 과정에서 집단생활의 최말단 기층조직으로서 기능하였다. 공동 주거와 봉사시설이라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민반이라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생활공간과 집단적 실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재)생산된 관계망이 형성과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 5 장 통치: 권위주의 체제의 통치합리성 강화

5장에서는 통치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양시의 공동주거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와 그에 따른 공동주거 경관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최고 통치권자의 저서 및 담화문 등의 주요 담론을 통하여 평양시 공동주거를 통한 지향점을 파악한 후, 당 기관지의 공동주거 관련 기사들의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하여 정권별로 강조되는 핵심주제를 앞서 분석한 지향점과 연계하여 살펴본다. 세 정권의 지향하는 바의 차이가 공동주거의 계획요소에 반영되어 평양시 공동주거의 경관에 변화를 가져온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 1 절 자료의 구성

1. 분석의 대상

각 정권에서 공동주거를 통하여 지향하는 바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서 북한의 당 기관지인「로동신문」을 활용하였다. 「로동신문」은 북한의 신문 중에서 가장 대표성을 띠는 매체이다. 북한에는 당 기관지, 내각 기관지, 사회단체 발행지, 공공단체 기관지, 공동 기관지가 있는데, 「로동신문」은 여타 신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위상을 지닌다(고유환 외, 2012: 81). 「로동신문」은 1945년 11월 1일에 창간한 일간지로서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그림 5-1>과 같이, 일 6면으로 구성된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구성하기 위하여, 먼저 「로동신문」의 제목 검색을 통하여 제목에 ‘살림집’ 또는 ‘주택’을 포함하고 있는 기사를 각각 585건, 579건을 수집하였다. 이후, 1차로 제목에서 해외 또는 농촌과 관

련한 내용임을 알 수 있는 기사를 제외하였고, 2차로 <그림 5-2>와 같이, 제목만으로는 알 수 없는 기사를 직접 열어 내용을 확인하여 해외 또는 농촌과 관련한 기사를 제외하였다. 3차로 면밀히 내용을 확인하여 겨울철 준비, 물자 지원 등 공동주거 건설과 관련성이 적은 기사를 제거하여 각각 373건과 263건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각 정권별 주요 거리를 제목에 포함하고 있는 기사를 검색하여, 앞서 언급한 1, 2, 3차의 스크리닝 후 274건의 기사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사 내용을 면밀히 살펴 평양시를 대상으로 하는 기사로 한정하여(총 653건) <그림 5-3>과 같이, 리스트를 작성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5-1〉 로동신문 2019년 12월 31일자, 1-6면[21)]

21)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국내로의 반입에 어려움이 있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5-2〉 내용에서 해외 또는 농촌임이 확인되는 기사들

비행장확장공사를 위한 살림집 강제철거책동에 집단적으로 항거

서울의 영등포구 주민들이 괴뢰경찰의 폭압을 박차고 견결히 투쟁

《주택난은 심각한 도를 넘어 절망상태》

남조선주택난의 실태에 대하여

자료: 1976년 4월 10일자, 5면(좌); 1973년 1월 30일자, 4면

〈그림 5-3〉 정권별 주요 거리를 제목에 포함한 로동신문 기사의 리스트

정권	도시	지역	발행일자	기사 제목	면	기사내용
김정은	평양시	려명거리	2017.02.12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자의 도팔도 없이, 한결같이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자 려명거리건설소식 려명거리건설장에 애국의 마음 바쳐간다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많은 물자를 지원	1	주체조선의 신화적인 건설속도를 창조하며 폭풍쳐 내달리고 있는 려명거리 건설장으로 온 나 라 인민의 애국의 마음이 끝없이 달려오고 있다. 건
김정은	평양시	려명거리	2017.02.12	사회주의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과시하는 전구-려명거리건설장	2	지금 려명거리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뜻깊은 태양절 전으로 건설을 기여이 광 년으로써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국력을 남김없이 과시
김정은	평양시	려명거리	2017.02.21	박봉주증리 려명거리건설장 현지료해	4	
김정은	평양시	려명거리	2017.02.27	려명거리건설 힘있게 지원 황해남도에서 자력갱생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	1	황해남도에서 려명거리 건설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러 차례나 려명거리 건설
김정은	평양시	려명거리	2017.02.28	려명거리건설소식 려명거리건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 전국각지에서	1	우리 당의 대건설 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려명거리 건설장으로 온 나라 인민들의 애국의 마음이 끊임없이 물결쳐오고있다.경애하는 최고령
김정은	평양시	려명거리	2017.03.13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1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 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심
김정은	평양시	려명거리	2017.03.15	최룡해동지 려명거리건설장 현지료해	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김정은	평양시	려명거리	2017.03.16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1	조선로동당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
김정은	평양시	려명거리	2017.03.18	려명거리건설소식 도시경영준비사업 마감단계에서 추진 그 어떤 힘으로도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적전진을 절대로 가로막지 못합니다. 김정은 태양조선의 강대성을 알려면 우리의 려명거리를 보라!	2	우리는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하신 려명거리를 걷고 있다. 돌아보면 꽃수록 보다 큰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힘은 무한무
김정은	평양시	려명거리	2017.03.23	려명거리건설소식 려명거리전역을 돌파해 하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포성	1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당에서 증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봉
김정은	평양시	려명거리	2017.03.26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1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 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려명거리건설을 통하여 사회주의 조
김정은	평양시	려명거리	2017.04.14	자력자강의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에서 쟁취한 자랑스러운 대승리, 전인민적인 대경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려명거리 준공식 성대히 진행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성대히 맞이하기 위한 경축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있는 속에 주체의 최
김정은	평양시	려명거리	2017.04.14	감사문 려명거리를 만리마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워 사회주의조선의 강대성과 필승의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한 인민군장병들과 돌격대원들, 지원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4	만축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맞으며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지구에 최상의 문명이 응축된 만
김정은	평양시	려명거리	2017.04.15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배려하여주신 려명거리 살림집리용허가증을 수여하는 모임 진행	6	만축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어머니당의 송고한 인민사랑의 화폭이 또다시 펼쳐져 만사람을 감동시키고 있다.경애하는 최고령
김정은	평양시	려명거리	2017.04.28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려명거리 새 살림집에 입사한 가정들을 방문	2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지구에 현대건축거리의 본보기, 표준으로 로동당시대의 건경으로 일떠선 려명거리가 새집들이 경사로 전일 흥성
김정은	평양시	려명거리	2017.05.07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1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 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
김정은	평양시	려명거리	2017.05.11	려명거리는 만리마속도창조의 고향	2	지금 혁명의 수도 평양에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려명거리는 만리마 선구자대회를 향한 총돌격전을 벌려나가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전백배의 신
김정은	평양시	려명거리	2017.06.21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1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 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려명거리 건설을 통하여
김정은	평양시	려명거리	2017.06.30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1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 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려명거리 건설을 통하여
김정은	평양시	려명거리	2017.07.17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	1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 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

2. 정권별 공동주거 관련 기사의 빈도

한국전쟁 이후(1953년 이후), 김일성("위대한 수령님")만을 주체로 하는 기사는 1983년까지 확인되며, 총 141건이다. 김일성과 함께 김정일이 주체로 등장("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22]의 크나큰 배려에")하기 시작한 기사는 1975년 6월 12일 처음 발견되며, 1984년 9월 12일자까지 총 11건이 확인되었다. 약 10년 동안의 이 기간은 정권 이양기로 파악할 수 있다. 김일성이 제외되고 김정일만을 주체로 하는 기사는 1982년 12월 21일에 처음 발견되었으며, 2012년 5월 13일자까지 총 351건이 확인되었다.

김정일과 김정은이 함께 주체로 등장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김정은의 경우,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정권을 물려받아 이양기가 없었던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김정은이 전면에 등장한 기사는 2012년 5월 26일 처음 발견되며, 2019년 11월 6일자까지 150건이 확인되었다.

<표 5-1>과 같이 정권별 연간 기사 수를 파악해보면, 김일성 시기는 연평균 4.70건, 김정일 시기는 연평균 11.70건, 김정은 시기는 연평균 15.00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로동신문」의 공동주거 관련 기사는 김일성 시기와 비교할 때 김정일 시기에는 약 2.49배, 김정은 시기에는 약 3.19배에 달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표 5-1〉 정권별 연간 공동주거 기사 수

정권	기사 수 (건)	비율 (%)	집권기간 (년)	연간 기사 수 (건/년)
김일성	141	21.59	30	**4.70**
김일성, 김정일	11	1.68	9(이양기)	1.22
김정일	351	53.75	30	**11.70**
김정은	150	22.97	10	**15.00**
합계	653	100	79	-

22) 이 시기에 김정일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에 오름.

제 2 절 김일성 체제: 전후 신속한 주거공급을 통한 통치합리성의 강화

1. 김일성 시기 공동주거를 통한 지향점

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평양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도시가 말 그대로 폐허가 되었다. 서울과 달리 평양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장기간에 걸친 폭격으로 인하여 도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리화선, 1989: 92; 장세훈, 2005; 232).

이러한 배경하에 김일성은 1953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복구 발전을 위하여'의 기치로 전후 경제건설사업의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였다. 도시건설사업에 있어서는 '전후복구건설에서 건축가들과 건설기술자들의 임무(1954년 3월 26일)', '건설사업에서의 혁신을 위하여(1956년 1월 30일)', '건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1958년 12월 25일)'와 같은 노작을 발표하여 도시 건설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강조된 내용은 '방대한 건설사업의 성과적 보장',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의 부여', '인민들에게 편리한 문화주택의 건설'을 핵심으로 하였다(리화선, 1989: 93).

이중 '방대한 건설사업의 성과적 보장'은 김일성 시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조되는데, 이를 위하여 설계를 표준화, 규격화하며 건설을 조립식 방법으로 혁신할 것에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리화선, 1989: 95). 김일성 저작집에 따르면, 건설에서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법칙으로 인정하며, 조립식 건설을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건설의 속도를 높힐 것을 지시하고 있다(김일성 저작집, 10권: 39; 11권: 345). 이에 따라 1956년에 표준 설계 작성 사업이 진행되어 통일적인 단위자 체계를 수립하였고 규격화된 조립부재의 생산을 위한 철근콘크리트 부재공장이 평양시의 건설사업소마다 건설되어 대량의 주택 공급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리화선, 1989: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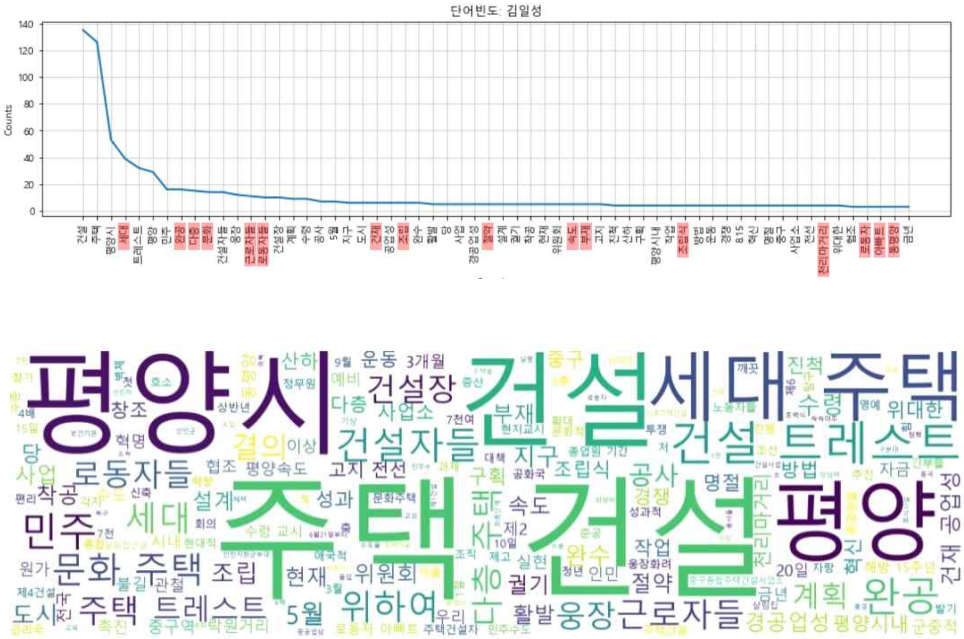
2. 김일성 시기 로동신문 공동주거 관련 기사의 분석

1) 공동주거 기사 제목에 출현한 단어의 빈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일성 시기에 평양시 공동주거를 통해 지향하고자 했던 바가 당시 로동신문 기사에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김일성 시기(1953-1982)의 공동주거 관련 기사 141건의 제목에서 빈도가 높은 단어를 60개를 추출하였다. <그림 5-4>와 같이, 세대, 완공, 다층, 문화, 근로자들, 로동자들, 건재, 조립, 절약, 완수, 활발, 속도, 부재, 고지, 조립식, 천리마거리, 로동자, 아빠트, 동평양 등의 단어들이 나타난다.

따라서 김일성 시기에는 방대한 건설사업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주택의 대량공급을 목표로 하여, 기존의 소층(2~3개 층)주택에서 다층주택(5~6)층으로 건설하고자 하였으며, 건설의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규격화된 부재를 이용하여 조립식 방법으로 건설하고자 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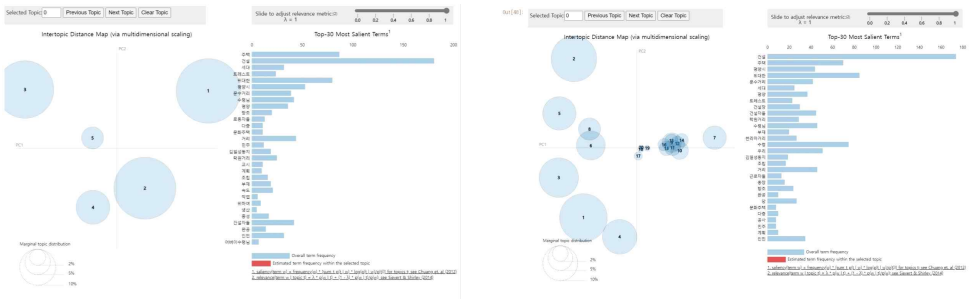
〈그림 5-4〉 김일성 시기 공동주거 기사 제목 단어의 빈도 및 단어구름



2) 공동주거 기사의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LDA)

공동주거 관련 기사의 제목 및 내용의 텍스트를 활용하여 주제를 추론하기 위하여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중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23] 기법을 적용하였다. 토픽 모델링 주제의 개수에 대하여, 성현곤 외(2019)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최적의 개수 설정을 위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 5-5>와 같이, 5개~20개 범위에서 주제 간의 관계 추정 및 선택된 단어를 통한 주제 추론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주제의 개수를 선정하였다.

〈그림 5-5〉 토픽 모델링 주제 개수의 선정



<표 5-2>는 김일성 시기의 공동주거 관련 기사 141건의 제목에 출현한 텍스트와 관련 기사 중 락원거리, 천리마거리, 창광거리 1단계 등 주요 거리 주택건설의 기사 12건의 내용에 출현한 텍스트를 합하여 토픽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10개의 주제와 주제별로 분포한 30개의 단어를 도출한 결과이다.

---

23) LDA는 각 문서에 어떤 주제들이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기법으로, 문서내 주제들의 확률분포 Θ와 각 주제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확률분포 Z가 주어졌을 때, 문서를 구성하는 주제와 주제에 존재하는 단어를 확률적으로 선택하는 샘플링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해당 문서가 어떠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게 해줌. 토픽 모델을 적합화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임(Silge and Robinson, 2019; Blei at al, 2003).

〈표 5-2〉 김일성 시기 공동주거 관련기사의 추출 주제와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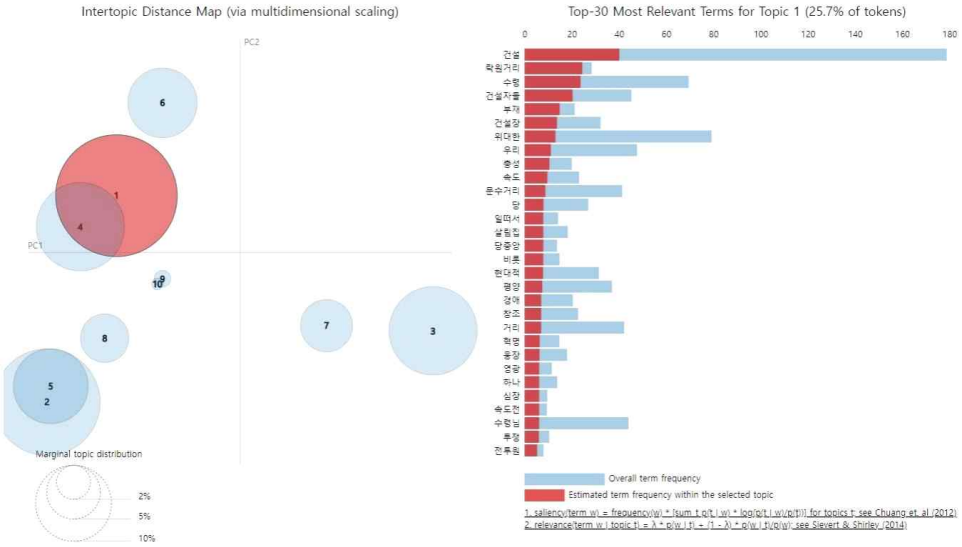
Variable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4	Topic 5	Topic 6	Topic 7	Topic 8	Topic 9	Topic 10
Term 1	건설	위대한	건설	수령	거리	창조	건설	위대한	건설장	마을
Term 2	락원거리	수령님	주택	거리	천리마거리	건설	주택	수령	힘	위대한
Term 3	수령	문수거리	평양시	천리마거리	위대한	조립	평양시	김일성동지	다층주택	건설
Term 4	건설자들	건설	세대	우리	건설	속도	근로자들	창광거리	혁신	우리
Term 5	부재	인민	트레스트	건설	우리	충성	세대	우리	수행	수령
Term 6	건설장	수령	평양	그이	현대적	어버이수령님	트레스트	건설	9월	거리
Term 7	위대한	우리	로동자들	건설자들	수령	건설자들	평양	거리	성과적	수령님
Term 8	우리	사랑	완공	당	당	건설장	활발	당	착공	현대적
Term 9	충성	인민들	민주	현대적	인민들	평양시	공사	현대적	완공	천리마거리
Term 10	속도	문수벌	다층	김일성동지	건축예술	혁명	다층	인민들	집중	인민
Term 11	문수거리	거리	계획	조립	사랑	부재	8.15	마련	건설대상	문수거리
Term 12	당	평양시	문화주택	웅장	자랑	강원	사업소	기간	주택건설과제	건설자들
Term 13	일떠서	현대적	위하여	제5차대회	민족적	락원거리	문화주택	돌아보시(였다)	주택건설자	인민들
Term 14	살림집	살림집	5월	경애	인민	웅장	결의	건설자들	평양시내	생활
Term 15	당중앙	경애	건설자들	건설장	살림집들	수령	민주	평양시	싸리근	락원거리
Term 16	비롯	건설자들	건재	다층문화주택	수령님	최상	중구	천리마거리	2천	당
Term 17	현대적	행복	완수	혁신	웅장	용접공들	설계	인민	궁륭식	창조
Term 18	평양	어느날	절약	위대한	모습	다층주택	해방	행복	500	건설장
Term 19	경애	건설장	공업성	속도	주체적	혁신	15주년	령도밑	건설	경애
Term 20	창조	일떠서	경공업성	인민	세심한	기적	원가	평양시내	위대한	김일성동지
Term 21	거리	생활	결의	선물	정서	당중앙	명절	웅대	주택	구상
Term 22	혁명	배려	작업	다층주택	내용	교시	구획	일떠선	세대	평양
Term 23	웅장	구상	현재	하나	행복	평양	위하여	궐기	수령	사랑
Term 24	영광	락원	조립식	교시	창조	3배	완공	완공	수령님	주택
Term 25	하나	생각	지구	평양시	평양	축조	현대적	평양	평양시	문수벌
Term 26	심장	모든것	운동	살림집	지도	신속	작업	창조	거리	행복
Term 27	속도전	로고(노고)	고지	조선인민	구상	미장작업	계획	속도	우리	충성
Term 28	수령님	탄생	경쟁	혁명적	원대한	대중	조직	사랑	천리마거리	자랑
Term 29	투쟁	70돐	방법	원대한	생활	권양속도	성과	생활	현대적	창광거리
Term 30	전투원	주시(였다)	건설장	평양	설계	앞장	종합	현명	근로자들	살림집들

<그림 5-6>은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추출된 주제 1과 그 주제에 분포된 30개의 단어를 보여준다. 먼저 주제의 위치를 통해 주제 간의 관계를 추정해보면, 주제 1, 4, 6이 연관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각각의 주제에 분포된 단어들은 주제 1의 경우, 건설, 락원거리, 수령, 건설자들, 부재, 건설장, 충성, 속도, 문수거리, 당, 일떠서, 살림집, 현대적, 평양, 창조, 혁명, 속도전, 투쟁, 전투원 등이며, 주제 4의 경우, 수령, 거리, 천리마거리, 우리, 건설, 건설자들, 당, 현대적, 김일성 동지, 조립, 다층문화주택, 혁신, 속도, 다층주택, 교시, 살림집 등이며, 주제 6의 경우, 창조, 건설, 조립, 속도, 충성, 부재, 락원거리, 웅장, 용접공들, 다층주택, 혁신, 교시 등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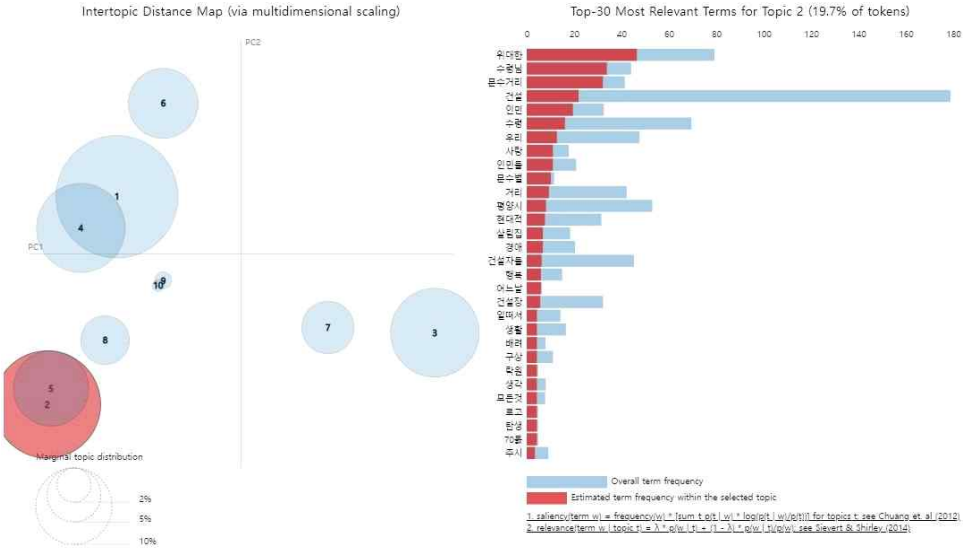
따라서 김일성 시기의 로동신문 공동주거 관련 기사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수령의 교시에 따라 다층주택을 규격화된 부재를 이용하여 조립식으로 빠르게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건설자, 용접공들이 마치 전투원이 되어 속도전의 투쟁을 벌인 결과로서 대표적 거리인 락원거리와 천리마거리가 건설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5-6〉 김일성 시기 공동주거 관련기사의 추출 주제 1 및 단어



그 외의 주제로서 <그림 5-7>과 같이 연관을 보이는 주제 2, 5, 8에서는, 주제 2의 경우, 위대한, 수령님, 문수거리, 건설, 인민들, 우리, 사랑, 현대적, 살림집, 행복, 생활, 배려, 락원, 생각 등의 단어가 나타났으며, 주제 5의 경우, 거리, 천리마거리, 위대한, 건설, 우리, 현대적, 수령, 인민들, 사랑, 자랑, 살림집들, 세심한, 정서, 행복, 생활 등의 단어가 나타났다. 따라서 인민들을 위한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여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수령의 세심한 배려를 강조한 주제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5-7〉 김일성 시기 공동주거 관련기사의 추출 주제 2 및 단어



그 밖에 주제 3의 경우, 건설, 주택, 평양시, 세대, 트레스트[24], 로동자들, 완공, 민주, 계획, 완수, 절약, 공업성, 경공업성, 결의, 작업, 조립식, 고지, 경쟁, 방법, 건설장 등의 단어가 나타났다. 건설의 주체인 종합사업소, 공업성들이 작업의 완공, 고지, 완수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과 방법을 세우고 결의를 다졌던 내용의 주제를 추정할 수 있다.

24) 트레스트(trest)는 러시아어에서 유래하였으며, 북한에서 건설공사를 주로 하는 종합사업소를 지칭하는 단어임(네이버 사전 https://ko.dict.naver.com).

3. 공동주거의 대량공급과 통치정당성의 확보

1) 주택의 시기별 건설계획 및 실적[25)]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자료 및 선행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건설 계획 및 실적을 파악해 보면 <표 5-3>과 같다. 김일성 시기에 해당하는 1954부터 1984년까지는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주택의 공급이 절정에 달하여 인민들의 주택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 시기로 평가된다(최상희, 2015: 13). 이 시기에 공급된 주택의 규모는 전체 공급량의 63.67%를 차지하며, 김정일, 김정은 시기와 비교하여 상당한 실적을 자랑한다. 김일성 시기의 주택 대량공급의 기조는 이어진 김정일 시기에도 유지되는데,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이전까지 공급된 주택의 규모는 전체 공급량의 94.26%에 달한다.

〈표 5-3〉 시기별 주택 건설계획 및 실적

시기 구분	정권	주택건설 계획	주택건설 실적
1949~1950년: 2개년 계획	김일성	1949년 446호, 1950년 932호	-
1954~1956년: 3개년 계획		-	60만호
1957~1960년: 5개년 계획		60만호(도시 40만호, 농촌 20만호)	
1961~1970년: 1차 7개년 계획		120만호(도시 60만호, 농촌 60만호)	80만호
1971~1977년: 6개년 계획		200만호	88만호(도시41만호, 농촌47만호)
1978~1984년: 2차 7개년 계획	이양기	140~210만호 (년 20~30만호)	70~105만호(추정)
1987~1993년: 3차 7개년 계획	김정일	105~140만호 (년 15~20만호)	160만호
1990년대 초~2002년 : 고난의 행군		-	30만호
2002~2009년		청년영웅도로 주변 20만호	-
2009~2022년	김정은	평양 아파트 10만호	-

자료: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2차회의, 1987;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 1993; 윤혜정 · 장성수, 1997; 서봉원, 2000; 조현식, 1990; 최상희 외, 2015.

25) 공동주거의 시기별 건설계획 및 실적에 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음.

2) 공동주거의 양적, 속도적 공급과 단조로운 경관의 형성

방대한 공동주거 건설의 성과적 보장을 목표로 하였던 김일성 시기의 지향점은 앞서 「로동신문」 기사의 토픽 모델링의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규격화된 부재를 이용하여 조립식 방법으로 다층주택을 빠르게 건설하도록 하였다. 건설자들은 당이 제시한 대로 부재를 경량화, 대형화하고 조립식 건설의 비중을 최대한 높여 건설의 속도를 끌어 올렸다(로동신문, 1984).

이 시기에는 건설자들 사이에서 속도전의 투쟁을 벌이도록 고양하였다. 「로동신문」기사에서 주택 한 세대의 조립속도를 경쟁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것은 1958년 6월 5일자 기사가 처음으로서, “주택 한 세대 조립에 16분!”이 소요되어 “극히 짧은 시간”에 다층 문화주택이 조립되고 있음을 선전하였다. 이는 ‘70년대속도’, ‘80년대속도’ 창조의 열풍으로 이어진다. <그림 5-8>과 같이, 1975년 6월 12일 기사에서는 락원거리 건설자들이 살림집 한 세대를 조립하는데 8분이라는 유례없는 속도를 창조하였음을 선전하였으며, 1975년 7월 18일 기사에서는 락원거리 건설자들이 한 세대(5~6칸)를 조립하는데 7분이라는 대단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1986년 5월 11일 기사에서는 건설자들이 부재조립과 벽돌쌓기, 내외부미장, 난방 및 전기 공사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립체전법’을 벌이고 있음을 선전하였다.

〈그림 5-8〉 김일성 시기의 공동주거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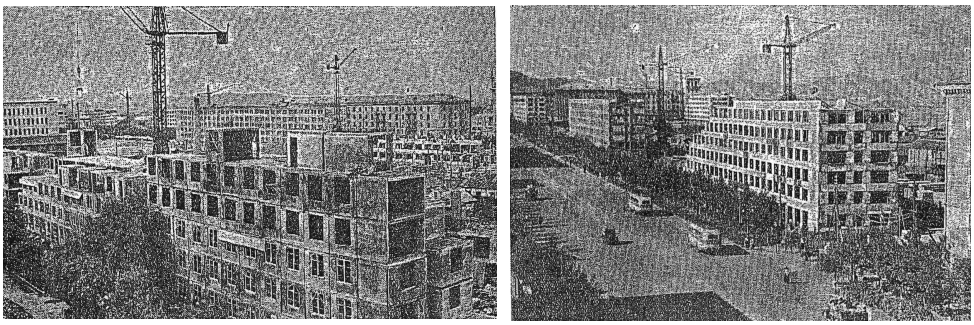
속도전의 위력을 떨치며 류례없는 건설속도 창조
8분에 살림집 1세대씩 조립하는 대혁신!
락 원 거 리 건 설 자 들

천리마거리 제2단계 살림집건설 빠른 속도로 진척
30여개 호동의 기초공사를 끝내고 부재조립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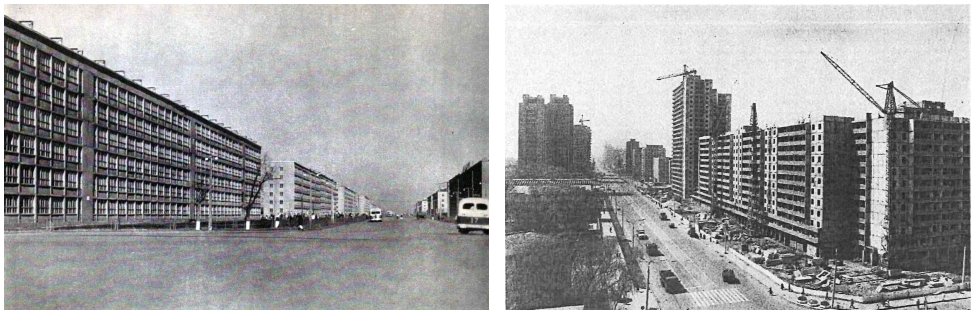
자료: 로동신문 1975년 6월 12일자, 4면(좌); 로동신문 1984년 6월 6일자, 5면

그 결과 김일성 시기의 공동주거는 <그림 5-9>와 같이, 직육면체 형태의 단위 세대를 수평적, 수직적으로 적층한 조립식의 형태를 보인다. 주동의 배치는 가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선형의 형태를 보이며, 표준화된, 규칙적인 형태의 반복적 사용으로 인하여 단조롭고 획일화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5-9〉 김일성 시기의 공동주거의 경관



자료: 로동신문 1958년 6월 22일자, 5면, '평양 제4 건설 트레스트 브리가다원들은 통방빠넬로 다층 주택을 건설한다' (좌); 로동신문 1958년 6월 6일자, 3면, '김일성 광장 부근에 건설되고 있는 조립식 다층 주택'



자료: 국립 미술 출판사, 1959.「평양」, p.23. '동평양 청년거리' (좌); 로동신문 1986년 5월 11일자, 1면, '날을 따라 웅장하게 변모되는 천리마거리 제2계단 건설장'

제 3 절 김정일 체제: 다양화한 상징경관을 통한 통치 합리성의 강화

1. 김정일 시기의 공동주거를 통한 지향점

김정일 시기에 들어서면 북한의 공동주거는 이전 시기에 비하여 상당히 다양화한 특성을 보인다. 먼저 김정일 시기의 범위를 구분하자면, 김정일은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에서 후계자로 지명되면서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평양의 주거단지 계획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였다. <그림 5-10>은 창광거리 2단계의 설계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김일성에게 설명하는 김정일의 모습을 보여준다. 북한 단행본「조선건축」에는 1970년부터 1980년대를 시작하는 장의 첫 부분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나라 건축발전의 대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리화선, 1989: 266-267). 따라서 1970년대 중반부터 김정일이 사망한 2011년까지를 김정일이 평양의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친 시기로 상정할 수 있다.

〈그림 5-10〉 창광거리의 모형사판을 김일성에게 설명하는 김정일(1980.04.)

자료: : 림영, 1992. 「우리의 지도자」, "경애하는 수령님께 현대적인 거리로 건설될 창광거리 모형사판을 설명해 드리시는 지도자 김정일 비서", p.6.

김정일 시기의 도시 및 주거단지계획에서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독창성과 다양성을 추구한 점이다. 김정일이 공동주거를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바는 그가 1992년에 집필한 「건축예술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표 5-4>와 같이, 총 4개의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3장의 '건축과 형성'에서 도시공간 형성에 있어서 종합예술성, 조화성, 독창성, 다양성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예술성은 조형예술적인 형상과 실용적인 입체공간을 통하여 인간의 생활을 반영하며 사상예술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건축형성에서 상징적인 표현성을 잘 살리는 것이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며, 사상예술성의 상징적 표현을 강조하였다(김정일, 1992: 97-105).

둘째, 도시공간의 형성에서 조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건축적 통일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제기하였다. 거리 및 도시의 공간 형성에서 통일성은 "여러 가지 건축요소를 하나의 통일적인 체계와 질서에 복종시켜 묶어주고 조화시키는 속성"으로 정의하였으며, 주도적인 것과 종속적인 것을 설정하고 그의 '호상관계'를 해결하여 이루어짐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건축적 통일성만을 강조할 경우 "건축형성이 무미건조해지고 볼모양이 없게 되며 생활이 흥겹지 못하게 된다"고 하며 통일성을 보장하는 데만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였다(김정일, 1992: 111-116).

셋째, 「건축예술론」에서 가장 힘을 실어 강조하는 독창성에 관하여, 김정일은 "건축창조에서 모방은 죽음이다"라고 극적으로 표현하였다. 독창성은 창작의 본성이며, 건축은 창작으로서, 새것이 없고 특색이 없는 건축은 창작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독창성과 비반복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 모든 건축을 새롭고 특색있게 창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위한 건축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건축가가 창작에서 독창성을 발휘하여 새롭고 특색있는 건축물을 창조하여야만 건축역사의 발전에 적극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김정일, 1992: 123-125).

넷째, 다양성은 앞서 언급한 독창성과 연계하여 서술하였다. 도시공간의 형성에서 다양성의 구현은 “비반복적이며 독창적인 것의 창조”로 정의하였다. 이는 “기존의 형식을 되풀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특색있게 새로운 여러 가지 형식을 창조해내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시공간 형성에서 다양성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건축 구성요소 자체의 다양한 변화성을 보장하며, 그 구성단위를 합리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개별적인 건축물이 다양해야 건축군이 아름답고, 건축군이 다양해야 거리가 아름다우며, 거리가 다양하여야 도시가 아름답고 화려하게 된다는 그의 주장에서 공동주거를 통하여 다양성과 독창성을 드러내고자 했던 바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김정일은 이전 김일성의 형식을 되풀이하지 않고, 특색있고 새로운 여러 가지의 형식의 공동주거를 만들어내고 시각적으로 부각하면서 기존과는 다름을 부각하였다. 후계 구도를 공고히하고 통치자로서의 자질을 드러내는데 공동주거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표 5-4〉 건축예술론의 구성

구분	주요 내용
1장 건축과 사회	1) 건축은 사회력사의 창조물이다 2) 사회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축은 수령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한다 3) 주체건축은 인민대중중심의 건축이다
2장 건축과 창작	1) 주체건축은 혁명적 수령관으로 일관되여야 한다 2) 건축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여야 한다 3) 건축창조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구현하여야 한다 4) 건축창조에서 민족적특성과 현대성을 옳게 결합시켜야 한다 5) 건축의 질과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
3장 건축과 형성	1) 건축은 종합예술이다 2) 건축형성에서 기본은 조화성이다 3) 독창성은 건축의 본성적 요구이다 4) 다양성은 건축의 조형예술적 질을 높인다
4장 건축과 지도	1) 건축가는 창작가이며 작전가이다 2) 건축창작지도에서 집체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건축창조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자료: 김정일, 1992. 「건축예술론」, p.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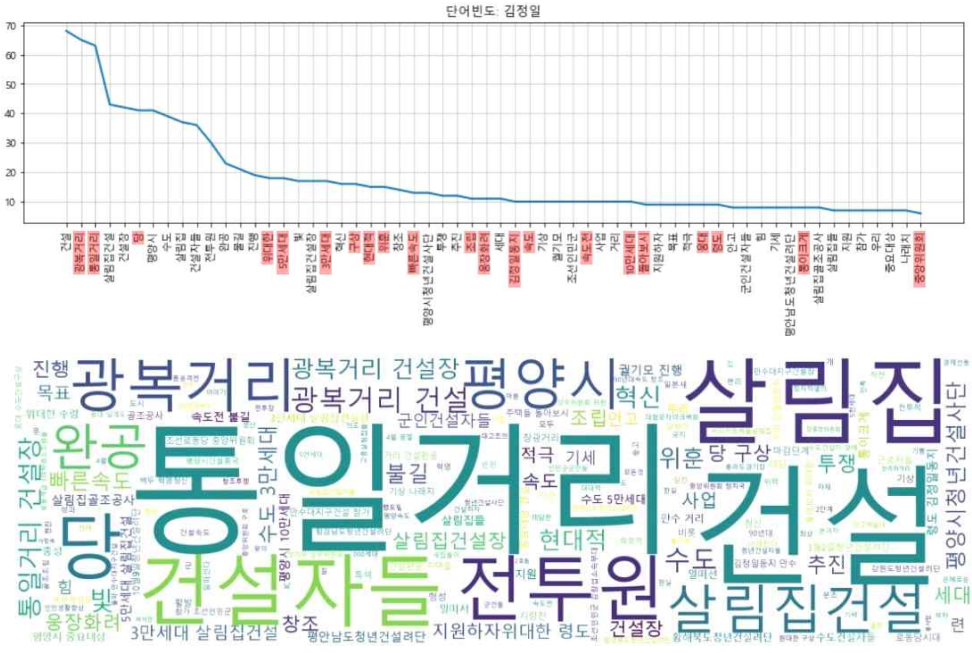
2. 김정일 시기 로동신문 공동주거 관련 기사의 분석

1) 공동주거 기사 제목에 출현한 단어의 빈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일 시기에 평양시 공동주거를 통해 지향했던 바가 당시 로동신문 기사에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김정일 시기(1982-2012)의 공동주거 관련 기사 351건의 제목에서 빈도가 높은 단어를 60개를 추출하였다. 그림 <5-11>과 같이, 광복거리, 통일거리, 당(조선로동당), 완공, 위대한, 5만세대, 3만세대, 혁신, 구상, 현대적, 위훈, 창조, 빠른속도, 조립, 웅장화려, 김정일동지, 속도, 속도전, 10만세대, 돌아보시였다(현지지도), 웅대, 령도, 통이크게, 중앙위원회 등의 단어가 나타난다.

김일성 시기와 비교하여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최고통치자를 칭하는 김정일동지, 조선로동당(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의 단어와 위훈, 령도, 현지지도 등 통치력을 강변하는 단어가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그림 5-11〉 김정일 시기 공동주거 기사 제목 단어의 빈도 및 단어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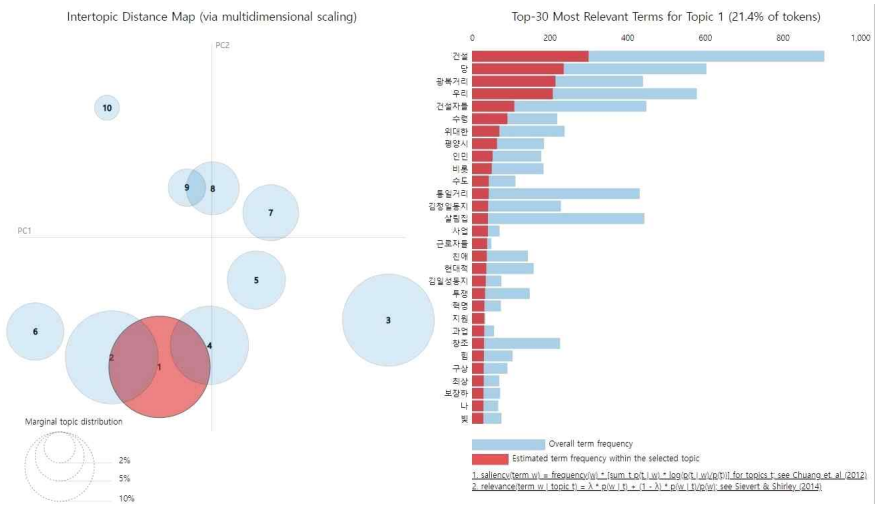
김일성 시기와 마찬가지로 주택의 대량공급을 위하여, ‘평양 10만세대’, ‘평양 5만세대’, ‘평양 3만세대 살림집 건설’ 등의 목표를 내세우고, ‘90년대 속도’, ‘속도전’이라는 구호 아래, 조립식 건설의 방법으로 빠르게 완공하고자 하였던 점이 확인된다.

반면에, ‘현대적’, ‘웅장화려’ 등의 단어는 새로 등장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일이 건축형식에 있어 예술적, 비반복적이어야 한다는 창작원칙을 내세우며 평양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변모시키기 위하여 시도하였던 점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 공동주거 기사의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LDA)

김정일 시기의 공동주거 관련 기사 351건의 제목에 출현한 텍스트와 관련 기사 중 창광거리 2단계, 문수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 등 주요 거리 주택건설의 기사 130건의 내용에 출현한 텍스트를 합하여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5-12>는 추출된 주제 10개 중, 주제1과 이 주제에 분포된 30개의 단어를 보여준다. 먼저, 주제의 위치를 통해 주제 간의 관계를 추정해보면, 주제 1, 2, 4가 연관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5-12〉 김정일 시기 공동주거 관련기사의 추출 주제 1 및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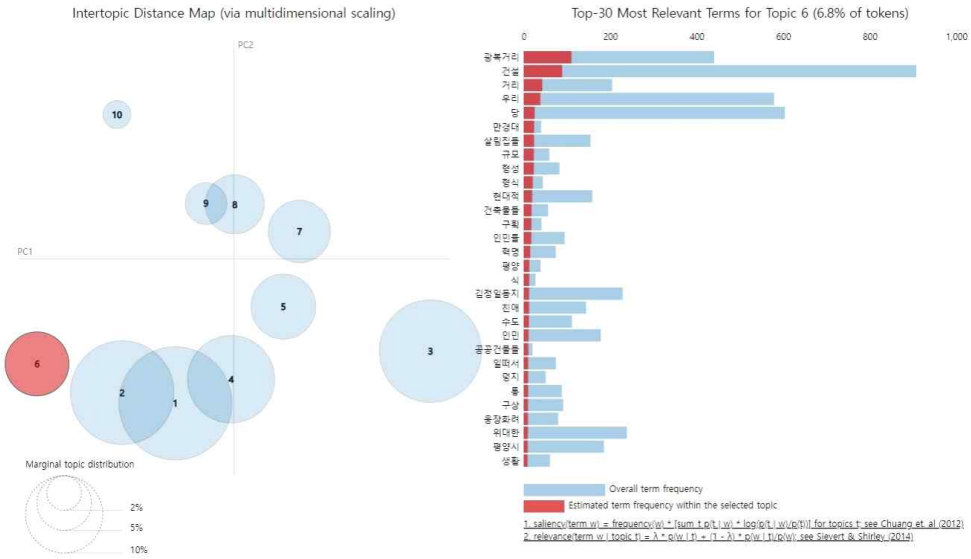


각각의 주제에 분포된 단어들은 주제 1의 경우, 건설, 당, 광복거리, 우리, 건설자들, 수령, 위대한, 평양시, 통일거리, 김정일동지, 살림집, 친애, 과업, 창조, 구상 등이며, 주제 2의 경우, 통일거리, 우리, 건설, 살림집, 거리, 당, 위대한, 김정일동지, 친애, 수령, 광복거리, 현대적, 봉사망, 웅장화려, 속도, 창조, 투쟁 등이며, 주제 4의 경우, 건설, 당, 우리, 건설자들, 통일거리, 살림집, 김정일동지, 속도, 창조, 위대한, 령도, 진행, 현대적, 투쟁, 완공, 웅대, 문수거리 등이 나타난다.

김일성 시기의 토픽 모델링의 결과와 비교하여 가장 차이를 보이는 점은, 기사 제목에 출현한 단어의 빈도에서도 확인이 되는, 최고통치자를 칭하는 '우리 당의 위대한 김정일동지'가 주제 1, 2, 4에서 모두 주체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령도와 구상에 따라 광복거리, 통일거리, 문수거리의 살림집들이 완공되었음을 핵심적인 주제로 추정할 수 있다.

김정일 시기의 토픽 모델링의 결과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주제 6이다. 주제 6의 위치는 주제, 1, 2, 4와 밀접하여 핵심주제임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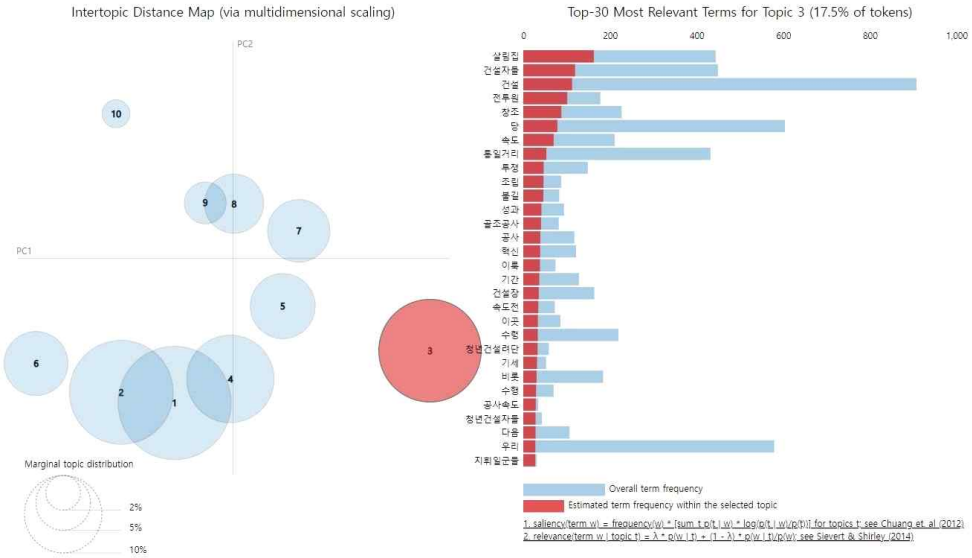
〈그림 5-13〉 김정일 시기 공동주거 관련기사의 추출 주제 6 및 단어



주제 6에 분포된 단어들은 광복거리, 건설, 거리, 우리, 당, 살림집들, 규모, 형성, 형식, 현대적, 건축물들, 구획, 평양, 우리식, 김정일동지, 일떠서, 덩지, 통이크게, 구상, 웅장화려, 위대한 등이 나타났다. 김정일이 공동주거를 통하여 지향했던 바와 같이, 광복거리 건축물들의 형성에서 다양성과 독창성의 창작원칙을 내세우고, 규모와 덩지(덩치)면에서는 통이 크게 하여, 평양시를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설하기 위해 구상하였던 점을 나타내는 주제로 해석할 수 있다.

통일거리가 전면에 등장한 주제 3에서는 <그림 5-14>와 같이, 살림집, 건설자들, 건설, 전투원, 창조, 속도, 통일거리, 투쟁, 조립, 성과, 골조공사, 혁신, 이룩, 기간, 속도전, 청년건설려단, 기세, 수행, 공사속도, 청년건설자들, 지휘일군들 등의 단어가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거리의 살림집의 건설에서는 공사속도와 속도전이 강조되었으며, 청년건설자들, 청년건설려단들이 주도적으로 골조공사, 조립작업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투쟁하였음을 주제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5-14〉 김정일 시기 공동주거 관련기사의 추출 주제 3 및 단어



<표 5-5>는 김정일 시기의 공동주거 관련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 출현한 단어를 활용하여 10개의 주제와 주제별로 선택된 30개의 단어를 도출한 토픽 모델링의 결과를 모두 보여준다.

〈표 5-5〉 김정일 시기 공동주거 관련기사의 추출 주제와 단어

Variable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4	Topic 5	Topic 6	Topic 7	Topic 8	Topic 9	Topic 10
Term 1	건설	통일거리	살림집	건설	통일거리	광복거리	건설	건설	광복거리	우리
Term 2	당	우리	건설자들	당	당	건설	군인건설자들	건설자들	건설	평양시
Term 3	광복거리	건설	건설	우리	전투원	거리	지휘관들	비롯	당	살림집건설
Term 4	우리	살림집	전투원	건설자들	살림집	우리	살림집	당	전투원	행복
Term 5	건설자들	거리	창조	통일거리	건설자들	당	혁신	수도	건설자들	인민
Term 6	수령	당	당	살림집	건설	만경대	부대	봉사망	수령	수령
Term 7	위대한	인민	속도	김정일동지	건설장	살림집들	현대적	살림집	비롯	친애
Term 8	평양시	위대한	통일거리	살림집들	우리	규모	전투원	추진	김정일동지	당
Term 9	인민	김정일동지	투쟁	속도	건축물들	형성	건설자들	위대한	질	10만세대
Term 10	비롯	살림집들	조립	창조	거리	형식	골조공사	살림집건설	승강기	지도자동지
Term 11	수도	친애	불길	위대한	혁신	현대적	평양시	우리	건설장들	근로자들
Term 12	통일거리	건설자들	성과	인민	창조	건축물들	비롯	련대	건설장	통일거리
Term 13	김정일동지	수령	골조공사	평양시	충성	구획	속도	중앙위원회	도로	살림집
Term 14	살림집	광복거리	공사	살림집건설	형성	인민들	창조	살림집건설장	창조	혁명
Term 15	사업	현대적	혁신	령도	김정일동지	혁명	위대한	천리마거리	위대한	수도
Term 16	근로자들	봉사망	이룩	거리	친애	평양	김정일동지	불길	살림집	위대한
Term 17	친애	수령님	기간	건설장	위훈	우리식	광복거리	공사	보장	3만세대
Term 18	현대적	웅장화려	건설장	기간	투쟁	김정일동지	공사	3만세대	구상	완공
Term 19	김일성동지	기간	속도전	공사	수령	친애	중요대상	이곳	완공	목표
Term 20	투쟁	건설장	이곳	진행	속도	수도	질	지휘관들	형성	경제선동
Term 21	혁명	비롯	수령	현대적	광복거리	인민	힘	조선인민군	대형	생각
Term 22	지원	인민들	청년건설려단	투쟁	청년건설려단	공공건물들	수준	적극	평양	노래소리
Term 23	과업	속도	기세	인민들	충성심	일떠서	최상	수령	수준	웃음소리
Term 24	창조	오늘	비롯	비롯	일떠서	덩지	중앙위원회	거리	기본적	가정
Term 25	힘	힘	수행	완공	려단	통이크게	발휘	창광거리	락원	경사
Term 26	구상	통	공사속도	이곳	불길	구상	조선로동장	김정일동지	구획	맞이
Term 27	최상	사람	청년건설자들	웅대	속	웅장화려	조선인민군	완공	혁신	세상
Term 28	보장	창조	다음	결심	구획	위대한	정치국	현대적	속도	명절
Term 29	하나	투쟁	우리	도시	되려	평양시	위원	골조공사	한편	3월
Term 30	빛	모습	지휘일군	문수거리	골조조립	생활	당	단위들	요구	살림집건설장

3. 독창적이고 다양화한 공동주거 경관을 통한 통치정당성의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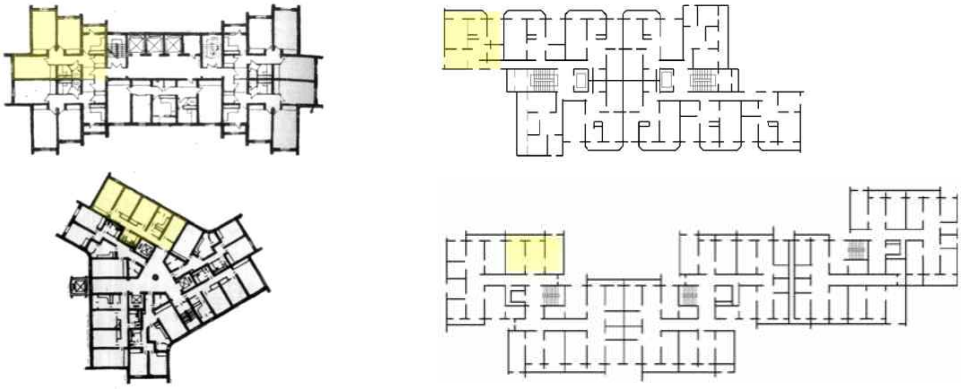
김정일이 공동주거를 통하여 도시공간의 형성에서 지향했던 바, 즉 기존의 형식을 되풀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특색있게 새로운 여러 가지 형식을 창조해내는 원칙은 공동주거의 주동형태 및 주동 배치의 다양화를 통하여 상징적인 경관을 만들어냈다.

1) 주동 형태의 다양화

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전쟁 후부터 1970년대까지 북한의 공동주거는 외랑식(편복도식)으로 표준화되어 급속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하였다. 김일성 시기에는 주로 선형의 형태가 기본이었던 것이다.

반면 1970년대 중반부터는 ㅅ자형, 어김형, T자형, 톱날형 등 보다 다양한 평면도식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러한 단위를 여러번 묶어 사용하는 묶음형 평면(꺾음 묶음식, 점형 묶음식, 선형 묶음식)들을 적용하여 건물의 볼륨을 크게 하고 입면 형성에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하였다. 층수가 다른 건물들을 하나로 묶어 입면 형성상 변화를 주는 방법도 널리 적용되었다(리화선, 1989: 342-351).

〈그림 5-15〉 김정일 시기의 경흥거리(좌) 및 문수거리의 공동주거 평면



자료: 경흥거리(좌), 문수거리의 어김형(우상) 및 톱날형 평면(우하), 리화선, 1989. p.344, 346-347.

주동 형태의 다양화는 광복거리 건설에서 절정을 이룬다. 광복거리는 김정일의 생각이 가장 잘 구현된 주거단지로 손꼽힌다. 광복거리는 팔골다리에서 만경대 갈림길에 이르는 5.4㎞ 구간의 거리로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1989년 7월)을 대비하여 1986년 1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1989년 5월에 준공되었다(조선중앙연감, 1990). 살림집 지구는 약 490여 정보(약 490만㎡)의 부지에 9개 구획으로 조성되었으며, 1단계에만 약 2만여 세대가 건설되었다(조선건축, 1990년 3호: 78-83).

김정일은 광복거리를 평양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웅장한 거리로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다양하고 규모가 큰 고층, 초고층 살림집 군과 학생소년궁전, 청년회관,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1980년대 북한 수도건설의 대전성기를 펼친 거리로서 평가되고 있다(조선중앙연감, 1987). 당 기관지에서는 광복거리를 묘사하면서 고층, 초고층의 원형식, 병풍식, 날개식의 독특한 건축미를 가진 고층 아파트들로 인하여 거리의 미감과 입체감이 살고 종심이 깊어 보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그 웅장하고 화려함에, 그 거창하고 다양함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 어느쪽을 둘러보나 새롭고 독특한 양상, 뛰어난 건축예술로 하여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고 극찬을 하였다(로동신문: 1990).

<그림 5-16>과 같이, 항공사진을 통하여 광복거리의 주동 형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정일이 강조하였던 비반복성의 원칙에 따라 곡선형, 꺽임형, 원형, 원형묶음형, 탑형, 탑형묶음형, 다각형, 바람개비형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건설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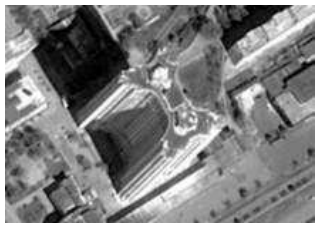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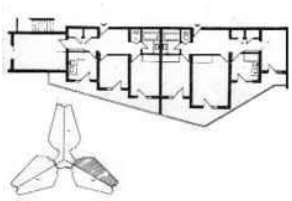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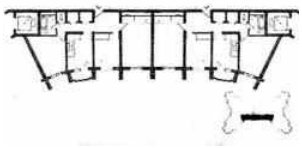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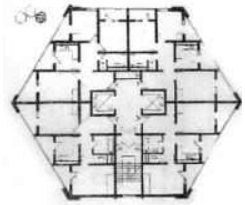
〈그림 5-16〉 광복거리의 공동주거의 주동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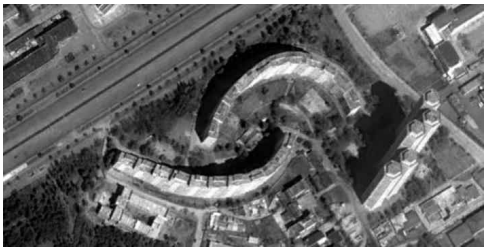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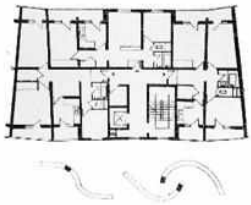
일자형	곡선형	

자료: 항공사진 https://earth.google.com/

<표 5-6>은 광복거리 살림집의 평면구성을 살펴본 것이다. 묶음형의 경우를 제외하면 한 층에 기본 3~8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세대는 3~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건축면적은 2방 세대가 95㎡, 3방 세대가 108㎡(조선건축, 1990년 3호: 78-83)로 나타난다. 따라서 김일성 시기의 외랑식(편복도식) 표준주택유형과 비교해 볼 때, 한 층의 세대수는 감소하였으며, 단위 세대의 면적, 방 개수, 위생실(화장실) 수는 증가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6〉 광복거리 살림집의 평면

바람개비형	쌍Y형	정육각형
		
		
· 한층 12세대, 타워형 · 부엌, 방3개, 위생실1개	· 한층 8세대, 타워형 · 부엌, 방3개, 위생실1개	· 한층 4세대, 타워형 · 부엌, 방2~3개, 위생실 1개

곡선형	원형묶음형
	
	
· 한층 3세대, 계단식 · 부엌, 방3개, 위생실1개	· 한층 15세대, 타워형 · 부엌, 방4개, 위생실 2개

자료: 항공사진 https://earth.google.com/, 평면 출처: 조선건축, 1990년 3호, p.78-83.

2) 주동 배치의 다양화

김정일 시기에는 공동주거의 주동 배치에서도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각 거리를 따라 들어서는 주거동을 서로 다르게 배치하고자 하였다(리화선, 1989: 311-313). 예를 들어 락원거리의 경우, 주로 긴 살림집을 가로면을 따라 배치하고 그 사이사이에 탑형(타워형) 살림집을 세우는가 하면, 창광거리에서는 '금강의 총석정'과 같이 고층건물을 무리로 배치하고 한쪽에 그와 대조되게 낮고 큰 덩어리의 공공건물을 배치하였다. 문수거리의 경우에는 병풍을 여러 가지 형태로 펼쳐 전개하듯이 한 동의 건물을 3번에서 많게는 6번까지 꺾어서 배치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림 5-17〉 김정일 시기의 주요 거리의 주동 배치

락원거리	창광거리	문수거리

자료: 항공사진 https://earth.google.com/

주동 배치에 있어서는 북한의 창광거리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창광거리의 제1단계 공사는 <그림 5-18>의 북쪽에 해당하는 보통문에서부터 해방산 네거리까지로 1980년에 약 2,000세대가 완공되었다. 제2단계 공사는 남쪽의 해방산 네거리에서부터 평양역까지로 1985년에 약 2,000세대가 추가 완공되었다.

창광거리는 이전의 소련의 뻬치카식(pechka: 벽난로식)의 2~3층 벽돌집으로 이루어졌던 륜환선거리를 완전히 들어내고 새롭게 건설한 거리이다. 륜환선거리에서 창광거리로의 변화는 북한의 주체적 건축양식을 전면에 등장시킨 사건으로 평가되어 북한의 살림집 건설 역사에서 자주 거론된

다. 김정일은 창광거리 제2단계 공사를 직접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다(림영, 1992: 6).

창광거리 공동주거의 주동 배치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제1단계와 제2단계 공사를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제1단계, 즉 보통문에서부터 해방산 네거리까지의 건설은, 이전 시기에는 길을 따라 건물을 나란히 배치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크고 작은 살림집들을 '들쑹날쑹하게' 배치하고, 높고 낮은 건물들을 서로 '엇바꾸어 놓아' 건물들이 겹쳐 보이고 입체감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제2단계, 즉 해방산 네거리에서부터 평양역까지의 건설은, 이전 시기에는 높은 탑식건물을 하나 혹은 두 개씩 배치하고 그 사이에 낮은 건물을 배치하여 대조적 효과를 조성하였던 것과 달리, '무리식 배치방법'을 적용하여 20층, 25층, 30층 건물들을 한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거리가 웅장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그림 5-18〉 창광거리의 모습

자료: 항공사진 https://earth.google.com/을 토대로 저자 작성.

김정일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광복거리에서는 앞서 언급한 락원거리, 문수거리, 창광거리 2단계를 계획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주거의 주동 배치를 통하여 그가 지향했던 독특하고 다양한 도시경관의 형성의 목표를 절정으로 구현하였다. 광복거리는 김정일이 직접 그 규모와 부지의 선

정, 그리고 거리 및 건축물의 형성안을 하나하나 살피며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로동신문 1987년 6월 23일자, “당의 령도밑에 거창하고 웅장화려하게 일떠서는 광복거리).

광복거리는 모두 9개 구획으로 조성이 되었다. 건설이 시작되었던 1987년의 로동신문 기사에 따르면, 구획의 형성에서 종래의 형식을 반복하지 않고 “우리 식으로 독특하고 새 맛이 나게” 하여 각 구획별로 고유한 양상을 띠고 조화성을 갖추고 있다고 전한다. 둔각적인 꺾음형과 수직형의 건축물들로 조화를 이루는 구획이 있는가 하면, 원통묶음형으로 부드러운 곡선미를 가진 구획도 있고, 수평성을 강조한 건축물의 하부 위에 수직성을 강조한 건물군을 높이 세운 구획도 있으며, 꺽음형과 탑식을 잘 배합하여 덩치가 큰 건축물과 곡선형 및 단층의 건축물을 배합하고 계단식형에 다각형 묶음식 건축물을 배합한 구획들도 있다. 이에 각이한 형식과 양상을 띠고 건설되는 도시공간은 “그 어느 하나도 같다거나 어슷비슷한 것이란 하나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공동주거의 배치에서 기존 관계를 깨뜨리고 새롭고 다양한 형식으로 건설함으로써 광복거리는 “그 어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양상으로 일떠세우는 우리 식의 새 거리”이며, 거리에서 느껴지는 입체감과 웅장화려함에 한폭의 잘 짜여진 전경화를 보는 듯한 황홀감을 주게될 것이라며 극찬을 하였다(로동신문 1987년 6월 23일자, “독특한 우리 식의 새로운 거리로”).

〈그림 5-19〉 광복거리의 전경

자료: 외국문종합출판사 화보사, 1995. 「영광의 50년」, p.218-219.

제 4 절 김정은 체제: 사회주의 문명국의 상징경관을 통한 통치합리성의 강화

1. 김정은 시기의 공동주거를 통한 지향점

김정은은 2011년 12월 17일의 김정일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최고통치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10여 년에 걸친 권력의 이양 과정으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기에 충분했던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2009년 9월, 당군사위 부위원장과 당중앙위원의 지위를 부여받으며 후계자로 공식화된 후, 2년여 만에 최고권력자의 지위에 오른 것이다(전미영, 2013: 2). 이에 김정은은 실무적 경험 및 이론적 토대를 쌓을 시간이 부족했기에 체제의 출범 이후,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와 국가전략을 제시하기보다는 부분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곽길섭, 2020: 69-98). 즉, 공식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표명하였으며, 체제 운영의 목표로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내세웠다(이종겸·정현주, 2022: 41; 김근식, 2014: 40-41; 곽길섭, 2020:178).

공식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김일성-김정일주의'의는 김정은의 담화 중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된,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발표된 연설문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자」와 이어 4월 20일에 발표된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는 제목의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김정일의 권력승계의 정당성을 내세웠으며, 선대 수령들의 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여 자신의 권력승계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이 강하게 드러난다(전미영, 2013: 8-10).

체제 운영의 목표로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은 2012년 4월 27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김정은은 국토관리사업을 김정일의 국토관리사상과 영도업적의 계승임을 천명

하며 평양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꾸릴 것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주의 문명국'은 세계적 수준의 문명을 건설하고 이를 인민들이 향유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서, 2013년의 신년사에 처음 등장하여[26] 최근까지 대부분의 담론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담론에 입각하여 건설부문의 성과와 치적을 과시하는 점은 김정은의 체제의 통치 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이다(전미영, 2013: 10; 홍민, 2017: 62-63).

김정은이 '사회주의 문명국'의 건설을 주창하며, 공동주거를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바는, 2013년 12월 8일, 북한 건설역사상 처음으로 건설부문의 일군들을 대상으로 한 대강습(건설부문 일군대강습)에서 발표한 담화문에 잘 나타난다.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시공의 전문화, 건재 생산의 정상화,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한 점이다. 담화문은 설계, 시공, 건재, 과학기술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한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은 건축물을 설계하는 데서 대상의 용도에 맞고 특색이 잘 살아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김정일의 원칙을 인용하여 건축은 종합적인 예술인만큼 유사성과 반복을 경계할 것을 언급하였다. 건축물들을 다양한 형식으로 특색있게 건설할 것과 건축설계에서 세계적인 추세를 받아들여 '록색건축, 지능건축'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둘째, 시공 부문의 각론에서 김정은은 시공을 전문화하는 것이 시공의 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라는 담화로 시작하였다. 전문화를 위한 공업화, 현대화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건설설비와 기공구의 현대화를 이루며,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여 시대적 요구와 건설대상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공법들을 창안하고 도입하기 위한 사업들을

26)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입니다." "김정은 신년사",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1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셋째, 건재 부문의 각론에서 김정은은 “건재생산은 건설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건설에서 건재는 군대에 비유하면 총포탄과 같습니다”라는 호소로 시작하였다. 건설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건재 보장 문제로서, 건재생산을 정상화하여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원만히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건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일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건설부문에 수입병이 적지 않은데 계속 다른 나라에서 건설자재를 사다 쓸 생각만 하다가는 눈뜨고 사대망국노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다소 강한 표현을 쓰며, 인민들로 하여금 자기의 것에 대한 믿음과 긍지를 높이고 이를 중요한 정치사업으로서 역할하게 할 것을 당부하였다.

넷째, 과학기술 부문의 각론에서 김정은은 “과학기술은 건설을 끊임없는 발전으로 떠미는 추동력이며,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가는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 있다”고 시작하였다. 여기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였다. 세계를 딛고 올라서겠다는 민족적 자존심과 과학적 신념을 지니고 당에서 배운 지식과 재능을 총 발휘하여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대건설투쟁을 과학기술로 담보하고 밀고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더해 건설부문의 과학기술 인재양성 사업에 힘을 써야함을 피력하였다.

종합해보면, 김정은은 선대와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에서 김정일의 방식을 되풀이하지 않았다. 김정일은 김일성 시기의 공동주거와 다른 특색있고 새로운 여러 가지의 형식을 만들어내어 자신을 각인시켰다. 반면 김정은은 이미 보여졌던 설계적인 면에서의 차이보다는 시공의 전문화, 건재 생산의 정상화,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하며 기존과의 차이를 부각하였다. 김정은 시기에 개발된 위성, 은하,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의 명칭과 거리를 따라 들어선 공동주거의 공학적, 기술적 측면이 강조되었다는 점, 그리고 공급 대상을 과학자, 교육자, 연구자에게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공동주거를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잘 드러난다.

2. 김정은 시기 로동신문 공동주거 관련 기사의 분석

1) 김정은 시기 공동주거 현지지도 기사의 빈도

김정은 시기 「로동신문」의 공동주거와 관련한 기사들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그림 5-20>과 같이 현지지도에 관한 것들이다.

〈그림 5-20〉 김정은 집권시기 공동주거 현지지도의 기사들

자료: 2014년 10월 17일자, 1면(좌); 2015년 10월 21일자, 1면(중), 2017년 1월 26일자, 1면.

현지지도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다양한 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통치활동을 표현하는 북한식 용어이다(홍민, 2018: 2). 현지지도가 가지는 권위는 이 용어가 지도자가 바뀜에 따라 상속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는데, 최고지도자가 되기 전까지 김정일은 '실무지도'란 명칭으로 1980년대 말까지 김일성과 공동으로 지도를 수행하였다(안진희, 2019: 26).

〈표 5-7〉 공동주거 현지지도 기사의 빈도

년도	정권			연간 기사 수 (건/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1980	1	-	-	1면 1건
1984	-	2		1면 8건
1985		2		
1996		1		
2001		1		
2009		1		
2010		1		
2012			3	1면 15건 2면 2건
2013			5	
2014			5	
2015			2	
2017			2	
합계	1	**8**	**17**	**1면 24건** 2면 2건

1953년부터 2019년까지 공동주거

현지지도의 기사는 총 26건이 확인된다. 이 중 24건이 1면에 실렸다는 점은 앞서 설명한 현지지도의 권위를 입증한다.

공동주거 현지지도의 기사빈도를 정권별로 비교해보면, <표 5-7>과 같이, 김일성 시기에는 기사가 1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여, 김정일 시기에는 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김정은의 경우 10년의 집권기간 동안 무려 17건에 달하는 공동주거의 현지지도를 수행하였다는 점이 확인된다.

2) 공동주거 기사 제목에 출현한 단어의 빈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은 시기에 평양시 공동주거를 통해 지향했던 바가 당시 로동신문 기사에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김정은 시기(2012-2019)의 공동주거 관련 기사 150건의 제목에서 빈도가 높은 단어를 60개를 추출하였다.

그림 <5-21>과 같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 감사, 당,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최고령도자, 현지료해, 현지지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미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거리, 은하과학자거리, 위대한, 과시, 교육자살림집 등의 단어가 나타난다.

앞선 두 시기와 비교하여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최고통치자를 칭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김정은원수님께서 등의 단어 빈도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김정은 시기의 대표적 실적인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거리, 은하과학자거리 등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과 비교하여 짧은 집권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의 현지지도를 수행하였는데, '현지료해', '현지지도', '돌아보시였다' 등의 단어의 빈도가 높게 나타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감사(를 보내시였다)'와 같이 살림집 건설자들의 치적을 공표하는 단어가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도 김정은 시기의 특징이다.

〈그림 5-21〉 김정은 시기 공동주거 기사 제목 단어의 빈도와 단어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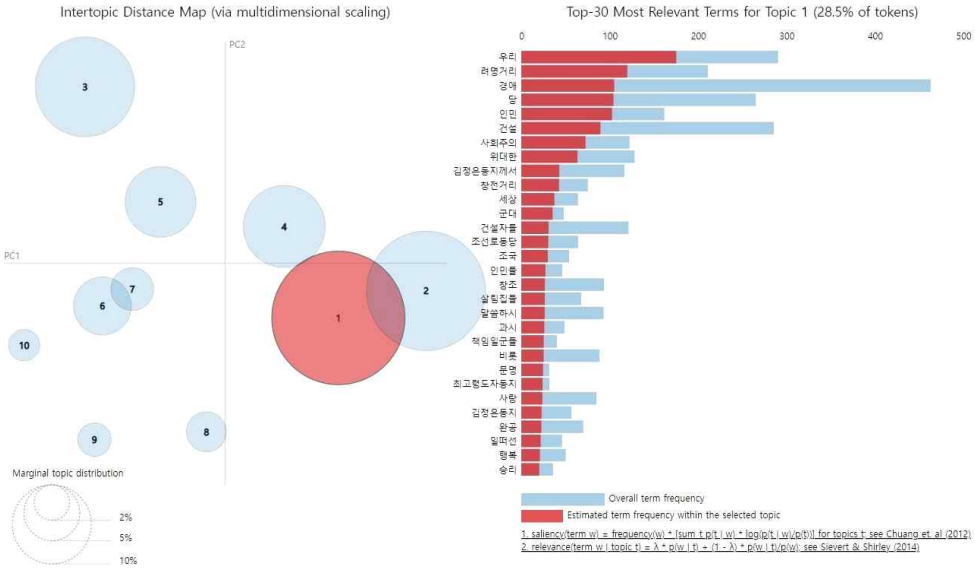
2) 공동주거 기사의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LDA)

<그림 5-22>는 김정은 시기의 공동주거 관련 기사 150건의 제목에 출현한 텍스트와 관련 기사 중 위성, 은하,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등 주요 거리 주택건설의 기사 76건의 내용에 출현한 텍스트를 합하여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추출된 주제 10개 중, 주제1과 그 주제에 분포된 30개의 단어를 보여준다. 먼저, 주제의 위치를 통해 주제 간의 관계를 추정해보면, 주제 1, 2, 4가 연관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각각의 주제에 분포된 단어들은 주제 1의 경우, 우리, 려명거리, 경애, 당, 인민, 사회주의,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 창전거리, 조선로동당, 살림집들, 과시, 문명, 최고령도자동지, 김정은동지, 완공, 일떠선, 승리 등이며, 주제 2의 경우, 경애, 당, 로동자, 지원, 우리, 감사, 적극, 사랑, 교원, 원수

님, 려명거리, 사회주의,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살림집, 교육자들, 연구사들, 최고령도, 미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등이며, 주제 4의 경우, 경애, 원수님, 건설, 우리, 말씀하시(었다), 과학자들,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은하과학자거리, 창전거리, 살림집들, 돌아보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려명거리, 빛 등이 나타난다.

〈그림 5-22〉 김정은 시기 공동주거 관련기사의 추출 주제 1 및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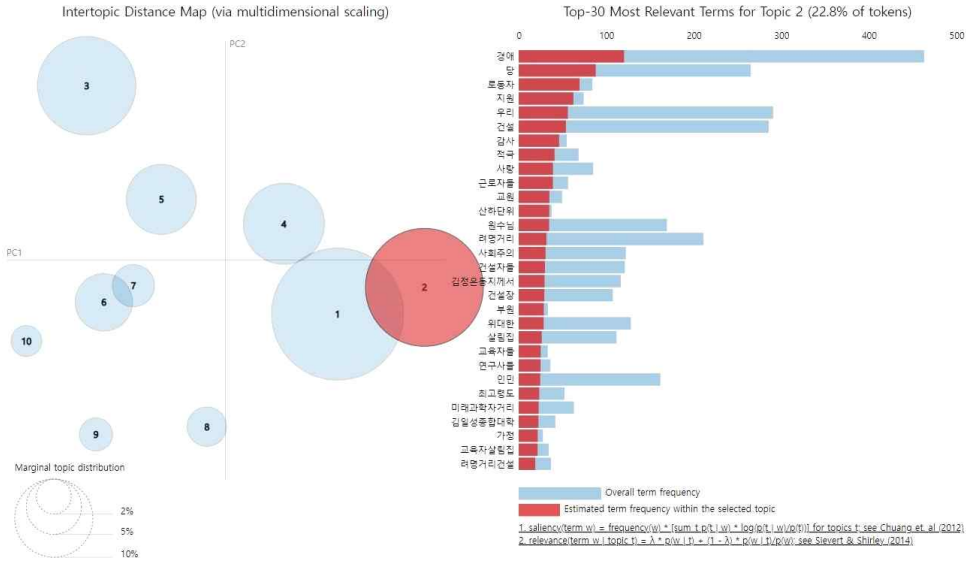


핵심적인 주제 1, 2, 4에서 이전 시기의 토픽 모델링의 결과와 비교하여 가장 차이를 보이는 점은, 기사 제목에 출현한 단어의 빈도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최고통치자를 칭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고령도자동지’, ‘김정은원수님께서’가 주제 1, 2, 4에서 모두 높은 빈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실제로 김정은 시기의 공동주거 관련 기사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으로 시작하는 기사가 주를 이룬다.

주제 1에 분포하고 있는 단어들을 통하여, 김정은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지향에 따라 건설자들이 려명거리, 창전거리의 살림집들을 완공하여, '위대한 조선로동당', '사회주의 조국의 승리'를 과시하고 있음을 핵심 주제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5-23>과 같이, 주제 2에는 김정은을 칭하는 단어들 외에, 로동자, 근로자들, 건설자들, 지원, 건설, 감사, 적극 등의 단어가 나타나는데, 김정은이 건설공사에 적극 지원을 나선 건설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치적을 공표하는 주제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교원, 교육자들, 연구사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등의 단어들이 나타나는데, 김정은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하며 과학기술, 교육 부문의 일군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정책을 펼쳤다는 점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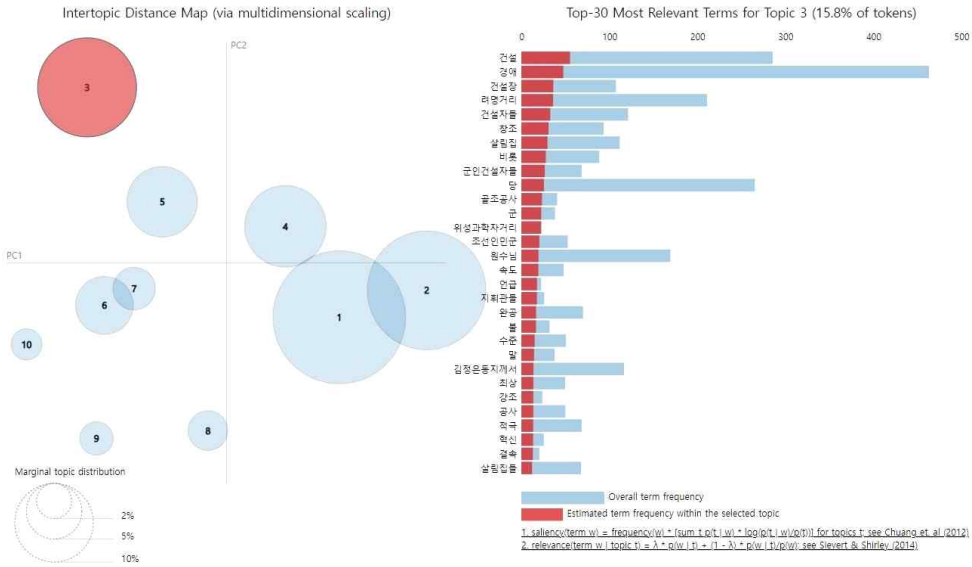
〈그림 5-23〉 김정은 시기 공동주거 관련기사의 추출 주제 2 및 단어



<그림 5-24>와 같이, 주제 3에는 김정은을 칭하는 단어들 외에, 건설, 려명거리, 건설자들, 창조, 살림집, 군인건설자들, 골조공사, 조선인민군, 속도, 완공, 최상, 강조, 공사, 적극, 혁신, 결속 등의 단어가 분포하고 있

다. 조선인민군의 군인건설자들이 주도적으로 살림집 건설을 수행하고 있으며, 골조공사, 결속공사에서 속도를 강조하며 완공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임하고 있음을 주제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5-24〉 김정은 시기 공동주거 관련기사의 추출 주제 3 및 단어



주제 3과 같이, 공동주거 건설의 속도를 강조한 주제는 김일성과 김정일 시기의 토픽모델링의 결과에서도 추정이 된 바 있다. 김일성 시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추정이 되었으며, 김정일 시기에는 통일거리에 관한 주제에서 속도를 강조하였고, 김정은 시기에는 후 순위의 주제로 자리를 하였다. 따라서 공동주거의 속도를 강조하는 지향점은 각 시기마다 정도의 차이를 보이나 모든 시기에서 관찰이 되며 가장 일반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임을 알 수 있다.

<표 5-8>은 김정은 시기의 공동주거 관련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 출현한 단어를 활용하여 10개의 주제와 주제별로 선택된 30개의 단어를 도출한 토픽 모델링의 결과를 모두 보여준다.

〈표 5-8〉 김정은 시기 공동주거 관련기사의 추출 주제와 단어

Variable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4	Topic 5	Topic 6	Topic 7	Topic 8	Topic 9	Topic 10
Term 1	우리	경애	건설	경애	경애	건설	경애	려명거리	창광거리	건설
Term 2	려명거리	당	경애	원수님	원수님	경애	미래과학자거리	경애	위대한	부대
Term 3	경애	로동자	건설장	건설	건설	창전거리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건설	창조
Term 4	당	지원	려명거리	우리	당	로동자	건설	최고령도	장군님	창전거리
Term 5	인민	우리	건설자들	말씀하시(었다)	비롯	살림집	건설장	살림집	경애	조선인민군
Term 6	건설	건설	창조	과학자들	군인건설자들	당	군인건설자들	최고령도자동지	건물	살림집
Term 7	사회주의	감사	살림집	당	살림집	김정은동지께서	완공	인민들	2단계	승리
Term 8	위대한	적극	비롯	건설자들	말씀하시(었다)	건설자들	1단계	인민	현지료해	골조공사
Term 9	김정은동지께서	사랑	군인건설자들	거리	김책공업종합대학	비롯	최상	진행	박봉주총리	최상
Term 10	창전거리	근로자들	당	김정은원수님께서	초고층살림집	건설장	당	교원	살림집들	공사
Term 11	세상	교원	골조공사	인민	우리	창조	원수님	살림집들	우리	속도
Term 12	군대	산하단위	군	사랑	교육자살림집	미래과학자거리	말씀하시(었다)	우리	거리	추진
Term 13	건설자들	원수님	위성과학자거리	위대한	조선인민군	골조공사	거리	사회주의	건물들	시간
Term 14	조선로동당	려명거리	조선인민군	은하과학자거리	김정은동지께서	완공	현지	김일성동지	형식	수도
Term 15	조국	사회주의	원수님	창전거리	완공	위대한	수준	일떠선	설계	규모
Term 16	인민들	건설자들	속도	창조	김일성종합대학	돌격대원	지휘관들	해당	비범	병사들
Term 17	창조	김정은동지께서	언급	일떠선	연구사들	부원	살림집들	김정일동지	문제	당
Term 18	살림집들	건설장	지휘관들	살림집	교원	단위	공사	충정	현대적	미래과학자거리
Term 19	말씀하시(었다)	부원	완공	건설장	최고사령관	최고인민회의	하시	연구사들	원수님	군인건설자들
Term 20	과시	위대한	불	살림집들	위성과학자주택지구	40층	김정은원수님께서	지휘부	령도	위훈
Term 21	책임일군들	살림집	수준	돌아보시(었다)	교육자들	김정은동지	우리	김정은동지께	통	결속
Term 22	비록	교육자들	말	힘	기간	상임위원회	김정은동지	리용허가증	하나	자랑
Term 23	문명	연구사들	김정은동지께서	비롯	건물	근로자들	위성과학자거리	말	집	2단계
Term 24	최고령도자동지	인민	최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불	말씀하시(었다)	2단계	모임들	1단계	지휘관
Term 25	사랑	최고령도	강조	탁아소	김정은원수님께서	각종	완공단계	인민사랑	그이	백일남소속부대
Term 26	김정은동지	미래과학자거리	공사	돌격대원	시공	참가	총돌격전	어머니당	완성도	경애
Term 27	완공	김일성종합대학	적극	훌륭	골조공사	기상	동지	주민들	의도	완공
Term 28	일떠선	가정	혁신	려명거리	건설장	속도	최고사령관	당	동지	성과
Term 29	행복	교육자살림집	결속	빛	전투원	2월	김정은	건설	조선로동당	믿음
Term 30	승리	려명거리건설	살림집들	장군님	방대	식당	구체적	건설장	당	기간

3. 사회주의 문명국, 과학기술 중시 사상이 물질화된 공동주거를 통한 통치정당성의 확보

김정은이 공동주거를 통하여 지향했던 바, 즉 사회주의 문명국의 건설과 과학기술의 중시 사상은 은하과학자거리(2013), 위성과학자주택지구(2014), 미래과학자거리(2015) 등의 연이은 과학자거리들과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2013),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2014), 려명거리(2017)를 통하여 현실화한다.

1) 과학자 및 교육자에게 집중된 공동주거의 공급

김정은 시기의 대표적 거리들은 과학자 및 교육자들을 위한 공동주거 단지로 건설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과학자거리의 신호탄이 되었던 은하과학자거리는 인공위성, 로켓,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제2자연과학원이 위치한 평양시 룡성구역 은하동에 조성되었다. 이 거리에는 2012년 12월, 북한의 실용위성인 광명성 3-2호의 발사에 참여한 연구자 및 은퇴 연구자들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진다(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http://www. nktech. net/).

2014년에 완공한 위성과학자주택지구는 평양시 은정구역 일대에 은정첨단기술개발구를 설치하고 국가과학원을 포함한 주요 과학기술 연구단지와 과학자 주택단지가 건설되어있는 북한의 핵심 과학단지로 평가된다(박희진, 2015: 168).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완공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그리고 2015년에 완공한 미래과학자거리, 2017년에 완공한 려명거리에 이르기까지 주택 공급의 대상과 계층이 과학자와 교육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김정은 체제가 표명하는 사회주의 문명국의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 및 지식경제의 강조와 교육중시사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2) 사회주의 문명국, 과학기술 중시 사상이 물질화된 상징경관

김정은이 표명하는 사회주의 문명국과 과학기술 중시사상을 재현하고 물리적으로 구현한 대표적인 도시공간으로서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의 공동주거 단지를 꼽는 것은 명백하다.

당창건 70주년을 맞이하는 2015년에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는 <그림 5-25>와 같이, 대동강 호안을 따라 약 2km의 길이, 약 40만㎡(40여 정보, 12만여 평)의 부지면적에 23개 동, 2,500여 세대의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각 대학의 과학기술 부문의 교육자, 과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전영선, 2022: 172). 북한의 건축 전문매체인 「조선건축」의 2016년 1호에서는 미래과학자거리를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을 직관적으로 반영하고 주체성과 민족성, 독창성과 조형예술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우리 식의 특색있는 거리"로 선전하고 있다(황후남, 2016: 5).

〈그림 5-25〉 미래과학자거리의 전경

자료: 조선건축 2016년 1호, p.6-7.

미래과학자거리의 건축물들은 과학자거리의 면모를 잘 살리도록 특색있게 형성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황후남, 2016: 5). <그림5-26>과 같이, 대표적 랜드마크로서 거리의 입구에 위치한 '전자자리길(전자 궤도의 북한어)' 형태의 53층 초고층 건축물을 비롯하여, 건축물들의 지붕에 안테나 형태의 탑과 '과학중시', '인재중시', '과학기술혁명' 등의 단어를 설치하여 직설적으로 상징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그림 5-27>과 같이, 평양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바꾸어 놓을 만큼 과시적이면서 화려한 경관은 새로운 지도자의 비전을 도시건설과 공동주거를 통하여 보여주려는 듯(박영자 외, 2018: 272), 김정은의 지향점인 과학기술 중시를 통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림 5-26〉 미래과학자거리 건축물들

자료: 조선건축 2016년 1호, p.8-23.

〈그림 5-27〉 미래과학자거리의 석경

자료: 조선건축 2016년 1호, p.24-25.

려명거리로 대표되는 도시건설은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 문명국의 '모델 사업'으로 손꼽힌다(박영자 외, 2018: 247). 2017년에 완공된 려명거리는 영생탑에서부터 북한의 영묘로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보존되어있는 금수산태양궁전까지 길이 약 3km 구간, 90여 만㎡(90여 정보, 27만여 평)의 규모이다. 6개의 살림집 구획을 포함하고 있는 이 거리에는 살림집, 공공건물 및 봉사건물 260동이 신설, 증축, 증설되었다. 신설된 공동주거는 44동, 개보수된 공동주거는 36동이며, 교육자와 과학자들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진다(정성철, 2017: 41; SPN서울평양뉴스 http:// www.spnews.co.kr/). 「조선건축」의 2017년 5호에서는 려명거리를 "웅장화려한 최고층 건축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조형화, 예술화, 록색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된 현대건축거리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일떠섰다"고 선전하였다(정성철, 2017: 41).

〈그림 5-28〉 려명거리의 전경

자료: 조선건축 2017년 3호, p.1.

려명거리의 살림집 구획들은 통일적으로 조화되면서도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방향에는 '정중성의 원칙'에서 비교적 낮은 층수의 병풍식 살림집들을 배치하였으며, 영생탑 방향에는 '상징성의 원칙'에서 <그림 5-29>와 같이, 고층, 초고층 살림집들을 배치하였다(정성철, 2017: 41). 그 결과, 려명거리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장소는 영생탑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첫 번째 살림집 구획이다. 최고지도자의 영생을 기리는 영생탑은 상징거리의 시작을 알리며, 바로 옆에 70층과 55층의 초고층 살림집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수직성을 강조하였다. 맞은 편 구획에는 핵과 전자모양의 초고층 살림집을 건설하여 과학기술 중시사상을 통한 사회주의 문명국의 경관을 재현하였다.

〈그림 5-29〉 려명거리의 초고층 건축물군

자료: 조선건축 2017년 3호, p.8-11.

선대의, 또한 김정은 시기의 이전 공동주거 단지와 비교하면, 려명거리만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록색형 거리', '에네르기(에너지) 절약형 거리'로 조성된 점이다. <그림 5-30>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형태를 나무의 줄기와 가지를 모티브로 하여 표현하였으며, 외부마감을 전반적으로 녹색의 계열로 풀색, 푸른색, 미색, 흰색의 타일을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60여 개소의 살림집과 공공건물의 지붕에 4,500㎡의 녹지화를 실현하고 지열과 태양열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였음을 강조하여 기술하였다(정성철, 2017: 41). 즉 려명거리는 김정은이 건설대강습에서 사회주의 문명국의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주창하며 세계적인 추세를 받아들여 '록색건축', '지능건축'을 창조할 것을 표명한 점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5-30〉 려명거리의 '록색' 건축물들

자료: 조선건축 2017년 3호, p.12-15; 2017년 5호, p.6-8.

려명거리가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 문명국의 '모델사업'으로 손꼽히는 데에는 대외적 선전에 적극적으로 활용된 점을 빼놓을 수 없다. 려명거리는 2016년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가 본격화하던 2016년 3월 18일에 착공하여 1년여 만인 2017년 4월 13일에 완공하며 대북제재의 무용성을 대외적으로 선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당시 태양절을 앞두고(김일성 105돌 생일) 대거 초청한 외신 기자들에게 준공식 장

면 취재를 허용하며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한계레, 2019).

려명거리는 그 이름에서부터 김정은의 지향점을 드러낸다. 김정은은 '혁명의 려명이 밝아온다'와 '건축에서 미래를 지향한다'는 의미로서 직접 거리의 이름을 명명하였다. 로동신문 2017년 3월 19일자에 따르면, "태양조선의 강대성을 알려면 우리의 려명거리를 보라!"는 제목의 대서특필에서 "김정은의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이 태양조선 강대성의 근본원천"이며, "사회주의 문명이 응축되고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경제적 잠재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건설된 려명거리의 웅자는 이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하였다. 려명거리의 건설은 "사회주의 조국의 존엄사수전, 사회주의 수호전"이며, "우리의 사회주의는 과학이며, 그 승리도 과학이다"라는 구절을 통해 김정은 시대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목표와 려명거리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다.

<그림 5-31>과 같이, 평양 도심을 전변시킬 만큼 웅장하고 화려한 상징경관을 만들어내는 려명거리는 김정은 체제가 통치적인 목적에서 대규모 공동주거의 건설을 활용하고 있음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된다.

〈그림 5-31〉 공화국의 70년사와 더불어 빛나는 려명거리

자료: 조선건축 2018년 5호, p.10-11.

제 5 절 소결

본 장에서는 통치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공동주거를 통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의 통치합리성의 강화 과정을 탐색하였다. 김일성 체제의 전후 신속한 주거공급과 김정일 체제의 다양화한 공동주거의 상징경관 조성, 김정은 체제의 공동주거를 통한 사회주의 문명국의 지향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째, 당 기관지「로동신문」의 공동주거 관련 기사를 활용하여 정권별 연간 기사 수를 파악해 본 결과, 김정일과 김정은 시기에 공동주거 기사가 증가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 최고지도자의 가장 대표적인 통치활동인 현지지도와 관련하여, 공동주거 현지지도의 기사빈도를 정권별로 비교해본 결과, 마찬가지로 김정일과 김정은 시기에 증가한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김정은의 경우 10년의 집권기간 동안 무려 17건에 달하는 공동주거의 현지지도를 수행하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로동신문」의 분량이 창간호부터 현재 발행일자까지 일 6면으로 고정되어있다는 점에서, 김정일과 김정은 시기에 공동주거 관련 기사가 증가한 점과 김정은의 빈번한 공동주거 현지지도 기사는 두 체제에서 당기관지를 통해 통치적인 목적에서 공동주거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김일성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도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평양의 복구를 위하여 전후 경제건설사업의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이 중 '방대한 건설사업의 성과적 보장'은 김일성 시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공동주거 건설에 있어서는 설계를 표준화, 규격화하며, 조립식 방법으로 건설하여 속도를 높힐 것에 대한 방향이 정립되었다. 이는 김일성 시기 「로동신문」의 공동주거 관련 기사들의 제목과 내용에 출현한 단어들을 활용하여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서 수령의 교시에 따라 다층주택을 규격화된 부재를 이용하여 조립식으로 빠르게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건설자, 용접공들이 마치 전투원이 되어 속도전의 투쟁을 벌

인 결과로서 대표적 거리인 락원거리와 천리마거리가 조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 시기(1954년~1984년)에 공급된 주택의 규모는 전체 공급량의 63.67%를 차지하며, 김정일, 김정은 시기와 비교하여 상당한 실적을 자랑한다. 이처럼, 공동주거의 공급량과 속도를 강조한 결과, 김일성 체제의 공동주거의 주동의 배치는 가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선형의 형태를 보이며, 표준화된, 규칙적인 형태의 반복적 사용으로 인하여 단조롭고 획일화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셋째, 김정일 시기(1970년대 중반~2011년)의 도시 및 주거단지계획에서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독창성과 다양성을 추구한 점이다. 김정일은 「건축예술론」을 통하여 도시공간 형성에 있어 지향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기존의 형식을 되풀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특색있게 새로운 여러 가지 형식을 창조해내는 것을 강조하며 독창성과 다양성에 대한 지향을 가장 힘을 실어 강조하였다. 이는 김정일 시기 「로동신문」의 공동주거 관련 기사들의 제목과 내용에 출현한 단어들을 활용하여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일성 시기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광복거리 건축물들의 형성에서 다양성과 독창성의 창작원칙을 내세우고, 규모와 덩치면에서는 통이 크게 하여, 평양시를 웅장하고 화려하게 일떠세우기 위해 구상하였던 점을 나타내는 주제가 핵심으로 추정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김정일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광복거리의 공동주거는 주동형태 및 배치에서 상당히 다양화한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김정일은 이전의 형식을 되풀이하지 않고, 특색있고 새로운 여러 가지의 형식의 공동주거를 만들어냄으로서 시각적으로 김일성과는 다름을 부각하는 방법으로, 후계 구도를 공고히하고 통치자로서의 자질을 드러내는데 공동주거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김정은은 2013년 신년사에 처음 '사회주의문명국'을 등장시킨 이후, 최근까지 대부분의 담론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입각하여 건설부문의 성과와 치적을 과시하는 점은 김정은 체제의 통치 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이다.

2013년에 건설부문의 일군들을 대상으로 한 대강습(건설부문일군대강습)의 담화문에서, ‘사회주의문명국의 건설’을 주창하며 시공의 전문화, 건재생산의 정상화,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한 점은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가장 차이를 보이는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정은 시기 「로동신문」의 공동주거 관련 기사들의 제목과 내용에 출현한 단어들을 활용하여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정은의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의 지시에 따라 려명거리, 창전거리의 살림집들을 완공하여, 조선로동당과 사회주의 국가의 승리를 과시하고 있음을 핵심 주제로 추정할 수 있었다. 실제로 김정은 시대의 대표작인 미래과학자거리는 거리의 입구에 위치한 전자 궤도 형태의 53층 초고층 건축물을 비롯하여, 건축물들의 지붕에 안테나 형태의 탑과 ‘과학중시’, ‘인재중시’, ‘과학기술혁명’ 등의 단어를 설치하여 직설적으로 상징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식 사회주의 문명국의 ‘모델사업’으로 손꼽히며 대북제재의 무용성을 알리는 대·외적 선전에 적극 활용된, 려명거리는 거리의 시작지점에 영생탑을 건설하여 상징성을 극대화하였으며, 70층과 55층의 초고층 살림집과 핵과 전자모양의 초고층 살림집을 집중 배치하여 과학기술 중시 사상을 통한 사회주의 문명국의 경관을 재현하고 있다. 이처럼, 평양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전변시킬 만큼 웅장하고 화려한 상징경관을 만들어내는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는 김정은 체제가 통치적인 목적에서 대규모 공동주거의 건설을 활용하고 있음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된다.

전후 김일성 체제가 도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평양의 복구를 위해 ‘방대한 건설사업의 성과적 보장’을 기치로 내걸고 공동주거 건설에 있어 설계의 표준화 및 규격화, 건설 방법의 조립화를 통하여 대량의 공동주거를 신속하게 공급하였던 점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모범답안이 되었다. 이는 인민들의 주택수요에 대응하여 신생 김일성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 체제에서 기존의 단조롭고 획일화된 공동주거와 차별화하여 특색있고 새로운 여러 가지의 형식의 공동주거를 만들어내고 시각적으로 부각한 점은 인민에게 후계자로서 본인을 각인시키고 통치자로서의 자질을 드러내는데 가장 효

과적인 방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난의 행군과 배급제의 와해 이후 생활전선에서 고군분투를 해나가던 인민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문명을 건설하고 이를 향유하도록 하겠다는 김정일 체제의 '사회주의문명국'의 표명은 당연한 전개로 해석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사회주의 조국을 문명국으로 이룩하겠다는 지도자의 비전은 도심의 경관을 전변시킬 수 있는 대규모 공동주거 건설의 효과에 힘입어 과시적이면서 화려한 상징경관을 연출하며 통치적 가독성을 높이고 있다.

제 6 장 도시계획 이념 간 균형의 약화와 균열

북한 공동주거를 형성하는 세 가지 축, 즉 모더니즘, 사회주의, 통치의 도시계획의 힘이 균형을 이루다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게 되어 큰 변화를 맞게 되고 기존의 균형이 교란을 겪게 되는 양상을 균열로 정의한다면, 그 시작은 1990년대 경제난으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6장에서는 균형의 약화와 균열의 관점에서, 경제난 이후, 북한 공동주거의 공간적 실천 및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4장에서 기술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자료의 양적 및 질적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우선 1절에서는 아래로부터 주민들의 적응, 대응, 전유 과정에 주목하여 공동의 실천 및 관계망의 변화에 관하여 심도있게 분석할 것이다. 2절에서는 공동주거의 공동체성에 관하여 논의를 확장한다. 3절에서는 공동주거라는 집합적 생활 양식을 통한 통제의 강화 양상을 분석한다.

제 1 절 경제난 이후 공간적 실천 및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1. 제도의 변화

1) 시장 운영의 공식화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로 4대 경제난(식량난·에너지난·원자재난·외화난)에 직면하였다. 주민 대상 식량 및 생활필수품 공급을 정상화할 수 없었기에, 당시 국가공급제도(배급제)에 의존하여 살았던 주민들은 자립적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먹는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운 주민의 자립적 생존 노력은 북한 체제가 비사회주의적 현상으로 규제하고 통제하는 개인의 장사 및 밀수의 증가로 이어졌다. 아래로

부터의 자생적 암시장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정은찬, 2021: 112). 암시장은 주민의 생존 장터로 급부상하면서 돈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암거래로 사고팔 수 있는 현장으로 거듭났다. 청진에서 거주하다 2010년에 탈북한 70대 여성(이하 청진1)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암시장을 통해 집에 있던 가전제품을 팔아 끼니를 해결하였던 경험을 얘기하였다.

> "고난의 행군 겪을 때 제일 먼저 텔레비를 팔아먹었어요. 당장 저녁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팔아먹고 하다, (중략) 북한은 전압이 약해 그 전압기를 집에 놓고서 쓰는데, 그게 계기가 없는 게 많은데, 그건 어떻게 누가 잘 만들어줘서 계기를 만들었어. 그래서 한 단 올릴 때마다 딱 올라가고 이래서, 그건 정말 귀한 거라고 안 팔았거든. 근데 마지막에 그거를 팔아 먹었어요. (중략)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공장 기계를 다 뜯어가 고철로 팔아먹고 막 그랬죠. (참여자_청진1: 10)"

자생적 암시장은 북한 체제의 통제 속에서 소규모로 형성되어 자가 운영되다, 2002년 곡물 및 공산품의 판매를 공식 허용하는 종합시장의 합법화 조치(2002.07.01.)가 이루어졌다. 이후 2003년부터 계획경제 하에 본격적으로 시장운영이 공식화되면서 상설 종합시장(매일 개장)이 도입되었다(통일부 북한정보포털, 2022).

2) 사유적 실천에 관한 법적 완화

북한은 1950년 3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을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 및 보완을 해왔다.[27] 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8호에 의해 수정보완된 북한의 형법은 10개의 장, 300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주의 준법을 위반한 그 정도에 따라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에 처해진다.

---

27) 1974, 1987, 1990, 1995, 199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년에 걸쳐 수정 및 보완을 해옴. (정은찬, 2021: 123).

<표 6-1>과 같이, 북한에서 계획경제 하에 시장운영이 공식화되기 이전인 1987년에 채택된 북한 형법에 따르면, 제5장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한 범죄,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에서 당시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하거나 체제 질서를 위반하는 비사회주의 행위의 상당부분을 '범죄 규정화(legal definition)한 특징을 보인다.

반면 2003년 시장 운영의 공식화 이후, 2004년 및 2015년에 개정된 북한 형법을 살펴보면, 당국은 현실과 조건에 따라 사회적 필요가 있는 경우 기범죄화한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완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제5장의 암거래죄의 경우, 1987년에 개정된 형법에는 상습적으로 암거래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의 중형에 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에 개정된 형법에는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2015년에 개정된 형법에는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 한해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하는 것으로 완화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장의 밀수죄의 경우에도 1987년 개정 형법에는 밀수행위를 한자에 대해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의 중형을 내렸으나, 2004년 개정 형법에는 4년이하의 로동단련형으로, 2015년 개정형법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으로 상당히 완화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7장의 비법 국경출입죄의 경우에도 1987년 개정 형법에는 허가없이 국경을 넘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내렸으나, 20004년 개정 형법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으로, 2015년 개정 형법에서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으로 완화한 점이 확인된다.

〈표 6-1〉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관한 북한 형법의 변화

구분	1987.2.5. 형법(채택)	2004.4.29. 개정 형법	2015.7.22. 개정 형법
암거래죄 (제5장)	제69조 상습적으로 암거래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직접 관련 규정 없음) ※행정처벌법(2011.10.16. 수정보충)에 별도규정 제224조(암거래행위) 개인이 암거래행위를 하여 부당리득을 얻었을 경우에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 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111조(암거래죄) 개인이 암거래행위를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밀수죄 (제5장)	제70조 허가없이 물건을 다른 나라에 내가거나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밀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대량 또는 상습적으로 혹은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밀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제116조 (밀수죄) 밀수행위를 한 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상습적으로 혹은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밀수한 경우에는 4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9조(밀수죄) 밀수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또는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밀수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법국경 출입죄 (제7장)	제117조 허가없이 국경을 넘는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3조(비법국경출입죄)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든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1조(비법국경출입죄) 비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자료: 북한법연구회, 「2018 최신 북한법령집」, 2018.을 참조하여 구성

2. 공식적 실천 및 관계망의 약화

계획경제 체제하에 배급제는 공식적 관계망의 전제가 되었다. 사회구성원들의 생산활동 참여 및 식량, 생활필수품 등의 공급 및 배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공부문이 장악하여 국가가 개인에게 공식적 관계망을 강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장세훈, 2005: 109). 따라서 경제난 이후, 배급제의 와해 즉, 식량 및 생활필수품 공급을 정상화할 수 없었던 북한에서 공식적 실천 및 관계망의 약화는 노정된 것이었다.

1) 배급제의 와해: 공식적 관계망 약화의 배경

먼저, 경제난 이후, 배급제의 유지 여부에 관하여 평양과 그 외 도시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난의 행군의 기간에 관하여 1994년부터 2002년까지로(대한무역진흥공사, 1995: 11) 상정한다. 이와 비교해 평양에서 거주하다 2013년에 탈북한 여성의 경우, 이보다 늦은 1996년부터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하여 체감시기에서부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식량, 식료품, 공업품의 배급에 관해, 평양의 경우, 정해진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일년 12달 중, 9달은 배급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증언하였다.

> “김일성이 죽고 1996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잖아요. 그래도 평양만은, 유엔이든 대한민국이든 지원이 들어오잖아요, 쌀도 그렇고 때에 따라서 귤도 들어왔었고. 그런 거를 맨 처음으로는 군부대에 돌리겠지만, 그 나머지로 평양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거죠. 매달 1인당 몇 그램씩 책정을 해서 식료품 상점, 공업품 상점, 수산물 상점,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거든요. (중략) 평양에서 배급은 그래도 1년에 한 9개월은 다 받았거든요. 주기적으로 매달 15일이면 15일, 정한 날짜에 주질 않아서 그렇지, 주기는 줬단 말이죠. 나오기 전까지도. (참여자_평양1: 1-2)”

지방 도시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배급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평양과 비교하여 5년 가까이 앞서 고난의 행군을 체감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방 도시의 경우에도 경제난 이후, 식량공급소, 식료품상점, 공업품상점이

존재는 하였다. <표 6-2>와 같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100명 중, 거주했던 주택 구획(소구역)에 식량공급소, 식료품상점, 공업품상점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78명, 86명, 70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난 이후 배급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찾기 어려웠다. 혜산에서 거주하다 2009년에 탈북한 50대 여성(이후 혜산2)의 경우, 아파트 저층에 위치한 식료품상점, 공업품상점이 장기간 운영을 안 한 채 비어 있다가 개인집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표 6-2〉 배급시설의 존재 여부

구분	"유" 의 빈도
식량공급소	78
식료품상점	86
공업품상점	70
연료공급소	32

"91년도까지 배급을 조금씩 줬어요. 91년도에 딸을 낳았는데, 해산을 하니까 산 몸이라고 쌀을 다섯키론가 받았어요. (중략) 그 후에는 전혀 없었어요. (중략) 김일성이가 94년도에 그렇게(사망) 됐거든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잘못되기 전부터 힘들었어요. (참여자_혜산3: 9)"

"우리는 위연지구에 아버지 기업소가 있다나니까. 당에서 그 간부 아파트라는 데를 배정해줬어요. 77년도에 아파트로 와서 그때부터 쭉 살다가 (중략) 그 1층이 원래 공업품상점을 하던 건물인데, (중략) 내가 중학교 때부터(1980년대 후반)는 별로 상품이 없어서. 비워놓는 것도 몇 년 비워놨어요. 고난 행군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게 비기 시작했거든요. 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됐거든요. 그런데 그 전부터 사람들 배급이 끊겼던 것 같아요.(참여자_혜산2: 10)

상점이 상품이 없고 하니까 거의 다 폐기되고 그다음부터 개인 집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엄마 사는 아파트 1층에 내가 장사를 하니까 돈 주고 샀죠, 그집을. (중략) 층계 있는 한 쪽이 1호부터 4호까지, 다른 쪽이 5호부터 8호까지 있고, 그 들어가 첫 집은 내가 쓰고 살았거든요. (참여자_혜산2: 3)"

2) 공식적 실천의 형식화·약화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주거지의 경우 선전실이 별도의 건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와 함께 혹은 안에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00명 중, 거주했던 주택 구획(소구역)에 선전실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79명, 동사무소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88명이며, 선전실과 동사무소 중에 하나라도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96명에 달한다. 따라서 선전실 등의 사상·교양시설은 현재까지도 북한에서 비교적 유지 및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6-3〉 사상 · 교양시설의 존재 여부

구분	"유" 의 빈도
선전실	79
신문도서열람실	40
어머니교양실	31
아동교양실	33
동사무소	88

그러나, 100명의 설문조사 결과, 생활총화, 사상학습, 인민반회의, 국가건설동원 등에 대한 참여율에 대해 50%미만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27~37%로 높게 나타났으며, "강제적" 혹은 "매우 강제적으로 참여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68~84%로 매우 높게 나타나 공식적 실천이 형식화·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4〉 공식적 실천의 출석률 및 강제성의 정도

구분	"실제 출석률이 50%미만" 의 빈도	"(매우)강제적으로 참여했다" 의 빈도
생활총화	27	70
사상학습	29	71
인민반 회의	36	68
국가건설 동원	37	84
마을 · 거리 꾸리기	24	70

공식적 실천이 형식화·약화한 분위기 속에 최근에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돈을 지불하고 국가건설동원 및 농촌지원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혜산에서 거주하다 2019년에 탈북한 40대 여성(이후 혜산1)은 인민반장의 경험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를 칭하여 돈으로 "노력을 산다"고 표현하였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각종 사회동원에서 빠져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안 나온 사람들의 몫까지 일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부담과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 "잘 사는 사람들은 한 명도 (동원에) 안 가거든요. 과업은 똑같이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내거든요. 노력을 사서. 노력을 안사도 동사무소에다 돈을 내면, 동사무소에서 시당에다 돈을 주면, 시당에서는 그만큼 이 사람들의 몫을 나머지 못 사는 인민반에다가 더 넘기거든. 돈 있는 사람이 돈 내고 안 가면, 우리는 그만큼, 간 사람들이 너무도 고생하거든요. (참여자_혜산1: 9)"

3) 공식적 실천의 약화에 따른 인민반장의 고충 증가

경제난 이후 국가건설동원, 농촌지원 등의 사회동원이 인민반을 중심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는 공장 및 기업소의 운영이 어려워진 가운데 직장 단위로 수행해오던 사회동원이 인민반으로 전가된 데에 따른다. 국가와 지방의 건설사업을 중앙의 지원없이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고 선전선동을 하며 강제하여, 인민반에서 국가 건설현장에 필요한 자재와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배영애, 2018: 228; 좋은 벗들, 2000: 267). 혜산1은 반원들에게 비용을 걷어내었던 것에 대한 심한 고충을 얘기했다.

> "건설에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매 인민반마다 얼마씩 걷어달라. (중략) 근데, 건설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반장들이 돈 내라는 회의를 하거든요. 아마 최근에 오는 반장들에게 물어보면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돈 내라는 회의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인민반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빤하기 때문에 돈 내라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참여자_혜산1: 9)"

3. 비공식적 실천 및 관계망의 강화

1) 비공식적 실천을 통한 공동체적 관계망의 강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제난 이후, 공동체적 관계망의 전제가 되었던 배급제의 와해는 공식적 실천과 관계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공식적 관계망이 포섭하고 있던 공동체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동력 또한 감소하였다. 이에 공동체적 관계망은 공식적 관계망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반대편의 비공식적 관계망과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인다.

혜산1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명절을 같이 즐기는 것을 특히 좋아하는데, 아파트의 같은 동에 사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 명절 행사를 열어, 같이 시간을 보내며 서로 더 가까워지고 공동체적 관계망을 고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봄과 가을 명절에는 가까운 소학교(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열었다. 2개의 인민반으로 구성된 아파트의 같은 동 사람들이 반별로 팀을 나눠, 축구, 이인삼각, 이어달리기, 단체 줄넘기 등 여러 종목을 반 대항으로 진행하고 상품도 준비하여 재미를 더했다. 겨울 명절에는 추운 날씨를 피해 한 층의 여러 집에 모여 복도에 나와 주폭기를 통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같이 춤을 추고 음식을 나눠 먹었던 정겨움이 좋았다고 얘기했다.

> “아무리 힘들어도 명절은 너무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같은 동에 사는)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소학교 운동장에 여러 가지 체육 종목을 정하고 운동회를 하고 막 놀거든요. 이거는 위에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날 놀겠다 모이자, 그러면 돈 얼마씩 다 내고, (중략) 추울 때는 밖에서 못 먹으니까 동네 여러 집에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고. 집이 작으니까, 복도에 나와서 같이 주폭기를 틀어가지고 음악도 틀고 춤추고 놀고. 어려우면서도 우리가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그처럼 이웃들을 더 가깝게 알고, 아마 이때 사람들이 서로가 친밀해지고, 돈독해지고. (참여자_혜산1: 12)”

인민반장들은 명절 행사에 주민들 대신에 돈을 좀 더 보태어, 가급적 많은 주민들을 참석하게 독려하여, 반을 더 단합시키고 주민들을 포섭하는

계기로 활용한다. 인민반 회의나 사회동원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서로 간에 나눈 정을 바탕으로, 인민반에게 부과된 과제들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기지를 발휘하는 것이다. 즉 주민들 스스로의 비공식적 실천을 통해 공동체적 관계망이 고양되고 이를 통하여 강제된 공식적 실천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얻는 반대 방향의 순환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 "노는 자금이 많이 안 들지만, 반장이 좀 생활이 있고 하면, 반장이 돈 좀 더 많이 내고. 반원들한테 1천 원 낼 거를 한 200원 내라 하면, 반원들이 너무 좋아서 다 오거든요. 인민반회의는 오라면 안와도. 이날 놀겠다 모이자, 그렇게 하면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반이 좀더 단합되고 반장은 사람들을 더 많이 포섭할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이 되죠. 이때 쌓은 정들이 그다음에 인민반에 어떤 과제가 제기되면 너무 쉽거든요. (참여자_혜산1: 12)"

2) 사유적 실천: 장마당, 암거래, 밀수의 확대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이웃과 대화나 교류를 활발하게 나누었던 장소로서 배급시설(식량공급소)을 얘기하는 면담 참여자들이 많았다. 배급을 받는 날에는 장시간 줄어서야 해서 이웃과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았고 줄을 서 있는 동안 이웃과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하지만 배급제의 와해로 인해 배급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반면에 시장운영은 공식화하면서 현재는 장마당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배급시설 뿐만아니라 주택 구역(소구역)내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업·업무시설로서 저금소, 종합편의수리소, 약방, 종합진료소, 미용실의 기능들도 대부분 약화되었다. 혜산1의 증언에 따르면, 국가가 운영하는 봉사시설의 직원들은 직장에 재적인원으로 등록을 해두고 출근을 하지 않으며,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의 참여자들은 자전거, 신발, 시계 등의 수리와 의약품 구입은 봉사시설 대신 개인집이나 장마당을 이용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종합편의라고 이렇게 기업을 지어놓으면, 재적인원은 국가에서 찍어주거든요. 재적인원은 50명이다. 근데, 50명이 다 들어와서 할 일은 없으니까 직장 출근 안하거든요. 집에서 다른 부업을 하고, 집을 도와서 같이 장사한다든가 하고 안 나오고. (참여자_혜산1: 12)"

"배급이 끊기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장마당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장마당에 물건 사러 가거나 할 때, 이웃들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죠. (중략) 잘 살았을 때는 식료품 상점, 공업품 상점이나 종합편의수리소 이런 것들이 다 그 역할들을 하고 운영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고난의 행군 겪으면서 비기 시작하고 다 없어지고, 그게 다 장마당으로 나간 거예요. 구두 수리고, 시계 수리고 다 시장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동네에 있던 건 다 없어졌어요. 물건도 거기서 다 사고. (참여자_청진1: 15, 20)"

시장운영의 공식화 이후에 암거래, 밀수 등의 사유적 실천에 관한 공식적(법적) 제재가 완화하면서 장마당에서의 장사, 개인간 암거래, 중국을 통한 밀수 등 사유적 실천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응답한 100명 중, 북한에서 비공식적 경제적 협동 활동의 참여정도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경우가 48명에 달한다.(0: 그런 활동이 없었다~5: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중, 3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

혜산시의 경우,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조선족 자치현인 창바이를 마주하고 있다. 강폭이 넓지 않고 수심이 얕아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하다. 그렇기에 혜산시의 주민들 대다수는 중국과의 밀수로 생계를 꾸려나간다. 혜산에서 온 면담 참여자들 중 가장 최근(2019년)에 북한을 이탈한 혜산1은 쌀과 같은 식품에서부터 의류, 잡화, 칫솔과 같은 공업품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중국 상품으로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물건을 사고 팔 때에도 혜산에서는 북한돈 보다는 중국돈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북한이 여러 차례 화폐개혁을 시행해 오면서 일정금액 이상은 교환을 해주지 않아, 북한돈의 경우 하루아침에 종잇장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탓에 북한 돈은 신뢰를 잃은 것이다. 주민들은 안전한 위안화나 달러로 교환하여 보관하고, 장마당에서 사고팔 때에도 중국돈으로 거래를 한다고 증언하였다.

> “돈을 가지고 있다가 화폐개혁하면 무조건 가지고 있던 돈은, 교환해주는 액수가 딱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이 졸지에 (화폐가) 종잇장이 된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 나라 돈에 대한 가치가 너무 없으니까 이제는 중국 돈 아니면 미 달러를 건사하고 그게 제일 안전하고. 그래서 장마당에서도, 심지어 하지 말라고 해도 정말 제일 하찮은 물건까지도 중국 돈으로 다 주고받고 하는 게 이제는 관행이 됐고. (참여자_혜산1: 2)”

<그림 6-1>과 같이, 량강도 최대의 시장으로 불리는 혜산 종합시장이 위치한 역전 백화점 거리는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룬다. 시장을 중심으로 주변의 골목골목마다 사려는 사람과 물건을 나르는 짐꾼, 이들을 상대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람, 도·소매상이 자리하고 있다. 장마당이라는 공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직업을 가지고 종사를 하며 먹고 살아가는 곳이 혜산시이다(KBS, 2018).

〈그림 6-1〉 중국 창바이현을 마주하고 있는 혜산시(좌) 및 혜산시장

자료: KBS, 2018. “[클로즈업 북한] 북한 경제의 큰 손 ‘장마당’과 ‘돈주’ ”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북한 형법에서는 암거래 죄에 관하여 “개인이 암거래행위를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밀수죄의 경우에도 “대량의 밀수 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마당에서의 거래, 개인간 거래, 밀수 등의 사유적 실천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인 '비법'으로 행하여지는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은 '비법'을 행할 때에는 공동체적 관계망을 바탕으로 신뢰가 두터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하였다. 친밀한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밀수과정에서 국경의 수많은 경비진을 뚫고 올 때 자기 짐처럼 여기고 책임적으로 수행해준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사유적 실천에 있어 공동체적 관계망이 토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내가 장사하고 밀수할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웃)을 통해서 나르게(짐꾼, 인력)하고, 그 관계가 친밀해야 되지 친밀하지 않고 그저 돈만 주는 관계면, 혹시 무슨 일이 있어 잡히면 본대로 다 불거든요. (중략) 수많은 그 경비진들을다 지나서 와야 되기 때문에 지혜도 필요하고, 우직함도 있어야 그걸 밀어내지 그렇지 않으면 약해가지고 다 뺏기고 오거든요. (중략) 친밀도가 들어가야, 그걸 자기 짐처럼 여기고 책임적으로 수행해 주거든요.(중략) 제가 혼자 벌어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인민반장을하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벌이가 되거든요. 내가 벌어 먹고 사는 것도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더 가지고. (참여자_혜산1: 13)"

중국과의 밀수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 신의주와 같이 공업이 발달한 도시나, 라진·선봉과 같이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통하여 공산품을 들여와 지역의 장마당에 유통하는, 도시간 암거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에서 다른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여행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원 등 공공기관에 재직하여 공문서 발급이 가능한 주민들이 이와 같은 거래에서 선호된다.

교원으로 일했던 청진1은 이웃들과 함께 라진에서 생산된 직물과 신의주에서 생산된 군용신발을 들여와 청진의 수남시장에 유통하였다. 거래를 할 때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장마당에서 만나기보다는 특정 장소를 선택해서 조용히 넘겨주고 받는 것을 선호했다고 증언하였다.

> “여행증명서를, 라진 선봉하고 신의주는 거기는 아주 통제 구역이라 진짜 발급을 안 해주거든요. 정말 잘 아는 사이 아니면. 신의주는 내가 조금 아니까. 거기서 난 대학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조금 인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증명서를 떼고 그러고 가서. 차 한가득 실어오고 그랬어요. (중략) 라진에 가서 천을 끊어다가 청진에 가서 풀기도 하고, 신의주는 신발 공장이 유명해요. 그래 다니면서 장사했어요. (중략) 우리가 가져오면 어디 매로 오라 해서, 우리 집도 알려 안 줘요. 어느 장소를 선택해서 거기서 넘겨주고 돈 받고 그렇게 했어요. (참여자_청진1: 21)”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난 이후에 국가의 배급이 중단되면서 생계를 위한 사유적 실천이 증가하였으며, 비법으로 행하여지기에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관계망을 통하여 주민들 사이에서 사유적 관계망이 형성·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장경제 체제가 관계망의 매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재는 암거래를 통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나, “대량의 밀수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재가 남아 있기에 장마당을 통한 드러나는 상거래 행위가 소극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시장거래가 보다 자유화할 경우 공동체성의 매개공간으로서 장마당의 역할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가내작업반의 확대

사유적 실천 및 관계망의 강화와 같은 측면에서 가내작업반의 공간적 실천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북한에서 가내작업반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였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이 중단되면서 생계를 위해 가내작업반 활동에 참여하는 가두여성(주부)들이 많아졌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응답한 100명 중, 북한에서 거주했던 주택 구획(소구역)에 가내작업장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39명이었으며, 가내작업반 활동에 참여정도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경우는 34명에 달한다.(0: 그런 활동이 없었다 ~ 5: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중, 3이상으로

응답한 경우).

> “학교도 고난의 행군 싹 들어가면서 다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 해서 돈을 벌어야지 살겠다 하고, 동사무소에랑 두루두루 물어보니까, 8.3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8.3이라는 게 가내반 그거거든요. 그래 구역행정위원회라는 데를 가서, 허가서류를 다 떼와서, (중략) 그래서 평남도에서 왕골을 큰 트럭으로 가져다가 그다음에는 사람들 모집을 해가지고 20~30명이서 깔모자 만드는 거예요. 왕골을 짝 훑는 조가 있고, 동그랗게 다발처럼 엮는 조가 있고, 제봉하는 조가 있고. (참여자_청진1: 9)

가내반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단지 내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청진1은 20～30명의 주민이 다같이 모여 깔모자를 생산하였는데, 처음 시작할 때에는 장소를 물색할 수 없어 집에 모여서 하였고, 이후에는 동사무소를 통하여 단지 내 빈 공공공간을 빌려 이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처음에 할 때는 장소를 우리가 물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크잖아요. 45평짜리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게 하다가. 조금 이제는 좀 되니까 동사무소에서도 건물들이 빈 게 많은 거예요. ((단지 내에?)) 네, 그런 빈 그런 건물을 하나 빌려줘 가지고 거기서도 하고 그랬어요. (참여자_청진1: 10)”

제 2 절 공동주거 공동체성의 변화

1. 공동주거 이웃의 정의

북한이탈주민 100명의 설문조사 결과, 이웃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 ‘같은 마당을 공유하는 주거동(주택군)에 사는 사람들’에 응답한 사람이 32명’, ‘같은 주거동에 사는 사람들’에 응답한 사람이 27명,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에 응답한 사람이 21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를 제외한 응답자들 값의 평균은 2.40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같은 인민반 사람들(약 20~30세대)’을 이웃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했는데, 이의 물리적 범위로서 아파트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같은 주거동에 사는 사람들’ 또는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에 답을 하였고, 하모니카집(단층 연립주택)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같은 주거동에 사는 사람들’ 또는 ‘같은 마당을 공유하는 주거동(주택군)에 사는 사람들’로 응답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이웃의 범위를 생각함에 있어, 소구역, 구획과 같은 물리적인 범위보다는 같은 인민반이라는 사회·행적적 범위로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표 6-5〉 이웃의 범위

구분	빈도	비고
①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	21	· 기타를 제외한 평균 2.40
② 같은 주거동에 사는 사람들	27	
③ 같은 마당을 공유하는 주거동 (주택군)에 사는 사람들	32	
④ 같은 구획(소구역)에 사는 사람들	13	
⑤ 기타(함께 장사했던 사람들, 같은 기업소 사람들, 같은 행정동 사람들 등)	7	

<표 6-6>과 같이, 이웃 관계의 정도 및 해당하는 가구의 수를 묻는 질

문에, ‘만나면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가구’는 평균 43.66가구, ‘만나면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가구’는 평균 33.55가구, ‘같이 외출이나 활동을 하는 가구’는 평균 25.70가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가구’는 평균 7.32가구,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하며 가족같이 지내는 가구는’ 평균 23.40가구로 나타났다.

〈표 6-6〉 설문조사에서 각 관계에 해당하는 가구의 수에 관한 질문

2-2)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동네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세요.)

이웃관계의 정도	없다	1~2 가구	3~5 가구	5~10 가구	10~20 가구	20가구 이상
만나면 가벼운 인사를 나눈다.						(　　)가구
만나면 간단한 대화를 나눈다.						(　　)가구
같이 외출이나 활동을 한다.						(　　)가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준다.						(　　)가구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하며 가족같이 지낸다.						(　　)가구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는 평균적으로 같은 인민반 사람에 해당하는 20～30가구 정도이며, 이웃은 얼굴을 알아서 만나면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눌 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를 나누고 외출이나 활동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하며 가족같이 지내는 사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남한의 거주지에서 이웃의 수를 묻는 질문에 보수적으로 응답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혜산에서 아파트와 하모니카집(단층 연립주택)에 거주하다 2009년에 탈북한 50대 여성(이후 혜산3)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웃으로 여길만한 가구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 “지금(남한에) 사는 아파트에선 인사를 하는 집은 옆에 집, 한 곳 뿐이거든요. (중략) 옆집도 이웃 개념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웃이라고 하면,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이런 게 이웃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얼굴이나 보고 하는 건 이웃은 아닌 것 같아요. (참여자_혜산3: 21)”

2. 공동체 정의의 변화

북한에서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생애 전반에 걸쳐 집단·조직 생활에 속하는 북한에서는 ‘집단’과 ‘조직’이라는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한다. 사회생활 전반에 있어서 ‘집단’과 ‘조직’은 개인보다 강조되며, ‘나’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어렵다고 면담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응답하였다. ‘집단’과 ‘조직’이 끊임없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강조되기에 면담 참여자들은 그 외에 ‘공동체’와 같은 다른 용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공동체’라는 단어도 남한에 와서 처음 들었다고 하였다.

> “‘공동체’라는 단어를 여기(남한) 와서 처음 들어봤어요. 북한에서는 조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집단,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중략) 본성은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소수는 다수에 복종한다, 그리고 집단의 이익이 우선이다, 내가 손해 보더라도. (참여자_평양1: 20)”

북한에서의 공동체를 묻는 질문에, 참여자들은 자신이 속했던 집단을 공동체로 정의하였다. 북한에서 주부였던 경우에는 인민반으로, 청년이었던 경우에는 일터에 조직되었던 청년동맹으로 답을 하였다. 혜산에서 아파트와 하모니카집에 거주하다 2019년에 탈북한 40대 여성(이후 혜산1)은 인민반원들이 공동체이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다고 증언하였다. 혜산3 역시 인민반원들이 서로서로 의지가 되었으며, 이웃의 80~90%를 그런 관계로 여겼다고 응답하였다.

> ((북한에서의 삶을 생각했을 때, 선생님의 공동체는?)) 인민반이죠. 인민반이 공동체이면서도 가장 이웃들이기 때문에, 진짜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고 (참여자_혜산1: 17)”.
>
> “공동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서로 서로 의지가 되고, 공동체라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북한에 살았을 때, 이웃들은, 같은 반 사람들이 ‘나랑 공동체지’라는 생각은 한 8, 90프로 들죠. 공동체라고. (참여자_혜산3: 13)”

공동체의 정의에 관해 가장 영향력 있는 힐러리(HIllery, 1955)의 논의에서는 “공동체는 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하나의 혹은 그 이상의 부가적인

공동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진다"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면담 참여자들이 응답은 공동체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면담 내용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인민반이라는 공식적 관계망의 테두리 안에서 공동체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사유적 관계망에 관하여 강한 공동체성을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들은 '비법'을 행할 때에는 공동체적 관계망을 바탕으로 신뢰가 두터운 사람들과 함께해야만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책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혜산1은 공동주거의 이웃하고 관계를 좋게 지내야 비법을 행함에 있어 서로 눈감아주고 편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 "이웃하고 관계도 좋게 지내야 다 비법하며 살아도, 모든 걸 많이 눈감아주고. 이웃을 잘못 만나고, 이웃하고 관계만 잘못 처리해도 좀더 밀수하고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못 사는 데가 많거든요. 이웃이 한 인민반인데 그 인민반 관계를 잘하는 게. 반장이 아닐 때도 그거는 중요하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 편하게 (비법을) 할 수 있지. (참여자_혜산1: 17)"

혜산에서 하모니카집에 거주하다 2017년에 탈북한 30대 여성은 아버지의 직장(공장)에 배정된 것으로 이름을 등록해 놓고, 대신에 청진과 혜산을 오가며 장사를 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1년에 한, 두 차례 조사원들이 각 가정을 검열하여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며 근로 현황을 파악하였는데, 자신의 비법행위를 인민반원들이 눈감아 주었기에 그 관계가 중요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주민들이 인식하는 공동체의 개념에 사유적 실천 및 관계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저는 저희 아버지 직장에다가, 우리 딸 여기서 일하는 걸로. ((이름을 올려놔 달라고?)) 네네, 그런데 인민반에서는 내가 뻔히 일 안 다니는 거 알죠. 근데 누가 신고하면은 그게 또 복잡하게 되는데, 신고를 안 하면은 그냥 문서만 있으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민반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_혜산4: 6)"

제 3 절 공동주거를 통한 통치 생활술의 강화

1. 집합적 생활양식: 친밀과 감시의 공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동주거는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며 흔히 폐쇄적인 개인주의적 생활이 뿌리내리는 주거양식으로 기능해왔다(천현숙, 2002; 손세관, 2000). 반면, 북한에서는 1970년대 중반까지 편복도식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보급되었고, 일상적으로 현관문을 열어놓고 생활하여 이웃 간에 손쉽게 들고나며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적인 근린관계가 다져지는 개방적인 주거양식으로 기능해왔다(박현선, 2003: 265). 따라서 북한 공동주거의 밀집한 형태는 주민들 상호간 친밀감을 형성시키기도 하지만, 거동이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웃 간의 감시도 가능하게 한다. 그 속에서 인민반원들은 정서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관계망과 감시와 통제라는 위로부터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식적 관계망이 공존하는 이중성을 경험한다(배영애, 2018).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심층면담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고, 인민반 활동이 많았던 경우에는 정서적 친밀감을 강조하였다. 반면 연령이 낮고, 인민반 활동이 적었던 경우, 그리고 사유적 실천이 많았던 경우에는 감시와 통제의 관계망으로 설명하였다. 혜산에서 아파트와 하모니카집에 거주하다 2009년에 탈북한 50대 여성은 생일과 명절에 인민반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며 정을 쌓았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 “같은 인민반 사람들끼리 생일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하면은 음식을 이렇게 내오기도 하고 초대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같이 나눠 먹고. 먹고 살기 힘들면서도, 훗날에 먹을 게 없어도, 명절에는 음식을 해서 서로 나눠 먹고 그래요. (참여자_혜산3: 16)”

반면, 평양에서 하모니카집에 거주하다 2013년에 탈북한 30대 여성(이후 평양1)의 경우, 인민반을 통제와 이탈방지의 수단으로서 강하게 인식

하였다. 인민반을 통해 주거지를 구획하고 인민반장을 통해 반원들을 제촉함으로써 제기된 과업들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인민반은 그냥 통제 수단인 것 같아요. 그렇게 구획별로 인민반이라는 걸로 묶어놔야, 또 인민반장이라는 걸 만들어놔야, 그때 그때 과업들이 나올 때마다 반장들이 채근을 해가지고 당에서 하고자 하는 거를 빨리빨리 하게 되는 거겠죠. 통제를 좀 더 잘하려고. 또 이탈하는 거 자체를 막는 것 같아요. (참여자_평양1: 18)”

혜산에서 거주하다 2009년에 탈북한 50대 여성의 경우에도 감시와 통제의 관계망으로서 이웃을 인식하였다. 그의 가족은 고난의 행군 이후 집에 쌀을 저장하고 있었는데 이웃을 초대하여 식사를 같이할 경우, 흰쌀밥을 먹는다는 말이 나가고 흉이 될까 두려워 경계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밀수로 생활을 유지했던 그는 한 층에 8가구로 구성된 편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짐이 들어오는 날에는 옆집 사람들이 보는지 안보는지 살핀 후, 짐을 빠르게 옮겨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하며, 조심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항상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 “고난의 행군 시기에 뭐든 살기 박해지면서, 우리 집은 쌀을 저장하고 있었잖아요. 말이 나갈까 봐. 저 집은 양전사업소 다니니까 쌀이 많아서 뭐 흰밥 먹는다, 5:5 밥을 먹는다. 이게 다 흉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경계를 해요. 우리 집 비밀을 많이 알리려고 안 하지. (참여자_혜산2: 15)”

>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나 옆집 사람들이 몰라야 되는 일이면 조심스럽죠.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짐이 들어오는 날은 옆집에 사람들이 보는지, 아이 보는지 보고. 조용할 때, 재까닥 짐이 들어오게 하고. 이웃 중에 누군지는 모르니까 말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으니까 다 조심하는 거지. 항상 그 조심해야 된다는 그 긴장이 항상 있었어요. (참여자_혜산2: 15)”

2. ‘반동사항문화’ 행위에 관한 통제의 강화

자립적 생존의 장으로서 합법화된 시장을 통해 생계가 해결된 이후에는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정보 및 문물(한국드라마, 미국영화 등)이 유입되어 암거래되기 시작하였다. 세련된 옷차림과 차별화된 외부정보의 취득에 관심을 보이는 주민들이 생겨난 것이다. 이는 북한 체제의 반사회주의 법규범 제정(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과 이에 기반한 사회통제 강화 요인으로 작용한다(정은찬, 2021: 113).

2021년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체제는 노동당 제8차 개회(2021.01.05.)를 개최하여 반사회주의 현상을 근절할 것에 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여기에서는 ‘반동사상문화’를 규정하고 이를 배격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특히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의 제27조에 따르면 남한의 녹화물, 도서, 노래, 사진 등의 문화를 접했거나 유포한 정도에 따라 로동교화형 및 사형에 이를 수 있는 중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표 6-7〉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구분	내용
제1장 (제1~7조)	법의 사명과 반동사상문화 정의, 반동사상문화 배격의 기본원칙, 전군중적투쟁원칙등에 대한 내용
2장 (제8~14조)	반동사상문화 유입 차단의 기본요구와 국경 · 인터넷 · 출판선전물 · 적지물을 통한 유입 차단에 관한 내용
3장 (제15~26조)	반동사상문화의 시청 및 유포 금지, 복사기와 인쇄기 등을 이용한 반동사상문화 유포 금지, 남조선 말 · 글 · 창법 사용 금지에 관한 내용
제27조	남조선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틀었거나 보관한자또는 남조선문화가 반영된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정상에 따라 5년부터 1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에, 남조선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 류포한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하며 집단적으로 그것을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28조	미국, 일본 같은 적대국의 문화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내용이 반영된 다른 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또는 적대국의 문화가 반영된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정상에 따라 10년까지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자료: 이재은, 2022. 06. 20. 데일리NK; 문순보, 2021. 03. 05. 데일리NK.

이에, 공동주거의 가로 및 도로, 주택에서도 수시로 '반동사상문화'을 접했거나 소지하는 것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운영의 공식화 이후, 사유적 실천에 관한 제재는 완화한 반면, 주민의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정보 및 문물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제재는 강화한 것이다.

평양1의 증언에 따르면, 거주지 주변 가로에 동의 여성동맹원들이 200m마다 한 명씩 배치되어 비사회주의적 머리 모양새, 옷차림을 수시로 단속한다. 머리카락의 길이가 길거나, 상의나 하의의 품이 좁으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 결함이 지적되면 이름, 주소, 소속, 직장이 기록되고 이는 소속된 청년동맹, 여성동맹과 같은 조직에 보고되어 '사상투쟁'이라는 명목하에 구성원들 앞에서 공개적, 조직적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

> "평양 같은 경우에는 한 200미터에 하나씩 서 있어요. 여맹에서 조직을 하는 건데, 바지통이 너무 좁다거나, 뭐 머리가 너무 길다거나, 옷이 허리가 너무 잘록하게 너무 붙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는 거예요. 단속하면 이름 적고, 사는 곳 적고, 어느 직장 다니는지 적고. 이거를 보내오는 거죠. 회사 청년동맹으로. (중략)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사상투쟁을 하는 거죠. 사상투쟁이라는 게, 황색바람, 비사회주의 날라리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했냐, 조직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몰아가는 거죠. 눈물 뚝뚝 흘릴 때까지. (참여자_평양1: 15)"

혜산의 아파트와 하모니카집에서 거주하다 2019년에 탈북한 50대 여성의 경우에도 여성동맹을 통해 비사회주의 행위 통제에 관한 당의 지침이 시종일관 내려왔다고 증언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괴뢰 영화', '괴뢰 말투', 남한 옷차림새, 문화침투에 당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방침이 내려온 날 저녁에 식구들이 모이면 다 '똑같은' 소리를 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업총동맹에서, 주부는 여성동맹에서, 각자 속한 조직을 통해 중앙의 방침이 일사불란하게 말단의 단위로 전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 “항상 괴뢰영화, 괴뢰말투, 그다음에 남한 옷 입고 그 차림새 하고 다니는데 대한 그런 비사회주의에 대한 걸 가지고, 문화침투에 우리가 당하지 말라고, 그거는 진짜 변함없이 시종일관 내려왔거든요. (중략) 비사회주의에 관해서는 여맹에서, 방침이 하나 떨어졌다면 우리 집 식구가 각자 다 다른 조직에서 생활해도 집에 들어와서 저녁에 말하는 소리는 다 똑같은 소리를 하거든요. (참여자_혜산1: 8)”

평양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다 2004년에 탈북한 50대 여성의 경우, 비사회주의 행위 단속이라는 명목하에 동(洞)에서 수시로 아침마다 집으로 검열이 내려왔다고 증언하였다.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많은 가구는 뇌물을 받았을 거라 가정하여 단속을 하고 녹음기나 텔레비전을 틀어 외국채널이 나오면 단속하였다고 한다. 이때 인민반장의 대변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한 점을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살고 있던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운전공이, 어느 집에 어떤 짐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잘 알기에, 운전공과의 관계도 중요했다고 증언한 점이 흥미롭다.

> “북한은 승강기에 운전공이 앉아 있거든요. 그 운전공 하고 또 잘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 운전공이 왔다갔다 하면서 어느 집에 누가 들어가고, 어느 짐이 들어가고 이런 걸 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물짐을 들고 가다가 사과 하나라도 수고한다고 주거나 하고. 운전공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참여자_평양3: 12)”

이러한 불시 검열에서 남한, 미국, 일본과 같이 북한이 적대국으로 규정한 나라의 녹화물(영화 및 드라마), 도서, 사진, 노래 등을 소지하다 적발되거나 그 문화를 접한 사실이 알려지면, 정도에 따라 로동교화형, 심할 경우 사형이라는 극형에 처하게 된다. 이는 주민 사회에서 왕왕 벌어지곤 하여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 평양1과 경성에서 거주하다 2008년에 탈북한 20대 남성의 경우, 같은 반 학우의 가정이 하루 아침에 사라진 경험이 뇌리에 크게 각인되어 항상 조심하여 말하였던 점을 증언하였다.

"반 친구가 학교에서 남한 노래, 영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친한 얘한테. 그 다음 날 그 집이 없어졌어요. 그 가족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그런 거죠. 항상 말조심. (참여자_경성1: 8)"

"저희 학급에도 공부를 진짜 엄청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걔가 분단위원장을 하던 아이인데, 아빠가 어떤 발언을 잘못해 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싹 없어졌거든요. (중략) 그냥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런 일들이 꽤 됐었어요. (참여자_평양1: 21)"

공동주거라는 집합적 생활양식 속에 주민들의 이중적 관계망, 즉, 정서적 친밀감의 관계망과 감시 및 통제의 관계망, 그리고 최근 시장화라는 변수에 의한 사유적 실천 및 관계망이 강화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인식에도 이를 반영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표 6-8〉 공동주거 주민들의 인식 변화

문항	매우 그랬다	그런 편이었다	그저 그랬다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계
나는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알고 있다	40	41	11	6	2	100
나는 우리 동네를 집과 같이 느낀다	14	36	27	16	7	100
나의 행동에 대해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이 쓰인다	8	31	15	28	18	100

<표 6-8>과 같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100명의 북한이탈주민들 중, "나는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알고 있다"의 문항에 "그런 편이었다"와 "매우 그랬다"라고 답한 사람은 각각 41명, 40명에 달한다. 이중적 관계망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우리 동네를 집과 같이 느낀다"의 문항에 부정적으로 답한 사람이 절반에 달하며, "나의 행동에 대해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인다."의 문항에 "그런 편이었다"와 "매우 그랬다"라고 답한 사람

은 각각 31명, 8명에 달한다.

조정아·최은영(2017)에 따르면, 평양시에서 15층 '외랑식(편복도식)' 아파트에 살다가 2000년대 후반에 타워형 아파트로 이사를 간 30대 여성 탈북민의 경우, 타워형 아파트를 선호했는데, 한 층에 몇 세대가 안 되고 이웃 간에 왕래가 별로 없어 복도형 아파트에 비해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구조임을 얘기하였다.

따라서, 경제난 이전의 북한 공동주거는 공식적 실천 및 관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경제난 이후, 공동주거의 감시와 통제의 관계망에 대한 주민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공동주거의 밀폐된 구조는 공식적 감시망으로부터 사적(사유적)생활을 보장하는 역할로서 선호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제 4 절 소결

본 장에서는 균형의 약화와 균열의 관점에서, 경제난에 따른 사회주의 체제의 약화 및 배급제의 와해가 수반한 교란의 양상 즉, 공동주거의 실천적, 관계망적, 물리적 변화를 탐색하였다. 경제난 이후 공간적 실천 및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공동주거 공동체성의 변화, 집합적 생활양식을 통한 통치 생활술의 강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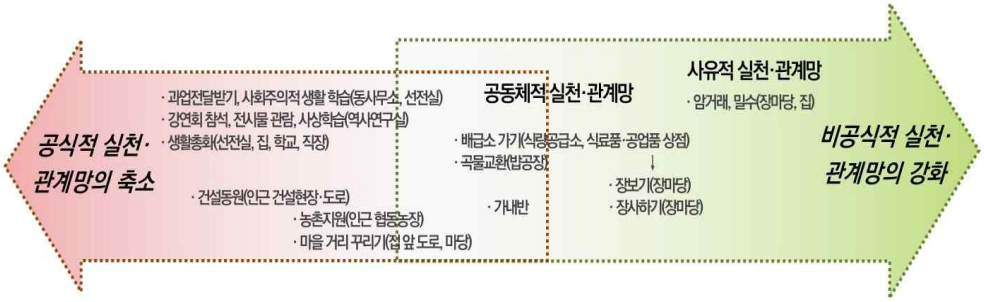
첫째, 경제난 이후, 공식적 관계망을 강제하는데 전제가 되었던 배급제가 와해하자 공식적 실천이 형식화·약화하는 현상을 보였다. 생활총화, 사상학습, 인민반회의, 국가건설동원 등에 대한 참여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돈을 지불하고 공식적 실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비공식적 실천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시장 운영의 공식화 이후, 암거래, 밀수 등의 사유적 실천에 관한 공식적(법적) 제재가 완화하면서 장마당에서의 장사, 개인간 암거래, 중국을 통한 밀수 등 사유적 실천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하였다. 현재 사유적 실천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비법으로 행하여지기에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관계망을 통하여 사유적 관계망이 형성·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경제 체제가 관계망의 매개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북한 공동주거의 주민들은 이웃의 범위를 생각함에 있어 소구역, 구획과 같은 물리적인 범위보다 인민반이라는 사회·행정적 범위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북한에서 자신이 속했던 인민반, 청년동맹 등의 조직을 공동체로서 정의하였다. 그런데 면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공식적 관계망의 테두리 안에서 공동체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사유적 관계망에 관하여 강한 공동체성을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주민들이 인식하는 공동체의 개념에 사유적 실천 및 관계망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공동주거의 밀집한 형태는 주민들 상호간 친밀감을 형성시키기도 하지만, 거동이나 동태를 파악할 수 있어 이웃 간의 감시도 가능하게 한다. 그 속에서 인민반원들은 정서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관계망과 감시와 통제라는 위로부터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식적 관계망이 공존하는 이중성을 경험한다. 경제난 이전의 북한 공동주거는 공식적 관계망 및 공간적 실천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비법적인 사유적 실천이 증가함에 따라, 또한 '반동사항문화'에 대한 통제가 강화함에 따라 공동주거의 감시와 통제의 관계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동주거의 밀폐된 구조는 공식적 감시망으로부터 사적(사유적)실천을 보장하는 역할로서 선호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1990년대 경제위기는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힘을 현저히 약화시키며 공동주거를 형성하는 세 가지 힘의 균열을 촉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계획경제 및 배급제의 와해는 공식적 동력을 크게 감소시킨 반면, 사유적·시장적 동력을 강화하여 공동주거의 실천적, 관계망적, 물리적 변화를 야기하였다. <그림 6-2>와 같이, 시장 운영의 공식화 이후, 공식적 관계망의 반대편에 있는 비공식적 관계망 속에 사유적 관계망이 태생하여 공식적 관계망과 대립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공식적 관계망의 기반이 되었던 배급제가 와해하면서, 공식적 관계망이 포섭하고 있었던 공동체적 관계망이 비공식적 관계망으로서 성격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6-2〉 공동체적 관계망의 비공식적 성격 강화



제 7 장 결론

남한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사람들도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공동주거를 사용한다. 특히, 평양의 도시지역의 경우,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92.7%로서, 이 중 아파트의 비율은 61.7%에 달한다. 평양 도시민의 열의 여섯이 아파트에 사는 것이다. 이에 북한 공동주거가 연구대상으로서 조명되기에 충분하나, 관련 연구는 부족하기만 하다. 지금까지의 북한 공동주거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일성 시기로 한정하거나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간적 범위를 현재까지로 확장하고, 이론적 근거를 사회주의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모더니즘 도시계획 및 통치의 도시계획을 결합하여, 각 이론의 구성요소들의 구조화된 관계를 통하여 세 가지 축의 힘이 균형과 불균형, 파열을 이루며 북한 공동주거를 형성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관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해석을 하였다.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3장에서는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북한의 도시화 현상과 이와 연관된 산업화 정책을 탐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량주택의 신속한 공급과정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북한 공동주거의 공용시설 계획과 공동생활의 조직 및 역할을 파악하였다. 이후 계획경제 하 공동주거 공간에서의 실천들과 사회적 관계망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통치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통치의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양시의 공동주거를 통하여 지향 하는 바가 무엇인지와, 세 정권의 지향하는 바의 차이와 공동주거 경관의 변화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6장에서는 균형의 약화와 균열의 관점에서, 경제난 이후, 공동주거의 공간적 실천 및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공동주거 공동체성의 변화에 관하여 논의를 확장하였다. 통제의 물리적 공간으로서 공동주거의 역할 또한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주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절 연구의 주요 발견

1. 모더니즘적 속성의 지속: 도시화와 공동주거의 대량 공급

전후 북한의 주요 도시들은 1970년대까지 급속한 도시화 현상을 겪었으며, 이는 중공업 우선 정책과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평양시의 경우, 1970년대 이후에도 현재까지 다른 도시들에 비하여 가파른 인구 성장을 보이는데, 이 역시 1970년대 이후부터 북한에서 추진되었던 경공업 병행 성장 추진의 결과임을, 평양공업지구의 주요 기업체의 현황, 조업시작 현황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급속한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후, 북한은 소련과 동독의 모델을 바탕으로 한 저층 외랑식(편복도식)의 표준주거유형을 구축하여 대량의 주거를 공급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1970년대부터 북한의 공동주거는 고층화하기 시작하는데, 1980년대 초에 25층 이상의 초고층 살림집을 건설하였고, 2017년에 완공한 려명거리에는 70층의 살림집이 건설된 점을 통해 수직적 대형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 공동주거 단지가 블록의 길이, 주동의 길이, 중심 가로폭의 측면에서도 수평적인 대형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주의 도시공간적 특성의 약화: 공식적 실천과 사유적 실천의 대립

북한 공동주거는 사회주의 도시계획에서 주민의 집단공동생활을 조직하기 위하여 공간적인 기초단위로 상정한 소구역(마이크로 디스트릭트) 개념을 북한 현지화하였다. 이에 1950년대 후반부터 주택+공용시설(봉사시설)로 구조화되었으며, 사상·교양시설, 배급시설, 공동 취사시설, 가내작업장 등이 공용시설로서 계획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계획경제 하, 북한은 집단주의 원칙이 구현된 사회로서 주거지의 공용시설에서 인민반, 여성동맹을 중심으로 공식적 실천 및 관계망을 형성·강화하며 주민들이 갖추

어야 할 집단주의적 규범과 가치관을 학습하고 장려해왔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으로 인한 배급제의 와해는 사상·교양 학습의 형식화와 같은 공식적 실천과 관계망이 약화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공동주거 내 국가가 운영하는 봉사시설의 기능이 대부분 축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시장 운영의 공식화 및 사유적 실천에 관한 제재의 완화로 장마당, 암거래, 밀수 등 공동체적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사유적 실천 및 관계망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주거지 내에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운영의 공식화 이후, 공식적 실천의 반대편에 있는 비공식적 실천 속에 사유적 실천이 태생하여 공식적 실천과 대립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공식적 관계망의 기반이 되었던 배급제가 와해하면서 공식적 관계망이 포섭하고 있었던 공동체적 관계망은 비공식적 관계망으로서 성격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공동주거를 통한 통치합리성의 강화: ‘공급’에서 ‘경관’으로

김일성 체제의 당면한 과제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도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평양의 복구였다. 이를 위한 ‘방대한 건설사업의 성과적 보장’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주거 설계의 표준화, 규격화와 건설의 조립화, 신속화는 김일성 시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초토화된 평양에서 주택난에 시달리는 인민에게 대량의 주거를 공급하는 주거안정책이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기제가 되었던 것이다.

반면, 김정일 체제에서는 도시 공간의 형성에서 독창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며, 이전 시기와의 차이를 부각하는 전술을 펼쳤다. 김정일의 저서인 「건축예술론」에서 독창성과 다양성에 대한 지향을 가장 힘을 실어 강조한 점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김정일 시기 「로동신문」의 공동주거 관련 기사들의 제목과 내용에 출현한 단어들을 활용한 토픽모델링의 분석 결과에서도 핵심 주제로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김정일이 지향

하는 바는 공동주거의 계획요소에 반영되어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광복거리의 주동 형태를 곡선형, 꺽임형, 원형, 원형묶음형, 탑형, 탑형묶음형, 다각형, 바람개비형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건설되게 하였다. 또한 1970년대까지 주로 가로면을 따라 선형으로 살림집을 배치한 것과 비교하여, 1980년대 초에는 고층건물을 무리로 배치하거나, 병풍을 여러 가지 형태로 펼쳐 전개하듯이 한 동의 건물을 3번에서 많게는 6번까지 꺽어서 배치하는 등 주동 배치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김정일은 이전의 형식을 되풀이하지 않고, 특색있고 새로운 여러 가지의 형식의 공동주거를 만들어냄으로써 시각적으로 김일성과는 다름을 부각하는 방법으로, 후계 구도를 공고히하고 통치자로서의 자질을 드러내는데 공동주거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가 '사회주의 문명국의 건설'을 주창하며 시공의 전문화, 건재 생산의 정상화,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한 점은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가장 차이를 보이는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정은 시기 「로동신문」의 공동주거 관련 기사들의 제목과 내용에 출현한 단어들을 활용한 토픽모델링의 분석 결과에서도 핵심 주제로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향점은 공동주거의 계획요소에 반영되어 평양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전변시키는 웅장하고 화려한 상징적인 공동주거 경관을 만들어냈다. 김정은식 사회주의 문명국의 '모델사업'으로 손꼽히는 려명거리에서는 거리의 시작 지점에 영생탑을 건설하고 70층과 55층의 초고층 살림집과 핵과 전자모양의 초고층 살림집을 집중배치하여 상징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과학기술 중시사상을 통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전형을 보여준다.

4. 통치합리성 강화를 위한 모더니즘과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합주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속성인 주택의 대량공급의 측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에서 정도의 차이를 보이나 지속적으로 지향되어 통치합리성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기 「로

동신문」의 공동주거 관련 기사들의 제목과 내용에 출현한 단어들을 활용한 토픽모델링의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김일성 시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추정이 되었으며, 김정일 시기에는 통일거리에 관한 주제에서 대량공급을 강조하였고, 김정은 시기에는 후 순위의 주제로 자리를 하였다. 따라서 공동주거의 공급을 강조하는 지향점은 각 시기마다 정도의 차이를 보이나 모든 시기에서 관찰이 되며 가장 일반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택이라는 사회 필수적 자원을 배분하는 실행방식으로서, 그 과정에서 최고 통치권자가 주택부족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권위적인 결정에 의해 인민들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주택 배정 정책은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통치술이 된다. 평양 도시지역 소재 주택의 배정 기준에 따르면, 주택을 특호, 4호, 3호, 2호, 1호로 구분하고, 배정 대상자를 계층별로 차등화하여 당과 군의 고위간부, 대학 교수, 기업소 책임자 등에게 고급, 신형 주택을 배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은 체제에서 은하, 위성, 미래 과학자 거리 등 연이어 과학자들을 위한 공동주거를 건설하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등 특정 계층을 위한 주거공급 정책을 펼치는 점 또한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된다.

한편, 사회주의적 삶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 도시계획은 계획경제 하에 국가와 당을 중심으로 하는 강한 공식적 관계망을 바탕으로 공동주거를 주택+공용시설의 구조로 정식화하였다. 공용시설에서는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사회구성원이 사회주의적 규범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사상교양사업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국가의 공식적 동력이 약해지면서 공용시설이 축소되었고 공식적 실천 및 관계망 또한 약화하는 현상을 보였다. 반면 집합주택이라는 밀집한 형태는 그대로 남아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용이하게 한다. 비법으로 행하여지는 암거래, 밀수 등의 시장행위와 주민의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반동사상문화'에 관한 국가의 통제가 침투하고 개입할 수 있는 매개통로가 되어 통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함의

서울과 평양의 직선거리는 200km가 채 되지 않는다. 서울에서부터 차로 2시간 남짓한 시간에 닿을 수 있는 북한은 남한에서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28]임이 자명하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심적 거리감도 이러할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2022)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의 77.6%는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느꼈다. 반면 북한을 선택한 사람은 13.4%에 불과하였다(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160-161). 이와 유사하게 2020년에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의식조사(2021)에서 응답자의 65.7%는 중국을 가장 친밀한 국가로 선택하였다. 반면 남한을 선택한 사람은 20.4%에 불과하였다(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144). 남한과 북한 주민들 사이의 심적 거리감은 물리적 거리감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심적 거리감을 좁혀보고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울과의 유사성을 토대로 평양의 보편적 주거로 자리 잡은 공동주거를 통하여 낯선 국가의 도시를 이해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북한 도시의 공동주거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의 자료, 그리고 「로동신문」의 기사를 통해 최근 변화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매우 중요한 의의가 된다.

도시에서 모더니즘적 속성이 발견된다는 것은 당연한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이 북한의 공동주거를 분석함에 있어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틀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시, 특히 평양의 공동주거의 공급에 모더니즘적 속성이 크다는 지적은 중요한 학술적 기여로 평가할 수 있다.

---

28)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제국의 영토를 기초로 확정되었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있기에 ‘국가’를 사용함.

앞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주요 발견의 종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모더니즘, 사회주의, 통치의 도시계획의 균형

전후 초토화된 도시의 복구와 산업 진흥으로 인한 인구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화된 고층아파트 위주의 공동주거를 보급한 즉, 르 꼬르뷔제식의 모더니즘 도시계획은 당시 북한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해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민의 주택수요에 대응하여 신생 김일성 체제, 이어진 김정일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다. 더욱이 일상 공간의 개조를 통한 사회주적 삶을 구현하기 위하여 집단공동생활을 조직하고자 하였던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목표와도 일맥상통하여 북한에서 이러한 형태의 양식을 더 쉽게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모더니즘, 사회주의, 통치의 도시계획의 목표가 서로 맥이 닿아 균형을 이루며 도시공간을 만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2. 모더니즘, 사회주의, 통치의 도시계획의 균열

균열, 즉 세 가지 축의 힘이 균형을 이루다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게 되어 공동주거의 실천적, 관계망적, 물리적 큰 변화를 수반하게 된 교란의 현상, 그 시작은 1990년대 경제난으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하에 북한은 집단적 생활양식의 정착이라는 목표 아래 공동주거라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였고 인민반이라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였다. 공동주거의 공용시설들에서 다양한 집단적 실천이 벌어졌고, 또 상호 집단적 실천을 담아내기 위하여 많은 시설들이 설계되었다. 생활공간과 집단적 실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재)생산된 관계망은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형성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런데 1990년대 경제위기로 공동주거는 물리적 및 실천적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배급제의 와해는 사회주의 체제가 지향하던 집단주의적 삶의 동력을 크게 감소시켰다. 국가로부터의 공식적 실천과 관계망이 약화되었고, 이는 공동주거에서 집단적 실천을 담아내던 공용시설을 축소시키는 변화를 가져왔다.

반면 시장기제의 동력은 크게 증가하였다. 계획경제 체제하에 철저히 통제되었던 사유적 실천이 자생하여 시장의 운영을 공식화하는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사유적 관계망은 공동체적 관계망을 포섭하며 공식적 관계망을 압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 체제가 계획경제를 대체하여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로서 역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시장거래가 보다 자유화할 경우 관계망의 매개공간으로서 시장공간의 역할은 증대될 것을 시사한다.

198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이어진 1990년대 경제난으로 인해 주택공급의 여력이 감소한 북한 정권은 특정 계층을 위한 선별적인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동질한 노동자 사회의 건설이라는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본래의 목표는 퇴색되었으며, 체제의 비전을 나타내주는 선전물로서 대규모 공동주거 건설이 활용되어 과시적이며 화려한 상징경관을 연출하며 통치적 가독성을 높이는데 주역이 되고 있다.

인민의 주택수요에 대한 대응의 측면은 시장화의 흐름 속에서 공동주거 개발의 주체를 국가라는 단일주체에서 다양화하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10년대에 들어 북한이 외국인 합작개발을 허용하였고, 외국에 토지개발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으로 중국은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북·중 합작개발'을 추진하면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평양의 경우, 중국인 투자에 의한 아파트 개발은 주로 도시 중심부인 중구역, 평천구역, 모란봉구역, 보통강구역 등에서 흔히 발견된다(정은이, 2018: 22; 문지훈·김세훈, 2015: 130-131). 또한 시장에서 부를 축적한 신흥세력인 '돈주(돈의 주인)'의 막강한 경제력은 평양의 공동주거 개발의 핵심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이제훈, 2019). 이와 같은 다양화의 양상은 시장경제체제가 공동주거의 핵심적인 개발 촉진 기제로

역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계획경제 체제하에 과거 북한의 공동주거는 지속적으로 마주한 도시화 문제에 대량공급으로 맞선 모더니즘 도시계획, 인민의 주택 수요에 대응하여 체제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준 통치의 도시계획, 그리고 사회주의적 삶을 구현하기 위하여 집단공동생활의 주거유형을 적극적으로 이식한 사회주의 도시계획 등 세 가지 도시계획 이념이 균형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계획경제 체제의 와해로 촉발된 균열은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힘을 현저히 약화시켰다. 이는 공동주거의 실천적, 관계망적, 물리적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수반하였다. 국가의 주택 공급 의무는 여력이 감소한 상황에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통치적 도시계획의 목적이 강하게 작동하여 초고층화, 대형화한 공동주거를 만들어내며 상징경관을 조성하고 있다. 감소한 주택 공급력을 시장을 통해 메우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변화 아래 주택 공급의 주체가 다양화하며 민간의 시장경제 체제로 힘의 중심이 나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평양시는 수도로서, 또 이를 넘어서는 거대한 상징성으로 인하여 현재의 증가 추이를 유지하며 인구가 집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 체제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사회주의 문명국의 기치 아래 고층화한 대규모의 공동주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사회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주거 공간에 대한 인민들의 선호가 반영되어 이와 같은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층 세대수가 적은 타워형 공동주거는 사유적 실천을 보호해주는 역할로서 선호될 것이며, 집단 공동생활의 약화는 보다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화의 흐름, 국내·외 정세 변화, 그리고 외국 문화에 대한 접촉으로 인하여 공동주거 소비계층의 눈높이는 높아져 가고 있다. 경제난으로 촉발된 균열로 인해 북한 사회 전반은 교란과 변화를 겪어왔다. 향후 사회주의의 약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모더니즘, 통치의 도시계획과 시장경제의 도시계획이 새로운 균형점을 향해갈 것으로 전망해 본다.

참 고 문 헌

고유환·이주청·홍민, 2012. 「북한 언론 현황과 기능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곽길섭, 2020. 「김정은 대해부 : 그가 꿈꾸는 권력과 미래에 대한 심층 고찰」, 서울 : 선인.

곽인수, 2006. “조선로동당의 당적 지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가건설위원회 중앙설계연구소 도시계획연구실, “도시 계획에서 소구역 설계에 대한 몇 가지 의견”, 「건축과 건설」, 1961년 12월, 평양: 공업출판사.

국립미술출판사, 1959. 「평양」. 평양: 국립미술출판사.

권경복, 2001. “북한의 주요 직업”, 「통일경제」2001년 11월호. p.71-78.

권용찬, 2013. “대량생산과 공용화로 본 한국 근대 집합주택의 전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태환·김두섭, 1990.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기계형, 2011. “소비에트 시대 초기의 일상생활과 콤무날카(KOMMYHAJIKA) 공간의 성격”, 「서양사론」, 98: 255-282.

_____ 2013. “1920년대 소비에트러시아의 사회주의 건축 실험: 구성주의 건축가 모이세이 긴즈부르크와 ‘코뮌의 집’”, 「러시아연구」, 23(2): 187-228.

_____ 2013. “사회주의 도시 연구: 1917-1941년 소비에트 러시아의 주택정책과 건축실험에 대한 논의”, 「동북아문화연구」, 34: 469-488.

김근식, 2014. “김정은시대의 ‘김일성-깅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의 추상화", 우승지 편, 김정은시대의 정치와 외교, 파주: 한울.

김덕우, 2018. 「남북 탐구 생활 2: 여행과 문화」, 서울: 미래엔.

김동찬, "기관, 기업소 건설장들에서 녀성 로력을 더욱 광범히 인입하자", 「로동」, 1958년 제10호, 평양: 로동기술도서출판사.

김면, 2005. "비밀문서로 본 구동독 함흥시 건설프로젝트", 「민족」, 6.

김민아, 2018. "북한의 주택 소구역계획에 관한 연구: 1955-1967년 단지계획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민아·정인하, 2019. "평양 광복거리 신도시의 단지계획에 관한 연구: 주택 소구역 계획에서 거리 형성계획으로", 「계획계」, 35(10): 91-102.

김봉기 외, 2007, 「붉은넥타이」, 판문점트레블센타.

김석향, 2004.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교육원.

김수현, 1997. "구 소련과 동구 주택정책 변화의 성격",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10(10):113-134.

김우영·안경모, 2018.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통제 유형에 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21(3): 43-83.

김원, 1998. 「사회주의 도시계획」, 서울: 보성각.

김일성, 1980. 「김일성저작집」, 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82. 「김일성저작집」, 1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재건, 1990. "남신의주 8호 구획 건축계획에서 얻은 경험", 조선건축 제12호(1990년 3월): 75-76.

김정수, 2009. "주체사상의 형성과정과 체계", 「현대사상」, (4): 205-234.

김정은, 2013.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주체102(2013)년 12월 8일", 조선건축 2014년 1호, p.2-6.

김정일, 1992. 「건축예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종수, 2008. "북한의 '생애주기'적 조직생활 변화와 내구력 평가", 「인문사회과학연구」, 1(21): 5-37.

김태우, 2013. 「폭격 :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파주: 창비.

김현수, 1994.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흥순, 2007. "사회주의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소련 건국 초기 도시주의 대 비도시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2(6): 25-48.

노대명, 2000.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이론'에 대한 고찰", 「공간과 사회」, 14: 36-62.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 1993. "제3차7개년계획(1987-1993) 계획수행 정형과 당면한 경제건설방향" (1993. 12. 08.).

대한무역진흥공사, 1995. 「북한의 산업」, 대한무역진흥공사.

르 꼬르뷔제, 2004. 「프레시지옹 : 건축과 도시계획의 현재 상태에 관한 상세한 설명」, 정진국 이관석 옮김, 파주: 동녘.

리순건, "유해성이 없는 경공업 공장들의 주택 지구 내 합리적 배치", 「건축과 건설」, 1962년 8월, 평양: 공업출판사.

_____ 1963. "주택 소구역 계획", 평양: 국립건설출판사.

리화선, 1989. 「조선건축사 2」,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림영, 1992. 「우리의 지도자」, 평양: 등대사.

문지훈·김세훈, 2015. "북한 나선시 도시개발과 남산 18호동 살림집을 통해 본 북·중 합작개발의 특성", 「국토계획」, 50(1): 115-134.

민족통일연구원, 1993.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박근현·배정한, 2013. “담론과 자본으로서의 경관: 도시 경관의 정치·경제적 해석을 위한 이론적 틀”, 「한국조경학회지」, 41(6): 117-128.

박영자·조정아·홍제환·정은이·정은미·이석기·전영선·강호제, 2018.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통일연구원.

박인권, 최봄이, 최고운정, 2022. 「통일을 대비한 북한의 주거환경 및 지역공동체 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박현선, 2003.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Contemporary North Korean society and family」, 서울 : 한울아카데미.

박희진, 2015. “김정은 체제의 도시와 도시건설: 개방·관광·상품화”, 「평화학연구」, 16(1): 155-180.

배영애, 2018.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인민반의 역할과 변화”, 「통일과 평화」, 10(2): 193-240.

백과사전출판사 편, 1995. 「조선대백과사전」,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_____, 2001. 「조선대백과사전」, 제28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북한법연구회, 2018. 「2018 최신 북한법령집」, 서울: 북한법연구회.

북한중앙통계국, 2009. 「2008 북한 인구조사 보고서」, 북한중앙통계국.

사회과학출판사, 2007.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_____ 2017.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서봉원, 2000. “통일독일의 주택정책과 통일한국에 대한 함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북한주민 통일의식 2020」

_____ 2022.「2021 통일의식조사」

성현곤·박인권·지규현·김진유·장경석·김준형·고진수·김승화, 2019.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최막중의 국토 및 도시계획 연구경향 분석: 학술지 거재논문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103: 3-26.

손세관, 2000.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이집트에서 오늘에 이르는 도시주택의 변천」, 서울: 열화당.

송영섭, 1999. “근대 도시계획의 기원”, 「도시문제」, 34(373), p.9-19.

신봉숙·리지혜(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 2004. “상원 2호 구획 형성계획”, 조선건축 2004년 3호: 60.

신순경, 1958. “주택건설의 조립화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 「건축과 건설2」

신충식, 2010. “국정관리(police)의 원리로서 통치합리성에 관한 연구: 미셸 푸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10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안량옥(평양시 도시설계연구소 도시계획실 설계원), “대타령 모범 주택구획 조직에 대하여”, 「건축과 건설」, 1959년 2월, 평양: 공업출판사.

안장원, 1990.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구,” 「철학연구」, 제1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안진희, 2019. “「로동신문」 현지지도 사진을 통한 북한 경관의 시각 체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알렉사드르 제빈, 1994. “사회체제의 변화된 전통으로서의 북한의 인민반”, 「아세아연구」, 37(1): 141-159.

영광의 50년, 1995. 평양: 외국문종합출판사.

윤혜정·장성수, 1997. 「통일시대 국토개발의 방향」, 태림문화사.

이길임, 2015. “르 꼬르뷔제 집합주거의 주요 타입별 구성적 특징 연구 -

돔-이노 주택에서 마르세이유 유니테 다비따시옹에 이르는 주거 타입들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7(6): 59-68.

이병화, 1995. 「정치이론과 한국정치」, 서울: 세종출판사.

이옥희·이봉희, 1992, "북한의 도시 및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 「′92 북한·통일연구논문집(3)」, 통일원.

이왕기, 2000. 「북한건축 또 하나의 우리모습」, 서울: 서울포럼.

이우영, 1999.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이우영·황규진, 2008. "북한의 생활총화 형성과정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2(1): 121-145.

이종겸·정현주·김희정, 2021. "평양시 도시미화 담론과 북한의 권력에 관한 연구: 1953~1970년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성립 시기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24(2): 45-85.

이종겸·정현주, 2022. "평양시 도시미화 담론과 상징경관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5(2): 33-51.

이준표, 2013. 「도시구성」, 청주 : 충북대학교출판부.

이현호, 1997. "공동주거의 역사적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유럽, 일본, 한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일영, 2006. "조선로동당의 공장·기업소 조직에 대한 통제 연구", 서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동우, 2013. "평양의 도시계획", 「환경논총」, 52: 52-57.

임봉길, 1992. "도시중산층의 생활유형과 정치의식", 문옥표 외, 「도시중산층의 생활문화」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세룡, 2006. "앙리 르페브르와 공간의 생산: 역사이론적 '전유'의 모색", 「역사와경계」, 58: 293-325.

장세훈, 2005,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청진·신의주·해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2): 100-134.

전미영, 2013. "김정은 시대의 정치언어: 상징과 담론을 통해 본 김정은의 정치", 「북한연구학회보」, 17(1): 1-30.

전영선, 2022. 「북한 아파트의 정치문화사: 평양 건설과 김정은의 아파트 정치」,서울: 경진출판.

정갑영, 1990.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확립과 기본 정책노선", 이태욱 (편), 「북한의경제」, 서울: 을유문화사.

정성철, 2017. "려명거리건축형성의 몇가지 특징" 조선건축 2017년 5호, p.41.

정은이, 2018. "북한 부동산 가치변화와 개발에 관한 연구: 평양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30(4):.1-30.

정은찬, 2021. "북한의 시장화와 주민 의식변화: 반사회주의 통제를 위한 법규범 탄생과 관련하여", 「북한법연구」, 25(1): 111-150.

조남훈, 2013. "북한의 도시화 추이와 특징",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5월호, p.39-60.

조선건축, 1990년 제3호, 1991년 제3호, 2016년 제1호, 2017년 제3호, 2017년 제5호, 2018년 제5호, 평양: 공업출판사.

조선전사 27권, 1981.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조선중앙연감, 1987, 1990, 199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조현식, 1990. 「북한의 주택현황」, 서울북한연구소.

좋은 벗들, 2000.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북한 이야기」, 서울: 정토출판.

주종원·김현수, 1993. "북한의 주거지 계획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28(3): 17-31.

지강일·우동선, 2011. "1930년대 소비에트 공동주택을 통해서 본 건축의

사회적 역할". 「계획계」, 27(12): 235-244.

진경섭, 1992. "남신의주 16호 구획 건축형성에서 얻은 경험", 조선건축 제19호(1992년 2호): 68-69.

채경희, 2017. "북한 인민반의 조직,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5): 809-819.

천현숙, 2002. "아파트 주거문화의 특성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아파트 주거의 확산 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2차회의 리근모 보고, 198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결제발전 제3차7개년(1987-1993)계획에 대하여" (1987. 04. 21.)

최대석 외, 2010.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 실태 및 북한주민 의식변화」.

최병두, 2002.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한국도시연구소, 「도시연구」, 8: 253-278.

최병선, 1989. "사회주의 국가의 도시계획: 이론과 실제",「도시문제」, 24(9): 6-17.

최상희, 2017. "북한 건축 전문매체 분석을 통한 살림집 계획 동향",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8(4): 223-232.

최상희 외, 2015. 「북한주택 현황조사·분석 연구」, LH 토지주택연구원.

최호순, 2017. "프랑스 공공집합주택 분석을 통한 주거의 공유성에 관한 연구: 마르세이유 유니떼다비따시옹(Unité d'Habitation)대상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10): 201-207.

콜린 고든, 그래엄 버첼, 피터 밀러 (공)엮음, 2014. 「푸코 효과: 통치성에 관한 연구」심성보 외 옮김, 서울: 난장.

통계청, 200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통계청.

_____ 2021. 「2021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통계청.

통일부 정보분석국, 2002. 「북한수첩」, 통일부.

통일원, 1982, 「남·북한 경제교류 추진방안에 관한 제2차 연구」, 통일원.

_____ 1991. 「남북한 사회·문화지표」, 통일원.

_____ 1991. 「북한개요」, 통일원.

푸코, 미셸, 2012. 오트르망 역, 「생면관리정치의 탄생: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79년」, 서울: 난장.

_____ 2011.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오트르망 역, 서울: 난장.

평양건설전사 2, 1997.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평양지, 1957. 평양: 국립출판사.

하성규, 2003. "신자유주의시대 주거복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5(4): 71-96.

하성규·배문호, 2004. "한국의 공공임대 주택정책과 주택정치 -3개 정부(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4): 95-120.

한국방송공사(KBS), 2018. "[클로즈업 북한] 북한 경제의 큰 손 '장마당'과 '돈주' ", 「남북의 창」, 2018년 12월 22일자.

한국정책금융공사, 2010.「북한의 산업」, 한국정책금융공사.

한지은, 2013, "문화지리학의 경관 연구와 경관의 텍스트성", 「안과 밖: 영미문학연구」, 34: 126-146.

현성일, 1999. "북한노동당의 조직구조와 사회통제체계에 관한 연구", 외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민, 2017. 「김정은 정권의 통치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통일연구원.

홍민, 2018. “김정은 위원장 최근 현지지도 행보 속 정치코드 읽기” 「통일연구원 형안분석-온라인 시리즈」, (36): 2.

홍준기, 2011. “르페브르의 공간 및 도시공간 이론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 공간의 생산을 중심으로”, 「현대정신분석」, 13(2): 163-182.

황기원, 1989. “경관의 다양성에 관한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17(1): 55-68.

황의각, 1992. “북한의 산업구조와 국민소득,” 「북한연구」, 3(4): 131-149

황의정, 2017. “북한의 주민 일상에 대한 법적 통제: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범죄구정화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21(1): 115-149.

황후남, 2016. “로동당시대의 선경거리로 훌륭히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 조선건축 2016년 1호, p.5.

김영식, 주성하, 2011.02.15. “北, 수도 평양 면적 절반 줄였다”, 동아닷컴. https://www. donga.com/

노정민, 2020.08.06. “북 극빈층 밀집 ‘하모니카 주택’ 어떻길래?”, 자유아시아방송.

송영승, 1993. 08. 08. “평양 등 대도시 고층아파트 건설 한창”, 경향신문.

이재은, 2022. 06. 20. 데일리NK; 문순보, 2021. 03. 05. 데일리NK.

이제훈, 2019. 01. 27, “‘82층 아파트’ 북 여명거리 1년만에 완공…비결은 ‘돈주’”, 한겨레.

로동신문 1952년 5월 25일. “주택 표준설계 현상 모집 요강 발표”

로동신문 1958년 6월 6일. “김일성 광장 부근에 건설되고 있는 조립식 다층 주택”

로동신문 1958년 6월 22일. “평양 제4 건설 트레스트 브리가다원들은 통

방빠넬로 다층 주택을 건설한다”

로동신문 1975년 6월 12일. “끝없는 충성심 온 건설장에 차넘친다”

로동신문 1984년 6월 6일. “천리마거리 제2단계 살림집건설 빠른 속도로 진척 30여개 호동의 기초공사를 끝내고 부재조립 활발”

로동신문 1986년 5월 11일. “천리마거리 제2단계 살림집건설 빠른 속도로 진척 30여개 호동의 기초공사를 끝내고 부재조립 활발”

로동신문 1987년 6월 23일. “날을 따라 웅장하게 변모되는 천리마거리 제2계단 건설장”

로동신문 1987년 6월 23일. “당의 령도밑에 거창하고 웅장화려하게 일떠서는 광복거리”

로동신문 1987년 6월 23일. “독특한 우리 식의 새로운 거리로”

로동신문 1988년 4월 13일. “4월의 뜻깊은 명절을 맞으며 더욱 웅장화려하게 변모된 광복거리”

로동신문 1990년 7월 11일. “로동당시대의 창조물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광복거리 강대한 국력의 과시,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 대담하고 통이 큰 민족의 기질”

로동신문 1992년 3월 26일. “가장 편리하고 현대적으로”

로동신문 2014년 10월 17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5년 10월 21일. “위대한 당의 과학중시,인재중시사상과 사회주의조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웅장화려하게 솟아오른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였다”

로동신문 2017년 1월 26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7년 3월 19일. “그 어떤 힘으로도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적전진을 절대로 가로막지 못합니다. 김정은. 태양조선의 강대성을 알려면 우리의 려명거리를 보라!”

로동신문 2017년 4월 14일. “자력자강의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에서 쟁취한 자랑스러운 대승리, 전인민적인 대경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려명거리 준공식 성대히 진행”

Anatole Kopp저, 1993. 「소비에트건축: 1923-1937」, 건축운동연구회 역, 서울: 도서출판 발언.

Barker, Adele., Grant, Bruce. , 2010. *The Russia Reader: History, Culture, Politic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Bater, James H., 1980. The Soviet City: : ideal and reality, London : Arnold.

Blei, D. M., A. Y. Ng, and M.I. Jordan,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The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Boudon, Philippe., 1972. *Lived-in Architecture: Le Corbusier's Pessac revisited*, translated by Gerald Onn, Cambridge: MIT Press.

Christensen, Peter., 2008. 「MAISON DOM-INO」, Home Delivery: Fabricating the Modern Dwelling, 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2008

Clapham, David, 1995. “Privatisation and the East European Housing Model”, Urban Studies, 32:679-694.

Cosgrove, Denis & Daniels, Stephen, 1988. *The Iconography of landscape: Essays on the Symbolic Representation, Design*

and Use of Past Environments, ed Cosgrove, Denis & Daniels, Stephe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Cosgrove, Denis, 2000. *Iconography,* ed. Ron J. Johnston et al.

Daniels, 1989. Marxism, culture, and the duplicity of landscape, in *New Models in Geography: The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2,* Richard Peet and Nigel Thrift eds., Boston: Unwin Hyman.

Duncan, James S., 1990. *The City as Text: the Politics of Landscape Interpretation in the Kandyan Kind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Easton, David, 1953. *The Political system : an inquiry into the state of political science,* New York: Knopf.

Eberstadt, N. and Banister, J., 1992.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 of California, Berkeley.

El Lissitizky, 1984. *Russia: An Architecture for World Revolution*, Eric Dluchosch trans., Cambridge; The MIT Press.

Esping-Anderson, Gosta,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UK : Polity Press.

Fishman, Robert., 1982. *Urban Utopias in the Twentieth Century: Ebenezer Howard, Frank Lloyd Wright, and Le Corbusier*, Cambridge, Mass. : MIT Press

Foucault, Michel, 1982. "The Subject and Power.", trans. R. Hurley and Others, 2000, New York: The New Press.

Framptpon, Kenneth., 2002.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London: Thames and Hudson.

Gary Hausladen, 1984. "The Satellite City in Soviet Urban Housing",

Soviet Geography, 25(4): 243.

Giddens, Anthony, 1981.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Macmillan, London, 최병두 역, 1991. 「사적 유물론의 현대적 비판」, 서울: 나남.

Gropius, Walter., 1965. *The new architecture and the Bauhaus*, translated from the German by P. Morton Shand, with an introd. by Frank Pick., Cambridge, MIT Press.

Habermas, Jürgen. 1984. *The Theory of Communictive Action*, translated by Thomas McCarthy, Boston : Beacon Press.

Hall, Peter., 1988. *Cities of Tomorrow: an intellectual history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in the twentieth century*, Oxford, UK ; New York, NY, USA : Blackwell.

Harloe, Michael, 1995. *The people's home? : social rented housing in Europe & America,* Oxford, UK ; Cambridge, USA : Blackwell.

Hillery, George A,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1):111-123.

James Duncan, 1990. *The City as Text: The Politics of landscape Interpretation in Kandyan Kingdom*,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K. Paul Zygas, 1992. "OSA's 1927 Exhibition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Russia and the West Meet in Moscow," in Gail Harrison Roman and Virginia Hagelstein Marquardt(eds.) The Avant-Garde Frontier: Russia Meets the West, 1910 - 1930, Florida: University Press of Florida.

Katerina Gerasimova, 2002. *Public Privacy in the Soviet Communal Apartment*, Oxford; Berg.

Lefébvre, Henri, 1974. *La Production de l'espace*, Paris, Anthropos.

Lefebvre, Henri. 1961, *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vol. II., Paris, L'Arche.

Lefévbre, Henri, 1988. *La Production de l'espace*. 양영란 역, 2011, 「공간의 생산」, 서울: 에코 리브르.

Leonardo Benevolo, 1980. The History of the City, translated by Geoffrey Culverwell. Cambridge: MIT Press.

Leonardo Benevolo, 1996. 「근대도시계획의 기원과 유토피아」, 장성수·윤혜정 역, 서울: 태림문화사.

Marcuse, P., 1996. "Privatization and its Discontents : Property Rights in Land and Housing in the Transition in Eastern Europe", in Andrusz G., Harloe, M. and Szelenyi, I. (eds), Cities After Socialism, Oxford : Blackwell.

Matthews, Mervyn, 1981. *Social Dimensions in Soviet Urban Housing*, in French & Hamilton.

N. V. Baranov, 1969. P*lanning of Metropolitan Areas and New Towns*, United Nations, 1969.

Oxley, Michael and Smith. Jacqueline, 1996. *Housing Policy and Rented Housing in Europe,* London : E & Fn Spon.

Pennoyer, Peter., Walker, Anne., 2009. *The Architecture of Grosvenor Atterbury*, New York, London: 1st ed, W.W.Norton&Company Inc.

Plunz, Richard., 1990. *A history of housing in New York City: dwelling type and social change in the American metropol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Rainer Dormels, 2014. "북한의 공업지구에 관한 연구", 「건축」, 58(8):

34-42.

Renaud, Bertrand., 1995. “The Real Estate Economy and the Design of Russian Housing Reforms, Part I”, *Urban Studies*, 32(8): 1247-1264.

Rowe, Peter G., *Modernity and Housing*,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93,

Schein, Richard H., 1997. “The place of landscape: A conceptual framework for interpreting an American scene”.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7(4): 660-680.

Shin G. S. and Jung I. H., 2016. “Appropriating the socialist way of life: the emergence of mass housing in post-war North Korea”, *The Journal of Architecture*, 21(2): 159-180.

Silge, J. and Robinson, D., 2019. *R로 배우는 텍스트 마이닝: tidytext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방법*. 박진수 역, 파주: 제이펍.

Sillince, J.A.A.(ed.), 1990. Housing Policies in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London ; New York : Routledge.

Struyk, R., 1996. “Housing Privatization in the Former Soviet Bloc to 1995”, in Andrusz et al. (eds), Cities After Socialism, London : Blackwell.

Trotsky, Leon, 1973. *Problems of Everyday Life and Other Writings on Culture & Science*. New York: Monad Press, 1973.

White, Paul, 1980. “Urban Planning in Britain and the Soviet Un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wo Planning Systems”, Town Planning Review, 51(2): p. 211-226

Williams, Raymond, 1982. *The Sociology of Culture*, New York: Scbocken Books.

구글어스 https://earth.google.com/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국토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지도서비스 http://map.vworld.kr/map/maps.do

네이버 사전 https://ko.dict.naver.com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http://www. nktech. net/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자료실, http://www. nknet.org

북한통계포털 https://kosis.kr/bukhan/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2021

통계청 http://www.korstat.go.kr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https://www.unilaw.go.kr/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SPN서울평양뉴스 http:// www.spnews. co.kr/

Abstract

Formation Factors and Change Process of Communal Housing in North Korea

- Balance and Crack of Urban Planning Ideas of Modernism, Socialism, and Government -

Choi, Bommy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Urban Design

The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s confirmed that North Korea is the country that is physically closest but psychologically the most distant to us. This study can be said to have begun to narrow this mental distance. Based on similarities with South Korea, it i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city of an unfamiliar country through communal housing, which has

become a universal residence in North Korea. The majority of North Koreans, like South Koreans, live in communal housing. In particular, in the urban area of Pyongyang, 9 out of 10 people live in communal housing and 6 out of 10 people live in apartments. It is a higher figure than Seoul, and it is possible to estimate how overwhelming the ratio of apartment and communal housing is in the urban area of Pyongyang.

Therefore, North Korean communal housing is enough to be illuminated as a subject of research, but related research is lacking. Studies so far have revealed the limitations of analysis based only on the theory of socialist urban planning. In interpreting the formation and change of communal housing in North Korea, the theoretical framework was limited to socialist principles. Therefore, this study looked into communal housing in North Korea through a model combining the following three perspectives. 'Modernism urban planning' in the most general aspect, 'socialist urban planning' in the general aspect of socialist countries, although somewhat special to us, and 'government of urban planning' in the special situation of North Korea's three-generation hereditary dictatorship system are combined. It is an attempt at a more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of forming and change North Korean communal housing regarding the balance, imbalances and cracks of the forces of the three axes through the structured relationship of the components of each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modernism urban planning, major cities in North Korea experienced rapid urbanization after the Korean War until the 1970s. It was confirmed that this was related to the heavy industry priority policy. In the case of Pyongyang, even now, compared to other cities, the population growth is steep. It was confirmed that this was also the result of the light industry growth

policy that had been pursued since the 1970s. In order to respond to such rapid urbanization, after the Korean War, North Korea built a standard housing type of low-rise communal housing called 'Oirangsik (single corridor access)' based on the model of the Soviet Union and East Germany, and supplied a large amount of housing. After that, from the 1970s, communal housing in North Korea began to become high-rise. Since the late 1980s, it has been shown to be horizontally large in terms of the length of the block, building, and the width of the central road of the apartment complex.

In this way, it can be evaluated as a natural result of modernism urban planning that the distribution of communal housing mainly in high-rise apartments in order to resolve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due to restoration projects and industrial promotion in cities devastated after the war. Le Corbusier's style of modernism, aiming for functionally standardized housing, was the most suitable solution to the challenges demanded by North Korea in this era. This can also be seen as being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apartments in South Korea in response to rapid urbanization since the 1970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ist urban planning,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s communal housing plan is the grouping of everyday spaces to realize socialist life. North Korean communal living area was planned based on the concept of 'Soguyeok (micro district)', which was assumed as a spatial basic unit to organize the collective communal life of residents in socialist urban planning. Accordingly, from the late 1950s, the structure of housing + public facilities was formalized. Ideological and cultural facilities, distribution facilities, communal cooking facilities, and communal production facilities were established as public facilities. Along with this, 'Inminban' and 'Women's Union' were organized to manage

communal life. Official practices and networks have been formed and strengthened, and collectivist norms and values that residents must have, have been learned and promoted. Therefore, in North Korea under the planned economy, the physical environment of communal housing and service facilities was created, and the organizational system was established. The living space, collective practice, and the network of (re)produced relationships have repeatedly formed and developed.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planning of governance, the three regimes in North Korea have strengthened the rationality of governance by utilizing the construction of large-scale communal housing as a way to meet the immediate needs of the times. The Kim Il-sung regime put up the banner of constructing vast communal dwellings in order to restore urban functions that had been devastated by the Korean War. A large number of communal dwellings were quickly supplied through standardization of design and assembly of construction methods. This responded to the people's demand for housing and played a role in giving legitimacy to the fledgling Kim Il-sung regime.

On the other hand, the Kim Jong-il regime needed a strategy to highlight creativity and diversity, different from monotonous communal housing due to the quantitative demands of the previous period. Creating unique and new forms of communal housing and visually highlighting it became the most effective way to imprint him as a successor to the people and reveal his qualities as a ruler.

It can be seen as a natural development that the Kim Jong-un regime made the declaration of a 'civilized socialist country' to build and enjoy world-class civilization to the people struggling with economic difficulties. The leader's vision to turn the socialist country

into a civilized country throug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reates an ostentatious and splendid symbolic landscape and enhances the readability of government through the effect of large-scale communal housing construction that can transform the urban landscape.

Overall, from the perspective of weakening the balance and cracking, it can be said that communal housing in North Korea under the planned economy system has been balanced by shifting the center of power to modernist urban planning, governance urban planning, and socialist urban planning. However, the economic crisis of the 1990s markedly weakened the power of socialist urban planning and triggered a crack. As a result, communal housing faces significant practical, relational, and physical changes. The disintegration of the distribution system weakened the official practice and network of relations from the government, and brought a change that reduced public facilities that contained it.

On the contrary, the dynamics of the market mechanism have greatly increased. Private practice, which was thoroughly controlled under the planned economy system, sprung up spontaneously and led to great changes in formalizing the operation of the market. The network of private relationships tends to overwhelm the network of official relationships by embracing the network of communal relationships.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market economy system replacing the planned economy system and playing a role as a mediator of social networks. This implies that the role of the market space as an intermediary space for the network will increase if market transactions are further liberalized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government's obligation to supply housing is selectively fulfilled due to reduced capacity. The government's policy change to make up

for the reduced housing supply through the market is diversifying the subjects of housing supply. This shows that the center of power is being divided into the private market economy system.

In the future, it is confirmed that the population will continue to be concentrated in Pyongyang City as the capital and because of its symbolism beyond that. This will continue to supply large-scale and high-rise communal housing under the banner of the current regime's 'civilized socialist country'. Moreover, in a situation where the socialist system and the market economy system coexist, tower-type apartment housing with a small number of households on the same floor is preferred as a role of protecting private practice, and such a high-rise apartment housing policy is expected to gain more momentum. In the future, as the weakening of socialism continues, it is predicted that the power of urban planning of modernism, governance, and market economy will move toward a new balance point.

keywords : common housing in North Korea, modernism, socialism, rationality of governance, marketization

Student Number : 2016-30274